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6. 1.

1. 평가개요	1
2. 평가결과	4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5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97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정책개선 및 국정성과 창출 지원

- 국정과제와 성과관리시행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를 통한 4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문화융성'의 정책성과 창출 지원
- 모든 평가과제에 대해 정성평가를 병행, 문제점 도출 및 정책대안 제시로 정책개선에 활용

□ 자체평가 역량 및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 분과별 자체평가 현장점검(워크숍) 강화, 정책정보 상시 제공, 평가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신규 자체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의 평가역량 강화
- 분과별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등급 사전 강제배분 및 상대평가 방식 적용 및 결과 공개로 신뢰성 확보
-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계획 수립지침 및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등 정부업무평가 지침 규정 철저 준수

□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환류를 통한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책임행정에 기여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문화예술·문화콘텐츠산업·관광산업·체육·홍보 5개 분과위원회(분과위원 25명) 구성
 - * 행정관리역량(4명)은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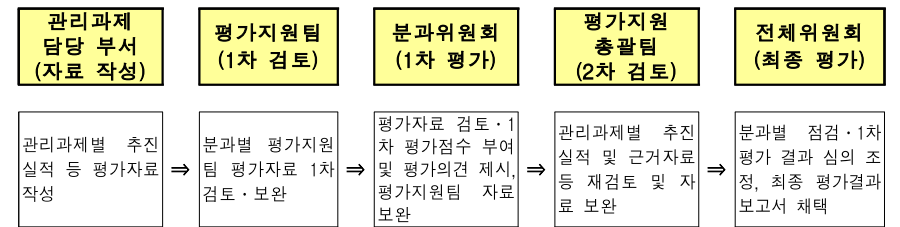
- 자체평가위원 직업군의 편중 지양, 다양한 정책의견 도출 유도
- 성과관리계획 심의·의결 및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2회)
- 분과별 현장 점검 실시(5회)를 통한 주요정책 현장 이해도 제고 및 자체평가 역량 강화

○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 각 분과별로 평가 지원을 위해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추진 실적 점검자료 작성·검토, 최종 평가자료 작성·검토 및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의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등 역할 부여
- 정부업무평가 총괄담당관을 중심으로 평가지원총괄팀을 구성하여 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추진 등 평가 지원 총괄

□ 평가방법

<자체평가 절차>



○ 평가 자료 작성 및 1차 검토

- 담당부서에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보고서 및 최종평가보고서 등 평가 기본 자료 작성 및 평가지원팀의 1차 자료 검토
- 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제시

○ 분과별 평가자료 검토 및 1차 평가

-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에서 분과위원의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지원팀의 자료 수정·보완
- 필요시 현장 점검 등 병행 실시, 분과위원의 과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정책자료 등 제공

-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 분과별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및 자료 수정·보완
- 전체위원회 최종 평가
 - 분과위원회의 1차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점수 확정
 - * 관리과제별 평점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관대화 여부 검토 및 과제별 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
 - 과제별로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 평가 강화
 - 평가결과는 상대등급화 추진으로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결과 공개시 등급기준으로 활용
-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전체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평가개요,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및 개인별 결과 반영계획 등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1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64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정책집행 (40)	추진일정의 충실성		○평가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환류 이행실적	자체평가결과 반영	○'14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 하였는지 여부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 정도
정책성과 (60)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정책효과성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평가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 기여 정도

* 정부3.0 일하는 방식(개방·공유·소통·협력) 반영 시 가점 부여(0~3점)

2. 평가결과

(1) 총 평

- 1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64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5개(7.8%), 우수 9개(14.1%), 다소우수 9개(14.1%), 보통 19개(29.6%), 다소 미흡 9개(14.1%), 미흡 10개(15.6%), 부진 3개 (4.7%)로 나타남
 - ※ 평가등급 사전 강제배분(상대평가)
 - 우수 이상 과제는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등 14개 과제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등 13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64개 관리과제의 12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 10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100%이상) 하였으며, 17개 성과지표는 90%이상을 달성하였음
 - 다만, 6개의 성과지표의 경우는 목표치 달성도가 90%미만을 기록하였음
 - 특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의 '역사박물관 관람객수(74%)', 및 스포츠 산업 기술기반조성 사업의 '결과물(시제품) 기술수준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수(78.1%)' 의 경우, 목표치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목표달성도가 지나치게 높은(150%이상)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는 목표설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16년도에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등 개 16개 과제는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 등 실적을 고려, 가점을 부여함

- 특히,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활성화'와 '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과제는 정부3.0 추진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2) 주요 성과

□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목적 다양화 및 세분화,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고품질 지식정보 서비스 요구 증대에 맞춘 디지털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제공 확대

(소장DB 구축) ('14년) 12,112책 → ('15년) 40,076책(331%증가)

(디지털콘텐츠 활용) ('14년)93,527건→('15년)102,402건(목표차98,100건)

(디지털콘텐츠 민간 개방 제공) 소장원문 및 콘텐츠 민간포털(네이버/다음)(2,903종), 소장원문 디지털화자료 협약도서관(1,749개관 30만책), 소장 원문 이미지 민간 및 공공기관(28개관 337건), 국가서지 Linked Open Data(1,121만건)

-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장벽 없는 지식정보사회 및 문화 복지 구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시각장애인 대학 전공 교재(535건), 시각장애인 테이저자료(714건), 청각장애 수화영상도서 및 자막영상자료(539건)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참여) ('14년)822개관 45만건→('15년)842개관 50만건 (대체자료 이용률 증가) ('14년)102,431건 → ('15년)103,539건

□ '국민 문화복지 증진'

-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문화나눔 사업) ('14년) 920억원, 279만명 → ('15년) 1,356억, 491만명

(소외계층 지원) 기초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1,378,147명),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기획사업 추진 (138,853명, ~16.2월),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사랑티켓 지원 (1,538개 공연, 229,310명 관람)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교정시설 (3,000회 공연, 640,000명 관람), 지방문예회관 운영활성화 및 지역민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313개 기관, 454,006명 관람), 지역별 생활 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27개 단체, 40,212명 수혜)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14.11.29 시행)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및 주간행사(5.21~27) 개최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무지개다리사업 등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실천에 기여

(다양한 문화주체 간 문화소통 및 교류 기회 확대)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한 문화적 주체로서 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 소수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자존감 회복 도모, 지역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23개 지역, 186여개 프로그램 운영, 108,839명 참여)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 운영 및 커리큘럼 개발 확대) 문화다양성 교육 지침서 개발 및 전문 인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최('15.5.21~27, 약 6,000여명 참여)

* 슬로건 : '달라서 아름답다. 달라야 건강하다. 차이(差異)를 즐기자! 문화공감!!!'

□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체계 마련'

- (창작안전망 확대)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300만원) 지원(2,500명), 기관·기업 등 예술인 파견지원사업(455명) 등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 5,846명이 예술인복지사업의 수혜로 창작을 계속 (전년대비 23% 증가)

- (현장형 정책 추진)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금액 현실화(월 지원금 최대 29,850원으로 4.3배 증액), 공연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운영 (대학로/이용자 만족도 90%),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전국 21개소)

- (불공정관행 개선) 문화예술 용역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15.7월 신성범 의원), 불공정행위 신고·조정·소송 지원을 위한 예술인신문고 운영 ('15년 25건 해결)

□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 (대관료지원사업) 연극, 무용, 음악, 전통장르의 총 479개 단체 (15. 11월 기준) 대관료 지원, 동숭아트센터(3개관), 아트원시어터(3개관) 등 공연장 임대 후 저렴한 대관료로 장기임대 제공
-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신규 공연예술연습공간 3개소 조성(인천, 부천, 전주), '14년 조성 완료된 5개 공간 운영 지원(9월 기준 총 62,034명 대관)

□ '시각예술 및 디자인 문화 진흥'

- (미술진흥기반구축)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전작도록 6건, 감정연구 4건 등), 작가 미술장터(110개소), 작은 미술관 조성(6개소), 미술주간 개최, 사립미술관문화교육프로그램(43개소) 추진
- (공공디자인 진흥) 소외공간 문화공간조성(14개소), '2015 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22개국 91개 팀), 2015 국제디자인총회 개최(30개국 2,000여명 참여), 201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시상(대상2, 최우수 우수 8)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기획전, 전시, 공연 프로그램운영으로 연 18만 여명 관람, 문화역서울 284 내 편의시설 조성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폐산업시설, 도시유희시설 등 복합문화공간 및 창작공간으로 재조성(제주대종합병원, 파주미군반환 공여지, 부천 조각장 등)
- (건축문화진흥)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최

□ '문화예술교육 지원'

- (소외계층)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58개 시설, 77개 프로그램, 약 790명), 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운영('14년 43개교 → '15년 47개교), 전국 33개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교육지원(아동 2,112명/강사 383명)
- (학교·사회) 전국 8,216개교에 국악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 4,916명 파견(3월-12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학생 수('14년 255만명 → '15년 266만명), 학교·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3,457명)

□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정착 기반 조성
 -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 및 융합센터 개소식('15.2.11)을 통해, 한국 최초 '콘텐츠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루어지는 문화산업 생태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 문화창조융합센터 3.2만명 이상 방문, 35건의 융복합 콘텐츠 기획
 - (문화창조벤처단지) 벤처단지 완공('15.12.29 개소) 및 벤처 및 중소기업 입주(93개 기업) 완료
 - (아카데미) 크리에이터 45명, 교수진 26명 모집완료, 벤처단지내 임시개관(16.3 예정)
 - (콘텐츠구현 플랫폼 조성) 문화콘텐츠 소비, 구현을 위한 거점으로 K-Culture Valley(17. 고양), K-Experience(17. 종로), K-POP 아레나 공연장(17. 송파) 완공 목표로 추진 중
-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지속가능한 창작과 창업 생태계 환경 조성
 -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지원(창업발전소 18개), 글로벌 쇼케이스 스타트업 참가 지원(5개),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집중지원 과정 1-5기 선발 및 지원(279명), 역사·문화 창작소재 통합 포털 <컬처링> 서비스 구축, 운영 7개 기관, 140만여 건 콘텐츠 제공
 - (콘텐츠코리아랩 설립)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선정(15.2, 전북, 경북), 콘텐츠코리아 랩 개소(대구, 15.2), (전북, 15.8), (인천, 15.11)

□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개최 등 메르스 적기대응을 통한 조기 극복, 단체관광 품질관리 제고를 통한 저가관광 개선,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을 통한 한국 문화 및 관광 인식 개선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
-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 방안'(6.5) 마련 등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4분기에 364만명 유치 전망(전년 대비 3.4% 증가)되어 4분기 역대 최대 외래객수 달성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육성**

- 탐방로 관광자원을 활용한 걷기여행길 관리·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관광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
- 관광두레센터 및 지역별 관광두레 PD를 중심으로 주민사업체 발굴, 관광사업 컨설팅·교육·과일릿 사업 등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하여 **‘관광두레’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육성에 기여**

□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등 스포츠 참여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성과지표를 구성, 모두 목표치 이상을 달성함.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국민체력 인증제의 성공적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체육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 스포츠산업체 직접 지원(용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 스포츠산업체 제품인증 지원(연간 인증 건 수), 해외진출 지원(해외전시회 참가업체 평균 상담액) 등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추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3개 지표를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음.
-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 등 스포츠산업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15.12.7)하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확대 등의 추진으로 스포츠 산업 펀드 신규조성, 용자증액 등 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14년 195억원 → ‘15년 633억원 → ‘16년 예산 1,026억원, 62.1% 증액)됨에 따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완전히 구축됨

(3)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 외부적 환경변화 및 자체 시설개선 사업에 따라 성과목표 미달성
 - 국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 야간 이용자 수(97% 달성) 목표치 미달성 * 목표 : 394,000명, 이용자 수 : 383,906명
 - 비록 외생변수(메르스)와 자체 시설개선 사업(국립중앙도서관 창호공사 <7.27~12.20>)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다른 문화기관도 동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립문화시설 야간 이용자 수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운영’**

- 개관 일정에 따른 고객 만족도 조사 대상 축소
 -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3,000명으로 계획되었으나 조사 비용대비 신뢰도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조사규모 판단 및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1,040명으로 축소하여 실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이 2015년도 하반기(2015. 11. 25.)여서 조사 표본수가 줄었지만, 만족도 점수는 목표 점수를 상회하였음. 다만, 측정대상 3,000명을 1,040명으로 과도하게 축소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음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 서울관의 개관(‘13.11)으로 3관 3색 특화된 전시운영을 통해 문화 예술 창의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주요 성과지표인 ‘미술관 관람객’ 목표치를 과거 실적 대비 5% 상향 조정한데 비해 중동호흡기질환 발생(‘15.5) 등으로 관람객 급감
 - 문화소외계층 대상 전시관람 기회 제공 및 교육적 활용 확대, 공·사립미술관 무상 대여 추진을 통한 전시연계 활용 확대 등 관람객 유도를 위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 필요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학사행정 체계 구축과 예술영재 발굴·육성을 통해 예술교육 확장에 기여하였으나,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착공 지연, 국제대회 입상률 달성이 미흡한 수준
 -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연 등 외생변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착공 지연, '14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 중 전국규모의 국내대회와 국제대회 수상 실적 평가 병행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 '12년 문체부로 이관된 이후 예술 현장과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예술맞춤형 교육 기관으로 육성중이나, 안전한 교육 시설 환경 조성 및 정책효과가 아직 미흡한 수준
 - 2011년 실시한 학교 건축물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인문관(예술관)과 기숙사 일부 보 및 기둥의 내력이 부족하여 구조보강과 적극적인 정책효과성을 위한 대안 필요

□ 관광레저도시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민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위한 **미래 관광 트렌드를 반영, 다양한 콘텐츠 발굴 필요**
 - 특구개발을 통한 올림픽 개최지 관광기간 구축
 - 사업을 단년도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 연차별 추진목표를 설정 필요**

□ 학생스포츠 참여 제고

-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부진)' 과제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방비 확보 부족으로 당초 계획(3,000명) 보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실적(2,408명)이 저조하였으며, 정규수업 과정에 우리부가 정책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향후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스포츠산업기술기반 조성(R&D)

- 연초에 R&D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논문 및 특허중심에서 사업화 및 상용화 중심 등 개선안을 마련 추진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결과물(시제품)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수' 및 '기술이전 건수'가 각각 당초 계획(70점/1.06건)보다 저조(54.7점/0.95건)하게 나타남
 - 향후에는 개선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스포츠 특허 및 기술개발 위주에서, 스포츠산업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과제를 선택·집중하여 사업성과 극대화하고, 상시 기술수요조사 및 상향식(Top-Down)-하향식(Bottom-Up) 과제기획 병행, 사전 기획연구 강화로 시장 수요 기반의 국제성 과제 적극 발굴할 필요 있음

□ KTV 시청률 제고를 위한 대표 '킬러 콘텐츠' 프로그램 마련

- 시청자가 찾아보는 '킬러 콘텐츠' 를 제작, 수요자 중심의 타겟별 선호 매체(지하철, 버스, 온라인 광고 등) 활용 광고 추진

(4) 평가결과 종합

순번	관리과제명	평가등급	비고
1	국민문화복지 증진	우수	
2	인문정신문화 진흥	다소우수	
3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다소미흡	
4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미흡	
5	지역·전통문화 활성화	보통	
6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다소우수	
7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보통	
8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다소미흡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다소미흡	
10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우수	
11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보통	
12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보통	
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운영	미흡	
14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보통	
15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다소우수	
16	해외한국문화홍보 강화	보통	
17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우수	
18	공연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강화	매우우수	
19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매우우수	
20	국립중앙극장 운영	다소우수	
21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미흡	
22	문화예술교육 지원	우수	
2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미흡	
24	국립국악중고 운영	다소미흡	
25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부진	
26	국악방송 활성화	보통	
27	국립국악원 운영	보통	
28	콘텐츠 금융 활성화	다소우수	
29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다소미흡	
30	현장형, 융합형 인재 양성	미흡	
31	콘텐츠 창업·창작생태계 조성	매우우수	
32	음악산업 육성	보통	
33	영화산업 육성	다소우수	
34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	미흡	
35	게임산업 육성	보통	

순번	관리과제명	평가등급	비고
36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다소미흡	
37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보통	
38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우수	
39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우수	
40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보통	
41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부진	
42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다소우수	
43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보통	
44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육성	우수	
45	지역관광자원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보통	
46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다소미흡	
47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매우우수	
48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보통	
49	관광레저 개발육성	미흡	
50	특구개발을 통한 올림픽 개최지 관광기반 구축	미흡	
51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매우우수	
52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보통	
53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부진	
54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보통	
55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보통	
56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우수	
57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미흡	
58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다소미흡	
59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다소우수	
60	부처 홍보 역량 강화	우수	
61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보통	
62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다소미흡	
63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및 온라인 소통 확대	다소우수	
64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미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국민문화복지 증진	우수
---	-----------	----

□ 총평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기회 불균형을 해소
- '문화융성'을 통해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실현
- 지역 내 소수문화의 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주체 간 문화예술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실천에 기여

□ 주요 성과

- 문화나눔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으로 2009년도 174만 명에서 2015년 417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2015년 문화나눔사업 사업별 수혜인원>

(단위: 명)

사업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통합문화이용권	1,850,000	1,517,000	82.0%
소외계층문화순회	2,236,258	1,927,597	86.2%
방방곡곡 문화공감	454,006	454,006	100.0%
사랑티켓	324,324	229,310	70.7%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42,185	40,212	95.3%
총계	4,906,773	4,168,125	84.9%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중 '문화더누리(기획사업)'사업기간은 '15. 9월~'16. 2월 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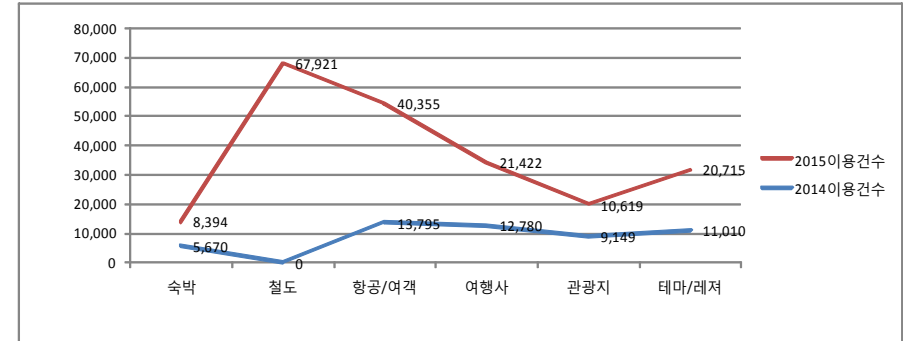
(문화나눔 사업 확대)

- 문화나눔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혜자 확대
(‘14년) 920억원, 279만명 → (‘15년) 1,356억, 491만명(* '15. 12월 예상 실적)

(통합문화이용권)

- '민간 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정부-민간 연계형 서비스 확대)
- 여행분야 민간업체 협력을 통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혜택 확대로 관광분야 이용률 전년 대비 상승
- * 봄·가을맞이 관광상품 발굴, 관광 분야 이용률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상승

2014년도			2015년도		
이용건수	이용금액	총이용금액 대비 이용률	이용건수	이용금액	총이용금액 대비 이용률
52,404건	1,123백만원	6.4%	387,449건	5,315백만원	10.6%



- 스포츠 강좌 중복 수급 방안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 방지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중복수혜 방지를 통한 650명 복지예산 절감

(소외계층 지원)

- 메르스 사태로 인한 민생안생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 150억원 투입(9월)으로 수혜대상자 155만명에서 185만명으로 확대
- * 카드 발급률 88.6%, 카드 이용률 : 80.91%(‘15.12.31일 현재)

수혜목표	카드별		계층별		수혜자수 (a+b)
	개인(a)	시설(b)	기초	차상위	
185,000	1,329,561	48,586	835,745	542,402	1,378,147

-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사랑티켓 지원 : 1,538개 공연, 229,310명 관람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교정시설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3,000회 공연, 640,000명 관람
- 지방문예회관 운영활성화 및 지역민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 318개 기관, 480건 추진, 454,006명 관람
- 지역별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27개 단체, 40,212명 수혜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14.11.29 시행)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및 주간행사(5.21~27) 개최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무지개다리사업 등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실천에 기여

(다양한 문화주체 간 문화소통 및 교류 기회 확대)

-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한 문화적 주체로서 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 소수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자존감 회복 도모, 지역내 문화 예술 네트워크 구축(23개 지역, 148여개 프로그램 운영, 42,170명 참여)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 운영 및 커리큘럼 개발 확대)

- 문화다양성 교육 지침서 개발 및 전문 인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최('15.5.21~27, 약 6,000여명 참여)

* 슬로건 : ‘달라서 아름답다. 달라야 건강하다. 차이(差異)를 즐기자! 문화공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조치 필요
 - ‘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맞춤형 급여체계) 따라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됨.
 - * 수혜대상자 : ('15년) 242만명 → ('16년) 251만명
 - * 사업예산 : ('15년) 95,614백만원 → ('16년) 77,500백만원
- 자발적으로 카드발급이 어려운 대상자(고령층, 격오지 지역 거주자, 장애인 등) 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가맹점 발굴 등 서비스 확대 필요
- ‘사랑티켓’사업 카드할인,문화누리카드등 티켓할인 및 보조 사업 증가로 티켓구매자 감소
 - * '14년 1,251백만원→ '15년 1,278백만원(증 27백만원)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상반기 메르스 사태에 따라 공연예술행사 일정이 대거 하반기로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지역 문예회관 지원 사업 등 사업계획 일정에 따른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조치계획

- 격오지 지역 및 노약자,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의 편의제고를 위한 가맹점 확대 및 발굴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화
- 2016년 ‘사랑티켓’사업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을 제고를 위한 사업 개편, 이용자편의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개발
-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민간 및 국립 우수공연프로그램 유통, 지역문예회관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발굴, 비활성화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 등 사업 확대 및 적극 추진 하여 문화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계획-집행-성과-환류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 이행도 높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상반기 기획사업 추진 저조, 하반기 집중 추진 등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저조에 대한 자체평가 지적을 반영, 여름방학, 관광주간 등 국내 대규모행사 연계한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이용 실적 거양 (관광분야 이용률 39만 건)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문화누리카드 관련 현장 접점인 주민센터 현장 점검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가맹점 확대(온천, 시외버스 등 3개 장르 5개 분야) ·순회사업, 방방곡곡, 생활문화공동체 사업별 워크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성과지표‘문화나눔 사업 참가자 만족도’는 목표치(84.5)대비 84.5점을 받아 100.9% 성공적 달성 ·성과지표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참여자 만족도’는 목표치(87)대비 86점을 받아 98.9% 달성
	2-2. 정책 효과성	(충실)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확대 및 문화나눔 사업 참여자들의 공연관람 회수 증대, 여가만족도 제고,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 효과거양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정부3.0 ; 문화누리카드 서비스 개선

2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다소우수

□ 총평

- 인문정신문화 관련 민·관 협업 및 법률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
-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병리현상 해소와 신뢰 저하에 대한 처방으로 인문정신문화가치 지속 확산 및 문화융성 체감도 제고
- 지역소재 전통 인문자산의 발굴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전통 인문 자산의 가치 확산 및 프리미엄 창출
- 국민독서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확산

□ 주요 성과

- 민·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
-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민간전문가 중심) 및 관련 인문기관 합동으로 인문정신 권역마당(9~10월/5회) 및 종합마당(10.28) 개최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지역	인 천	논 산	전 주	칠곡	삼 척
권역 주제	소통과 조화 :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소통과 성장 : 인문정신, 충청의 미래를 열다	소통과 공존 : 함께 하는 삶, 우리	소통과 희망 : 삶과 마을을 바꾸는 인문정신	소통과 나눔 : 인문정신, 강원도를 사유하다
일시	'15.9.23(수)	'15. 9.24(목)	'15.10.1(목)	'15.10.6(화)	'15.10.8(목)
장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논산남부 평생학습관	전주우진 문화공간	칠곡교육 문화회관	강원대 삼척캠퍼스
지역 방송	NIB 남인천방송	TJB/대전 KBS/MBC	전주 MBC JTV	-	강릉 MBC
참석	15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 문체부·교육부·외교부 등 관계기관간 협의체 운영(3개)*을 통해 장기적 협업기반을 만들고, 국민체감형 사업 발굴·추진
- * 문화유전자 확산, 전통창작소재 공동제공, 전통문화 박물관 협의체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법안(문체부·교육부 공동 소관, 가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법) 마련,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12.7)
- * 학술로서 인문학과 문화적 가치로서 인문정신을 균형적으로 반영, 공청회 개최(3.2) 완료

- 실천적 인문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시행
 - 인생경험을 매개로 한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 '인생나눔교실' 운영
 - 은퇴자 및 문화예술인 등 250명을 멘토로 선발·교육, 보호관찰소, 지역아동센터 등 268개 소외계층 멘티그룹 대상 멘토링 진행 (7.30~ , 2,000여회)
 - * 유명인사로 구성된 명예멘토단(19명) 위촉, 나눔과 배려의 가치 전파(11회)
 - 인문학적 성찰을 주제로 음악, 공예, 미술 등 다양한 예술장르와 결합하여 인문정신을 체감하는 '인문예술캠프' 개최(총 12회)
 - 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족(4회, 8~9월), 사회관·가치관 형성기의 청년층(4회, 10~11월), 선비정신(4회) 등
 - * 인문-예술 융합 프로그램 30여종 개발,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한 민간 보급(12월)
 -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및 실천 사례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생활 인문학으로 유도하는 '인문360°' 서비스 개시(12월)
- 지역의 인적·물적 인문정신문화 자원을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의 확대실시를 통해 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융성 체감도 제고
 -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인문학 주제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280개관/2,716회/86,681명) 기획·운영(4월~10월)
 - 공중파 등 협력,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홍보 및 확산
 - * 도서관 인문학 포럼(10.22) 개최 및 KBS 생방송 아침(3회), SBS 모닝와이드(5회), '길 위의 인문학 영상콘텐츠(100편)' 제작, 네이버·유튜브 등으로 보급
 - 전국 공·사립박물관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전시 관람 및 강의·체험프로그램(121개관/총 5,671회 운영, 170,258명) 기획·운영(프로그램 운영 3월~11월)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속적 추진(1,988명 파견 활동, 652명 신규 양성)으로 여성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 및 민족문화 전승기반 조성(유아교육기관 5,708개소, 약 36만여 유아 수혜)

- 전통 인문자산의 발굴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전통가치 확산
 - 지역 국학자료 43만점 수집, 고전국역자 양성(연 59명), 유교책판 64,226점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10.10)
 - 민간소장 국학자료(고문서, 고도서 등) 22,188점 수집(누적 43만7천점), 전국 주요 470개 종가 조사 등 지역문화 원천 발굴·공유
 - 기록문화유산 등 창작소재(스토리테마파크) 연 612건 DB 구축
 - 한문교육원 내 전문과정 신설, 한국학 진흥 기반 조성
 - * '15년 연구과정 신설(5명 입학) - 연수과정 3년 후 전문과정 개설
- 국민독서운동 지속 추진을 통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조성
 - 18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책꾸러미 지원(10만명), 찾아가는 어린이 독서활동(12.5만명), 어르신용 대활자본 보급(7,300권),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서관, 문화원 등 지역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인문학 주제별 연속 심화 강좌인 「인문독서아카데미」 확대 운영(60개관, 총 1,200회)
 - 9월 독서의 달 '대한민국 독서대제전' 개최(15.9.18~20, 인천, 4만명 방문)
 - 독서동아리 결성 지원(200개) 및 독서경영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20개)
 - 언론사·방송사 등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독서 캠페인* 추진
 - *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SBS 30회, 8.31~10.13), 독서문화진흥사업 홍보 (EBS·MBC 라디오 1,600여회)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민간의 인문콘텐츠(방송, 서적 등)는 다양하게 생산 중이나, 정부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과의 연계 부족, 국민적 붐 조성 미흡
 -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의 소규모·분산형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전국민 대상 인문프로그램 기획 필요
- 기존 인문프로그램의 활발한 참여자는 주부·어르신·청소년 위주로, 직장인·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필요

□ 조치계획

- 인문재단 및 방송사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인문분 조성
- 직장인·대학생·청년실업자에게 맞춤형 성찰과 체험 기회 제공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총실)	· 체계적인 추진계획 설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총실)	· '14년 자체평가 및 '15년 중간점검 등에서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수혜자, 민간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 및 수렴을 통해 현장의견 정책 반영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총실)	·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목표대비 124% 달성, 인문정신문화협의체 운영 건수는 100%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나눔과 배려의 가치에 대한 대한 관심 제고 및 지역 문화기반 프로그램으로 문화융성 체감도 상승

* (정부3.0) • 이야기할머니, 인생나눔교실 등 고령자, 은퇴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아동, 보호관찰소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교육을 통해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로 세대이웃가족 소통

3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다소미흡

□ 총평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등을 통하여 정보의 획득 및 이용이 취약한 농산어촌,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 계층에게 도서관문화서비스를 제공
- 책이음, 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수준 향상

□ 주요 성과

- 13개시·도 32개관 문화 소외 지역 작은도서관 조성('15년)
 - ※ '04년부터 ~ '15년까지 588개소 조성
 - 작은도서관은 거리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공간, 마을 단위의 지역 공동체 문화형성의 장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 수행
 - 국고 및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추진, 지역간 균형 및 사업 추진의 안정화 도모
- 운영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사서 지원
 - 공공도서관 80개관에 순회사서 1명씩을 배치, 관내 작은도서관 339개소 운영 지원
- 책이음 서비스 참여 도서관 확대(10개지역 395개관, 151만명) 및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3개지역)

< 책이음 서비스 추진현황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예 산	3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참여도서관	121개관	295개관	395개관	535개관
회원수	97만명	129만명	151만명	180만명

< 책이음 카드 >



- 다문화 자료실 조성(3개관), 다문화 프로그램(125개관) 지원
- 도서관 빅데이터 실시간 수집/보존 저장소 구축(278개관 참여) 및 시범 서비스 개발 등으로 데이터 기반의 도서관3.0 구현
- 수집 데이터 규모(15. 12월): 장서 33백만건, 회원 10백만건, 대출 423백만건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서관 양적 성장에 비해 서비스 기반(인력,예산)이 부족
-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도서관(공공,작은)에 대한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한 지원이 필요
-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 대한 홍보와 활용을 위한 전문교육 필요

□ 조치계획

- 대국민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여건 개선 등으로 운영 활성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체계적인 추진계획 설정에 따라 추진실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성과지표인 도서관 핵심기술 SCI논문 발표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도서관평가·통계 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요구 충족 및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방안 모색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전반적으로 성과목표를 92%이상 달성하였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하고 설립된 부실 사립 작은도서관 증가로 도서대출율이 목표치에 미달함
	2-2. 정책 효과성	(보통)	○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하여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

4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미흡
----------	---------------------------	-----------

□ 총평

- 문화콘텐츠의 보고이자 생산주체인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대중화로 국민 문화향수권 증진에 기여(참여인원 764,412명)
- 초·중·고 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응하는 박물관 교육을 운영하여 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 활성화
- 전문인력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297명)
- 국립 문화시설의 야간 이용 활성화로 문화시설 접근성·이용성 제고(야간 이용자수 383,906명)

□ 주요 성과

-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가 764,412명으로 목표 대비 111% 달성
 - * 117개관에서 총 764,412명(11월 31일 기준)의 교육 수혜자 발생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686,000	764,412	111

- 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및 활용의 전문성 제고
 - 학예인력이 지원된 116개 박물관에서 315건의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 박물관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 확대
 - 등록 사립·대학박물관에 학예인력 142명(중도포기 26명 포함)· 교육인력 155명(중도포기 38명 포함) 채용

○ 국립문화시설 야간 이용 활성화

- 국립문화시설(국립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 이용자 수가 총 383,906명으로 목표 대비 97.4% 달성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야간 이용자수	394,000	383,906	97.4%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사업 성과목표 미달성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국립중앙도서관 자체 시설개선 사업(창호공사<7.27~12.20>)으로 인해 야간 이용자 수(97.4% 달성) 목표치 미달성

○ 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필요

- 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수혜 대상이 제한적

□ 조치계획

- 국립문화시설 야간 이용자 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홍보 강화, 차별화된 야간 프로그램 개발 등 이용자수 확대 방안 마련
- 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홍보 다각화
 - 지자체,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역 아동센터 대상 홍보
 - 언론홍보
 - 홈페이지 연계 홍보(교육청, 박물관 홈페이지 게시판 링크)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분기별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사업 수행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확대를 위해 협회,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상호협조 체제 구축. *지적사항 :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관련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총3회)·심사위원회(총3회)·평가위원회(총4회)를 개최하고, 정보 공유 및 업무 효율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전문인력 전용 커뮤니티 운영. 사업 종료 시점(12월 중) 참여관 박물관장과 전문인력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진행시 반영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 지원사업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111% 달성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교육프로그램 참여 취소 사태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혜인원 초과 달성 · 국립문화시설 야간 이용자수(97.4% 달성) 목표치 미달성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립중앙도서관 창호공사로 인한 휴관 일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목표인원 미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활성화로 국민 문화향수권 증진 · 사립박물관의 운영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국립 문화시설의 야간 이용 활성화로 문화시설 접근성·이용성 제고

□ 총평

-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역사·전통문화도시 및 문화특화 지역 조성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 기반 구축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13년 2,182개소, '14년 2,375개소, '15년 2,519개소 등 매년 평균 5% 증가) 지역 생활문화 확산의 거점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령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역 주도의 문화의 달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 문화 역량 강화
- **한복의 대중화·세계화 및 한지의 현대적 활용 및 해외 수요 발굴,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발굴·확산 및 전통문화융복합상품 개발 등 전통문화 대중화·세계화 및 활성화 확대**

□ 주요 성과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지역문화 진흥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한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자체를 고유 브랜드화 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경주역사문화도시(신라탐방길 및 전통화원 조성, 영지설화공원 조성, 안압지 정비 및 활용 등 5개 사업), 전주전통문화도시(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 슬로시티 기반구축 등 4개 사업),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백제역사문화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왕로 2단계 정비 등 3개 사업)

-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역별 특화된 문화도시 7개소 및 문화마을 13개소 조성 지원
-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
 - 지역문화재단 자체 기획사업 지원 및 지역문화재단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주체인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 * 구로, 수성, 담양, 단양, 의정부, 청도, 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7개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지역 거점별 양성기관을 지정(광주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대전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북대학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심화과정, 현장실습, 리더양성과정) 실시
 - * 지역운영기관별 약 30~50여명 총 220여명 교육 실시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지역 소재 대학 및 문화재단,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 등 지역현안에 대한 컨설팅 실시, 민-관-학의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제고
 - * '15년 10개 시도 13개 과제 수행
- 지역문화 거점공간인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마련
 - * 공공도서관(43개관, 46,041백만원), 공립박물관(10개관, 9,060백만원), 공립미술관(8개관, 9,868백만원), 문예회관(16개관, 14,992백만원), 지방문화원(9개관, 8,182백만원)
- 지역주민의 일상 속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 확대 기반 마련 및 세대 맞춤형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생활문화센터 조성)**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적·자발적 문화예술 활동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개소 수 : ('14년)35개소→('15년)36개소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 고령층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
 -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 ('14년)13,366명→('15년)14,000여명

-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 원로예술인 공연단 구성 및 출연 지원을 통해 원로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 연극, 전통, 음악, 복합장르 등 분야별 통 32개 단체 공연 활동 지원(330여명 원로예술인 참여 지원)
- 문화의 달 행사 추진을 통해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민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
 - 조선통신사 한일 우정건기, 찰방마을 미술프로젝트, 찾아가는 전별연 등 사전행사(3월~10월) 및 문화의 달 기념식(10.17, 영천시) 개최
 - 문화의 달 웹사이트, 전국행사 인포그래픽 제작 등을 통해 타 부처 및 전국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1,068개(문체부 345, 타 부처 3, 지자체 720)의 10월 문화예술행사 총괄 홍보
- 한복문화의 국내외 확산
 - 한복의 날 기념식 및 패션쇼(10.21/경북공/2천여명), 찾아가는 한복 교육(50개교), 광복 70주년 한복특별전(9.15~11.1) 등 대중화 확산
 - 밀라노엑스포 한복패션쇼(6.22~23), 프랑스 장식미술관 한복전시(15.9.18~12.31), 해외문화원(10~12월/필리핀, 벨기에, 북경) 홍보 등 한복 세계화
- 한지의 현대적 활용 확대 및 해외수요 발굴
 - Material ConneXion(세계적 소재 전문기업)내 총 13종 한지 등록으로 글로벌 기업 대상 소재 홍보, 한지경연대회 계기 상품 개발
 - 한지 세계화 전략, 뉴욕 세미나 개최(10.9) 및 독일페이퍼박람회 참가(16.1.30)
-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확산 및 전통문화융복합 자원 발굴
 - 한국적 공간 조성(2개소), 세시풍속 보존 및 축제화 마을 지원(10개소), 전통문화융복합상품 개발 교육·마케팅 지원(20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공모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포럼, 자문회의 개최 등에 따라 추진일정 일부 지연

□ 조치계획

- 향후 추진계획 수립 시, 토론회 및 포럼,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추진계획 대비 전체 일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다소 지연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타 계획(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연계추진과 토론회, 지역순회 포럼 개최 등 지역문화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2분기→3분기)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공모 계획 수립을 위해 공모 및 선정 일정 다소 지연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14년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충실히 이행함 -문예회관의 리모델링과 부대 문화환경시설 건립 제안→현재, 지특회계로 리모델링 지원중 ○‘15년도 별도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포럼, 워크숍, 사업설명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민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반영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제고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목표(88.1점) 대비 실적(88.1점) 100% 달성 ○‘한복생활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사업기간 종료(‘16.2월) 이후인 ‘16.3월 실적 도출예정이나, 목표(74점) 달성 가능 *프로그램 참여도 및 참가자 반응 등 감안 ○해당 과제의 목표달성은 물론 지역전통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생활속 문화기반 조성이라는 상위 목표의 달성에도 기여함
	2-2. 정책 효과성	(보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종합적·체계적 지역문화 진흥 정책추진 기반 마련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화된 발전 유도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지역 문화재단 역량강화, 문화의달행사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 ○ 한복, 한지, 한국적 공간 등 전통문화자원의 육성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세계화 확산 도모

6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다소우수
----------	--------------------------	-------------

□ **총평**

- 세종학당의 단계적 확대 및 운영 내실화로 한국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한글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글의 가치 확산을 도모함.
- 민(국어문화원)·관(국어책임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언어문화개선 활동을 증대하고, 국어문화진흥 기반을 확대함.

□ **주요 성과**

- 세종학당의 전략적·단계적 확대를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
 - 세종학당의 단계적 확대 운영('14년 130개소→'15년 138개소) 및 공공기관 협업(한국정보화진흥원 예정)을 통한 전략적 지정 확대
 -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39명→50명), 교원 재교육 지원 및 표준교재 보급 확대(3.6만여부 판매/저소득 국가 학당 등 대상 745부 지원), 문화교재 개발 등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강화
 - 세종학당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 인턴 파견(15개국 15명), 우수 학습자 초청 문화연수(46개국 148명)를 통한 한국문화 보급 확대 및 상호 문화교류 확산
 - 한국어 교육의 전문화·표준화 등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8월), 지역별 워크숍 개최(11월) 등을 통해 학당 간 정보공유 및 한국어 교육 종사자들 간 협력망 구축
 -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edang.org) 운영을 통한 다양한 한국어교육 정보·콘텐츠 제공으로 맞춤형 한국어 학습 기회 제공
 - 전국 국어문화원 등을 통한 일반 국민 참여 제고
 - 한글주간 국민 참여형 문화행사 개최(전국 시도별)
 - 국어문화원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따른 지원 실시(2~3월)
 - 국어책임관 등을 통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 마련
 - 지역 언어문화개선 및 국어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지원
- * 국어진흥조례 제정현황: '13년 17개 → '14년 33개 → '15년 46개

- 쉬운 공공언어 쓰기 매달 보도자료 평가 실시(44개 부처, 3~11월) 및 각 부처 전문용어 개선안 마련(3~11월, 399개)

○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협업 확대 및 국어책임관 역량 향상 도모

- 2015 국어책임관 사업 공모 및 지원(세종 등 6개 광역지자체)
-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 개최(8월/울산, 140여 명)
-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협의회 개최(4~12월)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

-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콘서트' 개최(9.11/청소년 500여 명)
- KBS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연중, 111회)
- 청소년 연극제 '안녕! 우리말' 개최(12.23.)
- 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방영(MBC 우리말 나들이 KBS 도전 골든벨)
- '전국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바른 댓글 운동 전개(연중)
- 우리말·글을 주제로 한 전국 경연대회 개최(5~12월)
 - * '청소년 언어문화 UCC 공모전, 연극제, 언어문화 경진대회, 노래 공모전, 우리말 겨루기 등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축제 개최(MBC '낭송화, KBS '우리말 한마당' 등)
- 전국 대학생 우리말 가꿈이 운영(1천여 명), 우리말 지킴이 동아리 운영(청소년, 500여 명)

- EBS '인성채널e', 감동 언어 영상 콘텐츠 제작·방영, 보급(6월, 3편)
- KBS 공익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방송(1·2부, 7~10월, 총 214회)
- 주요 일간지, 정부 정책홍보 책자 등 홍보(29개 지역일간지, 54개 잡지)
- 전국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거리 캠페인 추진
 - * 4~11월, 전국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우리말 가꿈이 등 선도
- 언어문화개선 주제곡 제작·보급(부활 김태원/10.9. 한글날 음원 공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세종학당 신규지정,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및 각종 주요 행사 개최 등이 당초 계획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 · 국어문화진흥 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전국 국어문화원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개최 등 계획된 추진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동사업은 2013년도 최우수, 2014년도 우수 등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자체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으며, 성과 목표 달성 및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함.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 지역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자 및 운영기관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 전국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연수회를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140여명)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 지역별 별도 연수회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관련 의견 수렴 및 국어정책 반영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한국어 학습 수요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해 세종학당 수강생 수가 '13년 4.4만명에서 4.65만여명(잠정)으로 증가함으로써 성과 목표치 달성 · 국어 관련 민간단체 및 지자체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유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당초 계획대비 10.8% 초과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세종학당 확대 운영, 교육의 질 제고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세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글의 가치 확산 도모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지자체 국어진흥조례 제정 확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으로 1,516개 민간 단체가 '언어문화개선운동 범국민연합'에 동참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며, '바른 말, 고운 말, 품격 있는 말'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에 기여

□ 총평

- 용산 이전 10주년 계기 국민의 관심 제고 및 학술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획, 특별·테마전시 개최로 박물관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문화 향유기회 확대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계기별, 가족중심의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인문학 부흥 및 문화융성 확산에 기여
- 우리문화재를 활용한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인적·학술적 국제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문화 인지도 확산

□ 주요 성과

- **전년 대비 고객만족도 상승**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7점 척도) : 83.1점→84.9점
 - 관람객 관심제고 및 문화기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높은 고객만족도 목표 달성
-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성과를 결집한 다양한 전시 개최**
 - 세계문화 향유와 공감을 위한 기획전시 개최
 -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14.12.9~’15.4.5/170천명), ‘폴란드 천년의 예술’(6.5~8.31/98천명), ‘리히텐슈타인박물관 명품전-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15.12.12~’16.4.10)
 - 학술 연구와 연계한 기획전, 특별전 및 테마전 개최
 - 기획전) 고대 아시아 불교조각의 국제성 및 독자성을 조명하는 용산이전 10주년 기념 ‘고대불교조각대전’(9.25~11.15/38천명)
 - 특별전) ‘빛의 예술, 보헤미아 유리’(2.10~4.26/99천명),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5.23~8.2/60천명), ‘신석기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10.20~’16.1.31) 등 3건

- ‘어린이박물관 국제 학술대회’ (9.18), ‘고대불교조각대전’ 연계 국제학술 심포지엄(10.30) 등 2건
- 테마전) ‘과학으로 풀어 보는 서봉총 금관’ (4.21~6.21.), ‘청룡사 괘불’ (6.2~11.29.), ‘대한제국, 근대국가를 꿈꾸다’ (7.21~9.13.), ‘일본의 무대 예술, 노(能)’ (10.6~11.22.),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12.22~’16.2.21.) 등 5건
- 순회전)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2.10~5.10., 광주) 등 9개지역 10건
-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선비, 금강산을 가다’ (’15.6.9.~’16.2.월)
- **전시관람 서비스 강화 및 관람 환경개선**
 - 이야기가 있는 전시해설 스마트큐레이터 운영(460회/ 5,973명)
 - 초중고 학생단체 대상 ‘청년멘토’ 전시해설 서비스(595개교/ 51,981명)
 - 행복한 박물관 나들이(16회/ 425명), 청각장애인 수화 전시해설(35회/230명)
 - 상설전시실 전시환경 개선(청자실·분청사기실·백자실 1월/3월)
 - 상설전시실 개편·보완(중국실 6월, 고려실·발해실 12월, 목칠공예실 12월)
 - 스마트폰-근거리무선통신(Beacon) 활용 전시안내서비스, 상설관 대상 구축
 - 한국어 음성안내(KBS성우녹음 546건) 및 외국어(영·중·일) 서비스
 - 어린이교실 및 유아방 개선(5월), 쾌적한 어린이박물관 공간 제공
 - 상설전시관 2층 영상실 전면개편, 복합문화공간 ‘온on’ 오픈(10.28)
- **박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
 - 성인·전문·청소년·가족·외국인·희망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26종, 523회)
 - 주말가족·전시연계·학교연계·유아·방학 교육프로그램 운영(30종, 315회)
 - 광복 70년 기념 특별체험행사 개최(8.12~16/ 15,586명)
 - 찾아가는 박물관(4종, 47회), 박물관 문화향연(32회/ 79,564명)
 - 온가족 참여 프로그램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 추진
 - 박물관미술관 1,013개관 참가, 후기등록사진 1,861건, 우수후기 434건
 - 박물관의 날 연계, 박물관 주간 운영(5.16~24)
 - 특별전(11건), 문화강좌(6건), 공연(10건), 교육프로그램(32건) 등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활성화
 - 야간개장 확대 시행(중앙 및 12개 지방박물관), 29,707명 관람
중앙: 14,099명, 지방: 15,608명
 -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50% 할인), 폼페이전 등 6,448명 관람
 - 교육·체험(4,279명), 전시해설(4,303명), 문화행사(1,620명) 참여
- 전시해설 프로그램(큐레이터와 대화, 스마트큐레이터, 야간명품해설)
-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문화 인지도 확산
 -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확대
 -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등 6개 기관 신규 선정·지원 전시장 환경개선 등
 - 외국박물관 한국문화재 온라인 DB 링크 사이트 구축(3월/7개국 24개기관)
 - 국제기구·단체와의 교류활동 다각화
 - 중국고궁박물관 ‘세계박물관장포럼’ 기조강연, 문화교류협약 체결(10월)
 -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아시아 교류 박물관장 서밋’ 주제발표(10월)
 - 유네스코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 회의(5월/중국), ICOM 총회(6월/프랑스), ASEMUS 집행위원회 및 VCM 이사회 정기회의(11월/싱가포르), ANMA 이사회(11월/싱가포르), 대만국립고궁박물관 ‘남원 신관’ 개관식(12월) 참석
 - 가상명품박물관(VCM) 신규가입(4기관 총 135기관), 유물 신규등록(122개 총 2,519개)
 - 세계 주요 박물관과의 문화교류협약 체결(3건/콩고 국립박물관 연구소, 중국 궁박물관,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 인적교류·학술 네트워크 증진
 - 국외 전문가 초청(4명), 한·일, 한·중 학술 인적교류(10명),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14명)
 - 국외 주요 외빈 방문(체코 총리, 우즈베키스탄 영부인 등 40회)
 - 외국인 관람객 유치 강화
 - 박물관안내센터 설치·운영(9월, 3만여명 방문), 중앙 및 지방박물관·국·공·사립박물관 홍보
 - 외국인 관람객 증가(‘14년 122천명→’15년 130천명 예상)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중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가 메르스 사태로 목표치에 미달
 - 목표 872만명 대비 841만명이 관람하여 96.4% 달성

□ 조치계획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변화 필요
 -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증가 및 여가 환경의 다양화로 현재 관람객 규모가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됨.
 - * 최근 3년간(‘12년~’14년)의 관람객 수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835만명(중박 310만명, 지방박물관 525만명) 정도를 목표 관람객 수로 적극 검토
 - 따라서 관람객 수 지표의 일방적 상향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고객만족도 평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
 - * ‘대체문화’ 환경 : 한글박물관, 캠핑문화 등 대체문화시설, IT 콘텐츠 서비스 확산, 주5일제 수업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고대불교조각대전, 폴란드 천년의 예술 등 11개의 전시, 학술연구 등을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충실히 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폴란드, 천년의 예술’ 전시 자문 등 8회 의견 수렴을 위한 전시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시를 진행하였음. · 해외박물관과 전시 및 한국실지원사업 관련 협약체결 ·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립박물관 모니터링 운영(매월) · 박물관 홍보를 위한 외부기관과의 전략적 마케팅 제휴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83.2점에 대해 84.9점으로 만족도 목표는 102% 달성 · 관람객수는 6~7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생변수의 사유로 당초 목표 872만명 대비 839만명(추정치) 관람으로 96.2%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관람객 관심 제고 및 문화기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높은 고객만족도 목표 초과 달성 · 관람객과 공감하는 다양한 전시와 국제교류로 글로벌 선도 박물관으로서 위상 강화

* (정부3.0) 외규장각 의궤 DB 구축

8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다소미흡
----------	-----------------------	-------------

□ 총평

- 개방·공유·소통 협력을 통한 참여형 생활문화 전시 및 생애주기별 교육·공연·행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 지역 민속문화를 발굴·진흥하고 지역 박물관과 상생 발전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에 기여
- 해외 박물관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동반자 관계 형성하고 세계속 한국 민속문화 확산에 기여
- 국내외 민속유물 수집·보존하고, 박물관 조사연구기능 활성화

□ 주요 성과

- **고객 맞춤형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 개최**
 -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 기획전 개최·운영(6회)
 - 손장연 기증특별전 '민속학자 김태곤이 본 한국무속' (4.22.~6.22.)
 - 2015 밀라노엑스포 사전 전시 '한국 밥상으로의 초대' 특별전(4.23.~5.7.)
 - 2015 경기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경기엇더하니잇고!' (8.5.~10.31.)
 - * 경기도박물관 순회전 (11.18.~'16.2.28.)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한일음식 공동기획전 '밥상지교'(12.9.~16.2.29.)
 -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 초청기획전 (6.3.~7.20.)
 - '정비록' 공동기획전(8.5.~9.30.)
 - 2016 병신년 원숭이띠 특별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12.23.~16.2.22.)
 - 어린이 눈높이 오감 체험 전시(3회)
 - '나무를 만나다' 특별전(9.23.~'17.8.21.)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상설전(14.4.23.~'16.7월)
 - '똥 나와라 똥똥' 특별전('14.7.23.~'15.8.23.)
 - 우리숨씨전(1회) '마음을 담은 숨씨전'(10.21.~11.16.)
 - 마음을 전하는 시간, 2014년도 기증자료전(6.17.~'16.4.11.)

○ **교육·공연·행사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교육) 어린이·청소년·성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92종, 2,462회, 241,754명 참가 * 26개 교육 시설

- (공연) 우리민속한마당(주말)·수요민속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계기 특별공연 등 102회 32,000명 관람

- (행사) 설(28,530명), 대보름(11,916명), 단오(1,402명), 추석(122,134명), 동지(예정), 문화가 있는 날 광화문 행사(6,353명) 등 211,079명 참여

○ **생활문화의 심층적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관리 강화**

- (조사연구) 국내외 생활문화 조사 및 조사보고서 등 발간(14종)

· (조사) '세계의 소금', '재외한인동포(고려인) 생활문화 현지조사' 등

· (발간물) '경기의 민속문화', '세계의 소금 I; 염전에 가다(사진집)' '한국민속예술사전(민속극·민속놀이 편)' 등 14종

- (학술대회) '한국민속학대회(10월)', '원숭이띠 강연회(12월)' 등

- (자료수집) 국내외 1,370건 2,821점 구입, 아카이브 자료 239건 209,303점

* 구입(정약용 필적 하피첩(보물 제1683-2호) 등 207건 957점), 수증(39명 1,163건 1,864점), 수탁(원주번씨 원천군 종중 등 5명 87건 94점), 압수문화재(7개 시군 274건 750점)

- (국가귀속) 민속자료 5,038건 6,618점, 아카이브 자료 40,375건 40,512점

- (보존처리) 보존처리 386건 426점, 상태조사 2,290건 2,515점, 저산소살충처리 등 21회, 재질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538항목

- (자료활용) 민속자료 관내 118건 2,915점, 관외 204건 2,890점 아카이브자료 관내 122건 2,987점, 관외 238건 2,855점

- (정보공개) '소장자료 온라인 전면 공개'(등록 총수량의 99%, 68,005건, 11월)

· '문화포털'을 통한 국가문화유산정보 연계 대국민 서비스 : 소장유물(1,271건), 민속아카이브(94,734건), 민속대백과사전(5,503건), 민속현장조사(140,596건), 발간도서원문(1,023건), ICT교육컨텐츠(141건) 제공('13.9월 ~ '15.12월)

· '창조자산마당' 연계 민속아카이브(73,915건) 제공('15.12월)

○ **국내외 생활문화 교류 확대**

- (지역 민속문화 진흥) '2015 경기민속문화의 해' 성공적 추진, '2016 세종 민속문화의 해' 관련 민속문화 조사

* '지역민속문화의 해' 추진현황: '07년 제주, '08년 전북, '09년 경북, '10년 충남, '11년 전남, '12년 충북, '13년 경남, '14년 강원, '15년 경기, '16년 세종

- (지역 박물관 상생 발전) 지역 순회 공동기획전 9회, 교육 개발·운영 30개 기관, 소장품 정리 4개 기관(7,825건)등 지원

* 지역 순회 공동기획전(9회)

: 온양민속박물관 '웃, 삶의 품격을 담다' (4.28. ~ 6.30.)

공군박물관 '아리랑, 그리고 信念의 鳥人' (6.5. ~ 10.31.)

통영시립박물관 '통영統營, 명품으로 빛나다' (6.17. ~ 8.7.)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950 군산, 6월의 꽃' (6.25. ~ 11.15.)

이천세계도자센터 '심, 흙길 걷다' (7.17. ~ 9.30.)

미리별민속박물관 '목가구, 삶을 담다' (8.21. ~ 9.30.)

원주고판화박물관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 (9.22. ~ 12.13.)

청주고인쇄박물관 '활판活版에 비친 근대의 일상' (11.3. ~ 12.31.)

2015 경기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경기엇더하니잇고!' (11.18. ~ '16.2.28.)

*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가입기관 286개('15.12월 기준)

* 교육개발(진주교육대학교 박물관, 한국족보박물관 등 10개 기관), 교육운영(거창 역사박물관, 최용신기념관 등 16개 기관), 교육보급(중이나라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등 4개 기관), 소장품정리(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등 4개 기관)

- (교육기관과 교류를 통한 박물관과 학교 교육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교육기관과 업무협약(MOU)체결 :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10회, 315명)

* 경북도교육청(2011), 충북도교육청(2011), 한국방송통신대(2012), 강원도교육청(2012), 세종시교육청(2013), 평생교육진흥원(2013),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5개, 총 37개 교 참여)

- (국제교류) 우리 문화 세계화와 해외박물관과 문화교류 확대

· 2015 밀라노엑스포 사전홍보 기획전 '한국밥상으로의 초대' (4.23.~5.7.)

* 장소 : 이탈리아 로마 통일기념관

· 러시아 고려인문화센터 전시개선 및 아리랑 특별전 준비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의 학술교류(2~12월) 및 MOU체결(12.3.)

·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한국문화 영상콘텐츠 제작사업(12월)

· 문화동반자 연수(6~11월, 4개국 4명)

· 『국제저널 무형유산』 10호 발간(5월)

· 제4회 어린이박물관 학술대회(6월), '박물관과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7월)

· ICOM-COMCOL(국제수집위원회) 국제학술대회 개최(10.26. ~ 10.28.)

- * 12개국 20명 발표, 300명 참가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어린이박물관협회(ACM) 참석
- 미국 브루클린어린이박물관 한국전시(순회전) 지원(10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람객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조치계획

- 재방문하는 관람객을 고려하여 상설전시의 경우 참여형 전시장의 실험적 조성 및 운영
- 관람객 편의 시설 확충(장애인 화장실 포함, 1월~6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1개 과제에 대해 일정 지연이 있었으나 자체평가 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히 추진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시설 관리 및 박물관 콘텐츠개발에 반영 · 전시평가제를 운영하여, 관람객뿐만 아니라 전문가,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특별전시에 반영 · 'K-museums 지역순회전'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력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 모색 · 노사협력위원회 개최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정된 안건대한 후속 조치 완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관람객 수를 302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276만 명(추정치) 달성(목표대비 약 91.3% 달성) * 올해 메르스의 영향으로 감소한 관람객 수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함(외국인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23%감소하였으나, 내국인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0.1%증가) · 고객만족도는 82.3점으로 계획하였으나 82.7점 달성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목표대비 약 100.4% 달성) * 고객만족도조사 운영지침(문체부) 준용하여 공공기관 만족도 모델(PCS)과 표준 조사표(7점 척도) 활용
	2-2. 정책 효과성	(보통)	· 박물관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 성과목표인 '생활속 국민 문화 기반 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 · 지역 민속진흥을 위한 '지역민속문화의 해', '협력망', '공동기획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정부3.0) 민속박물관 민속자료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2015 경기민속문화의 해 사업 공동추진

- 총평
- 광복70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과 사업을 추진하여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 국민의 역사인식 제고에 기여함
 - 메르스라는 예기치 않은 관람환경 변화로 목표 관람객 수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관람객 만족도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전년 대비 증대함. 이는 관람객조사와 운영자문위원회의 등 현장 수요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됨
 -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문화행사 확대 개화로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서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함
 - 근·현대사박물관으로서 국내·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유관 기관과의 공동 학술대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학술지(국/영문)를 발간함으로써 근·현대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계 연구 기반 조성에 성과를 드러냄
- 주요 성과
- 전년 대비 고객만족도 상승
 -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고객만족도 : 83.1점→85점
 - 광복70년 기념 특별전시회 및 다양한 사업으로 역사 인식 제고
 - 광복 70년 기념 특별전
 - ‘울림, 안중근을 만나다’ (3.31.~6.7. 48,566명)
 - ‘70년의 세월, 70가지 이야기’ (7.7.~9.30. 50,594명)
 - ‘대한민국을 그리다’ 사진전 (8.4.~9.30. 16,760명)
 - 순회전 (부산역, 광주역, 대전역, 오송역, 10.19.~11.22.)
 - ‘독일에서 한국의 통일을 보다’ 특별전 (10.13.~12.13. 37,887명)
 - ‘홍남 1950 그 해 겨울’ 특별전 (12.15~2.28.)
 - 광복70년 기념 사업 관련 언론과의 공동사업
 - 특별전 연계 KBS 특집 방송 ‘70년의 세월, 70가지 이야기’ (7~8월, 총3부 방영)
 - 국제회담 현장 해외조사: 조선일보 학술면 기사 (7~9월, 총 5회 게재)
 - 특별전 ‘70년의 세월, 70가지 이야기’ 연계 다음(Daum) 뉴스펀딩 게재 (7~9월, 총 10화)
 - 구글(Google)과 함께 하는 광복70년 우리역사 시간여행 (8.14.~8.15.)
 - 광복70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
 - ‘광복 70년,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삶’ (8.6.~7.)
 - ‘전시연합국의 세계체제 구상과 한국의 광복’ (10.30.)
 -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대학생 참여 ‘2015 영리더스포럼’ (8.5.)
 - 광복70년 기념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중요 등록문화재 자료 수집
 - 임시의정원 관련 자료(292점), 상해판 독립신문(170점), 국채보상운동 자료(279점) 등
 - 광복70년 기념 자료집 발간
 - ‘광복 70년 기념 소장 자료집’ 발간 (2종, 각 1,500부)
 - 제3권 『광복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임시정부』, 제4권 『해방공간 1945~1948』
 - 전시 관람 서비스 확대
 - 상설전시실 개선
 - 제2~3전시실 제2공화국 및 남북관계 코너 개선, 제4전시실 전시자료 추가
 - 공간 확충(600㎡/12월 준공)을 통해 전시 환경 개선 및 공간 활용도 제고
 - 특별전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공연, 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 예정
 - 근현대 역사문화 교육 및 문화행사를 통한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학생 ‘근현대사 탐방 경연대회’ 실시 (292명 응모, 10팀 선정)
 - 해외 현지 근현대사 교육 실시: 베트남·캄보디아 (13회, 830명)
 - 주제별 근현대사 영상 및 도서 제작
 - 영상(4편) : <민주주의>, <수출주도공업화>, <중화학공업화>, <전환, 현대사를 말하다>
 - 만화도서(3권) : 『대한민국 태동』,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전쟁』
 - 대상별 교육 운영
 - 어린이·청소년 교육 (319회 운영, 7,451명), 성인 대상 ‘박물관 대학’ (60회 운영, 2,946명),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1,954회, 45,074명)
 - 전국어린이박물관 박람회 참가 : ‘태극기, 우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체험교육

- 기념일 및 특별전 연계 문화행사
 - 광복70년 등 기념일 문화행사 (4회, 17,934명), 주말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문화가 있는 날' (36회, 15,072명)
- 국내 및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한국 근현대사 인식 제고
 - 국내 근현대사박물관 56개 기관과 협력망 구축,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전년대비 13개 기관 추가
 -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초청 특강, 학술콜로키움 개최
 - 공동 학술대회 (6회), 학술콜로키움 (6회), 해외인사 초청 특강 (4회)
 - 해외 인적 교류
 - 문화동반자사업 시범 운영 (필리핀 1명), 국외 박물관에 학예인력 파견 (독일역사박물관/독일역사의 집, 각 1명)
 - 영문학술지 해외 보급
 - 해외 한국학 기관 및 도서관, 주요 한국학 연구자에게 540여 부 배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장 공간 부족으로 자료 체계적 보관 및 보존에 어려움
 - 박물관 적정 수장밀도(45.4점/㎡)대비 2.2배 자료 보유
 - 외부 수장고 입차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 및 업무 효율 저하
- 성과지표 중 박물관 관람객 수가 목표치에 미달
 - 목표 109만 명 대비 81만 명이 관람하여 74% 달성

□ 조치계획

- 2015~2024년까지 장기적인 계획 하에 '개방형 수장고 및 아카이브 정보센터' 건립 추진
- 성과지표의 목표 비중을 정성적 지표(관람객만족도)에 가중치를 부여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
 - 2015년 관람객 수 감소는 메르스 사태, 개관 효과 저하, 전시공간 확충 공사(9~12 3개월)로 인한 불편함 증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관람객수는 개관 3년간의 수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목표 설정 검토
 - ※ 개관 3년간('13년~'15년) 관람객 수 : 104만 명 / 115만 명 / 81만 명

- 관람객만족도의 질적 향상과 재방문을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
 - ① 특별전시공간의 확충(600㎡)에 맞춰 시의성 있는 주제와 다양한 전시연출을 활용한 기획전 추진 ※ 개항140주년 기념, 선거의 역사 등
 - ② 청소년층 관람객을 확대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한국사 수능필수 과목화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수요 급증에 발맞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추진
 - ※ 체험형 프로그램- '박물관 속 숨어있는 직업을 찾아라', '근현대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3.1절, 8.15 기념일 특별 체험교육'
 - ③ 근현대 전문 역사박물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 모색
 - 근현대사를 둘러싼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박물관 홍보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대표적인 근현대역사박물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홍보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당초 계획한 모든 사업을 계획된 시기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함 · 계기별 특별전, 학술대회 등 주요 전시 및 행사들을 계획에 따라 진행함. 베트남파병 50년 기념 전시는 독일과 통일을 주제로 한 공동 개최 특별전으로 대체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해당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운영자문위원회, 관람객만족도 조사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관람객 수 성과지표 목표 달성 미진 : 목표 109만명 대비 실적 81만명 · 목표 미달성 원인: 메르스사태로 관람객 유치 환경 급변 · 관람객 만족도 성과지표는 목표 초과달성 : 목표 78점 대비 실적 85점
	2-2. 정책 효과성	(보통)	· 박물관의 적극적 홍보와 운영 안정화를 통해 대국민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효과가 나타남 · 박물관의 인지도 향상과 기증 문화 활성화 분위기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p>조성으로 역사적 의의가 큰 자료의 기증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짐</p> <p>· 근현대사박물관으로서 국내·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학술대회 및 전시회 공동개최와 인적 교류 활성화 대폭 증가</p>

10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우수
----	----------------	----

□ 총평

-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은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장벽 없는 지식정보 사회 및 문화복지 구현
 - 이용자 맞춤형 대학도서 및 일반도서 위탁제작 사업을 통한 장애인들의 만족도 제고
 -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 연계를 통한 대체자료 제작 확대
 - * 자원봉사자 활용 대체자료 제작 : '14년 52명, 45건 → '15년 101명, 146건
 -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체자료 납본 체계화
 - * 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15.1), 지자체 대상 납본 협조 요청 ('15.3), 납본안내 공문발송('15.6)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개발('15.1.서비스 개시) 및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 (iOS 등 3종) 보급을 통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및 사용편의성 제고

<2015년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확충 > (단위:건/기준:'15.12.31.)

장애 유형	매체 유형	제작 목표(A)	이용자 맞춤형		장서 개발형	자체 제작	자원봉사 제작	합계 (B)	달성률 (B/A)
			일반도서	대학도서					
시각 장애 분야	페이지자료	2,162건	884건	486건	1001건	56건	146건	2,573건	119%
	전자점자자료	55건	19건	26건		20건		65건	118%
	전자점자약보	100건	58건	27건		16건		101건	101%
	화면해설영상자료	20건			77건			77건	385%
	소계	2,337건	961건	539건	1,078건	92건	146건	2,816건	120%
청각 장애 분야	수화영상도서자료	300건			300건			300건	100%
	자막영상자료	100건			239건			239건	239%
	소계	400건			539건			539건	134%
	계	2,737건	961건	539건	1,617건	92건	146건	3,355건	122%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월평균 시스템 이용건수> (단위:건,명/기준:'15.12.31.)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5.10	'15.11	'15.12	계
자료검색건수	1,333	977	1,130	894	1,033	1,210	1,833	1,207	1,366	909	1,143	958	13,993
원문이용건수	580	460	712	909	782	722	1,162	1,947	8,834	4,692	2,135	4,266	27,201
원문이용자수	111	76	121	134	131	119	173	169	170	151	172	147	1,674

- 디지털콘텐츠 확충 및 원문DB 구축, 온라인 자료 수집체계 및 관리 운영 개선을 통하여 고품질 데이터 구축,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기반 마련의 성과를 이룸

- 국가 문헌의 디지털화로 고품질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확충
- 온라인 지식정보자원의 고품질화를 통한 활용성 강화 및 대국민 대상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이용저변 확대

□ 주요 성과

○ 시각장애대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 시각장애대학(원)생 대상 학기전 대체자료 제작수요 조사(2회, '14.12, '15. 5.)
 - 교육부 특수교육과, 가야대학교 등 409개 대학교
- '14년도 대체자료 제작사업 결과를 반영한 차기년도('15년) 제작 사업설명회 개최('14.12) 및 현장의견 수렴
- 시각장애대학생의 전공교재에 대한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 ('14년) 126명, 804건 신청, 432건 제작 → ('15년) 122명, 862건 신청, 561건 제작(* '15.12.31. 기준)
 - * 대체자료 제작신청 도서 중 기제작 자료, 중복신청자료 등은 제작 제외

○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

-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의 학습·교양·평생교육 등을 위한 대체자료 신청 접수 및 제작·보급 : 연중
- 시각장애인(성인) : ('14년) 133명, 802건 신청, 669건 제작 → ('15년) 185명, 1,044건 신청, 835건 제작(* '15.12.31. 기준)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도서 및 자막영상자료 제작 ('14년) 493건 → ('15년) 539건

○ 국가 대체자료 공유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15.1. 서비스 개시)의 참여기관 및 서비스 목록 확대
 - ('14년) 822개관, 45만여 건 → ('15년) 842개관, 50만여 건
-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들의 대체자료 이용률 증가
 - ('14년) 102,431건 → ('15년) 108,382건(* '15.12.31. 기준)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시각·청각장애인 이용자 모니터링단 운영 (13명, '15.5~12.)을 통한 장애인들의 의견 수렴 및 시스템 반영

- 장애인등록사실확인센터 보급(18개관)을 통한 장애인 유관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기여
 - * 장애인등록사실확인센터는 장애인 등록여부에 대한 복지카드 사본 제출을 시스템으로 간소화함

○ 디지털콘텐츠 활용

- 정부 3.0 확산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콘텐츠 민간개방 확대
 - 소장원문 및 콘텐츠 민간포털(네이버/다음) 제공 : 2,903종
 - 소장원문 디지털화 자료 협약 도서관 제공 : 1,749개관 30만책
 - 소장원문 이미지 민간 및 공공 기관 제공 : 28개관, 337건
 - 공공저작물 공유 확대 : 118,031건
 - 국가서지 Linked Open Data 제공 : 1,121만건

수상내역

- ▷ 2015년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평가 : 우수상 (11.13)
 -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 ▷ 2015년 국가DB 활용사례 공모전 : 장려상 (11.17)
 - *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을 통한 제공서비스 확대로 '15년 목표치 98,100건 대비 103.5% 초과 달성
 -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 건수(월평균) 증가
 - : '14년 93,527건 → '15년 102,402건, 전년 대비 108.5% 달성
- 소장자료 디지털화의 사업방식 개선으로 DB 구축량 확대
 - '14년 12,112책→'15년(용역 및 직접수행 병행) **40,076책, 331% 증가**
- 국가DB구축 공모사업(미래창조과학부) 지원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 구축량 : 이미지 8,840면/기사 363,504 건/색인어 814,204건

[국가DB사업 추진 현황]

구축연차	구축대상	이미지	기사	색인	지원예산
3차(2015)	제국신문 등 6종 28책 조선총독부관보(1916~1927)	8,840면 -	204,675건 158,829건	352,670건 461,534건	11억9천
2차(2014)	한성일보 등 8종 25책	6,629면	156,629건	542,882건	5억4천
1차(2013)	국민신문 등 7종 34책	10,010면	146,736건	631,657건	4억2천
계		25,479면	666,869건	1,988,743건	21억5천

- 원문DB의 OCR 변환(이미지→텍스트)을 통한 정보자원 활용성 강화
 -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전문가 연구용 활용(학위논문 및 단행본 299,208책)
- 정부 및 공공기관 발간 공공저작물 이용범위 확대(관내 인터넷 및 공유저작물 지속적 발굴·구축(118,031건))
- 방송영상자료 비공개 아카이브 수집 확대를 통한 국가문화유산의 장기적 보존성 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SBS 서비스용 디지털 파일 이관('15.12.31, 50 TB)

【SBS 기증 협약 내역】

자료유형	수량(용량)	비고	
비디오테이프	방송자료	13.2만점	이관 완료('15.9.)
	촬영원본	17.4만점	
재생장비	DiGiBeta Player 등	4종 7대	
디지털 파일	서비스용(관내 서비스)	50TB	이관 완료('15.9~12)
	보존용(비공개 아카이브)	8.6PB	이관예정('16년~)

- LOD(Linked Open Data) 서비스 구현 및 제공
 - 도서관 홈페이지(nl.go.kr)를 통한 서비스 구현 : LOD보기, 다운로드 등
 - LOD 응용서비스 제공 : 대한민국 도서관지도, 주제별 서지 등
 - 국가서지의 LOD 변환 및 제공 : 15년 목표치 980만건 → 1,141만건 / 123% 초과 달성

LOD 개념

▷ 개방형 연결 데이터(Linked Open Data)

- *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Open Data)를 웹(Web)에서 서로 편리하게 연결(Linked Data)하여 하나의 지식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식으로 발행한 데이터
- ※ 안전행정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도서관데이터 제공 권고 형식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애인들의 대체자료 사용편의성 제고를 통한 장애인도서관서비스의 질적 제고 필요
- 디지털컬렉션 구축 및 운영 개선
 - 국립중앙도서관 종합만족도(PCSI) 조사 결과 서비스 품질의 혁신성(참신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독창적 콘텐츠 발굴 및 강화 권고
- 웹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분야 중심의 웹사이트 수집 방향 전환 필요

□ 조치계획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편의성 기능 확대
 - 장애유형별 정보이용행태 조사 및 플레이어 기능 개발
- 디지털컬렉션 중장기계획 수립 및 단계적 확대 개편
 - 대상자료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 고려 연차별 계획 수립('16.1월)
 - 기 생산 디지털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컬렉션 서비스콘텐츠로 확대 재구성 및 시스템 개선('16.3월)
- 웹사이트 포괄적 수집 및 선택적 수집 병행 단계적 추진
 - 포괄적 수집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분석, 시스템 구현 방안 연구('16.4월)
 - 웹사이트 전문가 그룹(실무형) 구성·운영('16.5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체계적인 추진계획 설정에 따라 추진실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13년 ~ '14년 자체평가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워크숍, 컨퍼런스, 협력회의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 목표치인 월평균 98.1천건 대비 101.5천건(103.5%) 초과 달성 및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 목표치인 연간 107천건 대비 135천건(126.1%) 초과 달성
	2-2. 정책 효과성	(충실)	·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정보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 (정부3.0) · 도서 학술자료 제공 서비스 강화 · 전국도서관 장애인용 대체자료 통합서비스 구현

□ 총평

- 업무량 분석에 기초한 면밀한 조직진단으로 연구 인력의 부서 간 정원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음(2015.10.)
- 2016년 공개 예정인 국민 참여 웹기반 사전인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우리말샘)' 업무역량 강화에 집중
- 표준어 추가 사정 등 어문규범의 현실화와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우리말 정보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정부 3.0 구현에 노력함
- 우리말샘과 다국어사전(10개) 등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말 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운영 등 한국어 교육 기반 체계화로 한국어에 대한 국내외 저변을 확산시켜 우리말의 가치 확산에 기여함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정착을 위해 공문서 감수 지원사업을 전 중앙부처로 확대하고 우리말 다듬기,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다운 언어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쑥쑥! 국어교실' 확대 운영으로 언어 소외계층의 언어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됨

□ 주요 성과

<어문규범 개선과 국어 다양성 보전을 통한 의사소통 환경 개선>

- 어문규범의 현실화와 관리 체계 정비
 - 표준어 추가 사정(11항목), 외래어 표기 용례 구축·정비
 - 어문규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단계)
 - 표준국어문법 개발(3단계)
- 국내외 통계 자료 구축 등 이전 자료 정비
 - 2015년 통계자료 신규 구축(100여 건): 2015년 국어학 및 국어 관련 자료 및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언어정책 통계 수집 및 정리

- 언어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포럼(5월, 8월), 전국학술대회(10월) 개최
 -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행사(우리의 삶 우리말에 담다, 10월) 개최
- 남북 언어 통합 기반 조성
 - 제13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서울, 8월)
 - 북한어 균형말뭉치 1단계 구축
 - * 원시말뭉치(어절): 문어 30만, 구어 10만 / 분석말뭉치(어절): 문어 5만, 구어 1만
 -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및 통합 방안 마련(수학, 자연과학 용어 1,487항목)
- 방언의 조사, 활용 지원 체계 구축
 - 전국 방언 지도 제작 (1단계)
 -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1단계)
 - 브라질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4개 지점, 700명)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 전화, 온라인, 트위터, 카카오톡 상담 실시
 - 연 153,855건(전화 110,700건/온라인 21,333건/SNS 21,822건) 상담
- 특수언어 지원 체계 강화
 - 점자 및 수어 전문 위원회 구성, 운영
 - 수어 말뭉치 구축: 수어 말뭉치 지침 구축 및 시범 말뭉치 단어 구축
 - 한국수어 웹사전 구축: 기존 12,500 항목 재정비 및 신규 사이트 구축
 - 수어 전문용어 10,000건, 문화정보 650건 구축(박물관 3곳)

<우리말 통합 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인력 증원(2명) 및 상담 창구의 다양화(전화, 온라인 게시판, 누리소통망)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 ※ '15년도 운영 현황(상담건수): 총204,121건(2015. 11월까지)
 - * 전화 95,269건, 온라인 25,043건, 트위터 4,319건, 카카오톡 79,490건
- 국어 정보지 발간으로 국민의 국어에 대한 인식 제고
 - '새국어생활' 연 4회 발간,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주 1회씩 총 50여 회 발간, 국어 연감 발간(연 1회)
- 공공언어 관련 책자(공공언어 바로 쓰기 등) 각 부처,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 1,883권 지원

<언어정보 구축 운영 체계 수립으로 우리말 정보 활용 기반 마련>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감수
 - 실생활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한 100만여 항목의 사전 정보 구축('10~'13)
 - 구축된 사전의 품질 확보를 위한 교정·교열 및 감수, 정비('14~)
 - 일반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사전 시스템 개발('11~'14)
-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다국어사전 구축
 -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5만 항목 어휘의 '한국어기초사전' 구축('10~'11)
 - '한국어기초사전' 시범 운영 및 보완('12~)
 - 1단계 '한국어기초사전' 대역 5개어 사전(러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구축('10~'12)
 - 2단계 '한국어기초사전' 대역 5개어 사전(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구축('13~)
- 언어 정보 자원의 구축 및 활용 체계 수립
 - 언어 정보 자원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언어 정보 나눔터' 구축 및 운영('12~)
 - 국어 정보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개최('09~'15, 7회)
 - 국어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국어 역사 자료 구축 및 정제
 - 비표준 한자 검토 및 한자 코드 표준화 활동 지원
 - * 국제문자코드 분과 한자특별전문위원회 간사국 활동 수행

<한국어 교육 기반 체계화로 국내외 한국어 가치 확산>

-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 국내 대학 한국어교육기관 학습자(28개 기관, 7,000여명) 언어자료 (말뭉치) 구축(문어 30만, 구어 5만)
 -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을 적용·세분화하여 한국어교육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어 읽기 표준 교육과정' 개발
 - '한국어 문법·표현' 및 '한국어 어휘'의 교육 내용 정비(문법·표현 총 205개, 10,644개)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 시스템 개발

- 국내외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온라인 한국어교육학습센터 기능 강화 및 모바일 웹 학습 시스템 구축, 온라인 강좌(3건) 개발
 - *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콘텐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자료 공유 및 교원 간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 강화, 한국어교원을 위한 '문법, 발음, 문화' 교수법 온라인 강좌 개발
- 국내외 맞춤형 한국어 교원(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27개국 35명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현지 교원 연수: 11개 지역, 22명 파견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회: 2회, 83명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2회, 81명
 -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교원 공동 연수회: 3회, 108명
-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운영(3회, 4,403명, 누적 21,798명)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

- 중앙행정부처 대상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시행
 - 공문서 감수 지원: 총 236건(원고지 7,801장) 및 용어 1,379개 감수('15. 11. 19. 기준)
 - 보도자료 상시 점검: 총 4,129건, 개선 권고 건수 599건('15. 11. 24. 기준)
 -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보도자료 평가
- 부처별 전문용어 개선 지원
 - 전문용어 개선 지원(44개 기관, 534개 개선안 접수)
 - 전문용어 개선 및 순화어 정비 지침 마련(부처와 정보 공유)
-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 개최(총 10회)
 - 용어 순화 35개(사이드메뉴→결들이, 섬네일→마중그림 등)
 - 순화어 정비(순화어 고시, 국어사전 등의 오류, 중복 정비)
- 교과서 감수(총 28책)
 - 초등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22책(5학년, 6학년 22책)
 - 초등 디지털 교과서 6책

- 공모전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 공모전 개최
 - 청소년 언어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 우리말 가꾸기 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방송언어 개선
 - 우리말 사랑 동아리 3기 활동 지원(총 40개 동아리)
 - 방송언어의 실태 조사(시사·토크 프로그램) 및 평가 기준 제공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 도로·관광 용어 번역 관련 부처 협의체·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연중)
 - 문화 용어(114개), 한식명(210개) 도로명·지하철 역명(46개) 번역안 마련
 - 도로·관광 용어 표기 외국인 선호도 조사('15. 3.)
 - 도로·관광 용어 통일안 관련 기자 설명회 개최('15. 6.)
 - '도로 표지판 영문 표기 및 약어 사용 실태 조사' ('15. 3.~11.)
 - '한국 관광 지명의 일본어 표기 선호도 조사' ('15. 10.~11.)
 - '공공용어의 영어 표기 및 번역 지침' 문체부 훈령 제정('15. 12.)

<국어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

- 국어문화학교 질적 향상 및 지속적 운영
 - 일반인 및 공무원, 교사를 위한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18회 1,805명)
 - 국민의 국어 응용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화법, 공공언어 향상, 강사 연수회 등 특별과정 운영(8회 306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확대 운영('14년 406회 34,490명 → '15년 276회 27,553명)
- 국민의 국어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
 - 수시 강좌 운영 및 원내 연계 사전 교육 과정 개설, 기관 맞춤형 기획 과정 확대 운영('14년 3,537명 → '15년 5,074명/ 43.4% 증가)
 - 기존의 성인 대상 위주 콘텐츠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2식)
 - 기존 온라인 콘텐츠(2종) 수정·보완 사업을 통한 제공 콘텐츠의 질 제고

-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3식)
 - 분야별 화법(직장 내 대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 작문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연구
 -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중장기 계획(안) 마련
- 언어 소외 계층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과정 운영
 -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대상 교육 자료 개발 및 출판(각 2종)
 - '쑥쑥! 국어교실' 확대 운영('14년 14개소 212명 → '15년 24개소 340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남북언어 통합 기반 구축과 교류 활성화 사업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계획적 추진에 어려움
- 어문규범 현실화를 위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 부재 및 대규모 국어사용 환경 실태 조사 결과 미비
- 국어문화학교 수강생이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조치계획

- 남북 언어통합 연구 사업의 지속적 추진, 재외동포 학자와 연계하여 남북 교류 사업 안정성 확보('16년 하반기 국제학술회의 개최)
- 어문규범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어문규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6년말), 어문규정 개정('16년 하반기), 어문규정집 발간('16년 하반기) 등 추진
- 공공단체, 민간기업, 일반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지침 마련(2016. 2)과 국어교육 연수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2016 상반기)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모든 과제가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되었으나, 중국어 음역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경우 음역 방안 관련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하여 회의가 지연되어 12월에 추진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2014년도 및 2015년도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지침안 공청회 개최 등 현장의견 수렴의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 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반영을 통해 운영 지침안의 효율성 증대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100명) -목표(90.5%) 대비 100%(만족도 90.8%) 달성 · 국어 대사전 월평균 이용 건수(천건) -목표(272천건) 대비 136%(369천건)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어문규범의 현실화, 언어소외계층 학습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에 기여

12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보통
----	--------------------	----

□ 총평

-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종교 간 이해 및 화합행사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및 종교문화유산 보존 전승사업 지원을 통해 민족 전통문화 유산 보존 · 전승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 종교계 주요인사 예방 및 종교행사 참석을 통해 종교계와 소통하고 남북 종교교류 활성화로 종교문화를 통한 신뢰 사회 구축
 -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 종교계 의견 청취 및 정부입장 설명
 - * 장·차관, 종무실장 등 131회(의견청취 60, 종교행사 71)
 - '15.8.25 남북공동합의문 발표(민간교류활성화 등 6개항)를 계기로 종교계 남북 단체간 교류활동 재추진(총 13회)
 - 개신교[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10.24~30/평양)], 불교[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법회(11.3/개성) 등], KCRP[7대 종단 남북종교인 모임(11.9~10/금강산)], 천주교[천주교 주교회의 방북미사(12.1~4/평양 장충성당)] 등
- 세계평화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를 통해 "세계평화"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 한반도 통일선언문 발표를 통해 '한반도통일'에 대한 불교계의 의지를 천명
 - 세계평화기원문 채택 및 세계종교인(네팔, 러시아, 미국)의 직접 낭독을 통해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대외에 홍보
 - * '15.5.15~5.18 개최, 세계종교지도자 204명 포함 32만여명이 참가
- 종교계의 다양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활성화로 사회통합에 기여
 - 7개 종단 22개 사업 18,103명 참여 (불교 2,140명, 개신교 6,935명, 천주교 670명, 민족종교협의회 558명, 천도교 1,500명, 원불교 6,100명,

연합단체 200명)

- 종교문화활동 지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연등축제(5월), 산사문화예술제(4월~12월, 78개 사찰), 국내외 나환우 돕기 자선음악회(6월),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행사(12월), 원불교 종교문화활동, 민족종교 정신교육프로그램 운영(4-11월) 등 다양한 종교문화활동 지원
 - 7대종단 지도자 및 종교인 등 1,500명이 참석하는 이웃종교 화합주간행사(이웃종교화합주간 개막식 4월,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 11월, 이웃종교체험스테이 7~9월, 지역별 종교화합 행사 11~12월)를 통해 다종교 국가로서 종교간 화합과 상생의 장 마련
-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 및 전통문화유산 전승 보존
 - 전통종교문화유산 관련 규제 및 사업중복 개선
 -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 건축행위 제한 조항이 폐지('05년)되었음에도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던 지자체(16개) 조례 관련조항 폐지 추진
 - * 폐지 완료 5개, 의회 계류 10개, 폐지안 마련 1개('15.11월 기준)
 - 방재시스템 설치·운영 관련,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보유 전통사찰(73개소)은 문화재청이 그 외(871개소)는 우리부가 관리함으로써 중복소지 해결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108개 사찰)으로 화재·도난 등 재해 사전예방('12~'15년까지 432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화재건수 1건)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159개 사찰)으로 전통사찰 보존 전승
 - 전통사찰 전수조사로 지원대상·기준 등 보존관리 개선방안 마련('14-'17/'15년: 216개 사찰)
 - 가산불교대사람 편찬, 한국유경정본화 DB구축,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전통문화 유산 전승 보존
-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한 종교인프라 확충 기반 조성
 - 진각문화 국제체험관 건립, 김수환추기경 '사랑과나눔 공원' 조성,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사업,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제2원사 건립 등 9개 사업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대부분 사업이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14년 자체평가시 종교문화행사 참가자 만족도를 종교인과 비종교인 구분하여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15년에는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반 국민의 종교문화향유기회 제공에 대한 효과를 측정함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종교계, 지자체, 각 부처 등 유관기관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는 성과지표의 목표치 80점에 대해 종교인은 86점으로 107%달성, 비종교인은 84점으로 105%달성, 종교별 대표시설 공정율은 목표치 80% 대비 97%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된 정책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회갈등 현안에 대해 소통과 신뢰의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이웃종교 이해 증진 및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통합, 종교문화유산 전승 및 국민의 여가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상위목표인 생활 속 문화 기반조성에 기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평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 및 운영

- 전당의 주요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준비·공개(7월 시범공개 → 9월 부분개방 → 11월 공식개관)하며 콘텐츠의 완성도 제고
- 9월 부분개방(9.4) 이후, 관람객 총 83만 명, 일 평균 7천 명 이상 달성으로 개관 초기 새로운 대표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 주요 성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으로 전당 조직 및 기능 확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당 운영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15.3월)
- 전당 운영조직(소속기관) 설립을 위한 문체부 직제 개정 추진('15.7월)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15.7.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전당 업무의 일부 위탁운영을 위한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 설립('15.10.1)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전당 운영 콘텐츠 실행

- 전당 출범 단계의 개관콘텐츠 시범운영('15.7월), 부분 공개('15.9.4~), 공식 개관행사('15.11.25)
- 전당 비전포럼('15.4월) 및 창제작센터 'ACT페스티벌'('15.11.25~28) 등 문화예술교류 중심의 국제행사 추진
- 공식 개관(11.25) 이후 전당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축 및 개발 추진중(콘텐츠 창제작, 공연·전시, 각종 문화예술 분야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교류협력 및 홍보

- 아시아 각국 문화장관 초청 및 라운드테이블 미팅 개최 및 한-

중앙아 문화장관회의 개최('15.11월)

-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통음악, 무용, 창작공간, 스토리 관련 작가 레지던시 및 공연·전시 개최('15.8~11월)
- 문화전당 개관 및 콘텐츠 홍보를 통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 (구)전남도청 보존건물(5개동)에 대한 외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물/시설의 완성('15.11월)
-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외곽주차장 건립추진((구)광주여고 부지, '15.11월 건립예산 확보)

○ 문화적 도시환경 구축

- 7대 문화권 및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확충·운영
 - 문화·예술 거점 활성화 프로그램(대인시장 프로그램 월 2회, 예술의거리 프로그램 매주), 사직국제포크음악제, 광주세계아리랑축전 등
 - * 2015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최우수상 수상 : 대인예술시장

○ 문화산업 육성

- 첨단영상, 게임 등 5대 전략 콘텐츠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육성
 - CG 활용 프로젝트 제작(2건),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지원(10건), 문화콘텐츠 창작인 발굴 및 마케팅 지원(라이선싱 계약 41건 25억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38개국, 411개사)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곽주차장 건립 완료

- (구)광주여고 부지에 대한 외곽주차장 건립 계획 확정 및 단체관람객을 위한 대형버스용 주차공간 설치 완료

□ 조치계획

○ 외곽주차장 건립 관련 설계 완료 및 착공 개시

- 2016. 1.1 (구)광주여고 부지 외곽주차장 건립 공사 착공 예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총실)	· 시민설명회, 시범프로그램,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며 정상 개관(11월)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보존건물 설계 변경이 완료되어 민주평화교류원의 공사를 정상 추진하면서 전당 건립 공사가 완료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지적사항 : 해당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하여 보도자료 및 SNS 홍보 및 소통을 진행하였고, 전당의 페이스북 친구 (6,977명) 등을 통하여 건의사항 수시 접수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 아시아문화전당 방문객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77.38점으로, 이는 목표치인 62.8점을 상회함. 개관 프로그램 내용, 전당 관람 환경, 서비스 운영방식 등 대해서 고객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2-2. 정책 효과성 (보통)	· 관람객수나 언론보도에 나타난 시민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이는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이라는 성과목표에 크게 이바지 하였음

14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보통

□ 총평

- 미국 뉴욕타임스의 '2015년 가 봐야 할 세계명소' 중 서울의 명소로 국립한글박물관이 선정되는 등 한글박물관 관련 언론보도가 연간 600여건이었으며, 연간 52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개관 1년만에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현 시대를 반영한 한글의 산업화·정보화·세계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유물)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문자박물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다양한 전시기획과 지방순회전 기획,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관람객 통합서비스 구축 등 다각적인 시도를 통해 박물관 운영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음.

□ 주요 성과

- 기획전시 등 언론보도 600여건, 연간 52만명 관람
 - * 뉴욕타임스 '2015년 가 봐야 할 세계명소' 중 서울의 명소로 한글박물관 선정
- 현 시대를 반영한 한글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자료 집중 구입
 - * 지정문화재(3점) 확보 :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 2점, 보물 제1163호 『선종영가집언해』
- 문자로서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 기획, 지역과 공유

전 시	지역 순회
-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14.10.9.-'15.3.1.)	→ 청주박물관(4.16.- 6.21.)
-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4.21.-6.7.)	→ 강릉 오죽헌박물관(6.16.- 7.26.)
-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다(7.21.-9.6.)	
- '꿀, 꿀, 꿀, 한글디자인'(9.15.-10.11.)	
- '디지털 세상의 새 이름, 코드명 한글'(10.6.-'16.1.31.)	

- 가족, 어린이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총 270회, 1만2천명 참가), 문화가 있는 수요일·한글주간 문화행사 등 개최(총 196회, 25천명)
 - * 국제교육문화위원회(CECA)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자연 속 한글탐험, 한글보따리)
- 예약부터 전시해설·교육·체험까지 연계한 통합 서비스 추진

* 모바일 전시해설(한·영·중·일 4개 국어, 50대), 전시해설 확대(일 3회→6회), 외국어해설 정례화(영·중·일 주1회), 어린이 전시해설(주2회, 방학시 매일)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소한 인력과 해당분야의 전문가 부족으로 문자연구 활성화에 한계
 - 문자, 소장자료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확대,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조치계획

- 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정원 확대('16년 ~ 중장기)
- 문자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관·학 공동연구, 교육프로그램 마련('16년 연중)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당초 계획한 사업을 계획된 시기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지적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함 - 문화가 있는 수요일, 문화행사 등 개최(196회, 24,794명) - 가족, 어린이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총22종, 270회, 12,681명) * 지적사항 : 박물관 홍보확대, 단체관람객 유치 확대, 전시해설·교육문화행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추진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전시 및 연구·조사 분야 등에서 국내외 박물관 및 한글학계, 문화예술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관람객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성과지표의 목표치 '관람객수 52만명' 달성 * '15.12.31. 현재 집계결과 527,319명 방문 · 성과지표 목표치 '관람객 만족도 점수 81.5점' 달성 (만족도 조사결과 82.9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14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긍정언론보도가 약 600여건으로 정책효과 달성

15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다소우수

□ 총평

- 정상외교, 수교기념, 국제 행사 등 주요 계기 활용한 우리문화 소개를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증가
- 국가브랜드 및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서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과 대표 브랜드사업 육성, 문화원별 'K-컬처 서포터즈' 발족·활동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문화 보급 활성화에 기여
- 문화 ODA 사업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양적 확대와 더불어 사업평가기준 수립** 등 효과성 제고에 기여
* 문화분야 ODA 예산 : ('13)68억원 → ('14)115억원 → ('15)122억원 → ('16)133억원(정부안, '13년 대비 95% 증)
** 문화영역 ODA 평가 실행계획과 시범적용 연구(문화관광연구원, '15.9월)
- 문화ODA 전략적 확대를 위한 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및 연계 사업 추진
* '국외 박물관 큐레이터 연수 프로그램'(국립중앙박물관-KOICA) 및 '우즈베키스탄 국립전자도서관 구축사업'(국립중앙도서관-EDCF) 등

□ 주요 성과

-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정상외교 계기)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언론 등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상외교 계기 문화행사 개최
 - △중남미 카라반 행사 계기 문화행사(11월, 멕시코 및 페루)
 - △중아시아 카라반 행사 계기 문화행사(11월, 투르크메니스탄)
 - △VIP 중동순방 후속 쿠웨이트(10.23), 사우디아라비아 문화행사(10.29)
 - (수교기념 행사) 수교 계기 활용 집중적 문화교류 추진
 - △한-러시아 수교 25주년 △한-볼리비아 수교 50주년 △한-베네수엘라 수교 50주년 △한-이집트 수교 20주년 △한-미얀마 수교 40주년 △한-라오스 수교 20주년

- 한국문화와 문화산업의 중동지역 진출 거점으로서 UAE(‘16년 1월 준공예정)와 캐나다(북미), 이탈리아(유럽)에 한국문화원 건립 추진
- 전통문화와 ICT를 결합한 ‘K-Culture 체험관* 운영 및 현지 지원 그룹 ‘K-Culture 서포터즈’** 발족 등 한국문화 확산 기반 마련
 - * 뉴욕문화원(9.28)을 기본 모델로 △ICT 문화관(버추얼센터/도어, 미디어 라이브러리) △우수문화상품 전시관(우수문화상품, 융·복합 콘텐츠 등) △국가 브랜드 전시관(한식, 한복, 한글 등) 등 확산 예정(1차로 UAE 한국문화원에 적용)
 - **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20명 내외의 현지 각계 인사들로 구성: 뉴욕(9.28.), 북경(11.13.), 아르헨티나(11.25.), 벨기에(11.26.), 동경(11.30.), 호주(12.1.), 브라질(12.7.), 인도네시아·오사카(12.10.), 인도·카자흐스탄·LA(12.11), 멕시코(12.16.), 나이지리아(12.17.), 워싱턴·필리핀(12.18.), 이집트·베트남(12.19) 등 발족 중 (~‘16.2월 완료 예정) ⇒ △문화원 사업 공동 추진 및 참여 △교류 및 자문 △홍보 △한국 관련 활동 등
- 주재국 여건과 문화수요에 기반한 대표 브랜드사업 선정·육성* 및 K-POP 아카데미 시범운영** 등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변화
 - * K-Cinema & K-Entertainment in Hollywood(LA), K-Music 페스티벌(영국), 한일축제한마당(일본), 만화-애니메이션 특별전(벨기에), 무궁화무용단(헝가리), 통일정자 퍼포먼스(독일) 등 10개 프로그램
 - ** 전문 K-POP 보컬·댄스 강사 파견을 통한 아카데미 운영(7.27.~8.21., 베트남 / 주3회 4주 과정)
- 해외 한국문화저변 확대 및 전략적 동반관계 강화
 - 한국형 문화ODA 초청연수 관련, 사후관리 강화방안, 평가 개선방안 및 다단계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연수내용 모듈화 방안 마련
 - 수원국의 고유문화존중과 문화 복지 달성 등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 강화 및 한국형 문화ODA 전략적 확대를 위한 사업 운영개선 방안 모색
- 한국문화원 권역별 우수프로그램 순회
 - 한국문화원 자체 개발이 어려운 고급 프로그램들로 풀(Pool)을 구성해 문화원 현지 수요에 맞춰 권역별로 순회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홍보

- 아시아 권역(일본, 홍콩,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유럽 권역(영국,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북남미 권역(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권역(호주)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한국문화원 권역별 우수프로그램 순회 시 현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 미흡
 - 재외문화원과 현지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우수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및 지원 부족
- 문화ODA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성 제기
 - 문화동반자사업 10주년을 계기로 기참여자를 재초청하여 네트워크 계기(전문가토론, 심포지움, 문화행사 등)를 마련함에 따라 동창회 시범 구성 등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모듈을 구축할 필요 있음
- 재외문화원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행정직원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증액 필요
 - ‘15년 문화원 예산 총 510억 원 중 인건비·임차료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46억 원으로 총 예산대비 약 29%에 불과(문화원당 4~5억원)
 - 외국 공관이나 대사관에 비해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의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우수한 인력 확보에 한계
 - * 1인당 GDP가 비슷한 외국 공관(스페인 등) 행정직원 보수의 47~74%, 우리 외교부 소속 공관 행정직원 보수의 91%에 불과
- 현재 28개 재외문화원 중 22개* 문화원이 소규모 건물을 임차 사용(‘15년 약 90억 원)하여 한국문화 보급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에 한계
 - * 국가 소유: 동경, 북경, 상해, LA, 워싱턴, 프랑스

□ 조치계획

- 한국문화원 권역별 우수프로그램 순회
 - 현지 문화예술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문화원의 적극적인 섭외 유도

○ 문화ODA 기반 확대

- 한국형 ODA 모델 프로그램 영역*에 문화분야 포함 추진

* 한국형 ODA영역(159개사업) : ①경제, ②사회, ③행정제도·거버넌스, ④미래·범분야 이슈

- 국가별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 시 문화영역 포함

* 수여국 문화의 존중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개발협력전략에 반영 추진

○ 재외문화원 행정직원 보수를 재외공관 행정직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비 증액 추진

○ 입차 청사의 단계별 국유화와 공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재외문화원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 도모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2-2. 정책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동지역을 비롯하여 한국문화 확산 거점 확충, 대표 브랜드 사업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K-컬처 서포터즈 위촉·지원 등을 통한 한국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쌍방향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 ODA 협력기관 역량 제고, 사후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광 ODA 협의회 발족 등 한국문화 이해도 및 한국문화자본 확대에 기여 상대국 수요 및 선호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류 행사 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쌍방향 국제교류 강화에 기여함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추진시 현지 수요를 반영한 우수프로그램 풀(Pool) 구성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 홍보에 기여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문화원 신설 및 현지 수요를 반영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히 추진함 · 현지상황에 따라 사업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쉬운 국제교류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됨 ·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당초 일정에 따른 정상 추진 · 주요계기별 문화행사의 경우 현지 공연장 사정으로 일정변경이 있었으나 전체일정은 차질 없이 소화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이행상황 점검결과 지적을 반영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확산에 따른 연기된 행사(영국, 북경)를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 · 우수프로그램 순회사업 추진에 있어 지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사정을 고려해 전시 공간을 사전 확보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수교기념 행사 시 현지 공연단체의 요청을 반영해 이집트 전통공연 추가 · 현지 수요조사를 통한 ODA 수원국 선정 및 초청자 선발 · 현장 여건을 반영한 대표 브랜드사업 추진, 재외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 등 건의사항 반영, 현지 유관기관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한 현장의견 반영으로 문화원 방문자 증대 및 사업효과 제고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문화원 방문자 수' 성과지표는 목표치인 75천명에 대비 79천명(105%)으로 초과 달성

□ 총평

- 국제행사, 정상외교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다양한 한국문화 홍보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제고**하고 **문화한국 이미지 구축**
- 다국어 포털 'Korea.net' 페이지 뷰가 1억회('15.10.)를 달성하는 등 정부대표 해외홍보 플랫폼으로 정착하였고 외국인 직접 참여한 콘텐츠 공모전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문화에 대한 체감도 제고
 - * 페이스 북 'Korea Clickers' 누적 독자수 54만명('15.12 / 2년 연속 부처 1위)
 - * 콘텐츠 공모전: 총 143개국 7,721건 응모
- 외신지원센터 운영('13.6월~)을 통해 외신의 원활한 취재 지원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정례화('문화가 있는 날', 매달 수요일)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 주요 성과

- 주요 계기별 한국문화 홍보로 국가이미지 제고
 - (국제 문화교류 지원) △한중FTA 체결(15.1월) △밀라노 엑스포(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9월) △멕시코 세르반티노 축제(10월) 등 계기 시 한국문화 홍보 행사 추진(18개)
 - (정상외교) 대통령 해외 국민방문 등 계기 시 문화정상외교 지원(5개국 7개)
 - * Korea.net 특집 배너 설치 및 순방현황 및 성과 기사게재(각 8~10회), 페이스북 등 가용 SNS활용 2차 확산 홍보(각 15~20건)
 - (국가 간 수교)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성공적인 개최
 - * 개막공연으로 '종묘제례악('15.9.18, 국립사이오극장)', 기념 축하 이벤트 '에펠탑 점등식' 개최

○ 주한외국인 대상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찾아가는 문화공연 'Hello, Mr. K!'('14년 2회 → '15년 4회)
 - * 연세대(5.15. 외국인유학생), 평택시(5.30. 주한미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7.4.외국인선수단), 익산시(8.22.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 인문학 탐구 프로그램 '청춘인문 논쟁관'('14년 30팀 117명 → '15년 30팀 126명)
- 한국문화소개 우수단체 지원('14년 7개 단체 → '15년 10개 단체)
 - * 이크택견, 한국전통주연구회, 주한외국인유학생협회, 국제교류자원봉사망 한국문화교실 등 10개 단체
- 유네스코 등재 한국 문화유산 탐방(8건, 50개국 276명)
 - * 농악, 팔만대장경, 남한산성, 난중일기, 줄타기, 제주 화산섬, 처용무, 아리랑 등 8건

○ 주요 해외 인사·언론인 등 국제 문화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문화 이해 증진 및 국제 문화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유력 언론인 초청을 통해 한국 관련 긍정정보도 확산 ('14년 64개 매체 104명 → '15년 73개 매체 110명)

○ 수요자 참여형 홍보콘텐츠 제작·확산

- (참여) 세계인이 참여하는 '글로벌콘텐츠 공모전' 및 'Peace Flag 캠페인'을 개최, 한국문화의 가치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유도
 - * 글로벌콘텐츠 공모전 접수현황('14년 7,721건 →143개국 15,911건)
- (확산) 공모전 수상작을 재가공하여 온라인 홍보에 활용하고,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하여 공모결과를 확산
 - * 국외: 주헝가리한국문화원(10.7.~10.31.), 주폴란드한국문화원(10.5.~10.30.)
 - * 국내: 국가브랜드 연계전시(8.7~8.19.), 기획전시(12.7.~12.23/국립중앙도서관)

○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홍보콘텐츠 제작**

- (온라인) 온라인 환경변화에 대응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매체 다변화

- * (Korea.net) '14년 조회수 8천5백만회 → '15년 1억2천만회(약 41% 증가)
- * (페이스북) '14년 누적팬수 27.5만명 → '15년 53만명(약 93% 증가, 2년연속 전 부처 1위)
- * (영문 월간 Korea) 모바일환경에 최적화된 전자책(epub) 배포

- (간행물) 한국종합소개서 등 한국 소개 자료에 최신정보를 반영하고 디자인을 개편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한국종합소개서 'Facts about Korea' 개정 : 스페인어, 중국어 등 12개어
- 한국소개브로슈어 'Welcome to Korea' 개정 : 영어, 중국어 등 13개어
- 한국종합소개 월간지 Korea(영문) 192,000부(매월 16,000부) 제작배포
- 코리아넷 인물 인터뷰 기획 단행본 'Beautiful Bond'(7월), 외국인 한국 문화 체험 수기 단행본 'Discovery of Korea 2'(8월), K-pop, movie, food 등 해외 선호도 높은 K-culture series 3종 개정판(12월) 제작

○ **외신협력을 통한 한국바로알리기**

- 외신지원센터 운영('13.6월~)을 통해 상주·방한 외신 취재 일괄 지원

- * 상주외신: 23개국 109개 매체 297명(2015.12월 현재)
- * 외신 대상 정부부처 브리핑 지원('14년 11개 → '15년 31회)

- 한국어 교육(상·하반기), '문화가 있는 날(10회)' 운영 등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한국 관련 이슈량 증가 및 관심도를 반영하여 글로벌 홍보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

□ **조치계획**

○ 한국 관련 이슈량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의 **외국어 채널 운영 기능을 보완**하고, '한국 방문의 해', '한-불 상호교류의 해' 등 계기 시 **공동기획 제작 등 홍보 다변화**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추진계획 대비, 관련 일정을 충실히 진행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15년 이행상황 점검결과 지적을 반영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확산에 따른 연기된 행사(중국 파워블로거 및 주요 언론인 초청)를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함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주한외국인 사업 등 정책고객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를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현장의견을 적절히 반영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코리아넷 페이지 뷰' 성과지표의 목표치 (월)800만건에 대해 890건(11월 기준)으로 목표대비 111% 초과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 콘텐츠 생산, 홍보채널 다변화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홍보 효과를 제고

* (정부3.0) ·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 통한 해외홍보 효율화 · 오류정보의 기관간 공유 통한 시정 효율화

17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우수

□ **총평**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 용역의 **서면계약 의무화**와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15.7월, 신성범 의원)
- 열악한 창작 환경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
 - 예술인 창작역량 및 직업역량 강화, 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주요 성과**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 용역의 **서면계약 의무화**와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15.7월, 신성범 의원)
 - 예술활동증명 특례에 대한 간이심의절차 도입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예규 개정(5.28), 불공정행위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제정(6.8)
- 예술인의 특수한 직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사업 실시
 - 최저생계비 185%이하 소득·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준비금 지원**(300만원, 약 2,500명)
 - 예술인의 지역·기관 파견지원(455명, 월 120만원), 교육비 지원(300명, 최대 100만원),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대학로 소재) 등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금액 현실화(월 지원금 최대 29,850원으로 4.3배 증액)
 -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톱 상담·신고·조정·소송 지원이 가능한 예술인신문고 운영(15년 25건 해결)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승인('15.6월) 지연으로 '15.7월부터 사업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 사업기간 부족을 8차에 걸친 분할접수와,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 지원·방문상담' 등을 통해 보완 ('14년 1,860명→'15년 약 2,500명 지원)

□ **조치계획 : 해당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예술인 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1월), 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1~12월),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3월~) 등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은 기재부 수시배정 승인(15.6월)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었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 '14년 자체평가 결과 '우수' 과제로 해당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지역·예술분야별 협·단체 사업설명회 32회, 창작준비금 현장지원 (서울 등 13개 지역 14회)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의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15년 성과지표(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 수) 측정결과 목표치인 5,000명 대비 5,846명인 바, 달성율이 117%로서 40점 부여
	2-2. 정책 효과성	(충실)	· 다양한 예술인 복지 사업 추진으로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등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영향이 발생하였으므로 충실한 것으로 평가

□ 총평

- (대관료지원) 공연제작·발표 등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민간예술단체 대상, 대관료를 일부 지원하여 공연예술의 창작 기반 조성을 강화하는 목적사업으로 '15년도 성과목표인 **대관료 지원 수혜단체 수 430건에 대해 479건인 111% 달성**
- (공연연습공간조성) 공연작품 연습실 등 창작기반 인프라가 취약한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 대상, 공연 연습실을 조성·지원하여 공연예술의 창작 기반 조성을 강화하는 목적사업으로 '15년도 성과목표인 **신규 조성 공연연습장 수 3개소 100% 달성**

□ 주요 성과

- 민간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을 통한 창작발표부담 완화 및 공연예술 창작여건 개선을 통해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
- 총 479개 단체, 2,138백만원 지원(11월 기준)

구분	신청건수	신청금액(원)	선정건수	지원예정액(원)	비고
1월	75건	545,832,630	32건	178,696,160	
2월	75건	518,958,720	42건	255,627,880	
3월	100건	544,397,088	53건	264,229,360	
4월	122건	765,075,080	47건	277,324,000	
5월	87건	714,046,46	33건	189,590,000	
6월	123건	857,145,854	48건	190,937,000	
7월	92건	688,148,88	31건	149,591,000	
8월	179건	1,475,398,575	53건	228,314,000	
9월	201건	970,886,748	90건	220,135,000	
10월	146건	760,469,640	50건	183,789,000	
11월	220건	930,030,991	-	-	12/16 심의
계	1,420건	7,508,414,860	479건	2,138,233,400	

- 비용부담 없이 자유로운 작품 구상 및 연습을 통한 완성도 있는 작품 발표가 가능하여 민간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
- 기존 공공부문 인프라 지원은 창작물 발표를 위한 공연장에만

치중되었으나, '14년부터 최초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연습공간을 구축하는 모델 제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 후보지 조기선정 요망
 - 신규 조성 후보지 선정 및 공사 조성 시 지역별 제반 조건 협의 및 행정 절차 진행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말에 조성이 완료되는 등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조치계획

-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 후보지 조기선정 추진 예정
 - '16년도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15년 12월에 17개 시·도 대상 사업 공지 및 신청 접수를 통해 후보지를 조기 선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 '15년 신규 지표 및 '14년 자체평가 지적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아 현장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일부 사업개선 등 조치 이행함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협력 대상인 지자체 및 공간 운영주체, 지원 대상인 현장 예술가/단체, 심의위원 등과 다양한 모니터링 채널을 통해 수시 의견 교류 및 사업 반영 추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본 사업의 성과목표인 대관료 지원 수혜단체 수 및 신규 공연 연습장 수 모두 성과목표 달성
	2-2. 정책 효과성	(충실)	·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민간예술단체 등에 “대관료 지원”, “공연예술연습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여건 개선”에 기여

□ 총평

-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추진을 통해 침체된 국내 미술시장을 육성하고 미술 취약분야 지원 및 선진화·투명성 제고를 통한 미술 문화 향유증진 도모
- 사회취약시설·공간을 문화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커뮤니티 문화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디자인 문화 진흥을 위한 교류의 장 조성 및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디자인 문화 확산에 기여
-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예술인, 주민, 근로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주요 성과

- **(미술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 중장기계획(14.9월)」에 따른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추진으로 창작분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미술품 유통 및 향유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기반 마련
 -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전작도록 6건, 감정연구 4건 등)을 통한 미술품 유통기반 조성
 - 작가 미술장터(10개소), 작은 미술관 조성(6개소), 미술주간 개최, 사립미술관문화교육프로그램(43개소) 추진을 통한 예술 향유여건 증진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 예술적 환경을 조성
 - * 자유제안(1건), 기쁨두배프로젝트(3건), 즐거운동네마당(2건)
- **(공공디자인 진흥)** 일상 공간 및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선 등 디자인 문화 진흥을 통한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공간의 문화공간 조성으로 디자인 문화 확산 및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14개소)
 - * 컨설팅(용강초등학교,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 문화디자인(빅이슈 코리아, 하비지역아동센터 등 4곳), 공간 리모델링(대구하나센터 등 6곳)
-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래픽디자인비엔날레인 '2015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개최를 통해 국내외 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계기 마련('15.11.11~12.27/문화역서울 284, 22개국·91개 팀 참여)
- 2015 국제디자인총회의 국내 개최를 통한 디자인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 2015 국제디자인총회 개최('15.10.17~10.23/30개국·2,000여명 참여)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시상을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디자인 방향성 제시(공공디자인 우수사례/문화디자인 지원 부문)
 - * 201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 및 시상('15.12.23/대상 2, 최우수·우수 8)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구 서울역사가 지닌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운영
 - 기획전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 광장프로그램 <페스티벌 284 미친광장> 등 다채로운 전시, 공연 프로그램 운영, 연 18만여 명 관람
 - 문화역서울 284 내 편의시설 조성(카페, 기념품점)을 통한 관람객 편의 제고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추진)** 미술시장 저변 확대와 미술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추진
-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폐 산업시설, 도심 유휴시설 등을 복합문화공간 및 창작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예술 창작활동 기반 확충
 - 제주대학교 종합병원, 파주 미군반환 공여지, 부천 삼정동 조각장 등을 지역 및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창작공방, 갤러리, 교육체험실로 조성
 - 파일럿 전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 조성 문화공간에 사전 운영 콘텐츠 지원
- **(건축문화진흥)**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최로 건축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적극 홍보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 착공 지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소유 부지(코바코연수원, 경기 양평 소재) 내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나 토지사용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 조치계획

- 코바코와 토지사용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하여 협의·노력하되 (‘16.5월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전반에 대한 재검토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미술진흥기반구축, 공공디자인 진흥, 건축문화진흥,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사업 전반적으로 적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일정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소유주(코바코)와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지자체, 지역주민, 이용자, 분야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단계별 관계자 간 의견조율 및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 전문가이해관계자 현장워크숍, 토론회 개최, 운영위원회 운영, 주민 수요조사 등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이용객 수: 목표 달성 - 기획전시, 공연, 광장 페스티벌, 대관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19만7천여 명이 관람하여 목표치 상향 달성 · 문화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 목표 달성(추정)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평가 점수: 목표 달성(추정) - ‘15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평가는 ‘16년 초 실시 예정
	2-2. 정책 효과성	(충실)	· 미술 창작분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미술 유통 및 향유여건 증진 정책 시행을 통해 미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공공디자인 및 건축문화 개선으로 문화를 통한 도시·공간 재생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공익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 확산

20

국립중앙극장 운영

다소우수

□ 총평

-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전통예술 공연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을 기획·제작하고, 교육·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기여

□ 주요 성과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전통예술기반 공연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실현
 - 국립창극단 <적벽가>, <코카서스의 백목원>, 국립무용단 <향연> 등 완성도 높은 신작을 연이어 선보이며, 한국 고유 예술장르로서 창극의 위상을 확보하고 우리 춤 수준의 현대화 시도
 - 창단20주년을 맞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은 특별한 무대 <임헌정과 국악관현악단>, <마스터피스>, <베스트 컬렉션> 등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영역을 확장
-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신규 창작레퍼토리 개발·제작 및 레퍼토리 우수 작품 재공연
 - 신작 : 국립창극단 3편, 국립무용단 4편, 국립국악관현악단 4편 공연
 - * 국립창극단 : 코카서스의 백목원(1편), 적벽가(1편), 아비방연(1편), 국립무용단 : 제의(1편), 적(1편), 완월(1편), 향연(1편)
 - 국립국악관현악단 : 임헌정과 국립국악관현악단(1편), 별미콘서트(2편), 리empo즈(1편)
 - 레퍼토리 : 국립창극단 1편, 국립무용단 1편, 국립국악관현악단 8편
 - * 국립창극단 : 변강쇠 집 짝고 옹녀(1편), 국립무용단 : 회오리(1편)
 - 국립국악관현악단 : 국립관현악단 베스트 컬렉션(1편), 좋은밤 콘서트(5편), 땅속 두더지, 두더(1편), 마스터피스(1편)
- 전속단체 우수 공연의 본격적 해외진출로 전통 문화의 세계화 구현
 - 국립무용단: 세계적 무용축제인 프랑스 칸 댄스 페스티벌 <회오리> (‘15.11.20.) 개막공연 초청 등 4건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공연 <묵향>, 2015 밀라노 엑스포 <장구춤>, 한중문화관광교류전 <품> 등
- 국립국악관현악단 :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음악회 <아리랑 판타지> (15. 12. 9. 도쿄 오페라시티 콘서트홀)
- 국립창극단 : <변강쇠 짝 찍고 옹녀> 창극 최초 프랑스 진출 확정 (16.14~17)
-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우리 음악 축제로 자리 잡은 여우樂(락) 페스티벌(예술감독:나운선)의 지속 성장
- 총 14편 27회 공연, 관람객수 11,405명, 객석점유율 99.8%로 실적 전반 상승
- 국립극장 마당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표적 연말연시 시즌 공연으로 정착
- 2014년 첫 시도한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의 성공을 토대로 신작 <춘향이 온다> 제작 및 마케팅 실시
 - * 공연 회차 대폭 증회 : <심청이 온다> 33일 26회 → <춘향이 온다> 58일 46회
- 서양 라이선스 뮤지컬, 발레 중심의 연말연시 공연계의 흐름을 바꾸며, 전통공연예술에 기반한 대중적 음악극으로 성공적 정착
- 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 만성적 연습공간 부족해소 및 안정적 공연제작 환경마련
 - 시설규모 : 3,968㎡ 지하2층
 - * 단체연습실(3개), 공용연습실(3개), 개인연습실(12개), 악기·악보실 등
 - 2014. 12월 공사 착공
 - 2015. 12월 골조공사 완료 (공정률: 50%)
 - 2016년 내부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 2016. 9월 준공 예정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문가 아닌 일반고객의 심층적 의견수렴 기회 증대
 - 극장의 공연,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관하여 일반고객 관점에서의 개선점 발굴 노력 확대하여 중추적 공연예술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확보 필요

□ 조치계획

- 고객 의견 수렴 창구 확대
 - 고객서비스평가단 선발인원 확대, 공연·교육 관련 설문 시 주관식 문항 추가 등을 통한 심층적 의견 수렴 창구 보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시즌제 운영으로 연간 공연프로그램을 사전 기획, 홍보하여 추진계획상의 일정대로 사업이행 하였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 '14년 지적사항을 수렴, 2015년 평가지표에 '고객 만족도' 포함하였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서비스평가단을 운영 함으로써 순수관광객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극장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 · 2015.4월~10월까지 84건의 현장의견 반영하여, 조치를 하였음(극장 구조상 수용 불가 의견 12건 제외, 55건 수용, 17건 부분수용)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자체공연 객석점유율 목표치 78.3% 대비 93.8% (목표 대비 20% 초과달성) · 고객만족도 목표치 83.4점 대비 실적 86.1점 (목표 대비 3.2% 초과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전통예술 기반 현대화를 통한 우수 공연작품 제작, 관객 저변이 취약한 전통공연에 대한 공개리허설, 관객아카데미, 연습실개방, 지방순회공연 등 공연 예술창작 및 수혜자확대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 발생

□ 총평

- 서울관의 성공적 개관('13 11.)으로 3관 3색 특화된 전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대폭 확대시키고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창작레지던시 운영을 통하여 미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 창의 증진에 기여함.
- 지역 및 외부기관과의 성공적 연계와 협업을 통해 미술관 전시 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해외순회전을 적극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함.

□ 주요 성과

<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3관 전시의 심화 및 특성화>

(과천관) 한국현대미술사 정립

- 한국현대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미술계 자문 및 참여에 기반을 둔 현대미술작가 시리즈(7회) 운영
- 소장품의 심층 연구와 다채로운 해석을 위한 소장품특별주제전 및 기증작품특별전(6회) 개최
- 한국미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디자인, 사진, 건축 등 장르 특화 전시(3회) 개최
- ※ <현대미술작가>와 <소장품특별전>에서도 소외부문 고려

(서울관) 동시대 미술의 실험성 추구

- 한국 동시대 현대미술의 세계화, 세계적인 동시대 현대미술의 수용, 융복합·다원·영화 등 새로운 미술의 실험의 장으로서의 역할 확산
-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2015: 안규철 -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윌리엄 켄트리지: 주변적 고찰>전 등 기획전시(총 16회) 개최

- MMCA Film & Video(영화관) 기획 및 운영시스템 정착으로 실험적 영상예술에서 대중 프로그램에 이르는 영화프로그램 기획·운영(연간 6회, 주간 5일 영화 상영)

(덕수궁관) 한국 근대미술의 재발견

- 한국 근대미술의 복원관련 특별전, 기증문화 유도를 위한 기증작가 특별전, 근대미술 소장품 활용 특화 전시
-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근대미술 소장품전> 등 기획전시(총 5회) 개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미술관의 공공성 증대>

-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술관의 공공성 확대
 - 대상별·전시연계 교육 등 총 6,602회 실시, 404,734명 참여
 - 국립미술관으로서 미술(관) 관련분야 매개인력 양성 및 재교육 기능 수행: <미술관 전문직 연수 프로그램>, <인턴십> 등
 - 경험적 문화소외계층 대상 확대,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신규 개발·운영을 통한 문화나눔 실천: <찾아가는 미술관교육>(18개 지역, 58회, 11,070명), <미술관 문화다양성 교육>(45회, 1,685명), 장애인을 위한 감상 가이드 개발 및 보급 등
 - 매일 매시간 운영하는 작품감상 프로그램 '맥'의 브랜드화를 통해 전시와 대중이 소통할 수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미술관교육
 - 유아~어린이가 발달단계별 교육공간 및 콘텐츠 개발, 작가 워크숍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가족 중심 미술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유연한 대응, 초중등 대상 교육 확대 등 공교육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미술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
 - 청소년 현대미술 감상 및 직업탐방, (예비)교사연수, 연구모임 운영 등
 - 미술관 전문직종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일반인 및 어르신 대상 다양한 주제·형식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추진: 일반인 대상 교육, 대상별(어르신, 주부, 직장인 등) 전시 감상 특화 프로그램 등
- 국내외 기관 협업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미술관교육 모델 발굴
- 교육부, 대학,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근현대미술사연구회 등)와의 협업 강화를 통한 미술관교육 콘텐츠의 다양화·전문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동시대 미술 중심의 융복합예술 교육 창작문화공간 조성 및 디지털 매체 활용 전관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발 운영
 - 과학창의재단 협업 '무한상상실 아트 팸 랩' 및 미국 달라스 미술관 협업 'MMCA Friends' 등 개발 운영

<문화융성 및 국민행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 (과천관) '자연 속 미술관' 이미지 제고 및 미술관의 복합문화공간화를 위한 전시·체험·공연·교육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행사 운영 정례화
-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행사 정례화 및 계기별 문화행사 추진(22회, 82,778명 참여)
 - <2015 막계 페스티벌(9.12.~9.13.)>: '자연 속 미술관 소풍' 주제로 20개 프로그램 운영, 18,305명 참여
- (서울관) '도심 속 열린 미술관,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의 인식 확산 및 미술관의 복합문화 공간화를 위한 공연, 패션쇼, 토크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미술문화를 아우르는 복합문화행사 추진(36회, 6,160명 참여)

<미술품 수집·보존·연구 중추기관 위상 확립>

- 중장기(2015~2019) 작품수집 정책 수립 및 연간 수집정책 수립
 - 한국 근대미술과 국제미술 등 집중수집(약 290여 점)
- 소장작품 보험가입, 전수조사 등 안전강화
- 소장품의 이력조사를 통한 연구기록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 미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미술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 소장 아카이브 정리·기술·포장(19,000여 점)
- 미술 아카이브 수집(이건용, 전국광 등 5,000여 점)
-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재질분석
 - 지류 55점, 유화 38점, 조각 55점, 재질분석 32점 등 총 180점
- 미술관 보존환경 체계 구축
 - 전시·수장시설에 대한 온습도, 실내 공기질 조사 및 신소장품 혼증을 통한 안전한 보존환경 구축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운영 활성화>

- 미술은행 소장품의 재외공관 등 대외 활성화 유도 및 전체 민간 기업으로 대여기관 확대
- 문화소외지역에 소장품 기획전시 개최 확대
- 관리전환 정부미술품 상태조사(209점)
- 소장품 통합관리시스템 공고화를 통한 미술품 관리 효율 증대
 -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작품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고도화
 - 작품 구입·대여·관리 업무효율 개선,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 작가 및 대여기관의 구입 및 대여신청 편의성 증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파트너십 강화>

- 주요 수교국가 대상 미술 교류로 한국미술 세계화 도모
 - 세계 우수 미술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해외전 개최(6회)로 한국미술의 국제적 홍보 및 위상 강화
- 기업 등과의 전략적 후원·협업을 통한 문화마케팅 구현(6개 단체에서 총 2,668백만원 후원)
 - 미술관만의 차별화된 기업 연계 프로젝트 모델 제시를 통한 한국 현대미술의 성장동력 강화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브랜드 가치 상승
- 전국 미술관과의 협력을 통한 소통 강화
 - 미술관협력망 공동협력사업 시행('15.7. 공모 사업자 선정, 총 120백만원 보조금 지원)
 - 경기도미술관 '학예사 전문 재교육 프로그램'(60백만원)
 - 광주시립미술관 '지역미술관 협업 전시-문화예술의 등대'(60백만원)
 - 국내 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공·사립 미술관 보급(4관→6관)

<체계적·유기적 홍보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

- 전략적 언론홍보 통한 매체와의 관계 체계화 및 보도의 질적 향상화
 - 전시별 기자간담회 운영(총 26회), 보도국 보도횟수 증가
 - '14년 보도국 보도 38건 -> '15년 보도국 보도 88건(230% 증가)
- 국내외 온라인 소통 강화 및 한국미술 국제화
 - 국내 미술관 최초로 트위터 글로벌뮤지엄워크(3월), 구글 아트 프로젝트(5월) 등 참여로 한국미술 국제화
 - 적극적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내 미술관 및 문화예술기관 중 최대 SNS(페이스북) 팔로워 달성(약 13만명)
- 기관, 기업 제휴 및 지역 기반 마케팅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과천시 관광협의회, 관광업 종사자 초청설명회 개최(6회) 및 관광업계 SNS 제휴 프로모션 진행(2회) 등 관련업계 홍보협력 추진
 - 문화융성위원회, CJ E&M과 '문화가 있는 날-집콕' 미술관 연계 행사 및 네이버 온라인 생중계 추진 등 대외협력 활성화
 - 지역민 초청 야외영화상영회 개최 및 '북촌 뮤직페스티벌' 등 지역 밀착형 홍보 진행

<수요자 중심의 고객서비스 제고>

- 디지털 정보실 정보 서비스 제고
 -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이용자, 미술관련 전문가를 아우르는 미술 정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정보서비스 다각화
 - 아카이브 기획전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시 개발로 미술정보 활용 강화
 - 디지털정보실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고객인지도 제고
 - 디지털정보실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미술관 종합 정보서비스 운영 강화
 - 미술자료 원본 열람 서비스 확대(100,000여 점)
- 미술관 회원 대상 프로그램 확대 추진

- 3관 특성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관별 전시해설 및 큐레이터 토크 진행(관별 2회)
 - 관별 교육·강좌 프로그램 제공(관별 1회)
- 계기별 가입행사 진행으로 충성고객 발굴 및 만족도 제고(3회)
 - 가정의 달(5월), 한가위(9월), 연말연시(12월): 가입자 433명
 - 소장품 이미지 활용한 회원카드 및 사은품 제공(2회)
- 미술관 행사 초청을 통한 회원 만족도 제고
 - 개막식(3회), 오픈레지던시(1회), 멤버십라운지 개방(1회)

<창조적 교류공간으로 레지던시 운영 강화>

- 수준 높은 작가 선발을 위한 입주프로그램 정비
 - 고양레지던시 국내 일반작가 정원 조정('14년 21명→'15년 18명)
 - 창동레지던시 국제 일반작가 선발 시 기존 서류심사에 면접심사(화상면접) 추가 도입
- 입주 작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및 해외 전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 작가 전시 개최(총 10회)
 - 큐레이터·평론가 등 전문가의 자문 및 비평 프로그램 운영
 - 작가 연구 세미나 진행(14회, 총 35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술은행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민 미술향유 기회 확대 및 창작 지원 기능 강화
 - 문화소외계층 대상 전시관람 기회 제공 및 교육적 활용 확대

□ 조치계획

- 미술은행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 문화소외지역 대상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개최 확대
 - 공·사립미술관 무상 대여 추진을 통한 전시연계 활용 확대
 - 작품 대여 컨설팅 시 다중이용시설(민원실, 로비 등) 우선 설치 유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3관 특화 전시 개최, 체계적 작품 수집정책 수립 및 우수 작품수집, 미술관 교육 및 문화사업 운영, 미술은행 운영 활성화, 미술정보 아카이브 확대 및 관리 시스템 개선 등 모든 미술관 중점사업의 추진일정을 충실히 준수하였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 인력 운용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개선조치로 인사 혁신처 경력경쟁채용 매뉴얼보다 강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하였음. · 미술계와의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한 개선조치로 전시 평가의 지속적 환류 체제 구축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하였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고객평가단 운영을 통한 외부와의 의사소통 강화 -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고객평가단 구성·발족('15.5.9.) - 미술관 개선 및 보완사항 점검(5월~11월) - '고객서비스 개선 TF'와 연계하여 조치결과 관리 - 2015 고객평가단 활동보고서 발간 및 배포(12월 예정)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관람객수 목표치를 과천관 및 덕수궁은 과거 3년('12~'14년) 실적 평균치(121만명) 대비, 서울관은 '14년 실적(108만명) 대비 5% 상향 조정, 적극적으로 설정(240만명)하였으나, 중동호흡기질환의 발생('15.5.)으로 인한 관람객 급감으로 목표치 달성하지 못함.(209만명) · 고객만족도조사 목표치를 행자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공통 고객만족도조사('13~'14년) 결과의 평균값(76.5점) 대비 3% 상향 조정, 적극적으로 설정(79점)하였으며 목표치 초과 달성(83.7점)
	2-2. 정책 효과성	(미흡)	· 3관 특화된 전시 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대폭 확대,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총 6,602회, 404,734명 참여)을 통한 미술문화 확산 ·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다문화 청소년, 장애인 및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술 나눔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 열악한 여건의 유망 창작 인력을 발굴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작가로 지원하는 창작 레지던시 운영 등을 통해 상위목표인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에 대폭 기여함.

22

문화예술교육 지원

우수

□ 총평

-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양질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 제고에 기여
- 유아·청소년, 근로자,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의경, 상이군경 등 특수계층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사회계층 간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
- 예술강사의 선발·과건에 따른 문화예술인의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농·산·어촌 및 문화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 47개 학교를 '예술꽃씨앗학교'로 선정, 집중도 및 효과성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
- 매주 토요일 17개 시·도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 예술강사의 선발 요건을 문화예술교육사로 강화하여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난사고·범죄피해자, 군대 내 부적응 병사 등 심리적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하여 이들의 원활한 회복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갈등 치유에 기여

□ 주요 성과

-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난사고·범죄피해자, 군대 내 부적응 병사 등 심리적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15년~)

- 문화예술치유 전문 운영단체 선정·지원 : 4개(미술, 음악, 연극, 무용치료) 분야 8개 학회·협회
 - 지원사업 연수·오리엔테이션 개최 : 2회 개최, 106명 참석
 - 운영단체별 슈퍼비전 292회, 연수 45회 진행
- 지원현황
- 7개 협력 부처, 58개 시설, 77개 프로그램, 약 790명 수혜자

구분	협력부처	대상시설	지원대상	수혜시설	프로그램	수혜인원	참여인력
1	국방부	국군병원	군대부적응 병사 세월호 참사 관련	11	15	150	36
2	보건복지부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아동·청소년, 관계종사자	1	5	50	6
3	사행산업통합 감감독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4	5	50	20
4	법무부	소년원학교	학교부적응 학생	8	9	55	25
5	여성가족부	보호시설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	13	13	130	38
6	경찰청	경찰서	가정폭력·범죄 사건 발생지역 거주 주민	7	10	155	25
7	교육부	wee스쿨(학교형) wee센터(가정형)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14	20	200	25
총 계				58	77	790	175

※ 참여인력 : 슈퍼바이저, 주·보조치료사, 임상심리사, 기획자

- 소외 아동, 노인,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 상이군경, 북한이탈주민 등 전문 예술 강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 17개 분야별 예술강사 539명 선발 및 복지기관 532개 지원
- ※ 2015년도 분야별 복지기관 예술강사 현황

구분	아동		노인		장애인	
	반수	강사수	반수	강사수	반수	강사수
국악	53	35	-	-	38	23
미술	76	41	49	27	95	44
무용	39	20	54	30	95	51
영화	39	33	-	-	30	14
연극	33	26	78	44	37	20
음악	91	49	78	39	38	21
사진	-	-	35	22	-	-
계	331	204	294	162	333	173

- 군장병, 교정시설·소년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270개 군 부대, 48개 교정시설, 11개 소년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5,446명 수혜 (181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313명 지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 15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5개 보호관찰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2,128명 수혜 (33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38명 지원)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 돌봄 기능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방과후 청소년 80개, 학교밖 청소년 72개, 지역아동센터 567개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11,007명 수혜(110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454명 지원)
- 근로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산업단지 15개, 테크노파크 7개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666명 수혜(34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67명 지원)
- 북한이탈주민, 의경, 상이군경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5개, 하나원 2개, 의경부대 35개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893명 수혜(42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74명 지원)
- 지역의 문화사각지대(미혼모시설, 청소년 쉼터, 경로당, 임대아파트) 대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운영
 - 337개 문화예술단체, 422개 프로그램 선정, 강사·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일자리 425명 창출

- 소외아동·청소년의 문화감수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추진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전국 33개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교육 지원(아동 2,112명/강사 383명)
 - 평창 등 예비거점기관 6개소 선발 및 지원
 - ‘문화가 있는 날’ 합동공연(5.27/서울 마로니아에공원/6개 거점기관 425명 참여)
 - 2015 꿈의 오케스트라 이음캠프 “세상의 모든 악기” (8.3~8.8/강원 횡성 숲채원/아동단원 및 교육강사 400여명 참여)
 - 2015 꿈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10.26~10.28/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아동단원 및 교육강사 1,200여명 참여)
 - 입문단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관계자 및 교육 강사 대상 워크숍 및 연수 운영

행사명	일시/장소	대상	참여자 수
신규 교육강사 워크숍	3.30~3.31/충남 아산	꿈의 오케스트라 1년차 신규강사	50명
전체 교육강사 워크숍	11.30~12.2/경기 파주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총 30명

-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화 및 강사 전문성 및 교육의 질 제고
 - 학교·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3,457명)
 - 학교·사회 예술강사 기본연수 : 예술강사 핵심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기획·운영(16년부터 일몰)
 - 학교·사회 예술강사 의무연수 : 신규 강사의 원활한 교육 현장 적응 및 기초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기획·운영
 - 학교·사회 예술강사 선택연수 : 경력이 쌓인 강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및 경력 개발 관리를 위한 선택 연수프로그램 확대 개설·운영(보수교육 포함)

구분	교육기간	교육시수	교육인원	만족도조사	비고
기본연수	상반기 : '15.1.18~2.11	260	615	3.9(5점 기준)	
	하반기 : '14.8.3~8.5	20	20	3.6(5점 기준)	
의무연수	상반기 : '14.2. 6~2.21	440	469	4.2(5점 기준)	
	하반기 : '14.7.28~8.11	200	331	3.5(5점 기준)	
선택연수	'14.6.21~8.31	1,760	2,280	4.2(5점 기준)	
계		2,680	3,715	4.0(5점 기준)	

-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전국 8,216개교에 국악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 4,916명 파견(3~12월)
 - 지원학교 : 전체 초·중·고 (11,629개교) 대비 70.65%(8,216개교)
 - 수혜학생률 : 초·중·고교생(675만명) 대비 39.40%(266만명)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 수혜학생수 : 184만명('11) → 190만명('12) → 220만명('13년) → 255만명('14년) → 266만명('15년)

< 2015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역별 현황 >

(단위 : 개교/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수	1,030	495	277	330	252	221	170	40	1,293	463	327	556	600	640	651	723	148	8,216
강사수	878	381	228	194	234	199	138	11	566	204	214	231	391	344	311	285	107	4,916

-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운영('10년 10개교 → '11 ~ '12년 26개교 → '13년 30개교 → '14년 43개교 → '15년 47개교/ 수혜자 7,408명, 예술강사 354명)
 - 국악관현악, 공예, 뮤지컬 등 전교생 1인 1 예능활동 지원
 - 교육 기자재 지원, 관계자 워크숍·연수 및 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 지원
 - 문화예술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정된 학교 4년간 지속지원
 - 초등학교 지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지원대상 확대
- 학생들의 꿈과 끼 발현과 건전한 주말 여가문화 향유를 위한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운영 지원
 - 전국 박물관·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토요일 등 주말에 문화예술 관련

체험 및 감상교육 프로그램 운영('15년 900여개 프로그램)

- 초·중·고 학생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한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 제공으로 아동·청소년의 창의·인성 함양 및 건전 여가문화 조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 부분 간접보조 사업 방식(수행단체에 대한 재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따라 보조금 정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 제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조치계획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방식 보완하여 지속적인 지연 제출 문제 해소 노력('15년~)
- 사업별로 보조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산 교육 및 조속한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독려, 관례적인 사업 기간 연장 지양하여 기한 내 정산·실적보고서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 일정을 기한내 모두 완료하였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 '15년 자체평가 지적사항은 없으며 '14년 자체평가 분과위원회의 사전 검토 지적사항은 일반적인 교육 효과 측정방법과 거리가 있어 이에 대한 제고 필요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예술강사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약 30회 가량 워크숍, 간담회, 모니터링 등 현장의견 수렴의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성과지표의 목표치 2,800천명에 대해 2,837천명 실적 달성으로 목표치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달성(목표대비 101.3%) ·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성과지표 관련, 문화예술 교육 관련 대표 사업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이 '14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예술강사 수 증가에 애로가 있었음. 다만, 예술강사 수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 예술강사 수가 일부 증가함('14년 대비100여 명), '15년 목표 대비 97.2% 달성함. * '15.12월 말 최종집계 시 일부 수치 변동 가능
	2-2. 정책 효과성	(충실)	· 초·중·고 학생, 문화소외계층(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시설, 군·교정·소년원 등)과 일반시민(지역주민, 근로자) 등 대상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감수성 증진 및 창의성 향상과 7,778명의 예술강사 일자리 창출로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 개선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 (정부3.0)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 총평

○ 창의적 예술가 육성 및 변화를 선도하는 예술교육 확장에 기여

- 교과과정 운영, 예술영재 교육 및 연구, 국내외 예술교류, 학사 행정서비스 제공, 교사증축 및 대체학습장 조성 등으로 교수 및 학생 예술활동 지원

□ 주요 성과

○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학사행정 체계 구축

- '15-'16학년도 교과과정 부분 개편
(예술사과정: 2과목 4학점 신설, 명칭변경 14과목, 이수구분 변경 4과목, 예술전 문사과정: 1과목 2학점 신설, 명칭변경 4과목, 이수구분 변경 4과목)
- 한국외국어대와 교양교과목 공동운영
* ('15-1학기) 외대에서 본교생 수강: 53과목 101명, 본교에서 외대생 수강: 12과목 30명
* ('15-2학기) 외대에서 본교생 수강: 33과목 72명, 본교에서 외대생 수강: 10과목 27명
- 교수 연구 및 창작활동 지원
('15.2월까지: 31건, 88백만원, '15.3월이후 : 전임교원 134명 대상 연구 준비비 3억원 지급('15.10월) ※ 연간 총연구비 747백만원의 40% 선지급)
- 이러닝(E-learning) 교과목 제작 및 운영('15.1-2학기)

○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 육성

- 음악·무용·전통예술 3개 분야 예술영재 선발·교육(167명)
* 예술영재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교육(5명)
- 예술영재 각종 콩쿠르 수상 등 우수한 교육성과 도출(155명)
- 사회통합범주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운영(30명)
- 예술영재 국고과제 연구(4개) 및 영재 담당교원 전문교육(74명)
* 영재 교원기초직무연수 '16.1월 추가 실시(예정)

○ 실효성 있는 교류지원 및 우수 예술인재 유치

- 해외 문화예술 기관과 연계한 해외 예술교류 강화(7개국, 56명)
-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의 MOU 체결 및 인적교류 확대
(국내 2개 기관, 해외 2개국(2개교) 신규 교류 / 교환학생 파견 23개교 23명)
- 해외 예술인재 유치 및 기관 교류사업 내실화
(AMA 및 AMFEK 사업,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 등 문화인턴 파견 등)

○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교원분야(교과 등),교수활동(연구업적 등) 총 12개 분야 다양한 웹환경 지원
- 국정원 보안인증 만료 및 노후 장비 총 208식 교체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분야 솔루션 2식 도입

○ 서초동교사 증축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 대체학습장(대학로 캠퍼스) 조성 및 환경개선 시행 22건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연 등 외생변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착공 지연

□ 조치계획

-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15. 12월 시공사 선정(조달청 계약요청 : '15.11월)
- '16. 2. : 본 공사 착공

〈 세부 추진경과 〉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 3. 4.
* (심의 결과) 보류 / 예술의 전당 등 주변시설 관리주체의 의견 수렴 및 협의 필요
*※ 주변기관(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협의 : '15. 3. ~ 4.
- 서초동 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안) 변경(2차) : '15. 4.
* (규모변경)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19,000.55㎡(수평증축 2,476.3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 '15. 5. 6.
* (심의결과) 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 '15. 5. 2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5. 7. 16.
- 조달청 총사업비 실시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15. 8. 25.
- 서초구청 건축협의 완료 : '15. 8. 31.

※ 인허가 및 협의사항을 설계에 즉시 반영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추진계획상의 일정대로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 *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및 착공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지연 등 외생변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착공 지연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국제교류 프로그램 건수는 논리 및 타당성에 지적을 받아, '15년도 성과 관리시행 계획 수립 시 이를 교체하여 '주요 국제대회 입상률' 지표를 신규 성과지표로 반영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교학협의회 개최, 학교 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교수·학생·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육만족도 * '15년도 실적 : 89.7점 (목표치 85.1점 대비 105.4% 달성) · 주요 국제대회 입상률(%) * '15년도 실적 : 2.83% (목표치 3.1점 대비 90.9% 달성) ※ 국제대회 입상률 목표치 4.1%('12~'14 평균 입상률)는 잘못된 산정자료로,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기 제출한 산출공식에 의거 재산정
	2-2. 정책 효과성	(보통)	· 예술을 통한 사회 기여(예술 봉사)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 · 활발한 국제교류, 우수 국제 대회 입상 등을 통한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

24

국립국악중고 운영

다소 미흡

□ 총평

- 국악분야 선도적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적 교육운영으로 전통 예술인재를 육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
- 재능기부 및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 다양한 공연 활동 추진, 국악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문화소외계층 등 대상 전통예술 향유기회 제공
- 국내외 활발한 공연교류를 통해 국악의 우수성 홍보 및 전통예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성과

- 예술능력 함양 및 국악문화 확산을 위한 연주활동 실시
 - 교내실기경연대회(2월), 목덕예술제(6월), 전공이습회(7월), 소리샘 예술제(12월), 목덕한마당(12월) 등 개최
 - 찾아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교실 운영(서울역삼중학교, 대 모초등학교, 가산초등학교 등)
-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방과후 학교 운영
 - 일반교과 및 특기적성 총 119강좌 785명(전체학생) 참가
 - 전공실시능력 배양을 위한 1:1 국악 및 무용 전공실기지도 운영
-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육협력 및 교육실천활동 전개
 - 2015세계교육포럼 축하공연(인천 송도), 크라운 해태 임직원 초청공연, 학교폭력예방 경진대회 (서울지방경찰청), 광복 70주년 행사 등 (강남구청), LG 국제여자 야구컵 대회 개막식 공연(경기도 이천), 2015 강남구 사회복지페스티벌(강남구청), 2015 서울국제안보대회(국방부), 한국청소년문화진흥교류(여성가족부), 한국박물관연수(한국가구박물관), 서초강산퍼레이드(서초구청), 환일고등학교 가을밤 열린음악회(환일중,고), 재실에서 만나는 흥겨운 우리국악(선릉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 개포골 어울림국악한마당 축제(개포4동) 등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실천과 재능교육기부 실천 활동 확대
- 2015 종묘대제(5월), 사직대제 봉행 일무공연(9월) 등 국가주관 행사시 전통공연 재능기부 참여
 - 해외 국악문화 확산 및 지속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중국(5월), 북유럽 3개국(6월), 베트남·캄보디아(12월)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1991년 신축이후, 25년 이상 경과된 고등학교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필요

□ 조치계획

- 연차적인 예산확보 및 장기적인 시설물 정비 계획을 통해 점진적인 개보수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
 - ('15년도 실적)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2대(예술관동, 학과동), 개인연습실 흡음시설(92실) 완비, 중학교 학년 증설에 따른 교실 확충(중학교 1교실), 대합주실 및 무용실 내부보수 등
 - ('16년도 계획) 고등학교 노후배관 교체 및 화장실(29개소) 개선, 무용실 바닥공사, 시청각실 및 음악실 흡음설비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메르스 등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과제 추진 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였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국내외공연예산의 외부 의존도에 따른 계획적인 공연 추진의 한계>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예산의 자립도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 개선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2015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 계획에 반영 · 년 8회에 걸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교육사업 추진 ·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 학부모를 참가시켜 추진(해외공연 입찰, 교복입찰 등)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학교교육활동 평가만족도(7점 척도) : 77.97(달성률 101.3%) · 전국규모대회 입상실적 : 142건(달성률 103.7%)
	2-2. 정책 효과성	(보통)	전통예술 인재 육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 기여 - 다양하고 왕성한 국내외 연주활동 등 실기중심의 예술 교육을 통해 실력과 창의력을 갖춘 전통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국악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 총평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재능기부, 학교교육 활동의 다양화·특성화 지원, 국제교류를 통한 예술인재 육성 등을 통해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전통예술 전문인 육성에 기여
- 전통예술의 전공별 세분화·특성화된 예술전문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2예술관 완공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공연활동 지원

□ 주요 성과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예술 공연 및 창작 지원

- 지역사회 주민과 문화행사 개최(10회)
 - 금천구 주민 축제(4월), 문화예술인 축제(5월), 청소년 동아리 축제(7월) 등
- 한류예술축제, 민족예술대제전, 전통예술제전 등 창작지원(12회)
-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운영(3회)
 - (5.18~5.29/600여 명, 10.23/1,400여 명, 11.26/800여 명 관람)

○ 전통예술의 세계화 및 학교 위상 제고

- 광복70주년 기념 사할린 동포 초청공연 및 사립 예트노스 학교와 합동공연(10.1~10.6/22명)
- 아시아 중심에서 교류활동을 유럽·러시아 등으로 다변화(3~6개국)
- 청소년(아리랑)예술단 해외연수를 통한 전통예술의 역량 강화(5.16~5.25/34명)
-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 고취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 학부모(3.20/207명), 명사 초청(7.9/350여 명), 입시·진로(10.23/91명)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개인정보 점검 평가상태 최우수 수상(10월)
- 방학 중 외부 전문가 강사를 초빙하여 방과 후 학교 주문·맞춤형 프로그램 질 제고(553강좌, 2,953명)
- (주)신세계조선호텔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장학금, 학예활동 지원금(2.17/2천만원)
- 학교 홍보, 대국민 인지도 및 접근편의성 제고(금천구청 협조)
 - 시내버스정류소에 학교명칭 병기(추가), 학교 안내 표지판 설치(신규)
- 학교교육 활동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경연대회 입상실적 목표

대비 107.8% 달성(실적/목표: 205/190건)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 전공별 세분화·특성화된 예술전문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2예술관' 완공
 - 공사기간: '14.5~'15.12.3, 연면적: 4,443.24㎡, 지상 4층
- 향사생활관(기숙사) 석면 철거로 학교 안전 환경 조성(7~8월)
- 노후 급식시설을 설비 기준에 부합하게 개·보수('15.12~'16.2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교육시설의 위험성 해소를 통한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미흡
 - (내진성능평가) 2011년 실시한 학교 건축물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인문관(예술관)과 기숙사 일부 보 및 기둥의 내력이 부족하여 구조 보강 필요

□ 조치계획

-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별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내진 보강을 하고, 지진위험도가 있는 타 시설물에 대하여도 단계적인 내진성능평가 추진
 - 소요예산: '16년 예산 미확보(향후 예산확보 노력 지속)
 - 추진계획('16~'17년)

건물동명	내 용
· 인문관	· 구조 보강(철판,섬유판 보강) 및 내진 보강 추진
· 기숙사	· 구조 보강(철판보강)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추진계획에 따라 학사일정 계획수립 반영 등 충실히 추진하였으나, 음악연극과 발표공연은 메르스(MERS) 예방관리 위해 행사일정 순연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학교교육시설 개선 및 성과지표 재설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2 예술관 완공 및 '15년 지표 재설정하여 반영함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학교 제2예술관 증축 공사 시 저미된 현장 감리원 배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업에 반영하고 증축공사를 완료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은 목표 190건 대비 205건으로 107.8% 달성되었으나,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는 목표 71점 대비 68.91점으로 97.1%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전통예술의 원형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전통연희 전문 인재 육성과 역량강화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예술 공연 및 창작지원 등으로 국민 예술 향유에 기여함

26

국악방송 활성화

보통

□ 총평

- 유일한 한국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개발, 방송함으로써 공익적 기능과 역할 수행
- 문화의 다양성 추구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에 기여하는 등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 주요 성과

- 방송을 통한 전통문화의 대중화, 생활화 실현
 - 다양한 전통 음악과 퓨전 창작 음악은 물론 문화계 소식, 공연실황 중계, 인물 초대석, 국악 교육 등의 국악 프로그램을 24시간 방송
- 제작프로그램의 외부 수상
 - 라디오 프로그램 : 제186회 이달의 PD상 수상(PD협회)
 - 광복 7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2부작 '해방공간의 국악'
 - 영상 프로그램 : 9월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수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판소리의 맛과 멋', 뉴미디어 부문 수상(국악방송, 푸드TV 공동제작)
- 라디오 드라마 제작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 백담서생(20부작, 각 20분) : 조선 후기 새로운 조선을 꿈꾸던 백담과의 활동상과 음악세계를 그린 드라마
 - 설야(30부작, 각 20분) : 조선시대 국가음악기관이던 장악원 악사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
- 제주국악방송 개국(12월 29일)
 - 방송권역 확장으로 문화예술의 보편적 접근권 가치 제고
 - 국악방송 가청인구 확대('01년 2,000만명 → '15년 3,196만명)
- 지역방송국(광주국) 활성화
 - 로컬프로그램 확대 편성 : '14년 1일 4시간 → '15년 7시간 확대(가을개편 이후)
 - 광주개국 1주년 기념공연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 연계 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서암문화재단, 전주세계소리축제, 전남대, 일한전통문화교류협회(일본) 등
-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국악음원 DB화 및 음반 제작
 - 아날로그식 국악음원의 디지털 변환작업
 - 음반 산업화에 따라 민족음악의 체계적 수집, 보존을 위해 전통 음악 녹음 확대
- 영상화시대에 따른 국악영상콘텐츠 요구 부응
 - 영상서비스 : 생방송(보이는 라디오) 및 VOD 서비스
 - 공연실황, 공개방송, 특집 다큐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 서비스
 - 제작된 콘텐츠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및 타매체 송출(KTV, 채널A, 푸드TV, 아르떼TV, 불교TV, 소상공인방송 yesTV, TBC대구민방, 美 DirecTV 등)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2-2. 정책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취율 향상(9.4%→10.4%) · 제작프로그램 외부 수상(2회) · 제주국악방송 개국으로 문화예술의 보편적 접근권 가치 제고 · 국악에 낮은 국민과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는 방송 및 문화사업으로 국악진흥 및 저변확대 · 음원, 영상 등 전통 콘텐츠물의 DB 구축으로 기록 및 보존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지역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광주국 로컬프로그램 확대 편성)

* (정부3.0) 전통관광특구 내 국악 BGM 방송서비스 제공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한 방송제작 및 시설운영 등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 · 당초 9월 말로 계획했던 가을 개편은 추석연휴 후인 10월 5일로 순연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프로그램만족도에서 청취율로 변경('15년 성과지표부터 즉시 변경)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취행태조사 3회, 고객만족도 조사 1회, 시청자위원회 3회, 외부전문가 수시 자문 등 현장의견 수렴의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대비 110% 달성

□ 총평

- 국립국악원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기획공연 및 브랜드공연, 신규 작품의 연중 운영을 통해 국악공연의 전통성과 대중성을 함께 강화
-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국악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밀착형 국악 보급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국악의 체계적 학술연구, 미래세대 국악인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한 국악의 보존·전승 및 확산에 기여
- 고품격 국악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공연 및 상설공연 운영, 국제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한 국악의 세계화에 기여

□ 주요 성과

<고품격 공연을 통한 국악공연 경쟁력 강화>

- **기획공연, 브랜드공연, 신규작품 개발 등을 통한 공연품질 및 관객 감동 제고**
 - 고종대례의 '대한의 하늘'(3회, 1,667명 관람), '산조하조'(3회, 1,143명 관람) 등 대규모 종합극 기획공연 운영
 - 해설이 있는 공연(토크콘서트 '다담'(10회) 등) 및 축제형 야외공연(별별 연희(7회, 3,535명 관람) 등) 등 국악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공연 기획
 - 요일별 특화된 시리즈 공연 신설(수요춤전, 목요풍류, 금요공감, 토요정담)
 - 지방원별 특성에 맞는 대표브랜드 공연 운영(민속국악원 창극 '청, 춘향'(2회, 1,151명 관람), 남도국악원 기획작품 '몽이여행기'(2회 750명 관람) 등
- **어린이, 초심자 등 타깃별 공연체계 구축을 통한 잠재고객 개발 및 국악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어린이 대상 장기공연 운영 시스템 정립(숫아라 도깨비, 브레멘, 숲의 노래, 유모차음악회 등 총 50여회, 9,000여명 관람)
 - 초심자 대상 전략적 공연 확대(토크콘서트 다담,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총 20여회, 4,106명 관람)
 - 직장인 대상 공연(기업 등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총 8회, 1,000여명 관람) 등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국악 향유기회 확대>

○ **유아, 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국악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연 관람, 악기체험 등 유아국악체험 운영(8회 참가 1,965여명)
 - 청소년 체험(20회 참가 2,770여명) 및 강좌(2회, 240여명)
 - 장애청소년 국악체험 및 특수학교(7개교) 강사지원(6회, 참가 271여명)
 -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국악) 운영(총 9개교, 1개교당 30여명)
 - CEO 및 공무원 등 대상 아카데미 운영(23회, 211여명) 등
 - 국방부 부대 풍물놀이(12회, 30여명) 및 가족국악 강좌(20회, 192여명)

○ **누구나 쉽게 국악을 즐기며 배우는 국악아카데미 활성화**

- 국악과 인문학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10회, 40여명)
- 무료 온라인 교육사이트 <국악아카데미> 운영(48강좌, 방문자수 70,000여명)
- 세종국악아카데미(4회, 156여명), 대중음악 작곡가(17회, 14여명) 등 대상 국악 작곡 아카데미(16회, 14여명), 국악기 제작 아카데미, 민속국악원 청소년 판소리 영재 교실 <국악 영재원> 운영 등

○ **DVD, 음원 등 생활밀착형 국악 보급으로 국악 생활화 환경 조성**

- 전래동요 DVD(15곡), 프로축구 국악응원가(3개 구단),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 음악 제작 및 보급(12곡), 크리스마스 캐럴(15곡)
- 초등학교 교가 국악반주 제작 및 보급(15개 교육청, 30개교)

○ **타깃 마케팅,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한 이용층 확대**

- 유료회원제 도입 등 회원제 개편, CRM(고객관계관리)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뉴스레터 발송 등)
- 네이버, 유튜브 등 자체 SNS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확대(공연 및 홍보 영상 등록 1,100여 건, 신규 구독자 1,804명 확보, 누적 조회수 951,000회)

<국악연구, 미래국악인 양성 등을 통한 국악 전승 활성화>

○ **국악의 보존과 체계적 전승을 위한 연구 심화 및 역량 강화**

- 국악연감, 국악원논문집 등 국악계 기초심화자료 12종 및 전승음악 악보집, 한국음악선집 등 보존·전승자료 7종 발간
- 중장기 국악진흥 정책 마련을 위한 국악 포럼 개최(국악공연 자연

음향 개선, 국악원 경쟁력 강화, 민속악 주제 등 9회 개최)

- 국악기 연구를 위한 악기연구위원회 운영, 국악기 개선 및 고악기 복원 연구

○ 국악 유물과 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이용 편의 증진

- 국악유물 수집(가죽 5건 10점), 아카이브 소장기록물 정리사업(총 1,906건 4,342점)

- 국악박물관 전문 1종 박물관 등록(5월)

- 국악박물관 도슨트 제도 도입 및 2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8~10월) 등

○ 미래 국악인 양성 체제 구축

- 어린이 예술단 '푸르미르' 운영(74명, 장단·노래 등 32회 강습)

- 국악학 분야의 우수 인재 발굴(국악학술상, 관재국악상 공모 등)

- 국악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재 발굴(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 창작국악동요제 및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확대 개최

<해외공연, 교류·협력을 통한 국악한류 확산>

○ 고품격 국악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공연

- 한불 상호교류의 해 개막공연 <중요제례악>(9.18~19, 프랑스 파리 국립사이오극장)

- 한국 전통무용 유럽 순회공연 <왕의 하루>(9.24~10.3, 독일 등 4개국)

- 우즈베키스탄 주한대사배 태권대회 개막공연 및 폐막공연(9.12-13/우즈베크) 등

○ 연간 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부산 해운대에 국악상설공연 신설

- 한류확산을 위한 전통예술공연 '왕비의 잔치'해운대 그랜드호텔 전용 극장 운영(133회/18,514명 관람)

○ 세계보편예술로서의 국악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프랑스, 벨기에, 중국 등 한국문화원 해외국악강사과전(17개국, 90여명)

- 음악학자, 작곡가 등 해외 전문음악가 대상 국제국악연수 실시(7개국, 16여명)

- 저개발국가 음악인 대상 문화동반자 사업 실시(6~11월, 4명)

- 남도국악원 국내·외 외국인 및 해외동포 대상 국악연수 실시(540명 참가)

○ 공연·학술 교류 확대 및 해외 주요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중 인문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하남박물관과 공연 및 학술회의 개최(3월)

- 북한 등 한민족 음악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주회 및 학술회의 개최(9월)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전통예술 교류 학술대회 및 연주회(4월), '아악' 특별전(11~12월) 및 특별공연(11월/2회) 개최

-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파리아키박물관 국악기 가죽(5종) 및 특별공연 개최(11월)

- 국악자료(악기, 의상 등) 해외보급(9개국, 300여점)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필요

- 고객 맞춤형 공연 패키지 제공 및 교육·전시 관람 연계 홍보 등 포괄적 마케팅 전략 운영

- 페이스북, 트위터, 파워 블로거 등 유명 인사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대폭 확대

- 유튜브, 구글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영상콘텐츠 서비스 강화

- CRM 기반 고객 관리와 예우를 통한 타깃 마케팅 강화

□ 조치계획

○ 전략적 홍보를 위한 전담 홍보마케팅TF팀 구성·운영('15.11월~)

○ 지방국악원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전략 수립('16.1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공연, 교육, 연구 사업 등 대부분이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충실히 수행되었음 · 다만, 국악체형, 포럼 등 일부사업은 메르스(MERS) 여파로 인해 취소되거나 일정 변경 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미흡)	· '14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16년도 반영예정, '15년도 자체 평가 지적사항은 없었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국악연주단 운영, 공연, 연구 등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연주단, 관람객, 참가 등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 성과지표의 목표치 79.4% 대비 80.0%(100.7%) 달성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2-2. 정책 효과성	(보통)	· 고품격 국악공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악의 체계적 연구, 미래 국악인 양성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민족문화의 진흥 기반 조성에 기여	

28

콘텐츠 금융 활성화

다소우수

□ 총평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조성 추진으로 민간자본의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 정책적 육성분야이나 수익이 저조한 분야로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콘텐츠에도 제작자금을 조달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 특히, 문화산업 장르 간 융합, 정보통신기술(ICT)과 콘텐츠 융합 펀드를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콘텐츠 장르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또한,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 펀드 결성(예정)으로, 국내 콘텐츠의 중국시장진출 지원 본격화
- 완성보증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콘텐츠기업 제작 활성화 유도
-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및 종합적 금융지원(융자, 투자, 컨설팅 등) 시스템 구축
- 콘텐츠공제조합 공제사업을 통한 영세콘텐츠 업계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 모태펀드 투자재원 확충('15년 500억), 완성보증계정 국고 추가 출연('15년 50억)등 다양한 금융·투자 지원정책을 통해 콘텐츠업계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 기반마련

□ 주요 성과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을 통한 **취약분야**(공연/음원, 콘텐츠영세기업 등) 및 **성장잠재 분야**(융합콘텐츠, 중국진출콘텐츠) 투자 활성화
- 높은 리스크로 인해 민간에서의 자발적 투자가 부진한 분야의 펀드 조성을 통해 시장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 유도
- 성장잠재 분야 펀드를 선제적으로 결성하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유도

<2015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콘텐츠 영세기업	방송영상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문화-ICT 융합콘텐츠	공연/ 음원	재무적 출자자	한중문화 산업공동발전	계
출자규모	100	150	100	50	100	100	200	800
결성규모	160	253	425	560	155	150	500	2,203

* (공연/음원,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 분야) 운용사 선정 완료, 펀드결성 '16.1분기 예정

- '06년 이후 '15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1조 3,136억원의 59개 조합 결성(잠정/정부 출자액 5,213억 원의 2.5배 결성)
 - 결성된 조합을 통해 '15년 12월말 기준, 총 1조 5,659억원 투자(잠정)
- 특히 국내 상업영화 중 모태펀드 투자영화의 비중이 평균 79%(작품수 기준)로 나타나는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투자재원으로 기능

<한국영화 개봉작 수 대비 모태펀드 비중>

(단위 : 건, 14년 12월말 기준)

구분	'08	'09	'10	'11	'12	'13	'14	합계
국내 상업영화 수	50	48	50	46	54	51	48	347
모태펀드 투자영화 개봉작수	28	37	38	37	48	44	42	274
상업영화 대비 펀드투자영화 비중	56%	77.1%	76%	80.4%	88.9%	86.3%	87.5%	79%

*상업영화 : 전국관객 10만 명 이상 영화

(출처 : 한국벤처투자 내부 자료)

- 또한, 3년 이하 창업초기기업에 54.9% 투자하는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 지원 확대('15.11월말 기준)
 - * 종진, 특히 등 계정 전체에서는 3년 이하 초기기업에 31.5% 투자
- '16년도 예산 360억을 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신규 확보하여 문화콘텐츠 투자 재원 확충
- 문화산업완성보증 신규보증 지원 및 저변 확대

- 완성보증계정 50억원 신규 출연('15.2월) 및 '15년 100건, 601억원 신규보증 지원('15.12월말 기준)

* 신규보증규모 : ('11) 261억원, ('12) 375억원, ('13) 441억원, ('14) 502억원

** 붙임 자료 참고 : 2015년 신규 보증지원 현황

- 영세 창업초기 콘텐츠 제작기업 지원 확대

* 지원 프로젝트(평균보증금액) : ('14) 57건 (8.8억) → ('15.12) 100건 (6억)

* 창업기업(5년이내) 지원비중(%) : ('14) 43.4 → ('15.12) 56.3

- 지원장르 다양화를 통한 완성보증 저변 확산

* 3대분야(게임,드라마, 공연) 외 지원 : ('14년) 4건 → ('15.12월) 23건

- 콘텐츠 완성가능성 심의를 위한 추천위원회 개최(총 9회)
- 완성보증 지원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원목표 달성과 적정 운용배수 관리를 위한 계정운용방법 개선('15.8월)
- 제작공정관리를 통한 콘텐츠 완성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리위원회 개최(총 2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충실)	· 모든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완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10점)	(충실)	· '14, 15년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충실)	· 펀드 기획단계부터 타 기관과의 공동 출자를 추진하여 펀드 조기 결성을 유도하였으며 시장 환경 및 수요에 따른 출자계획의 탄력적 조정을 통해 펀드 조성 가능성을 증대시킴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모태펀드 연간 투자금액 2,100억 원 - 모태펀드 '15년 12월말 기준으로 2,113억 원 예상되어 목표액을 100.6% 초과달성 · 2015년 완성보증 성과목표(570억원) 초과 달성 - 2015년 12월말 지원 실적 : 601억원(105.4%)
	2-2. 정책 효과성(20점)	(우수)	· 모태펀드 5,213억원 출자로 1조 3,136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투자승수 2.5배) 및 1조 5,659억원 투자('15.12월말 기준/잠정) - 국제시장, 명량, 넷잡2, 여신님이 보고 있어 등 다수 제작지원 · 완성보증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영세 창업초기 콘텐츠 제작기업 지원 확대로 성과목표인 콘텐츠산업 선순환구조 마련에 기여

29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다소 미흡

□ 총평

- 문화기술(CT) 연구개발(R&D) 전 주기의 대폭적인 혁신방안인 '문화기술(CT) R&D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체계 개선
- 문화콘텐츠 장르 특화 핵심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R&D 과제 기획으로 문화산업 업계의 기술경쟁력 개선
- 문화기술(CT)관련 기관들의 국내·외 주요전시 참가지원을 통해 문화기술(CT)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미래 유망서비스 발굴과 산·학·연 간 협력 체계 구축의 기회를 마련

□ 주요 성과

-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15.5월) 후속조치 및 문화창조융합벨트('15.2월 출범)와 연계한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전 주기의 대폭적인 혁신방안인 '문화기술(CT) R&D 혁신방안'을 마련**('15.9월)
- 사업의 구조를 문화산업 장르별, **현장 중심의 R&D 체계로 개편해 예산 증액달성**('15년 506억원 → '16년 551억원/8.9% 확대)
- 문화산업 현장 밀착 지원형 기술개발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 공동 기술개발 등 자유공모 확대
- 산업계 중심의 현장 목소리를 수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기술(CT)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 운영**('15.7~9월), 미래 유망서비스 기반, 장르별 신규 연구개발과제 **아이디어를 발굴**(57개)하여 **신규과제기획 시 반영**(12개)
* (전략기획단) 게임, 애니·캐릭터, 영화, 음악, 융복합, 공연·뮤지컬, 전시, 디자인, 정책, 청년 등 10개 분과, 전문가 49명
-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위해 전 국민 대상 **기술수요조사**('15.6월~7월)를 실시, 지역별 산·학·연에

찾아가는 기술수요조사 현장설명회(15년 7월/3개 지역)를 개최하여 접근 기회를 확대, 문화기술 관련 기술수요 258건 발굴, '16년도 신규기획대상 과제 30개 도출

- **국내·외 주요행사**(GDC, SIGGRAPH, 심천하이테크페어, 광주ACE-Fair, 코리아청년콘텐츠쇼 등)에서 CT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비즈매칭 **상담 계약 건수 1,358건**(전년대비 20% 향상), **계약 예정 금액 5,875만 달러**(전년대비 120% 향상) 달성. 특히, '심천하이테크페어'에 첫 참가로 **중국 시장 진출의 계기 마련**
- 'CT포럼 2015'(15.4.30~5.3)', '문화기술 창조포럼'(15.10~11월, 3회개최) 등의 개최를 통해 새로운 문화기술(CT)의 정보 공유기회를 마련하고, 미래 유망서비스 기술 발굴과 문화기술 관련 산·학·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문화기술의 중장기 전략 및 융합 모델 발굴 기반을 마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됨 -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2015년도 문화기술(CT) R&D 시행계획 수립 및 신규과제(지정·자유) 모집공고, 선정 등 추진 - 'CT포럼 2015' 개최 및 'GDC', 'SIGGRAPH', '심천하이테크페어'에 참가하여 개발기술에 대한 사업화 및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함 ○ 또한, '정부 R&D 혁신방안(미래부)',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문화기술(CT) R&D 혁신방안'을 마련('15.9.1)하는 등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1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 시장 선도적 과제도출을 위해, 개발 기술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인 예술인, 콘텐츠 업계 종사자 등 민간 전문가의 과제기획 참여기회 확대 추진 - '기술수요조사' 및 '지역설명회'를 개최 - '문화기술(CT) R&D 전략기획단' 운영 - 'K-CT 청년아이디어 공모전' 등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대상 의견수렴 회의 및 과제발표회, 전략기획단 운영 등 현장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 사업추진 관련 제도개선, 사업반영 등 추진 ○ 추진사업별 자체점검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과제 수행시 발생하는 애로점,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수행 추진에 반영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도 목표인 사업화실적 2.79건 및 특허실적 3.15건, 문화기술 매출기여도 21.52%, 콘텐츠 제작기간 감소율 20.79% 달성(예상)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특화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및 장르간 융합으로,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및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 ○ 산업계와의 전략적 소통창구 운영 및 현장 스킴 강화로 산업 현장 기술애로 해소를 통한 기술사업화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단계별 차등지원, 동반성장 등 차별화된 문화기술개발 지원 정책으로 창의적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동반성장 비즈니스를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총평

- 문화콘텐츠산업의 근원적 기반이 되는 콘텐츠 인재양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형, 융합형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는 정책을 수립시행 중임
- 특히 콘텐츠창의인재양성(169명) 및 현업인재교육(371명), 콘텐츠 융합형교육(934명)등 사업을 추진하여, 15년 목표 1,400명 대비 1,472명 인재양성 성과를 냈고, 콘텐츠창의인재의 경우 150여건의 국내외 수상, 선정, 계약, 데뷔 등 우수콘텐츠 창작 성과를 거두었음.
- 다만, 현장의견수렴에 대한 정책반영 등이 다소 미흡하며, 교육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동 과제에 대해 ‘미흡’으로 평정

□ 주요 성과

- **융복합 콘텐츠산업환경에 대응 가능한 청년 창작자 발굴,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8개 플랫폼 기관과 멘토 86명의 도제식 교육을 통한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창의인재 169명 발굴, 양성

플랫폼 기관명 (참여기관)	멘토링 과제명(창의숙성 분야)	멘토	창의 교육생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국아트컴퍼니)	차세대 CT형 공연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공연 기획 창작 프로듀서)	11	21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사)한국영화감독조합)	영화감독과 함께 하는 창의인재 실전 프로젝트 (시나리오 창작/제작감독)	11	22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	경계를 넘어! 다큐멘터리 청년감독 육성 (다큐멘터리 감독)	11	21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1인창업이 가능한 3D 기술 융합 콘텐츠 창의인재 육성(3D프린팅, 캐릭터 창작자)	11	22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학신문화사, 재담미디어, 투니드엔터테인먼트)	중장기 웹툰생태계 멘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융합멘토링 (웹툰 작가)	10	20
(주)아이엠티브이 (스토리텔링연구소)	방송작가 뉴웨이브 프로젝트 (드라마, 다큐, 예능 작가)	11	22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디지털 아트 및 디지털 제조 분야 창작기반 융합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디지털아트 창작&제작자)	10	19

(주)와이랩 (아이필름코퍼레이션)	웹툰 연계 K-웹드라마 빅킬러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웹드라마, 웹툰 창작자)	11	22
합 계		86명	169명

- 16건의 국내외 수상, 39건 지원·선정, 계약·데뷔 64건, 공연·개봉 등 31건 우수 콘텐츠 창작

2015년 대표 성과사례 : 2개 플랫폼기관 창의교육생 협업작품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 2015년 / 부동산에 집착하는 가족에 대한 사적 다큐멘터리
멘토 : 마민지(감독), 박영수(프로듀서) / 멘토 : 한경수, 이영민

- 2015 제 7회 전주프로젝트 마켓 최우수상 수상 및 제작지원금 1,000만원
- 2015 제 1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더팩&기록문화보관소상 수상
- 2015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 베스트 신인 프로젝트상 및 제작지원금 1,000만원 등

※ 2015년 주요 추진 성과 : 붙임1 참조

- 창의인재양성 효과제고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
 -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분야 등 신규 플랫폼기관 확충 (8개 기관 중 신규 4개)
 - 김풍 작가, 송지나 작가 등 정상급 멘토진 확충 (멘토 86명 중 약 70% 신규)
 - 멘토:멘티 매칭비율 1:3→1:2로 축소, 멘토링의 질적 강화 추진
- **급변하는 콘텐츠시장 환경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현업인 직무과정 운영**(12개 과정, 353명 수료)
 - 문화기술(IoT, 핀테크 등) 이론 및 활용방안, 미래 트렌드 전망, 지역별 해외진출전략, 플랫폼 발전현황 등 과정별 4회 통합과정으로 전문지식 및 트렌드 습득
 - 국내외 저명연사 초청 성공사례 세미나 개최(10회, 1,493명 참가)
 - 마이클 유슬란(영화 배트맨시리즈), 토마스 프레이(세계적인 미래학자), 나영석(CJ E&M), 김태호(MBC) 등 초청, 성공전략 전수
 - 찾아가는 강좌 신규개설(상암-방송콘텐츠, 판교-VR게임)을 통한 교육수혜 지역범위 확대
 - 콘텐츠 기획, 제작인력양성 해외연수 및 사업성과 도출(1회, 18명 수료)
 - 중국 공연콘텐츠산업 현황파악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 공연 기획, 제작자들의 해외진출 직무역량 강화 모색 (2015.10.26.~10.30, 중국 북경)

[주요성과]

- 2016년 연수생 작품 <두드러라 맥베스>, 중국 “세익스피어 400주년 페스티벌” 참가협의
- 2016년 연수생 작품 <뽀로로와 댄스댄스> 중국 이하이극장, 완핑극장 등 공연추진
- 2016년 상반기 연수생 작품 <유아동체험오브제(가제)> 상해 공연추진
- 2016년 홍콩 라이선싱 페어, 대만 등축제, 상해아트마켓 등 중화권 마켓 참가추진
- 중국 법인사무소 설립추진 (HJ컬처, 도모: 상해/ 극단 해보마: 재남)

- **국내 대학 콘텐츠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12개 대학)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다학제·산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12개 대학 중심으로 융복합 기술분야 등의 실무 프로젝트 108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5년 교육프로그램 지원현황 : 붙임2 참조

- **해외석사과정 카네기멜론대학교 ETC/HCI 과정 지원**(11명)
 - 융합형 프로젝트 중심의 콘텐츠 관련 해외석사 장학 지원
 - 카네기멜론대학교(CMU) 석사과정 ETC(엔터테인먼트 기술)/HCI(인간-컴퓨터 인터랙션) 과정 지원
 - 총 39명 지원(졸업자 29명, 재학생 10명, '15년 4명 졸업)
 - 졸업자 29명 중 26명이 취창업. 마이크로소프트, 넥슨, 게임로프트 등 해외취업이 16명. 제일기획, 블루다이스, KT 등 국내취업 10명 (2015년 졸업생 4명은 3명이 해외취업, 1명이 국내취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콘텐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서울지역 대비 지방 소재 콘텐츠 기업 종사자의 교육기회 부족
 - 현업인 교육과정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지역 균등개발을 위해 지역 소재 콘텐츠 기업의 역량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

□ 조치계획

- 콘텐츠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지역 확대
 - '16년 찾아가는 교육과정 4개 지역 운영, 향후 지속 확대
 - ※ 콘텐츠기업 전국 분포도, 기업특성 분석 후, 교육 커리큘럼 기획예정(예: 부산-게임/벤처, 대구-모바일게임, 판교-IT/플랫폼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충실)	· 당초 계획된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플랫폼기관/멘토/멘티 선발, 발대식&워크숍, 멘토링 현장점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중간 성과평가 등 사업계획 대비 정상 추진)
	1-2. 자체평가 결과반영 (10점)	(보통)	· 14년 지적사항에 대해 젊은 신인 창작자들의 프로젝트 개발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2,170백만원) 중 (기획개발 신인 창작자 74명, 제작유통 과정 총 19개(창작자 총 27명) 프로젝트 선발 지원)
	1-3. 현장의견수렴 및 반영(10점)	(보통)	· 플랫폼기관, 멘토, 멘티 등 사업 참여자 및 창의성 현장 의견수렴 기회 확대 추진 (발대식&워크숍, 사업운영위원회, 실무자 간담회, 중간 성과발표회 및 간담회, 멘토링 현장점검(8회) 등 추진) · 창의인재 경력경로/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당해 연도 사업개선에 반영 (신규기관 참여제한 완화, 멘토링 시간 확대, 사업화 지원 방안 마련, 창의드림을 통한 멘토/멘티 전문성 및 역량 홍보 등) · 현업인 교육과정 참가자 대상 회차별 만족도조사 실시 (47회, 운영 보완점, 커리큘럼 제안 등), 교육생 간담회 실시(2회, 해외연수 사후관리 등) · 기업 소속 인사/직원교육 담당자 참여 자문회의 개최 (국내교육 2회, 해외연수 2회, 통합 1회 / 총 5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콘텐츠 인력양성 교육수혜자수 1,400명 대비 1,474명으로 105% 달성 및 교육생 만족도 92% 대비 92.3%로 목표치 달성 ·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창의인재 169명은 현장 밀착형 멘토링 추진으로 15년 약 150여건의 수상, 데뷔, 계약 성과 달성 · 콘텐츠분야 현업인은 300명 대비 371명 수료하여 현업에서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에서 직무역량강화 기여함.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점)	(보통)	· 잠재력 있는 창작자 발굴, 콘텐츠분야 정상급 멘토진에 의한 현장밀착형 숙련과정 추진으로 사업중반 창의교육생의 국내외 수상, 데뷔 등 질적 성과 확대되어 콘텐츠 분야별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12월 기준 150여건/ 전년대비 17% 성장)

□ 총평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정착 기반 조성
 -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 및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식을 통해, 한국 최초 '콘텐츠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루어지는 문화산업 생태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 문화창조융합센터 3만명 이상 방문, 35건의 융복합 콘텐츠 기획
 - 문화창조벤처단지 완공('15.12.29 개소) 및 벤처 및 중소기업 입주(93개 기업) 완료

* 벤처 및 중소기업 선정 평균경쟁률 13:1, 최고경쟁률 19:1

-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지속가능한 창작과 창업 생태계 환경 조성
 -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분야 창작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통한 잠재적인 창작자 저변 확대
 - 콘텐츠 장르 간, 순수예술과 콘텐츠 간, 콘텐츠와 첨단기술 간의 융합을 실험하고, 협업하는 창작 프로젝트 지원
 - 콘텐츠 소재활용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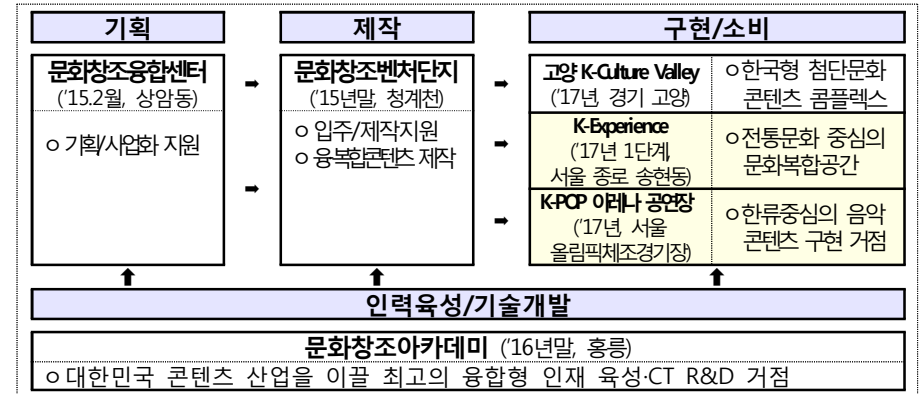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기획·개발, 제작·사업화, 구현·소비, 인재 육성·기술개발이라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모든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계획 공식 발표 (2.11.)

* 문화창조융합센터 - 문화창조벤처단지 - 문화창조아카데미-K-Culture Valley

- (문화창조융합센터 출범 및 성과 확산) 문화창조융합센터 출범 (2.11), 융·복합 콘텐츠 멘토링, 공모전 등을 통해 성과 창출 중
- (거점추가 발표) 융합벨트 출범('15.2.11.) 시 4개 거점으로 출발 하였으나, 콘텐츠 구현 공간인 "K-Experience" 와 "K-POP 아레나" 를 거점으로 추가(8.18)

- (K-Experience) 대한항공이 (구)주한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를 활용,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첨단 전통 문화 허브**를 구축
- (K-POP 아레나)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K-POP 공연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다목적 아레나형 공연장으로 조성



- (거점 구축) 벤처단지·아카데미·K-Culture Valley 조성 차질 없이 진행 중
- (벤처단지) 기본계획 수립(6월), 설계(7-8월),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9월-12월) 입주기업 모집(720개 접수), 입주기업 평가(서면 및 발표)를 거쳐 93개 기업 선정(10월), 12월 입주(12.18.~)
 - * 콘텐츠 307개, 기술(IT/SW) 198개, 플랫폼·유통 126개, 관광 61개, 기타 28개
- (아카데미) 기본계획 연구용역(9월), 국유재산 심의 통과(기재부, 10월), 탄키심의 통과(국토부, 11월), 입찰공고 준비 중, '16.12월 완공 예정
 - * '16.3월 벤처단지 공간을 활용하여 임시 개관 예정이며, 크리에이터 및 교수진 선발 완료
- (K-Culture Valley) 사업계획서 제출(8.11, CJ → 경기도) 및 복합 개발시행자 선정 공고(경기도, 9.22~12.21), '17년 완공 예정

○ 콘텐츠 창작과 창업의 산실인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및 운영

- (콘텐츠코리아랩 설립)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선정('15.2, 전북, 경북), 콘텐츠코리아 랩 개소(대구('15.2), 전북('15.8), 인천('15.11))
-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지원(창업발전소 / '13년 10개, '14년 15개, '15년 18개 등 총 43개), 글로벌 쇼케이스(SXSW) 스타트업 참가 지원(2014년 10개, 2015년 5개),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집중지원 과정 1~5기 선발 및 지원(1기 58명, 2기 62명, 3기 76명, 4기 43명, 5기 40명 등 279명 선발), 역사·문화 창작소재 통합 포털 <컬처링> 서비스 구축, 운영('15.2월/7개 기관, 140만여 건 콘텐츠 제공(영상, 3D, 오디오, 사진, 문서 등))

【참고】

구분	창업발전소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창조자산마당
기능	창업 패키지 지원	창작 융합 공간	콘텐츠 원천소스 제공
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펀딩, 네트워킹 지원	창의교육, 팀 빌딩, 체험 워크숍	콘텐츠 창작 소재의 유통거래활성화
성격	인큐베이팅 센터 중개	오프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대상	초기창업기업	개인 창작자(아마추어) 예비 창업자	창작자 누구나
단계	창업 이후	창업 이전	창업 전반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충실)	·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문화창조융합센터 운영 사업은 일정대로 충실히 추진하였음, 문화창조벤처단지 개관 일정이 늦춰졌으나('15.10월 → 12월)되었으나, 이는 내진보강이라는 안전 문제 상 순연된 것임. · 콘텐츠코리아 랩의 지역기반형 랩 운영,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창업발전소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10점)	(충실)	· 문화창조융합벨트 연말 대비 추진일정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하여 연내에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하였음. -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업 입주(12.18~)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충실)	·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선정('15.10월) 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진행, · 문화창조아카데미 기본운영('15.9월) 시 잠재적 아카데미의 수요자인 문화 콘텐츠 분야 학과 학생이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 커리큘럼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 콘텐츠 창업기업 간담회 개최('15.1.13), 2015년 선정 스타트업 18개사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진행('15. 7~8월) 하여 지원대상기업의 의견을 수렴 ·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은행, KT, 엔젤투자협회 등과 연계하여 융자지원, 전시참가지원, 스타트업 투자 피칭 기회 등 제공 · 맞춤형 홍보 지원 및 PR 능력 향상을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 및 매출 증대 유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모든 성과지표는 달성 예정 - '15.12.18일부터 문화창조 벤처단지 입주를 시작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율 100% 달성 예정(12.30, 목표 60%) - 콘텐츠코리아 랩 예비 창업팀 발굴 40팀 이상 달성(100% 달성) *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3~4기 40개팀 프로토타입 개발, MCN 크리에이터 커뮤니케이터 개최 333명 참여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점)	(우수)	·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2.11)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모집 및 입주(12.18), 문화창조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콘텐츠코리아 랩 전국 7개소 및 예비창업팀 40개팀 지원, 초기창업기업 18개기업 발굴 등 창의적 아이디어의 단계별 사업화를 지원하여 콘텐츠 창업 창작 생태계 조성 · 콘텐츠 코리아랩 16개 스타트업 118억원 투자 유치, 2015년 매출 44.6억원 달성, 직도 국내최초 라인(네이버) 통한 직도워크 제품 판매 등 59건 비즈니스 성사

□ 총평

- 한국 대중음악(K-POP)의 글로벌 확산으로 차세대 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 서울국제뮤직페어 개최, 음악마켓 쇼케이스 개최, 해외 음악페스티벌 공연 개최를 통한 한국 대중음악 글로벌 확산
 - 국내외 음악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과 종사자간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 K-POP 해외 진출지역 다양화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대중음악의 다양성 확보 및 음악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화
 - 실력 있는 신인 발굴 육성 프로그램 정착을 통한 신인뮤지션 지원 강화
 - 실험적 음악 창작과 실연 활동을 돕는 '음악창작소' 확대 구축 및 독립음악인(단체) 자생력 강화 지원
 - 다양한 우수장르 음악의 제작 활성화를 통한 대중음악 산업발전 및 업계 자립기반 강화

□ 주요 성과

- 한국 대중음악(K-POP)의 글로벌 확산으로 해외진출 증대
 - 국제적 음악비즈니스 마켓(서울국제뮤직페어, MU:CON)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아시아 음악산업 중심으로의 성장 가능성 확인

[2015 서울국제뮤직페어 주요 성과]

▶ 기본 개요

- (컨셉) Key to World's Music Gate
- (일시/장소) '15.10.6~8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주요내용) 컨퍼런스(기조연설·강연, 워크숍 등), 쇼케이스, 비즈매칭&네트워킹
- (참석규모) 국내외 음악산업 관계자 1천여명, 참가객 8천여명 등

▶ 주요 성과

- 국내외 뮤지션 51팀 쇼케이스 공연, 49개 컨퍼런스(연사 71명, 총 1,354명 참관), 비즈매칭 부스 12개 운영(국내외 바이어 776명, 총 808건 상담)
- '유콘 2015' 프로그램(페스티벌 초이스, 프로덕션 마스터클래스 등)을 통해 국내 뮤지션 20개팀 해외 진출 성사



< 기조연설 컨퍼런스 >



< 비즈매칭·페스티벌 피칭 >



- 권역별 음악마켓(MIDEM, SXSW 등) 'K-POP 쇼케이스'에서 공식 집계 참가객 1만여 명 이상, 계약상담 800여건 이상 기록(27팀)

마켓	참가 뮤지션
SXSW (미국, 3월)	이스턴사이드킥(락), HEO(락), 아시아체어샷(락), 바버렛츠(두왁) EE(일렉트로닉), 솔루션스(팝), 숨[SU:MI](퓨전국악), 빅포니(포크) 프롤디에어포트(일렉트로닉), 피해의식(락), 윤도현밴드(락)
MUSIC MATTERS (싱가폴, 5월)	글렌체크(일렉트로닉), 소나무(댄스), 킹스턴루디스카(스카) 이디오테이프(일렉트로닉)
CMW (캐나다, 5월)	술탄오브더디스코(퓨전), 루나플라이(발라드), 버벌진트(랩/힙합) 일리네어레코즈(랩/힙합)
MIDEM(프랑스, 6월)	로큰롤라디오(락), 바버렛츠(두왁), 고래야(퓨전국악), 로로스(락)
한국유행문화계(중국, 12월)	빅스(댄스), 캅스(락), 루디스텔로(일렉트로닉), 하이포(댄스)

- 전세계 대형 음악페스티벌(글래스톤베리페스티벌(영국), 후지락페스티벌(일본) 등)로부터 공식 초청 받은 뮤지션 진출 지원(18팀)

no	마켓명	뮤지션	장르
1	WOMADelaide	잠비나이	퓨전국악
2	글래스톤베리페스티벌	적적해서그런지	인디
3	리버풀사운드시티	데드버튼즈	락
4	SXSW	에픽하이	랩/힙합
5	SXSW	크레용팝	댄스
6	SXSW	히치하이커	락/일렉트로닉
7	MED LOULE	잠비나이	퓨전국악
8	블루노트재즈페스티벌	송영주퀸텟	재즈
9	글래스톤베리페스티벌	이디오테이프	일렉트로닉
10	글래스톤베리페스티벌	최고은	포크
11	Peaceful Love Rock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락/일렉트로닉
12	후지락페스티벌	캅스(The KOXX)	락
13	블라디보스토크 국제재즈페스티벌	웅산&찰리정밴드	재즈
14	프랑스 투어	잠비나이	퓨전국악
15	Rock in Taichung	한음파	락
16	CMJ	술탄오브더디스코	퓨전
17	CMJ	해오(HEO)	일렉트로닉
18	CMJ	웜(WYM)	일렉트로닉

○ 다양한 장르음악 발전을 위한 창작기반 강화

- 실력 있는 신인뮤지션 'K-루키즈' 발굴·육성 지원 강화(6팀)

구분	내용
뮤지션	데드버튼즈, 보이즈인더키친, 빌리카터, 스트레이, 에이퍼즈, 엔피유니온
지원현황	기획공연 4회, 국내외 음악페스티벌* 참가 7회, 방송출연 예정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사운드베리페스티벌 등 5회, V-ROX, 섬머소닉 등 2회

- 실험적 음악 창작활동을 돕는 '음악창작소' 확대 구축 및 기능 강화
('14년 3개소(서울·부산·광주)→'15년 5개소(서울·부산·광주·대구·충북))



- 대중음악 앨범제작지원(14건) 및 공연제작지원(33건)을 통해 다양한 장르음악의 창작·제작 활성화 도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충실)	· 당초 계획된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서울국제뮤직페어 개최, 음악마켓 쇼케이스 개최, 해외 음악페스티벌 공연 개최, K-루키즈 선발, 앨범제작·공연제작지원 등 사업계획 대비 정상 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10점)	(충실)	· '14, 15년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보통)	· 가능성 있는 글로벌 음악시장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국제뮤직페어 준비 기간 중 별도 사무국 운영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15년도 목표인 음악창작소 이용자수 3,325명 및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 건수(팀) 27팀 등 초과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점)	(보통)	· K-POP 해외 진출지역 다양화 및 음악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 글로벌 확산기반 마련 · 우수 대중음악 제작 활성화로 다양한 음악장르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업계 창작기반 강화 · 신인뮤지션 집중 발굴·육성으로 음악산업 기초 인프라기반 공고화

□ 총평

- 내수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지원 확대로 영화산업 지속 성장
 - 영상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재원 운용으로 영화산업 구조개선
 - 국제공동제작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영화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으로 콘텐츠 분야 상생환경 생태계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 표준근로계약서 제도화 관련 법적근거 마련,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한 근로자 권리 및 창작안전망 강화
 -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지속 증가
 - * 13년 5% → '14년 23% → '15년 43%(15.3분기)

□ 주요 성과

- 전체 영화 관객 3년 연속 2억 명 달성, **한국영화 점유율 5년 연속 50% 이상 기록**(14년 1억,770만명→15년 1억1,000만명)
- 영상전문투자조합(기획개발 및 중저예산 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정(15.6.26), 정해진 기한에 따라 '15년 9월 결성 완료
- 영화산업 종사자 및 참여자들의 권익보호 정책 추진
 -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업계 자율적 노력 지속
 - * 문체부 차원에서 마련 공포,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현황(4종) : 근로('11.5.1), 시나리오('12.12.1), 시각효과(VFX)(13.12.1), 상영('14.10.1), 투자('14.10.30), 근로 개정('15.4.6), 시나리오 개정('15.10.20)

• (개정)근로표준계약서 : 임금 계약방식 세분화 : (기존) '월 기본급' 단일 방식 →(개정)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
 • (개정)시나리오표준계약서 :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표준 각본 계약서, 표준 각색 계약서 등 4종으로 구성

-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한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 정부출자 모태펀드 결성조합이 영화투자 시 영화 근로·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14년~), 영발기금 사업지원 시 근로·시나리오·특수효과(VFX)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14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11.19)으로 표준계약서 제도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증가('13년 5% → '14년 23% → '15년 43%(3/4분기 현재, 상영영화대상)
- 개정 후속조치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완료('15.12월)
-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모니터링 시행중('15.10월~'16.3월)
 - * '15년도 모니터링 특기사항 : 월요일 예매오픈 관련 베타 테스트 진행
- 다양성 영화시장의 부활('13년 343만명→'14년 1,491만명→'15년 현재 904만명/지속적인 증가추세), 예술영화전용관 확대('14년 53개소→'15년 58개소/문체부 지정),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 영화 투자지원(23편 95억원), 독립영화 제작지원(50편 11.7억원), 극장용 애니메이션 기획개발(신규)(15년 3편),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I)/(II)(신규)(15년 각 1편)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40)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충실)	· 세부과제별로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되었고,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 - Ko-Production in Beijing이 지연되었으나 외생 변수(메르스 발생)의 영향임을 감안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10점)	(충실)	· '14, 15년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충실)	·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정 시 의견수렴, 개별 사업 진행시 간담회(22회) 및 모니터링(12회)을 실시 현장의견 수렴의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영화근로표준계약서 사용율은 목표 초과 달성 · 독립영화 제작지원 편수는 목표에 다소 못 미치나 원인이 정책환경 변화임을 감안 - 독립영화 제작비 조달 및 개봉여건 악화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동일 예산 내에서 편당 지원 금액을 소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변경
	2-2. 정책 효과성(20점)	(우수)	· 한국영화 지속발전 기반 마련 및 미래시장 개척을 지원하였고, 특히 글로벌 공동제작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34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

미흡

□ 총평

- 2015년 애니메이션·캐릭터 사업은 작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품화를 추진하여 애니메이션과 관련 캐릭터 상품 판매에서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 * <출동! 슈퍼왕스> 한·중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 북미 메이저채널에 방영(미국 Sprout). 한·중·미 모두 최고 시청률 기록. 중국 내 로봇완구 판매량 증가 등
 - 유아용 애니메이션과 가족용 애니메이션 균형 있는 제작지원을 통한 창작기반의 활성화
 - * 2015년 유아용 11개 작품 35억, 가족용 6개 작품 35억 지원
 - 국산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수출 확대를 통한 국산 콘텐츠 인지도 강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
 - * 키즈스크린 서밋('15년 2월) 계약액 전년대비 18%p 증가(1,300만 달러)
 - * 라이선싱엑스포('15년 6월) 계약액 전년대비 53% 증가(1,430만 달러)
 - * MIPCOM('15년 10월) 계약액 전년대비 11% 증가(2,900만 달러)
- 다만,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캐릭터 및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분야의 발굴·육성 강화와
 - 기 제작된 애니메이션(TV/극장용 등)의 후속 제작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프로젝트 발굴 등이 필요함

□ 주요 성과

-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2015~2019) 수립 및 발표(15.2.26)
- (애니캐릭터) <뽀로로> <로보카폴리>에 이어 <출동! 슈퍼왕스> <미니특공대> 등 국산 애니메이션·캐릭터 등장으로 수출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단편 애니메이션 성과 기록
 - 애니메이션 매출액 5,200억 원('13) → 5,200억 원('14) → 5,400억 원('15)
 - 캐릭터 매출액 8조3,000억 원('13) → 9조 원('14) → 9조8,000억 원('15)

- 단편 애니메이션 <자니 익스프레스>* 성공사례 탄생
 - * 우경민 감독이 유튜브에 공개한 이후 누적 1,000만 뷰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으면서, 할리우드 일루미네이션엔터테인먼트와 장편 제작계약 체결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스마트 캐릭터 및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발굴 및 육성 필요
- 국산 애니메이션 업체 대상 차기작 제작비 후속지원을 통해 작품 활동의 안정성 기여 및 우수한 작품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조치계획

- 인터넷·모바일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캐릭터 연계 사업 확대 추진**
 - * '16년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추진(500백만원)
 - ** '16년 우수 국산 캐릭터 상품개발 지원(증강현실 등) 지원(3,450백만원)
- 국산 애니메이션 후속시즌 제작지원 사업 신규 추진(30억)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보통)	· 대부분 추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10점)	(충실)	· '14, 15년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미흡)	· 현장의견 수렴 내용 애니메이션캐릭터 중장기 정책 반영 및 2015년 사업 반영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세부 과제 모두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평균 달성도는 124% 수준
	2-2. 정책효과성(20점)	(미흡)	·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산업의 성장 추세에 힘입어 5대 핵심콘텐츠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 - (애니) 해외영화제 수상(단편 <연애놀이> 자그레브 영화제 대상), 할리우드 개봉 성공사례 탄생(<넛잡> 북미 최대규모 3,427개관 개봉 및 해외수출 1억 달러 달성)

35

게임산업 육성

보통

□ 총평

- 중소기업업체의 수요에 따라 인큐베이팅, 제작 및 해외수출 등 업체 니즈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15년 중소기업 지원 수는 246개로, 전년 대비 약 55% 증가
 - '15년 국내 게임시장은 6.1% 성장, 게임 수출은 6.9% 증가하는 등 게임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
- 게임 산업계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변화 및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게임업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웹보드 규제완화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
 - 착한게임 선정 및 홍보 등으로 게임의 건전활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주요 성과

- 게임산업 성장으로 게임 국내시장 성장 및 해외수출액 증가
 - * 국내 게임시장 6.1% 성장, 약 10조원 달성 전망
 - * 게임 수출은 6.9% 증가, 약 32억 달러 달성 전망
 - * 콘텐츠 수출액 중 게임비중은 55.1%(전년 대비 2.9% 증가)
- 게임업체의 수요에 따라 인큐베이팅, 세계시장 트렌드에 대응한 차세대게임 및 모바일게임 등 제작지원, 홍보 및 해외수출 등 중소기업업체 맞춤형 지원 실시(246개 업체)
 - * 인큐베이팅 지원(61개),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31개), 게임글로벌 서비스플랫폼(GSP) 지원(12개), 모바일게임 현지화 지원(40개), 지역기반 지원(80개), 차세대게임콘텐츠 제작지원(22개)
- 착한게임 선정(4편) 및 장관상 시상 등을 통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게임의 활용도 제고
 - * (주)NXG의 <Catch It English>, (주)코리아보드게임즈의 <아브라카...왓?>, (주)오즈랩의 <치매예방게임 두더지>, 한국발명진흥회의 <발명탐정 진>

- 게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전전게임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 수행
- **2015 지스타(국제게임전시회) 최다기업 참가 및 최대 관람객 방문 등 성공적 수행**
 - * 전년 대비 참가기업 수 3%, 관람객은 4% 증가
-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등을 위한 **'16년도 예산 67% 증액반영**
 - * 마이스터고 설립준비 20억 신규반영,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80억 증액 등
-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 게임업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추진('15년 7월 시행)
 - * 웹보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11.16~12.28)
 - * 자체등급분류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박주선의원 발의/정부 입법지원)(15.11월)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충실)	· 당초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추진 - 게임 제작지원, 수출, 홍보 등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 또한, '자율과 책임'으로 규제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 게임산업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10점)	(충실)	· '14, 15년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충실)	· 게임 관련협회, 관련부처, 사업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정책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체 등 민간전문가와와의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 수렴된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 제고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과거 실적 및 추세치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모든 성과지표를 100%이상 달성 - 중소기업 지원수 : 143% 달성 - 착한게임 선정수 : 100%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점)	(보통)	· 게임 국내시장 성장 및 해외수출액 증가 등으로 '게임산업 육성' 및 '차세대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효과 발생 * 국내 게임시장 6.1% 성장, 약 10조원 달성 전망 * 게임 수출은 6.9% 증가, 약 32억 달러 달성 전망 * 콘텐츠 수출액 중 게임비중은 55.1%(전년 대비 2.9% 증가)

□ 총평

-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문화기반 강화) 학교 중심으로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종사자, 공무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글짓기대회와 논문공모전 및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저작권 홍보를 전개하여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는 등 국정과제 '지식 재산 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한 인식·문화 기반을 다짐
- 전체 교육인원 '14년 439,541명→ '15년 458,452명
-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한 저작권 홍보 강화
 - *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캠페인 브랜드 및 홍보콘텐츠 개발과 저작권 존중과 나눔 콘서트 개최 등 저작권 친밀도 향상을 위한 홍보
 - * SNS 기자단과 페이스북 등 SNS 활용하여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홍보 및 문화예술인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
- 저작권 지수(인식도) '14년 76.4점→ '15년 78.6점으로 향상
- (능동적 대국민 서비스 전개) 중소기업 및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한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조·중소기업 및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제공 및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 비즈니스 창출 및 창작 역량 강화에 기여
 - * 문화예술인 대상 '법률상담 카페' 운영, 지역문화재단 연계 저작권 상담 및 교육 실시 등

□ 주요 성과

- 학교 중심 청소년 저작권 교육 강화
 - 청소년 저작권 교육 확대 '14년 389,886명→ '15년 458,452명
 - 저작권 체험교실 확대('14년 195개교 8,996명→ '15년 294개교 12,762명)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14년 8,314회 376,330명→'15년

8,940회 393,063명)

- 온라인 교육 등 기타('15년 24회 2,603명)
-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2종) :
 - '정보(SW)교과 내 저작권 내용 반영 연구'
 - '교과별 저작권 내용 선정 및 체계화 방안 연구' 실시

○ 생활 속 저작권 교육 운영 및 현장 전문 인식·역량 강화

- 수요 맞춤형 전문 교육 지속·강화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41회, 2,366명)
- 저작권 교육 협력 강화 연수(시·도교육청 담당 연수, 방송작가 연수, 교과서 집필진 연수 등 3회)
 - *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 운영(3개 과정 10회)
 - ** 저작권 현장 전문 인식 강화(특화과정 7회, 전문가과정 1회, 강사연수 3회)
 - *** 대학 저작권 교양과목 운영지원(1학기 19개, 2학기 18개 대학)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대

- 원격교육콘텐츠 개발(1종) 및 리뉴얼(11종)
 - * 신규 : 만화(웹툰 1종) 개발
 - ** 리뉴얼 : 교원용(2종), 산업종사자용(7종), 공무원용(2종)



[신규-만화로 보는 저작권 판례]



[리뉴얼-저작권기초다지기]

-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운영('15년 897회, 32,296명)
 - * 원격평생교육과정 운영(교원 48회, 아카데미 824회, 평생교육과정 25회 등)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14년 9월 과정 단위 평가인정 및 12월 기관단위 평가 인정 획득 후 '15년 13개 과정 운영)
- 대학 연계 온라인 강좌 개설·운영
 - * 대학 내 저작권 온라인 강좌 개설·운영('15년 18개교)
 - **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연계 저작권 강의 개설·운영('15년 13개교)
- 국가·유관기관 연계 협력과정 운영('15년 25개 기관)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 취득(2개 사이트) 및 웹 취약점 보안 강화를 통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 공모전을 통한 참여형의 저작권 인식 제고

-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1회, 2,308편 출품)
- 대학(원)생 저작권 논문 공모전(1회, 25편 출품)



[제11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제10회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 대중매체, SNS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캠페인 전개

-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저작권'이 여전히 어렵다는 인식, 알기 쉽고 친근한 저작권 브랜드 개발, 눈높이 홍보 추진 필요
⇒ 저작권 캠페인 브랜드 '반듯©' 개발 및 홍보콘텐츠 제작
-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저작권 존중과 나눔 콘서트 개최(8월)
- 분야별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와 연계한 저작권 홍보(5회)
- 저작권 SNS 기자단 제4기 운영(총 24명, 454건 콘텐츠 제작 홍보)
- 저작권 정보 및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페이스북 활성화 (9,900여명 구독), 블로그 신설(5월)
- 민관협업 저작권 존중,나눔 캠페인 전개(1217, 한국PTV방송협회·MPA코리아)
-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영상 제작·보급(12월, 6편 유튜브 연재)



[저작권 캠페인 브랜드]



[저작권 존중과 나눔 콘서트]



[4기 저작권 기자단 해단식]

○ 저작권 전문 상담 확대 및 문화예술인·중소기업 대상 특화된 저작권 서비스 제공

- [전문상담] 저작권 분쟁 등 관련 상담관 상담 크게 증가('14년 27,855건 → '15.12월 48,274건)

연도	유형		시스템				총 계
	자동	전화	대면	서신	인터넷	소 계	
2015.12	27,424	45,316	768	46	2,144	48,274	75,698

- [문화예술인]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하여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운영(23회 59명), 지역 문화재단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실시(상담 18회 190명, 교육 12회 708명)



[상반기- 예술가의 집]



[하반기-한국저작권위원회 강의장]

- [중소기업]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및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5개소) 운영, SW자산관리 컨설턴트 양성(9개소) 및 컨설팅 실시(504개 업체), 중소기업·창업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저작권 서비스 제공(해외진출 50개 기업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등)

- *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 교육 및 설명회(34회, 548명), 상담(140개 업체)
- **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 : 저작권 등록(325건), 교육(43회, 1,560명), 상담(322건), 멘토링(293건)

*** 저작권 서비스 수혜기업 성과 사례

기업명	지역	업종	내용
로망띠끄	부산	출판	저작권 멘토링,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인터파크, 와이투북 등과 신규 제휴를 체결 '15.9월 기준 1,657백만원 매출
통통말랑 과학	경기	서비스	교육용 프로그램을 서비스 하는 업체로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록 등을 통해 약 300개 학교에 만명 학생 교육 교재 사용 예정
(주)해보고	경기	서비스	창업체협 매칭 플랫폼 제공 업체로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0억 매출 기대
P2J	광주	SW개발	교육콘텐츠, 앱 개발 업체로 한국 저작권 교류회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중국 카스키즈), LeTV 등과 3억원 가량의 계약 체결 진행 중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문 학위과정(MOC) 개설을 통한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확대 필요
 -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유통·이용 등 전 과정에서 저작권 전문인력에 의해 기획·제작·관리될 필요가 있음
 - * 드라마 '겨울연가' 일본수출시 저작권을 모두 양보, DVD배포권 등 드라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부가가치 수익을 얻지 못함
 -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갖춘 교육기관 부족
 - * MIP과정 및 대학의 법무대학원은 지적재산 전반 내지 특허권에 대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음
- 저작권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저작권 교육의 지역별 불균형
 - 대면강의로 진행되는 저작권 전문교육의 대부분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
 - * '15년 저작권 현장 전문교육(저작권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 및 저작권 전문 인식 강화과정) 수료자의 97%가 수도권 거주
-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 강화
 -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저작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확산 도모
- 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경우 저작권 관련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이 부족
 -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5곳에 불과,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 80% 이상 수도권 거주
 - **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산하)에서 전국 31개 지역에 지식재산센터 운영(예산 450억)
-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경영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 늦춰짐에 따라 저작권 경영 컨설팅 추진이 다소 지연

- [저작권·문화예술 교육연수관 건립] 수도권 중심의 저작권 교육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에게 고도화된 저작권 활용 집중체험 프로그램과 저작권 전문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

[저작권·문화예술 연수관 건립 개요]

- (기간/총사업비/건립장소) 2016 ~ 2019 / 26,905백만원 / 경남 진주
- (건립규모) 대지규모 16,500㎡, 연면적 11,950㎡(지하2층/지상6층/2개동)
- (주요시설) 교육장, 사무실, 세미나장, 체험관, 부대시설 등
- (저작권·문화예술 교육연수관 운영안)

구분	주요내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전문 교수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 구축 ○ 체험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 인성과 저작권 의식 함양 ○ 공공부문 전문연수를 통한 실천적 저작권 관리 및 인식 확산 ○ 저작권현장의 전문 인식 강화를 통한 저작권산업 생태계 강화 ○ 지역 교육기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차원·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종 국제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저작권 전문기관(WIPO)과 연계하여 저작권 후발국 정책담당자 대상 주요 정책담당자 초청, 저작권 교육 연수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해외 저작권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및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 실무자 상호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중국·동남아 저작권 협력 및 WIPO, R&D 세미나 등 주요 국제학술행사 개최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등 ODA 수원국 대상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초청, 쌍방향 문화 교류에 기반한 한류 저작권 확대 협력관계 구축
저작권 한류 문화 체험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를 선도한 영화, 음악, 드라마, 만화, 게임 등 우수 저작물 관련 콘텐츠를 전시·설치하여 직접 체험·관람할 수 있는 홍보관 ○ 등록 및 기증 저작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 저작권 연간, 저작권법제 변천사 등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저작권 역사관 ○ 진주와 부산·나주를 연계하는 한류 문화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저작권 웹드라마 제작] 생활밀착형 홍보 콘텐츠를 통한 대국민 저작권 홍보('16년~/4억원)
 - 생활 속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개발된 저작권 캠페인 브랜드 '반듯©' 광고 및 생활밀착형 저작권 웹드라마 제작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확대]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확대 운영('15년 5개소 → '16년 7개소)으로 저작권 서비스 사각지역 해소 및 전국적인 저작권 서비스 수요에 대응
-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경영 컨설팅 운영] '16년 상반기 컨설턴트 양성 교육용 교재 개발과 저작권 경영 컨설팅 컨설턴트 양성 교육 후 '16년 하반기에 실시

□ 조치계획

- [저작권 전문석사 과정 개설·운영] 저작권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및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저작권 전문석사(MOC : Master of Copyright)과정을 개설·운영('16년 2개 대학선정/2개 대학(1학기)×1억원)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보통)	· 연초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각 분기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저작권 브랜드 홍보영상 송출 및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경영 컨설팅트 양성 교육과정' 개발 용역 일부 지연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10점)	(충실)	· '14년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저작권 교육 확대 시행, 저작권 내용의 교과반영을 위한 연구 추진(2건) 및 교과서 집필진 연수 등 실시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보통)	·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저작권 교육 정책 등 반영 노력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① 저작권 교육 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목표치 102% 달성), ② 저작권 교육 참가자수(목표치 100% 달성), ③ 중소기업 및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서비스(목표치 109.3% 달성)
	2-2. 정책 효과성(20점)	(보통)	·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도 제고 노력의 결과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 향상('14년 76.4%→'15년 78.6%)을 가져옴

37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보통

□ 총평

-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불법복제 단속·예방활동 전개한 결과 국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 성과 도출
 -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 목표를 세우고 다각적인 불법복제물 유통 단속 활동 및 예방활동 전개
 - *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규모 확대, 국내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기획수사 및 해외 링크사이트 최초 접속차단 등 신규 저작권침해 유형에 적극 대응
 - 미국 무역대표부(USITR) 발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7년 연속 제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세계 평균 하회('13년 38%, 세계평균 43%)

□ 주요 성과

- 디지털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강화를 통해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 및 저작물 유통 환경 개선

◆ 불법 저작물 유통 환경 개선 성과(2015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 : ('11년) 18.8%→('12년) 16.2%→('13년) 16.0%→('14년) 14.4%
- 합법시장 규모 확대: ('12년 11조4963억원→('13년) 12조 5,723억 원→('14년) 13조 6,320억 원

-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규모 확대('11년~'14년 74건 → '15년 122건) 및 접속차단 처리기간 단축(대체사이트 및 게시물 3개월 → 2주 이내)
- 국내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기획수사 실시
 - 최근 저작권 침해 유형이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화
 - 상반기 : iframe/embed링크 방식 사이트 10개 기획수사 완료
 - 하반기 : 직접링크 방식 사이트 4개 기획수사 추진 중
- 신규 유형 불법복제물 기획단속, 총 10,964점 단속(휴대폰케이스, 피규어 등)
- 고소·인지 등에 따른 저작권 특사경 사법처리 실시('14년 2,136건→'15년 1,089건)
 - * '14년도의 경우, 특정 저작권자가 1천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처리건수 폭증

- 대학가 불법복제 출판물 수거·폐기('14년 15,474점→'15년 16,335점)
- 재택모니터링 등 활용 불법저작물 삭제요청('14년1,899천건 →'15년 2,290천건)
- 불법저작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시정권고 ('14년 286천건 →'15년 232천건)
-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불법복제 SW 예방활동('14년 2,500개 →'15년 2,510개)
 - * 방문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의 SW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 성과 ('14년 87.5점→'15년 90.8점)
- 공공기관 SW 자체점검 및 실사 점검 실시(자체 : 2,682개, 실사 : 195개)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발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7년 연속 제외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충실)	·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충실히 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10점)	(충실)	· '14년, '15년 자체평가에서 지적된 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충실)	· 방송 3사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방송사의 의견에 따라,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최초 접속차단 실시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불법저작물 단속 및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성과지표 목표치 모두 달성
	2-2. 정책 효과성(20점)	(보통)	·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집행을 통해 불법시장 감소(합법시장 침해율 감소) ('12년)16.2% → ('13년)16.0% → ('14년)14.4%

38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우수

□ 총평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및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 지원으로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조성
 - 신탁단체 및 서비스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의견 반영, 저작권DB 정제와 시스템 개선으로 편의성 제고, 음악로그정보 수집시스템 신규구축·운영 등 추진
- 콘텐츠 산업과 일반 국민의 창작 활동의 원천인 자유이용저작물을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창조산업의 기반 조성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양질의 자유이용 저작물을 수집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민간이용 활성화 확대
 - 특히,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를 기반으로 공공 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2015.9.21./사회관계장관회의의 보고) 발표, 공공 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고시(2015.12.24./전부개정) 등 공공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 저작물 창작·유통 환경 변화와 스마트 환경의 소비자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저작권기술 지원 강화
 - UHD, 클라우드, 3D 영상 콘텐츠 등 새로운 콘텐츠 유통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기술 연구과제 확대

□ 주요 성과

-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신속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및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 운영
 - * 음악(전송·복제), 어문(전송·복제 이용허락/도서관·수업목적 보상금), 뉴스(전송) 거래 계약 건수 4,384건('15년 12월 기준)

- ‘음악 전송사용료 종량제’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음악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15.10월) 및 유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 음악 로그정보 수집 및 제공 실시
 - * 협의회 회의 10회 개최(5개 음악서비스사업자,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참여)
 - * 수집된 음악 로그정보의 가온차트 제공(48,127백만건, '15년 12월말 기준/누계)
- 법정허락 서비스 간소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15.7.13)을 통해 법정허락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여 법정허락의 이용 활성화 도모
 - * △공고 방법 중 문체부 홈페이지 삭제(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상당한 노력을 정부가 대행 시 공고 기간 단축(3개월→2개월)
△법정허락 신청 이후 공고 절차에서 관보공고 삭제 및 기간 단축(15일→10일)
△승인통지 방법 중 관보 공고삭제(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 상당한 노력 수행 등 법정허락 간소화 지원을 위한 저작권찾기 시스템 운영 및 위탁관리저작물 및 3년경과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 수집
 - * 위탁관리저작물 권리정보 수집·제공(음악·어문·방송대본·영화·방송·미술·기타 7개 분야) : 7,858,492건('15.12월말 기준/누계)
 - * 3년경과 미분배보상금 대상 저작물 수집 및 상당한 노력 수행 : 1,121,626건 ('15년 12월말 기준/누계)
- 공유저작물 발굴 및 디지털화 지원, 일반국민이 자율적으로 저작물을 등록하는 민간자율등록시스템 운영 등 공유저작물 수집 강화
 - * 민간단체(한국미술협회,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총 7만 건의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및 서비스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 운영** 등을 통한 공유저작물에 대한 홍보 강화
 - * 어린이 대상 한국잡월드 내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 개관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개정** 등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를 기반으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2015.9.21./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발표, 각 기관별 공공저작물 담당관 지정 및 설명회·워크숍 개최(3회)
 -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개정 고시(2015.12.24./전부개정) 및 해설서 마련

- 저작물의 권리귀속 관계 명확화 및 법률 상담 지원, 저작권 정보가 없거나 품질이 낮은 저작물에 대한 재촬영, 복원 등 지원으로 공공 저작물 확충, 공공저작물 자동연계시스템 구축 등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
 - * '15년 40개 기관의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
 - * 공공저작물 개방 누계 500만 건 달성
 - * 기존의 각 기관 저작물과 포털간의 연계를 위한 등록방식을 공공누리 마크 부착 저작물을 수집하여 공공누리 포털에 자동연계 되도록 개선하여 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 **1인 창조기업·중소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촉진 컨설팅 등 자유이용저작물 이용활성화 도모**
 - *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컨설팅('15년 15개 업체 지원)
 - * 동아출판(교과서·참고서에 공공저작물 이미지 활용), 홈아트(전통문양 활용 친환경 페인트 벽지무늬), **구니스(스마트팔레트:공공저작물 이미지 활용/정부3.0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 새로운 저작물 이용, 유통,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기반 마련 및 적용
 -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된 기술평가 신청 14건(12월 기준)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 후, 12건(오디오 6건, 비디오 6건) 확인서 발급
 - 웹하드 서비스 운영사이트(83개)에 대한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지원
 - 모바일 웹하드 서비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성능평가 체계 마련
 - 스마트화, 클라우드 등 새로운 유통 환경에 대응한 저작권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술 R&D 과제 발굴·수행(계속 과제 9건, 신규과제 4건*, 실용화지원 2건) * 자유공모과제 1건 포함
 - 저작권기술 R&D 성과 확산 활동
 - * 저작권 기술이전 설명회 1회(230여명 참석), 저작권기술 홍보부스 운영 1회(10여개 업체), 저작권기술 정보자료집 제작 및 배포(20개 과제 내용 포함)
 - EPUB DRM 상호운영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 * IDPF의 Radium 프로젝트로 “Radium SCP” 표준화 추진 승인('15.4월)
-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구축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
 - 등록 신청서류 아카이빙(25,000건) 실시,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을 통한 등록저작물 안정성 확보, 저작권등록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 정부 3.0 달성 및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경영공시 확대와 원문공개 서비스 구축
 -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사전공개 목록 및 자체 경영공시 항목 확대(10종 추가)
 - 국민들이 공공누리 부착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 신설 및 원문공개 서비스 구축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보급·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지원
 - UCI 파급효과가 높은 콘텐츠 및 유통분야 모델을 발굴하여, UCI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 선정기관(5곳) : 공공분야 2곳(한국연구재단, 한국문화재단), 민간분야 3곳(천재교육, 콘텐츠스퀘어, 한국음반산업협회)
 - 등록관리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였고, 신규기관이 UCI 활용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구축하도록 표준 프로그램 개발·배포
 - * UCI 식별번호 발급 건수 : 2,842만건(누적 2억192만건, '15년 12월 기준)
- 저작권기술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콘퍼런스 개최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개최(10.14./인터컨티넨탈호텔)
 -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개최(11.4.~11.5./중소기업DMC타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충실)	· 추진계획에 맞추어 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연 사례 없음
	1-2. 자체평가 결과 반영 (10점)	(충실)	· '14년 자체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으며,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맞춰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였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보통)	· 신탁단체, OSP사업자와 주기적인 협의체(9회) 개최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음악로그정보를 수집하여 정산·분배에 활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회, 워크숍을 통해 의견 수렴·반영 산업계(네이버, 구글, 1인창조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유이용저작물 공동사업 진행, 컨설팅 사업 진행 등 성능평가 기술 적용 관련 미래부·방통위와 협조하여 웹하드 실태점검 등 수행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신탁단체 등 권리자, 이용자, 사업자 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목표한 성과를 거둠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 및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 마련을 통해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
	2-2. 정책 효과성(20점)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이용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음악분야 저작권 DB 정제로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함 음악저작권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음악로그 정보수집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분배에 기여함 공공저작물 500만건 개방 달성, 민간 이용활성화 지원으로 15개 기업에서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저작물 이용 활성화라는 기대한 정책효과가 발생함 콘텐츠 산업과 일반 국민의 창작 활동의 원천인 자유이용저작물을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창조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저작권 기술 특허등록 11건, 출원 21건 등 기술적 조치 기반 마련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 이용, 유통,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함

* (정부3.0)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 공공저작물 활용 컨설팅 업체 중 '구니스' 는 정부 3.0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 총평

-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운영 등 신문법 개정 등으로 **건전한 인터넷언론 환경 조성**에 기여
- 뉴스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언론인 연수 및 국제교류 등 역량 강화를 통한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노력**
- 신문사 **모바일 뉴스콘텐츠공용인프라** 및 인터넷신문 **뉴스제작공용인프라** 구축 및 제공, 디지털 저널리즘 아카데미’ 운영 등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및 디지털 **뉴스콘텐츠 유료이용 환경 개선** 등으로 **미디어산업의 부가서비스 창출**에 기여

□ 주요 성과

<미디어 공공성 강화 추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11.19. 시행)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 및 뉴스 품질 개선 계기 마련, 인터넷신문의 청소년보호책임 강화**
 - * 취재 및 편집인력 상시고용 증원(3→5명) 및 상시고용 증명서류 제출
 - * 모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의무화
 - * 언론 등에서 인터넷신문 난립 등으로 인한 폐해 증가로 인터넷 신문 등록제 강화 등 실효성 제고 요구
 - 등록 인터넷신문 (‘06년) 626개 → (‘14년) 5,950개(최근 3년간은 매년 1천여 개씩 증가) 이 중, 홈페이지가 아예 없거나 기사를 1건도 게재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이 약 43.8%(‘15년, 문체부 인터넷신문 실태조사)
 - 유해성 광고 게재 업체 수 (‘11년) 62개사 → (‘14년) 283개(여가부,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광고 유통현황 점검」)
 -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등 실효성 제고 요구 여론 형성

<KBS뉴스> 유사언론 난립 막는다(8.21)/ 인터넷신문 난립에 등록 요건 강화(8.22)

<조선일보> [사설]저질 인터넷신문. 발송 말뚱 부릴 때마다 퇴출시켜야(8.22)

<동아일보> “취재-편집 5명” 이상..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8.22)

<매일경제> 인터넷신문 방송, 자본금 규정 퇴출 요건도 강화하라(8.24)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신문법 준수여부 실태점검(‘15년) 및 후속조치 추진
 - * 등록인터넷신문 관리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 2년→1년으로 단축
 - * 인터넷신문 실태점검 이후 후속조치 결과(‘15.12월말 기준) : 총 1,196건 조치(자진폐업95건, 직권등록취소 57건, 직권말소 9건, 행정지도 1,035건 / 12개 시도)
- 언론사 자율심의(인터넷신문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지원을 통한 언론 신뢰도 제고 및 자율심의 체계개선을 통한 자율심의 공신력 제고
 - * 자율심의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해 언론진흥재단의 공모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15)
 - * 인터넷신문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학회, 서울YWCA 등 주요단체 등의 공동으로 자율심의 개선 추진위 구성(‘15.9~12월),개선안 발표(‘15.12.4), 적용(‘16)
- 언론 신뢰 제고를 위한 ‘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 ▲언론 자율규제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방안, ▲디지털 공간에서 언론의 신뢰성 확보 방안,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방안 등 토론 ⇒ ‘16년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신규사업안 도출
- 언론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이슈별 특화과정 개발
 - *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 윤리, 시간·사고 취재 윤리와 트라우마 이해, 언론윤리 세미나 등 신설
 - *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메르스 디플로마 과정 개설로 전염병 보도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를 통한 뉴스 구독 저변확대 및 미래독자 창출
 - * 자유학기제 수업모델 개발 및 교재 배포(전국 2,551개교)
 - * 학교밖 청소년 대상 기자체험 교육 신설로 학업재개, 인성함양 지원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 시행) 및 국정과제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기여
- 유아, 중장년 등 미디어교육 대상 확대로 평생교육 기반 구축
 - * 유아 맞춤형 온라인 미디어교육 콘텐츠(수업지도안) 개발(19건)
 - * 중장년 대상 마을신문 프로젝트 등 지역밀착·참여형 교육 운영(20회)
- 소외계층 정보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 지역신문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구독 지원(월 평균 53,274부), 구독자 만족도 향상(‘14년 87.8점→’15년 88.1점)
 -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등 보급(100종, 491개처, 149,328권)
 - * 탈북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특수학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구축>

-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언론진흥기금의 체계적 운영
 - 법인출연금 확대(32억→100억) 및 국고 출연(50억) 등 향후 언론진흥기금 고갈에 대비 재원 확충
 - 소액다건식 사업 통·폐합, 사업성과 평가 반영 등 사업 효율화를 통해 기금사업 구조개편 실시
 - * 5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14년) → 4개 세부사업 12개 내역사업('15년)
 - 뉴스에 분석 기술을 접목, 맞춤형 뉴스생산 등 창조적 뉴스소비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 * 뉴스빅데이터 분석솔루션(자연어처리·연결망분석 모듈)·통합뉴스 DB 및 수집 시스템 구축 등
 - 언론사의 비용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디지털 뉴스 생산·유통 시스템 비중 확대
 - * 디지털 공용인프라 구축 28억('14년) → 36억('15년)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제도 개선 등으로 사업 효율성 도모
 - * '09~'14년(6년간) 연속 지원받은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한 성과평가제 실시로 하위 30% 신문사(9개사) 일부사업 제한
 -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역사업 통폐합 등 구조 조정 실시('14년) 9개 사업 → ('15년) 7개 사업
 - * 일률적인 기금 지원에서 지역신문 특성에 맞는 창의주도형사업지원으로 지역신문의 사업 다각화를 꾀함
 - *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 등 지역신문 모니터요원 공개 모집 전환 추진('15.10)
- 디지털환경 전환에 따른 다양한 미디어의 여론영향력 변화 등 조사, 중장기 추세분석을 통한 미디어진흥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 2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13.3월~'16.1월), 조사결과 발표('16.1월 예정)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10.6)
 - 디지털 중간매개자(포털, SNS 등)를 통한 뉴스콘텐츠 생산·유통·소비가 증가하면서 해당 매체의 여론 영향력 급증
 - 민주사회의 근간인 여론다양성 확보 및 미디어산업 진흥정책 수립을 위해 여론영향력 관련 객관적 조사·연구 지속 필요
 - * 포털/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일 뉴스를 이용한 비율 22.4/7.9%(텔레비전은 36.4%, 종이신문은 3.2%)(언론진흥재단, '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 * 페이스북, 버즈피드 등 소셜미디어 매체, 뉴스서비스 한국 진출 발표('15.12월)

- 우수잡지 선정·보급 확대 및 한류잡지 해외수출 기반 구축
 -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배포(100종, 491개처), 한류잡지 웹앱(K매거진) 개발(106종), 런던국제도서전, 중국정기간행물교역박람회 등 해외 잡지·도서전 참가 및 한류잡지 콘텐츠 홍보 책자 제작·배포(영어, 1,000부)
- 국가기간통신사에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통해 중소기업자와 해외동포언론사도 쉽게 뉴미디어 제작·유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 사용자 : 4개('13년) → 30개사('14년) → 50개('15년)

<미디어 디지털 경쟁력 강화>

- '뉴스콘텐츠 공용 인프라'(종이신문·인터넷 신문의 클라우드 방식의 뉴스 가공·유통 시스템) 저변 확대를 통해 매체별 멀티 플랫폼 환경대응 지원
 -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활용사 증가 26개사('11년) → 54개사('15년)
- △모바일 및 N스크린 대응 뉴스저작권 상품 출시, △저작권 침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체계 신규 도입, △뉴스라이선스 이용 확산 등 디지털 뉴스콘텐츠 유료이용 환경 개선 확대
 - * 뉴스저작권 매출액 증가 58억('11년)→139억('15년)
 - * 뉴스저작권 가격체계를 라이선스 방식으로 변경('14.7~), 저작물 유료이용 확산
- 언론의 디지털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 발굴·확대
 - * 드론 저널리즘 등 디지털 트렌드에 맞는 신규 과정 확대 개설 9과정('14년) → 18과정('15년)
 - * '찾아가는 디지털 저널리즘 특강' 개설(국민일보 등 9개 언론사 대상, 총 21회)
- 뉴스콘텐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언론사가 디지털시대에 맞는 다양한 뉴스활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 '15년 1차 시스템 구축완료(18개사 뉴스 수집, 시스템 탑재)'16.1월 서비스 부분 개시,
 - * 뉴스빅데이터 활용 보도물 제작 지원(4개사)'16.1월초 언론사 신년특집 보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 지원 사업 재정비 필요
- 디지털·모바일 기술 발달에 뉴스 서비스가 대응할 수 있도록 언론 지원 사업의 영역, 방향 등의 변화가 요구됨
 - * 뉴욕타임스는 구글 글래스, 애플 워치 등의 출시와 함께 전용앱을 개발, 뉴플랫폼에 적합한 뉴스서비스 제공

- 언론사 자율심의 참여 및 윤리강령 준수 유인 부족
 - 어뷰징, 선정적 기사광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정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매체의 자율심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 * 자율심의 참여 매체사 : 신문윤리위원회 126개사, 인터넷신문위원회 116개사

□ 조치 계획

- 언론기금 및 법인회계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단계적 추진('16~)
 - 종이신문 위주 사업에서 디지털 경쟁력 제공 방향으로 사업 개선
- 언론사 자율심의 실효성 제고 및 자율심의 참여유인 강화('16~)
 - 자율심의결과 공표 및 공표시스템 정비, 언론지원사업 지원시 자율심의 참여사 가점 상향 조정(5%→7%), 정부광고 우선배정 검토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충실)	○ 각 사업별 추진계획의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였음 ○ 연초 “뉴스저작권 대국민 공모전”을 계획 하였으나, 성과대비 효율성 등을 감안 뉴스저작권 보호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로 사업변경 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10점)	(충실)	○ 2014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을 반영, 조치완료 -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관련 * 여가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선정적 인터넷광고 근절 협조체계 구축('14.4~11) * '15년 언론지원 공모사업에 광고자율심의 참여 언론사 가정 부여제 시행하고,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운영 및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15.11.19) ○ 2015년도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충실)	○ 현장과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 개정 및 정책 수립 방안 모색하고 수렴된 의견을 이행하고자 적극 노력함 -인터넷신문 제도 개선을 위한 유관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인터넷등록제 강화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관련 신문법 개정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충실)	-열악한 신문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법 한시조항 6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신문통신사업자 지방세 감면 혜택 3년 연장 등 법 개정 -언론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언론계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의견수렴(대토론회, 분과별회의, TF구성)과정을 거쳐 언론지원정책 방향 모색 및 지원사업 통폐합을 추진함
	2-2. 정책 효과성(20점)	(충실)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관리 의무화하고, 인터넷신문 난립 등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하는 등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으로 개별 언론사 개발비 중복투자비용을 절감(54개 언론사 시스템 구축비 약 390억원)하고, 뉴스저작물 공정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뉴스저작권 매출액 확대('11년 58억원 → '15년 140억) 등으로 미디어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함

□ 총평

- 방송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및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등 제도개선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창작 역량 기반 강화
-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한 웹드라마, 웹다큐 등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제작지원 및 국제공동제작지원을 통한 한류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
- 방송영상·광고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창의력 있는 방송산업 예비 전문 인력양성
- 스마트 미디어 도입·디지털 방송전환 등 고화질 차세대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제작 인프라 시설 구축·운영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성장기반 확보
- 지역별 맞춤형 해외진출을 통한 우수 한류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기반 조성 및 한류 문화 확산

□ 주요 성과

<방송영상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 방송산업의 공정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 정부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15년)
 - 지상파방송3사 외주계약 시 문체부 방송제작 표준계약서 적용(지상파 방송3사 외주제작 상생협력방안 발표, '15.4.30)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교육 및 설명회 개최(2회), 홍보용 리플릿 제작('15.12월), 독립제작사 신고 시 표준계약서 관련 안내장 발송 등 홍보
- 방송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해 방송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외주정책협의체 운영('15.7월, 방통위 공동)
 - 정부·방송사·제작사·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하여 외주 제작 비율, 인정기준, 표준계약서 활용제고 등 논의

- 방송사(제작사) - 방송작가 간 계약사례 개선 등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개발 및 제정 추진('15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및 창작기반 구축>

-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제작지원 등으로 독립제작사 제작여건 개선 및 한류 콘텐츠 다양성 강화
 - 다큐멘터리, 단막극,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장르별 특화 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업계의 제작역량 및 해외 경쟁력 강화('15년부터 웹드라마 등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제작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34편 / 다큐멘터리 18편(웹다큐 1편 포함), 단막극 13편(웹드라마 10편 포함), 미니시리즈 3편
 - * '15년 미니시리즈 <용팔이> 평균 시청률 18.27%(AGB기준), 약 60억 원 매출
 - * '15년 미니시리즈 <육룡이 나르샤> 평균 시청률 13.3%(AGB기준), 약 240억 원 매출
 - * '15년 미니시리즈 <사임당 허스토리> 2016. 6월 방영 예정, 약 100억원 매출
 - * '15년 단막극(웹드라마) 지원작 <연애탐정설륙> KBS와 네이버 TV캐스트 동시 방영
 - * '15년 단막극(웹드라마) 지원작 <고결한그대> 미국 드라마 피버 주간순위 5위 달성
 - 제작지원 완성작 유통활로 개척 및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전문 유통대행사 풀 구성(3개사, '15.8월)
-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포맷 제작지원 18편 / 포맷 파일럿 9편, 포맷 바이블 9편
 - * '15년 포맷파일럿 지원작 <위대한유산> MBC 정규편성(파일럿지원 최초 지상파 정규편성)
 - 해외 주요 방송콘텐츠 마켓에 한국 포맷 쇼케이스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포맷의 해외진출 지원 / MIP-Format(4월, 프랑스), STVF(6월, 중국), ATF(12월, 싱가포르)
 - * <너의 목소리가 보여>, <렛츠고 시간탐험대>, <북면가왕> 포맷 수출(중국)
 - 포맷산업 육성 및 중·장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방송포맷산업 현황, 전망 및 육성방안 연구 / '15.10월~'16.1월)
- 방송창작 저변 확대 및 방송작가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포럼 및 워크숍 등 개최(9.10/코엑스, 기성작가, PD 등 120명 참가)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방송콘텐츠 내수시장을 뛰어넘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안정적 매출 시장을 확보하여 우수 작품 창작의욕 고취로 선순환 되는 기반 조성
 - 국제 유력 방송영상견본시에 참가, 한국공동관 운영 및 비즈매칭 (Biz-Matching), 킬러콘텐츠 홍보 등 마케팅 지원(9개 견본시 참가, 140개 업체 지원, 85만 달러 수출계약)
 - * NATPE Mami(1월, 마이애미), DISCOOP Istanbul(2월, 이스탄불), FILMART(3월, 홍콩), MIPTV(4월, 칸느), STVF(6월, 상해), NATPE Europe(6월, 프라하), MIPCOM(10월, 칸느), TIFFCOM(10월, 도쿄), ATF(12월, 싱가포르) 등 참가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송콘텐츠 유통마켓 진흥과 거래시장 활성화
 - * BCWW(BroadCast WorldWide): '14년 46백만 불 ⇒ '15년 47백만 불(10백만 불↑)
 - * BCM(Busan Contents Market): '14년 33백만 불 ⇒ '15년 33백만 불(1만 불↑)
- 방송콘텐츠 국제 트렌드 및 동향, 주요 화두에 대한 전문가와 석학들의 토론을 통한 최신 지식의 공유와 새로운 아이디어 배양의 토대 마련
 - * BCWW 글로벌 미디어 콘퍼런스 개최(2015.9.9~9.10)

구분	주 제
Keynote Speech	경계의 붕괴- 콘텐츠의 적응과 변이 (그레고리 피터스, 넷플릭스 Chief Streaming and Partnerships Officer)
(트랙 1)	<세션 1> 새로운 도약, 웹콘텐츠 ▶ 디지털 플랫폼 전용으로 제작된 방송콘텐츠와 다양한 형태의 원작을 재창조하여 시너지 극대화 사례와 가능성 논의
	<세션 2> 떠오르는 스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 국내외 영상 콘텐츠 대기업들의 관심과 투자 동향, MCN 산업의 미래 논의
미디어 콘텐츠 동향	<세션 3> 기술, 콘텐츠 잠재력을 깨우다 ▶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등 기술의 발전이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세션 4> 진화하는 방송, 경계를 허물다(패널토론) ▶ 각 산업군 담당자간 토론을 통해 진화하는 방송환경에서 미디어간 시너지를 위한 협업과 다양한 제작 방향 토론
	<세션 5> 성공한 글로벌 방송콘텐츠 발굴 노하우(패널토론) ▶ 글로벌 방송콘텐츠로 성공한 사례 발표
(트랙 2)	<세션 6>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의 다변화, 웹드라마의 부상 ▶ 새로운 드라마 제작과 소비 트렌드 분석과 국내외 오리지널 웹 시리즈를 통한 창의적인 스토리텔링과 연출방식 논의
콘텐츠 제작과	<세션 7> 에메이징 차이나, 세계를 노리다 ▶ 변화하는 중국의 콘텐츠 시장 현황


	▶ 중국의 콘텐츠 정책, 공동제작 등 협력하는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비즈니스 전망
소비	<세션 8> 유저관점 : 소비 패턴 변화 (패널토론) ▶ 소비형태의 변화와 그 변화가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
	<세션 9> 전통미디어,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걸음 ▶ 새로운 미디어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장해 온 미디어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트렌드와 대응방식 청취
	<세션 10> 팔리는 콘텐츠 만들기(패널토론) ▶ 시청자들이 구매할 만한 콘텐츠란 어떤 것인지, 제작자들이 나아갈 방향 토의
* MIP ACADEMY - BCM2015 Global Contents Producer Academy 개최(2015.5.8)	
구분	주 제
기조강연	국경없는 콘텐츠, 포맷 - 세계적인 포맷 프로듀서 이스라엘 아르모자사의 사장 아비 아르모자의 도전과 성공
FRESH 포맷 스크리닝	<글로벌 포맷> ▶ 2015년을 강타한 최고의 화제 포맷 20편 공개
The Producers ToolBox 1	<포맷의 여러 가지 수익모델> ▶ 포맷은 단순한 프로그램 판매가 아니다. 브랜드부터 상품화까지 돈이 되는 모든 것
The Producers ToolBox 2	<포맷 비즈니스 가이드 팁> ▶ 포맷 비즈니스를 위한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서
마스터클래스	<해외 바이어가 한국 포맷을 구매할 때 원하는 것> ▶ 해외 판매를 위한 포맷 공동개발 방법
FRESH 포맷 스크리닝	<드라마 포맷편> ▶ 2015년 최신의 드라마 포맷 화제작 15편을 한국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분석
컨퍼런스	<한국 포맷 중국 진출 그 후> ▶ 개그콘서트와 무한도전 등의 한국 포맷의 중국 진출의 위기와 성공
FRESH 포맷 스크리닝	<오락 포맷편> ▶ 2015년 최신 오락 포맷 화제작 15편을 한국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보고 분석
The Producers ToolBox 3	<포맷이 디지털을 만날 때> ▶ 멀티 플랫폼을 이용한 포맷의 변신과 개발, 마케팅

- 우수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상과 격려로 프로듀서(PD), 작가, 배우 등 제작자에 대한 창작의욕 및 명예심 고양
 - * 서울드라마어워즈(SDA): 작품상(대상, 3개 부문 최우수상 각1편, 특별상 3편), 개인상(남녀 연기자, 연출, 작가 등 4명) 부문 등 「미생」 등 수상
 - *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KDF): 연기대상 등 17개 부문 김수현 등 수상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DMS·방송회관) 지원
 - UHD 4K 후반편집시스템 2SET, 4K(UHD)공유스토리지 200TB 도입 등 고품질 영상편집을 위한 후반제작시설 신규 구축
 - 제작지원시설(DMS, 빛마루, 방송회관)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시설이용 안내 및 모바일 예약 지원 등/’15.12월 시범 운영, ’16.1월 정식서비스 예정)
 - DMS 스튜디오(120개 제작사 이용, 551편 제작), DMS 후반제작시설(159개 제작사 이용, 1,193편 제작)
 - 방송회관 스튜디오(69개 제작사 이용, 225편 제작)
- HD드라마타운 건립 추진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15.1~3, 3개월), 시설공사 착공(’15.4),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15.11.) 등 사업추진(’15.12월 말 공정률 14%)
 - HD드라마타운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5.9월~)

< 드라마타운 건립 현황 >

건축현장	사업개요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엑스포과학공원 내 (규모) 부지면적 66,115㎡ / 연면적 32,040㎡(지하1층, 지상 2층) (주요시설) 스튜디오, 제작지원, 후생, 운영시설 등 -중대형 스튜디오 4실(1,500평형 1실 / 1,000평형 1실 / 600평형 2실) -특수시설 (수술실, 법정, 공항 등) 스튜디오 1실(1,000평형) -특수효과 스튜디오 1실(500평형), 야외 촬영소, 미술센터 (사업기간) 2011 ~ 2017년 (소요예산) 80,073백만원

- 방송지원센터 ‘빛마루’ 운영
 - 스튜디오(40개 제작사 이용, 638편 제작), 중계차(20개 제작사 이용, 115편 제작), 방송채널 1개 송출(한국여론방송),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 홍보 및 유통 지원을 위한 ‘K-플랫폼’ (www.kcontentbank.com) 구축완료(’15.12월 말)
 - 빛마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5.12월~)

< 빛마루 시설 현황 >

시설전경	시설개요
	(조성부지) 한류월드(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재) (시설규모) 부지 10,702㎡(3,237평), 연면적 56,594㎡(17,120평), 지상 20층 지하 4층 (건립예산) 2,192억(문체부 1,172억/미래부 1,020억) (주요시설) 스튜디오 6(대형 1, 중형 1, 소형 4), 중계차 2, 편집실 17, 유통실 등 (이용대상) 독립제작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 다양한 방송영상산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맞춤형 핵심 창의인재 발굴 및 육성
 -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4과정 43명), 드라마프로듀서스쿨(2과정, 28명), 사이버 방송영상아카데미(정규과정 40과정, 6,052명 수료/열린강좌 38과정 12,947명 입학)
 - * 현장맞춤형 커리큘럼 제공을 통하여 다쿠스쿨 38명, 드라마스쿨 16명 취업완료
 - * 2015년부터 다쿠스쿨, 드라마스쿨 운영 예산은 고용보험기금 활용

<광고산업 활성화>

- 광고산업 진흥 방안 연구, 광고산업 예비 인력양성을 통한 인재 발굴, 부산국제광고제 개최를 통한 광고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광고산업 현안 분석, 진흥방안 마련 등을 위한 ‘광고산업 진흥 방안 연구’ 실시(’15.9월-12월)
 - 글로벌광고인재센터*(광고스쿨) 운영으로 우수 예비인력 양성 및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 실무교육을 통한 글로벌 창의역량 제고

* (교육생) 80명: 정규과정 40명, 특별과정 40명 * (주요성과) - 5개 광고제, 54개 작품수상 : 뉴욕페스티벌(4), Golden Award of Montreux(1), Creativity Award(7), CLIO Awards(1), 부산국제광고제(41) - 실무프로젝트 : 광복 70주년 프로젝트(문체부 국민소통실), 국가이미지광고(해외 홍보문화원), 불량식품근절 프로젝트(식약처-문체부-경찰청) 수행
--

- 아시아 광고산업 허브 ‘부산국제광고제’ 개최를 통한 광고산업 글로벌시장 진출 인프라 강화(’15.8월/67개국 17,698편 출품)

- '2015 광고산업 통계조사' 실시 통해 광고산업 매출, 고용, 산업구조, 경제적 가치 분석 등 중요 정보 제공 및 산업진흥 기초자료 마련('15.12월)
- * 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15.12.10)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조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 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총실성 (20점)	(보통)	○HD드라마타운 건립 사업의 경우, 지표 조사 문화재 시굴조사 등 외생적 변수에 대한 조치완료 등 공사 착공 후 계획대비 정상 추진 * '15.4월 착공 이후 본격 공사 추진 중
	1-2. 자체평가 결과 반영 (10점)	(총실)	○ '14년 자체평가 시 지적되었던 HD드라마타운 건립 지연문제(문화재 시굴조사 등) 해소로 정상 추진중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총실)	○ 방송산업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하여 미래부·방통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책 추진 ○ 방송분야 제작지원·해외진출 사업 시 미래부·콘진원·전파진흥원 및 시장참여자 간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하여 업계 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을 추진함 ○ 방송시장 및 광고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 및 사업 추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총실)	○ 9개 국제 유력 견본시 참가기업의 수출실적 합계는 약 85백만불로 100% 달성 ○ HD드라마타운 건립 사업은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후 15.4월 착공하였으며, 본격 공사추진으로 공정을 목표 초과 달성 및 사업 정상수행 중(공정을 12월 말 기준 13.6%달성, 당초목표 10%)
	2-2. 정책 효과성(20점)	(보통)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시행을 통한 방송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으로 외주제작사의 창작역량 강화 및 '문화 융성'에 기여 ○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한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기반형성 및 해외 시장 확대 ○ 방송영상·광고산업현장 맞춤형 예비인력 양성을 통한 제작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41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부진

총평

-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출판산업은 정체 또는 소폭 하락 추세
 - * 매출액('11.~'13.) 21조 2,445억원 → 21조 972억원 → 20조 7,997억원
- 그러나 한류에 힘 입어 출판 수출지역은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 추세
- 이러한 가운데 '15년 출판지원 정책은 크게 2가지 기조로 추진
 - 콘텐츠 제작 → 유통 → 소비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정책지원
 - 출판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환경 개선에 주력

주요 성과

- 새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가격 안정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 도서가격 평균 6.2%하락(평균 19,106원), 지역서점 영업이익 대체적(62%)으로 증가
 - 도서정가제 안내 센터 운영 : 도서정가제 상담(2,709건)
- **출판 수요 창출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 문화융성카드 출시(업무협약 '15.10.12) : 지역서점 도서 15% 할인 제공 (BC카드 부담), 문화기금적립 등 독서 및 지역서점 활성화
 - 지역서점 문화 활동 지원 : 35개사 330회(독서, 작가강연, 창작활동 등)
 - 서점 POS(판매통계시스템) 연계 구축 지역서점 정보화 수준 향상
 - * 서점 재고 현황 파악, 도서 판매 정보 교환(POS), 도서 공동 구매 등 협업기반 마련
- 세종도서 선정 등 **출판 촉진 정책 시행으로 전년 동기대비 상반기 신간도서 발행 종수 2.9%증가**('15년 상반기 신간 도서 발행은 35,267종)
 - * 학술도서 10개 분야 320종, 교양도서 10개 분야 455종, 문학도서 5개 분야 510종 총 102만 7천권을 구입, 공공도서관 및 소외계층 지원 시설에 배포
 - 우수 출판콘텐츠를 발굴(140편) 제작 지원(편당 1,000만원 지원)
- 출판한류에 힘입어, **상장사 기준 출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상반기 상장사 기준 106억원)
 - 특히, 2015년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민들레는 민들레(김장성 글·오현경 그림)” 등 5개 작품이 라가치상 우수상 수상

- 시장 맞춤형 한국문학 번역지원으로 출판산업 수출 기반강화
 - * 신규 번역지원: 총 17개 언어권 124건(샘플번역 50건, 완역번역 74건)
- 출판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컨설팅 등 수출지원 강화
 - * '13년 116건 → '14년 184건 → '15년 220건 (전년대비 19.5% 증가)
- 출판한류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 * 해외도서전 한국관 참가 : 대만 타이베이(2월), 인도 뉴델리(2월), 이탈리아 볼로냐(3월), 영국 런던(4월), 일본 도쿄(7월), 중국 베이징(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10월), 멕시코 과달라하라(11월)
 - *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개최(3회)/ 시안(5.28~29), 지난(7.22~23), 창춘(10.21~22)
- 출판유통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DB 기반(서버 등), 파주 출판단지 조성 등 출판 기초 인프라 확대
 - 신간 도서 유통 DB 구축 : 5만2천건(도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일 등30개 항목)
 - 수도권,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를 세계적인 복합문화도시로 육성
 - * 2단계 산업시설 80% 건립(112개사에 대해 산업용지 분양 완료)
- 스마트 기기 확산,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전자출판 제작업 및 서비스업은 성장 전망
 - * 최근 3년간 전자출판산업 규모는 '12년 1,232억원 → '13년 1,374억원(전년대비 11.5% 증) → '14년 약 1,500억원(전년대비 9% 증)
 - 우수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에 대한 전자책 제작지원(1,028종)
 - 전자책 불법복제 추적차단을 위한 '전자책 바로센터' 운영
 - 전자출판 해외진출 지원 등 전자출판 콘텐츠 수요확대
 - * 국제도서전(볼로냐, 런던, 북엑스포아메리카, 북경, 프랑크푸르트) 전시 지원, 수출 전자책 번역 지원(30종) 등 우수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 출판 분야 일자리 확대에 기여
 - 출판창업보육센터 운영(24개 기업) 하여 40명 고용 창출
 - 기업에 대한 청년인턴 매칭을 지원하여 150명 직접 일자리지원 (정규직 전환율은 55%)
- 인쇄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추진
 - 해외전시회 한국인쇄관 조성, 인쇄수출 상담 등 지원(7회)
 - 고품질 인쇄 및 비용 절감 위한 친환경 인쇄기반 조성

- 출판 분야 정부정책 홍보 및 현안 적시 대응
 - 도서정가제 정착, 지역서점 활성화, 출판 한류 확산 등 출판 현안에 대한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장·차관 및 외부전문가 기고 등 추진(총 14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유통업체별 서로 상이한 도서/유통정보 구조로 인해 출판계 과다비용 발생, 유통사간 DRM이 상이하여 독자의 불편 초래
- (개선방안) 전자출판 분야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 (이용 접근성 제고) 유통사별로 다른 전자책 이용 뷰어 및 DRM을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협의체 구성, 1월)
 - (공공도서관 B2B개선) 전자출판 분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B2B 계약(유통사 - 공공도서관) 표준모델 마련(상반기)
 - (인증체계 개선) 및 ISBN(국제표준도서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출판유통 체계 선진화(상반기)
- (기대효과) 전자책 공급구조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절감, 전자출판 이용 활성화, 전자출판산업 성장

□ 조치계획

- 전자출판 유통선진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016년 1월~)
 - 전자출판진흥협의체 구성·운영
 - 도서관 B2B 거래 구조개선 협의(국립중앙도서관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보통)	· 서울국제도서전을 메르스 확산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하였으나 해외도서전 참가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이 계획수립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하였음
	1-2. 자체평가 결과 반영 (10점)	(보통)	· (14년)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국제도서전 참가 출판사 수”의 성과평가 지표를 “한국문학 및 도서 해외 번역출간 건수”로 수정하고,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보통)	· (15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산업 점검 필요”에 대해 출판유통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D+100일, D+6개월, D+1년) 하여 도서정가제 보완을 위한 출판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세종도서 선정 시 공공도서관 등에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수요자 중심의 도서 선정을 추진 · K-BOOK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출판사, 에이전시 등 출판전문가의 주기적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 개정 도서정가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등 출판유통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출판산업 정책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한국문학 및 도서 해외 번역출간(개수) 성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반면, 우수출판콘텐츠 생산기여율(비율) 성과목표는 새 도서정가제 시행관련 도서가격의 평균 6.2% 하락으로 성과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2-2. 정책 효과성(20점)	(보통)	·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가격이 평균 6.2% 하락하였으며, 중형서점 중심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 등 출판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 되고 있음

42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다소우수

□ 총평

- 다양한 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 편의 제고
 -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지도 등 관광안내체계 구축
 - ‘1330’ 콜센터의 연중 24시간 운영을 통해 관광안내, 관광불편신고 접수, 통역 등 관광객 편의 제고
- 관광경찰 수사 및 단속 활동 강화로 ‘안전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 2013년 10월 ~ 2014년 단속 실적 2,482건인데 비하여 2015년(11월까지) 단속 실적은 5,87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광현장에서의 관광경찰 활동 강화
- 규제완화·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관광숙박객실 공급확대 및 서비스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효력연장을 통한 인센티브 확충
 - 호텔업 등급제도 개선을 통한 숙박객 만족도 제고

□ 주요 성과

- 다양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관광기반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
 -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등 16개소(신설10, 개보수6) 지원
 - * 관광안내소에 외국어(영·일·중) 가능자 배치·운영으로 관광편의 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개보수 및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원
 - * 외국어표기(영·일·간체·번체 등 4개국어) 번역 및 감수지원(161개소 2,565건)
 - * 관광안내표지판 2,406개, 관광안내지도 798만부
- 관광안내, 관광불편신고접수, 통역 등을 제공하는 ‘1330’ 콜센터 운영을 통해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
 - * 1330 콜센터 : 한,영,일,중 4개 언어/ 32명 안내사,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외국어 가능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배치,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해설 제공

- 관광경찰 수사 및 단속 활동 강화로 ‘안전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 2013년 10월 ~ 2014년 단속 실적이 2,482건인데 비하여 2015년(11월까지) 단속 실적은 5,87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광현장에서의 관광경찰 활동 강화

구 분	무자격 가이드	택시/콜벤	무허가 숙박업	관광버스	가격미표시	기타	계
‘13.10~‘14년	451	299	172	613	266	681	2,482
‘15년	307	993	538	596	1,689	1,755	5,878
총계	758	1,292	710	1,209	1,955	2,436	8,360

- 중국 국경절(10.1~10.7) 등 주요 계기 관광 불법행위 집중단속
 - ※ 택시·콜벤 불법행위 집중단속(9.14~10.31) 실시로 불법 택시·콜벤 701건 단속
- 주요 관광지에 **거점센터 3곳 추가 설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점점 확대
 - ※ 명동·홍대·부산 남포에 이어 이태원(‘15.2월)·동대문(‘15.3월), 인천공항(‘15.4월) 설치, 총 6곳 운영
- 주요 외신·해외언론인 동행취재, 해외문화홍보원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해외 홍보**
 - ※ 日도쿄TV(7.23)·NHK(10.30), 中신화망(8.6) 등 주요 외신 동행취재, 해당 국가 전역에 방영
- 외래관광객 수용태세에 맞는 **중저가 숙박시설 품질강화**를 통하여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 우수 일반 숙박시설 인증제도인 굿스테이 품질관리를 위한 지정 규약 개정 및 압행모니터링 강화
 - * 건전성 평가 강화 및 시설/위생관리 평가배점 상향조정(‘14년 45점→‘15년 50점)
 - * 압행모니터링 확대실시(전수조사 ‘14년 1회→‘15년 2회)
-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입지허용
 - * 심의제외기준: 학교출입문 75미터 이상, 100실 이상, 서울·경기, 5년 한시 등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효력연장**을 통한 인센티브 확충
 -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15년말로 효력만료되는 인센티브 규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 *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완화, 국공유지 대부 등 호텔 확충 인센티브

- **호텔업 등급제도 개선**을 통한 숙박객 만족도 제고
 -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일원화(관광협회중앙회·관광호텔업협회 → 관광공사)
 - 호텔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 호텔 등급평가수수료 현실화
 - 호텔 등급표지 고시 제정
- 의료관광호텔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완화
 - 부대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서울 외 지역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기준을 1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
 - * 부대시설로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용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조치계획

- 해당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서상의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 지적사항 없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K스마일 관련 협업 회의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근절 및 통역을 위한 대책 필요성 대두로, 현장의견 수렴의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외래관광객의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는 목표치 대비 98% 달성(목표치 80.5점→'15년 10월 79점) · 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수는 목표치 대비 108.5% 달성(목표치 13,000실→'15.12월 14,109실) * '16.3월경 최종 확인가능
	2-2. 정책 효과성	(충실)	· 다양한 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경찰 수사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관광숙박 객실 공급확대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정부3.0) 지자체협업, 스토리텔링 오디오 관광안내서비스

43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 관리

보통

□ 총평

- **관광주간 확대시행**으로 국내여행 참가자 수 3,720만 명(전년 대비 25% 증가), 이동총량 7,935만 일(전년대비 6% 증가), 총 지출액 4조 9,224억 원(전년대비 19% 증가) 달성

구분	2014	2015	'14년 대비 증가율
국내여행 참가자수	2,971만 명	3,720만 명	25.2% 증가
이동총량	7,484만 일	7,935만 일	6% 증가
총 지출액	4조 1,426억 원	4조 9,224억 원	18.8% 증가

- 관광시설·숙박·음식점 할인, 지자체 대표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주간 콘텐츠 구축을 위해 **지역 관광주체 및 타 부처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정부부처의 휴가 촉진 및 초·중·고등 학교 재량 휴업을 통한 **국내여행 분위기 조성**
- 창조관광사업의 발굴 및 성장단계별 육성지원 등 **창조관광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서비스 개선,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한 **모든 계층이 접근 가능한 관광기반 마련**

□ 주요 성과

- 관광주간 실시(봄 : '15.5.1~14 / 가을 : '15.10.19~11.1)를 통한 국민 여행 편의 제공 및 **국내관광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
- 전국 숙박·음식점·관광시설 등 할인 및 특별프로그램 진행
* 봄(5월) : 3,633개 / 가을(10월) : 3,718개
- 관광주간 확대 실시, 특정시기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 분산**
* '14년 11일간 → '15년 14일간 / '15년 가을 관광주간 비수기 실시
- 관광주간 주요 추진 성과

구분	'관광주간'	추진 성과		
		봄 관광주간	가을 관광주간	총합
	이동총량	3,927만 일	4,008만 일	7,935만 일
	총지출액	2조 3,703억 원	2조 5,521억 원	4조 9,224억 원
파급효과	생산	3조 9,171억 원	4조 2,176억 원	8조 1,347억 원
	부가가치	1조 9,747억 원	2조 1,262억 원	4조 1,009억 원
	고용	30,541명	32,884명	63,425명

< 봄·가을 관광주간 실시 (5.1~14/ 10.19~11.1) >

- (목적) 하계 휴가에 집중된 국내 관광 수요의 분산·창출 및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여행 제약 요인 개선
- (참여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33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21개 민간 기업 및 지역 숙박·교통·음식·쇼핑 업체 등
- (주요 내용) △관광시설·숙박·음식·교통 등 3,500여개 할인 △ '관광주간 지역 협의회' 운영 및 광역지자체별 관광주간 대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근로자 휴가문화 조성과 초·중·고등학교 자율 휴업 유도 △ 국민참여 온-오프라인 이벤트 실시 등 관광콘텐츠 강화 △ 언론매체 활용 관광주간 광고·홍보 및 관광주간 사이트 구축 등 온라인 홍보 실시

< 하계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 (7. 10~8. 20) >

- (주제) '다시 찾아온 여름 다시 찾은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 (내용) TV 광고(287회), 인쇄광고(74회) 및 TV 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영, 여름 캠페인 웹사이트 구축 운영, 우수 국내여행상품 공모 및 판촉 지원, 우수 국내여행상품 체험기회 제공 국민참여 이벤트 실시 등

- 관광주간 활용 근로자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가을 관광주간 연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 * 총 800명 1인당 5만원씩 여행 지원(총 234가족, 4인가족 기준 최대 20만원 여행상품 구입비 등 지원)
 - 가을 관광주간 연계 '사장님! 밥상을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전개
- 전국 지자체 참가 대규모 국내관광 박람회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15.2.12~15), 한국관광 100선 및 한국관광의 별 선정 등을 통한 국내관광 수요 촉진
 - '내나라여행박람회' 310개 업체, 558개 부스 참여, 관람객수

109,580명 * '14년(108,968명) 대비 612명 증가

- '한국관광 100선' 3개년 빅데이터 분석 자료 활용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2015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100선' 선정
 - * 서울 광장시장, 제주 우도,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 100개 선정
- '2015 한국관광의 별' 3개 분야 11개 부문 시상으로 우수 국내관광자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환기
 - * 2개 부문 신설(지역전통 관광자원, K스마일 친절 지자체)

구분	시상부문	세부부문	수상자
1	관광매력물 부문	생태관광자원	문경새재 도립공원
2		문화관광자원	남산 N서울타워
3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보문관광단지
4	관광현대 부문	숙박	영주 무섬마을 전통한옥
5		쇼핑	정남진 토요일시장
6		음식	영덕 대게거리
7	특별부문	창조관광자원	제주 지오(Geo) 브랜드
8		지역전통 관광자원	수원화성 무예공연 '무무화랑'
9		K 스마일 친절 지자체	(최우수)제주 서귀포 (우수)대구 중구, 충북 청주
10		공로자	이민호
11		휴가문화 우수기업	신세계조선호텔 숨피

- 창조관광사업 공모전('15.3월~6월)을 통해 '15년 749건 47개 사업 발굴, '12년 이후 총 205개 업체 창업, 629명 고용 창출
 - 창조관광기업 수요자 맞춤형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금융지원제도 개선으로 스타트업 지원체계 고도화
 - * 2015 창조관광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15.10월), 창조관광육성 펀드 조성('15.9월 220억원), 창조관광 지정기업 대상 특별융자 지원('15. 12월, 10억원)
- 장애인, 시니어 등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를 선정·지원하여 관광향유권 제고
 - 촉지안내판 및 점자가이드북, 무장애관광 동선정비사업 등 실시
 -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한국 민속촌, 대구 중구 근대골목,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 선정('15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광주간 내실화를 통한 대국민 참여 확대 및 만족도 제고 필요
 - 관광주간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우수 관광 콘텐츠 발굴** 필요
 - 관광주간 **만족도·인지도 향상** 필요

□ 조치계획

- 관광주간의 내실화(관광주간 내)
 - 관광주간 **'5대 지역방문 프로젝트'** 추진
 - 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 참여 이벤트 및 홍보 확대
 - 초·중·고등학교 대상 관광주간 연계 자율휴업 유도 및 부모 휴가 사용이 곤란한 학생 대상 체험 학습 지원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추진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 되었음 · (관광주간) 사업 추진 계획대로(5월, 10월) 시행되었고, 사전 의견 수렴 절차(시도관광국장회의, 협업참가기관 회의 등/2월, 8월)을 통해 추진하였기에 충실로 평가하였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수학여행 활성화 조치 이행(안전수학여행 가이드북 11,876개소 제작 배포 등)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지자체-지역관광협회 협력을 통해 관광주간 프로그램, 참여업체, 관광지 등에 대한 관광수용태세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하였음 · 관광주간 협업참가기관 회의 개최(2월, 8월) 등 7회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현장 의견 수렴의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봄가을 관광주간 국내여행 참가자수 3,720만명으로 전년 관광주간 대비 25% 증가함. <u>이동총량은 7,935만 일</u> , 총 지출액은 4조 9,224억원을 기록함 ※ '15년 성과지표 목표치(관광주간 기간 국민이동 총량 2,200만일) 초과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국내관광 활성화 광고, 다양한 캠페인, 여행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3.0) ▲ 창조관광 공모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관광주간 ▲ 대한민국 구석구석 맞춤형 여행플래너 구축

□ 총평

- 탐방로 관광자원을 활용한 걷기여행길 관리·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관광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
 - * '전국 걷기여행길 종합정보서비스'- 3.0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선정('15년)
- '관광두레'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육성에 기여**
 - 관광두레센터 및 지역별 관광두레 PD를 중심으로 주민사업체 발굴, 관광사업 컨설팅·교육·파일럿 사업 등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 * 31개 지자체(PD 34명), 158개 사업체, 참여주민 1,466명
 - *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114회, 멘토링 78회, 파일럿사업 45회
 - 관광두레멘토단 운영, 으뜸두레 육성, 청년서포터즈 운영으로 주민사업체의 성공사례 및 **브랜드 파워 강화**
- 생태관광 및 슬로시티, 야생화 관광자원화 등 생태관광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생태관광 활성화** 계기 마련
 -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마련
 - 지자체 고유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참여 및 의식강화** 도모
 -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예약제 실시, 전문해설사 활용 등) 운영을 통한 **관광 상품의 고품격화** 유도
 - 체험 및 교육중심의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단계별 기획평가(사업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를 통해 **개발사업의 성공적 시행 지원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주요 성과

【걷기여행길】

- 이용자 중심의 걷기여행길 **표준화된 정보 체계구축 및 지속적 관리**
 - 전국에 산재된 걷기여행길(603개) 정보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 제공
 - 신규 조성 길 및 걷기여행길 지속적 정보 추가로 걷기 이용자에게 새로운 정보 제공

□ 통합적인 걷기여행길 지속적 정보 관리 및 제공

- '13년 10. 10 걷기여행길 홈페이지 정보 : 480길, 1,171개 코스
- '15년 12. 31 걷기여행길 홈페이지 정보 : 603길, 1,640개 코스
- 통합적인 걷기여행길 정보제공
 - '13년 : 33천명('13.10.10~12.31), '14년 : 578천명, '15년 : 650천명



- * 자전거길(행자부, 국토부, 지자체 등) 및 등산로(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 시 좋은 표준 모델 사례로 활용 가능

- 걷기여행길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생산 및 민간 업체 활용**
 -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및 ZUM 포털 걷기여행길 소개
 - 교보생명('걸을수록 행복한 길' 리플렛 제작)
 - 출판사 리베르스쿨 '한국미술사를 보다 책자 발간, 오산 독산성길 이미지 활용
 - SK플래닛 T라이프 걷기여행길 폐북페이지를 'Hot people'로 소개
 - 삼성생명 사보 '좋은날' 우리가족 주말여행 '걷고 싶은 길' 소개
- **걷기여행길 통합정보 플랫폼구축**으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예산 절감
 - * 예산절감 효과 : 61억원 + ∞(예상)
 - 홈페이지 구축 : 37억원(3천만원*신규조성 123길), 관리 24억원(10백만원*123길*2년)
 - 신규조성 123길 : '13.10.8. 이후 걷기여행길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규 걷기여행길

○ 지역관광객 증대 및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한 **걷기여행길 관리·활성화** 사업 추진

- 걷기여행길 DB 및 관리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걷기여행길 누리집 DB오류 수정, 걷기여행길 안내표지판 및 도로정비 관리실태 점검·보수, 걷기쉬운길(노약자 및 장애인용) 발굴 추진

* 추진실적 : 전국 걷기여행길 DB 및 관리실태 모니터링 1단계 추진 중 (누리집 등록길 603길 1,640코스를 3등분하여, 3년 주기로 단계별 실시)

· 추진실적: 2015.6 ~ 2016.5월 137길 540코스 모니터링 실시 중

-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탐방로 유지 보수 및 안내체계 구축 사업 추진

* 추진실적: 2015년도 15개소 지원(2014년도(12개소) 대비 3개소 증가)

- 탐방로를 중심으로 자전거길, 관광·문화·레포츠 자원 정보를 연계·제공하는 ‘두루누리’ 시범사업 추진

* 추진실적: 2015년도 3개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16.6월까지 완료 예정)

【관광두레】

○ '13년 5개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5년 31개 지자체(PD 34명)에서 **158개 주민사업체를 발굴,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 지역별 '관광두레 PD'를 중심으로 주민 교육·컨설팅·전문가 멘토링·파일럿 사업·홍보 등 지원

-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114회, 멘토링 78회, 파일럿사업 45회

- 조기 성과창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는 별도 선정 및 집중 지원

* 유망사례군 : 지역별 1개(20개) → 1차 '으뜸두레' 5개 선정('15.7~12월)

○ 주민 1,46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 및 고용 발생 외에도 지역 공동체의식·자립경영 의지·관광마인드 향상 등의 변화 관찰



< 으뜸두레: 5개 사업체 >

조직	구성	상품	목표	지원	현황	성과
동동카누 (양평)	양평고 카누부 출신 선수	레저 스포츠 체험	사업장 지속운영, 홍보강화	경영진단, 브랜드개발, 홍보물배포	완료	작년대비(7,8월) 매출액 123% 증가(7~8월간 960만원 →2,145만원) 방문객 133% 증가 (7~8월간 800→1,869명)
수다밥상 (곡성)	농업회사 미실란, 지역주부	식음	매장 오픈	메뉴개발, 공간 컨설팅, 운영교육	운영교육 멘토링 (~12월)	가오픈(8.15.), 시범운영 매출발생(8월 600만원, 방문객 400명) 정식오픈 완료(10.30.)
수레인 보우 (여수)	지역주민, 다문화여성	식음	매장 오픈	메뉴개발, 공간 컨설팅, 브랜드디자인	완료	정식오픈 완료(11.23.)
누리마을 빵카페 (제천)	지역주민, 다문화여성	식음	신제품 개발	메뉴개발, 공간 컨설팅, 브랜드디자인	메뉴개발 멘토링 (~16.2월)	신메뉴개발 및 시범판매, 가오픈 예정('16.2월)
덕다현 (청송)	덕천마을 부녀회	식음	사업장 지속 운영, 홍보강화	브랜드디자인, 메뉴개발	과업 조율 중	작년대비 7,8월 매출액 222% 증가(7~8월간 440만원 →1,421만원) 방문객 22% 증가 (7~8월간 620→760명)

○ **관광두레 대국민 홍보·마케팅 강화**

- 방송언론 보도(TV방송 25회/ 신문기사 13회/ 온라인 뉴스보도 446회)
- 블로그·카페 포스팅 423회
- 관광두레 스탬프투어 운영(7.15~11.30)
- 뉴스레터 발간(12회, 온라인 12,000명/ 오프라인 1,170부)

< 관광두레 주요 홍보 성과 >

구분	내용	참조
방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매체 : 2015.8.4(화) / SBS 생활경제 ○ 내용 :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름휴가 양평 동동카누 방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여행 체험상품으로 동동카누 소개 - 관광두레 사업의 취지와 모델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매체 : 2015.10.21(수) / SBS 생활경제 ○ 내용 : 가을 관광주간 곡성 관광두레 방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성 관광두레 여행 코스 소개 - 관광두레 사업의 취지와 모델 소개 - 바로가요 관광두레 점점 채널 안내 	

구분	내용	참조
신문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6월) : 여름휴가 관광두레 여행 장려 캠페인 5회 - 조선일보(6.25), 서울경제(6.25), 스포츠서울(6.26), 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6.29) 전국대회(조선일보 8.27) : 관광두레 전국대회 1회 (9/2~3 / 무주 태권도원) 개최 안내 및 참여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매체 : 2015.12.10(목) / 조선일보 내용 : '훈훈한 겨울여행 지역주민과 함께 하세요' - 관광두레 겨울여행 장려 광고(지금가요 관광두레 17개소 정보 소개) 	
기획 기사 (중앙일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매체 : 2015.6.25(목) / 조선일보 내용 : 관광두레 사업을 통한 청년창업 집단 수토리 성장과 주민주도 참여 관광두레 사업의 청사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매체 : 2015.12.10(목) / 조선일보 내용 : '경북 청송 고택에서 하룻밤' - 으뜸 관광두레 청송 덕다헌 여행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매체 : 2015.12.18(금) / 조선일보 내용 : 관광두레 사업 월평균 방문객 5000명 돌파 - 관광두레 사업체 성과 창출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매체 : 2015.12.29(화) / 조선일보 내용 : '주민 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지역 경제 이끈다' - 관광두레 사업 성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일보(2015.12.25) - '농어촌 체험.먹거리 사업 주민 스스로 일자리 만든다' 파이낸셜뉴스(2015.12.25) - '관광 비즈니스의 풀뿌리 관광두레' 뉴스1(2015.12.21) - 우리 동네 관광일자리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 / 독일교포老사업가가 남해섬에 묻히고 싶어하는 이유 뉴스1(2015.12.21) - 경남 남해, 힐링과 낭만의 도시... 독일광부.간호사 추억도 / 미래의 고향, 전남여수에서 구현되고 있다. 관광두레 	

【지역관광개발 기획평가】

- 지역관광개발사업 91개에 대한 추진 단계별 진단 및 평가, 전문가 컨설팅 실시로 사업 개선방향 제시 및 예산 미반영
 - 생활계정 78개(사전적합성조사 76개, 집행모니터링 2개), 경제계정 13개(사전평가 3개, 집행평가 8개, 심층컨설팅 2개) 평가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교육(2회), 지역관광개발사업 설명회, 찾아가는 지역관광개발 워크숍 개최로 관광개발사업의 이해도 제고
 - 전국의 관광개발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평가시스템 개발 병행 추진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 우리 고유의 생태자원(습지, 철새도래지, DMZ 등)을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모델사업지로 선정 지원**(9개 지역/27억원)

유형	소재지 및 특징	'15년 예산 (백만원)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국내 최대규모의 사구)	400
연안습지	전남 순천시 순천만(세계 5대 습지)	500
내륙습지	경남 창녕군 우포늪(원시 늪,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협약)	350
철새도래지	충남 서산시 천수만(동북아 최대 철새도래지, 300여종 400만마리)	100
화석/동굴	강원도 평창군 마하(마하생태관광지, 백룡동굴)	500
산/강	경북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자연경관과 유교문화)	400
	전북 진안군 고원 마실길, 데미셀	50
DMZ	경기도 파주시 서부 DMZ	100
	강원도 화천군 동부 DMZ	300
총계		2,700

- 생태관광 컨설팅단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15.5~6월) (과주·화천·평창(5.21~22)/ 태안·서산(5.7)/ 영주(5.28)/ 창녕(6.19)/ 진안·순천(6.11~12)
-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기본안내시설 정비, 탐방로 보수, 경관 저해시설 관리 등)
- 생태관광객 유입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민박촌 수요 증가 및 특산물 판매로 주민 소득 증대)
- 생태관광 만족도 조사실시('15.11월), 홍보 웹페이지 구축('15.12월)

<p>◆ 생태관광 만족도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생태관광지를 방문한 만 20세 이상 관광객(파주 DMZ 등 10곳) ○ 표본수: 총 300명 ○ 전반적 만족도 : 82.5 - 프로그램 82점, 관광자원 87.1, 관광인프라 82.4, 관광기념품/특산품 73.2, 관광 안내시설 80.3, 교통접근성 79.7, 관광중보자 서비스수준 83.2
--

- 생태관광인증제 도입 관련 기초자료 정비('15.4~12월)
 - 인증제 운영 및 법제화 방안연구, 인증제 운영 매뉴얼 제작 등
- 지자체별 특색 있는 고유자원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16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공모** 실시(지원예산 41.5억원)
 - 공모기간('15.12.21~'16.1.20) / 최종선정('16.2.19)
- **야생화 군락지 조성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자원으로 육성**
 -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야생화 사업지 공모선정 지원 (가평, 원주, 태백, 부안 등 10개 지역×1억)
 - 야생화 군락지를 지역 특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 컨설팅단* 운영 및 주민참여 유도 (한국생태문화연구소장, 경기대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등 전문가 10명)
 - 지역별 특색있는 야생화 브랜드화를 위한 해설사 양성 및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음식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야생화 정보제공으로 인지도 제고 및 **관광 명소화** 추진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야생화 코너 신설
 - '걸기 여행길' 종합포털에 '야생화 길' 테마 신설(25개 길)
- 야생화 특별전·영상물 제작·팸투어 등 인식확산 홍보강화
 - 청와대 사랑채 전시('15.5~8/산림청 공동)
 - 야생화 홍보영상 방영 및 체험관 운용('친환경 대전'/'15.10.27~10.30)
 - 전국 주요 야생화 군락지 영상콘텐츠 제작('한국의 야생화 관광') 및 활용
 - 여행업계의 야생화 상품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추진
- 슬로시티 인증지역의 향토문화 계승 및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보존 등을 통한 **한국적 슬로라이프 사업 추진**(11개 지역 11억원 지원)

광역	지자체	사업내용			'15 (백만원)
		슬로푸드	전통산업	특징	
전남(3)					260
	담양	죽염된장, 한과	죽공예 및 대나무소재 바이오산업, 한과발효 식품	향교 가사문화 문화유산, 죽세공품	80
	완도	전복, 해초해산물	전통적 어업 및 가공	가고실은섬, 돌담길, 전통경관보존	100
	신안	화도, 초해산물	천일염, 참초, 김 등	슬로시티 주민밴드, 슬로시티 작목반	80
경남(1)					100
	하동	야생차, 대봉꽃감	야생차 가공 및 꽃감 생산	야생차밭, 넓은 평야, 섬진강, 문화배경(최참판댁)	100
충남(1)					130
	예산	황토발사과, 민물어죽	사과재배 및 사과관련 상품(식품, 수공예품)	예약저수지, 향교, 동헌, 주민자치활동(대홍보촌회) 의존은형제	130
경기(1)					100
	남양주	먹골배, 유기농산물	친환경 유기농	질분공예 동아리, 장수 마을지정	100
전북(1)					80
	전주	비빔밥, 이강취전통주	태극선, 전통주 등	조선왕조 발상지, 한옥마을 자체가 전통 박물관	80
경북(2)					200
	상주	꽃감	명주, 전통방직, 전통용기 제작	자전거 도시	100
	청송	청송사과	전통한지, 청송백자, 옹기, 천연염색	송소고택, 전통한지, 청송백자 및 옹기, 천연 염색기법 전승	100
강원(1)					100
	영월	포도, 찹쌀, 느타리버섯	포도와인, 포도즙, 옥수수, 메밀 등	김삿갓 유적지, 전통적 농업 (옥수수, 메밀, 잡곡)	100
충북(1)					130
	제천	산야초 정식, 민물매운탕	약초(황기, 인삼)	오터별신제, 수석목공예	130
합계					1,100

- 사업내용: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방문자 센터 운영,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슬로푸드 축제, 전문 해설사 양성 등
- 노후화 된 관광시설 및 관광환경, 관광기능을 개량·개선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관광일자리 창출 도모(5개 지역, 5억원)

시도	소재지	'15 (백만원)	비고
전북	김제 벽골제	100	
충북	단양 온달관광지	100	
강원	양구 양구통일관	100	
울산	동구청 일제 적산가옥 일원	100	
강원	원주 감성레저마을, 간현관광지	100	
총계		500	

- 김제 벽골제 : 농경문화박물관 체험관실 ICT 접목 공간재생
- 온달 관광지 : 연극(연극+음악+영상+무용 등)
- 양구 통일관 : 휴게공간조성, 캐릭터 포토존, 주말 상설공연 등
- 울산 적산가옥 : 마이클케냐(사진작가) 특별전, 사진촬영대회 등
- 원주 감성마을 : 암벽스크린 공연, 헬로 버스킹 페스티벌, 국악 음악회, 운영기반 구축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16년도부터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 예산이 지특회계 포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므로, 걷기여행길 관리실태 모니터링 결과 반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 필요

□ 조치계획

-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에 의한 서비스망 정보 제공 고도화 지속 추진
 - 각 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걷기여행길 포털의 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협업 지속
 - 걷기여행길 관리실태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지특회계 예산 반영 협조 요청 공문 시행('16.5월 중)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관광두레, 생태관광/슬로시티, 기획평가 사업 등을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였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 관광기획평가센터를 설립하고 국가관광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였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관광두레 워크숍, 전국대회,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 기획평가는 각종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사업 계획에 반영함. · 생태관광 현장 모니터링 및 지역별 맞춤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생태 녹색관광 육성 개선방안 마련 및 '16년 사업추진 계획에 반영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31개 지역, 158개 주민 사업체, 주민참여 1,466명 · 지역평가 수는 목표치 대비 114% 달성(목표치 80개 → 성과 91개) · 생태관광 만족도 ('14년) 76점 → ('15년) 82.5점
	2-2. 정책 효과성	(충실)	·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실시로 해결 방안 제시 및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관광두레 사업공동체 창업 및 육성 지원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정부3.0) 전국 걷기 여행길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 총평

- 산발적인 기반시설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을 탈피,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 문화, 생태녹색, 광역권, 관광지 등 총 320개 사업 2,229억원
 -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레포츠 자원의 관광콘텐츠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기반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남해안 3개시도 관광협의회 등 조직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공동 연계사업으로 효율적 추진**
 - *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9개 사업 30억, 남해안 관광활성화 8개 사업 12억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 관광 편의 제고**
 -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지도 등 외국인 대상 관광편의시설 구축
 - **한류 문화공간, 뷰티체험관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테마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 관광매력 증진**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관련 지자체 표준조례 신설(안)에 관광특구를 포함하여 외국인 관광 편의 증진에 기여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 2 제9호 관련
 - **가격표시제 확대 실시**를 통하여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 노력
 - 관광특구의 대외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관광특구 신규 지정 증가
 - * 신규지정 관광특구 : 강남마이스('14.12월), 고양('15.8월), 수원화성('16.1월 예정)
 - * 관광특구 :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13개 시·도 30개)
- **강원도 폐광지역(영월, 정선, 삼척, 태백)의 고유 향토자원(탄광, 광부 생활상, 전통음식, 전통 전승문화 등)을 관광자원화하여 낙후된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 관광지로 활용**
 - * 대통령 지시, '탄광지역 생활보존·복원 지원사업' 추진('03.12.24)
 - '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된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우수사례 : 지역 콘텐츠 연계 관광자원 개발 >

사업명	사	례
문화 관광 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1박 2일, 북부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북부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류형 1박 2일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 ▶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조성, 경의선 테마역사 개발, 광역시티투어 운영, 야간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캠핑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 명품길 관광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로 조성된 걷는 길을 연결 통합하고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게 명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탐방코스 개발 및 체류형 거점마을을 지점별로 선정하여 특산물 판매장터, 음식점, 민박, 체험 등 주민소득창출 사업과 연계함 	
생태 녹색 관광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천산군립공원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불편 해소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편의 시설 정비로 관광객 유입 증가 ▶ 산책로 정비, 화장실 정비, 쉼터 설치 및 정비, 음이온 공기욕장 설치, 야간 조명시설 설치, 화장실 정비 등 	
광역 관광 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 공동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여 공동으로 판매하는 콘텐츠 위주의 연계 협력방안 마련, 시행 ▶ 지리산한바퀴 순환버스체계 구축, 지역관광 및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 지리산권 문화 및 통합 축제 박람회 개최,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구축 등 	
폐광 지역 관광 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탄 아트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우수사례, 대한민국 예술광산 4호 ▶ 2013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2015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최대 35명) 	

□ 주요 성과

【 관광자원개발 】

- 추진 단계별 사업 진단 및 평가,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개발사업의 성공적 시행 지원 및 사업진척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 * 2015년 325개 개별사업 2,344억원 지원
-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하고, **지속적인 예산지원 및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우수사례 창출**
 - * '2015 한국관광의 별' 선정(영덕대게거리 조성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2015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부문' 수상(운곡습지생태체험지구 조성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 74개소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 및 정책, 제도 개선 노력
 - * 지자체 권고 및 제도보완(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현장 컨설팅(2.24~2.26) 및 설명회(3.19) 개최
- **(사업진척률 제고)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비 교부를 통해 사업성과 도모
 - 계속사업 중 '14년도 예산집행 완료 사업 우선 교부
 - 신규사업은 2회로 구분하여 교부(1차 4~6월-설계비, 2차-공사비)
 - * 2015년 예산현액 3,007억원 중 1,890억원 집행(집행률 62%)
 - * 지방자치단체 교부된 1,890억원 중 850억원 실집행(실집행률 45%)
- **(사업추진 현황 공유) 모니터링 체계 구축**(문광연, 지자체)
 - 문광연 지역개발평가센터 및 관련 전문가 컨설팅 제공(현장점검 시 동행)

*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2015년 예산(사업수)	비고
지특회계	관광자원개발 (생활기반계정)	관광지개발	37,973(37)	
		문화관광자원개발	116,039(164)	
		생태녹색관광개발	23,051(33)	
		광역관광자원개발	45,915(86)	
		소 계	222,978(320)	
	기초관광자원개발 (제주계정)	관광지개발	-	
		문화관광자원개발	1,460(4)	
		제주관광진흥지원	10,000(1)	
		소 계	11,460(5)	
합 계			234,438(325)	

【 관광특구 활성화 】

-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테마를 선정·지원하고 통합 홍보 웹사이트 구축 등 적극적 홍보와 가격표시제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 * 실적 29백만명(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15. 4월)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2차에 걸친 공모 심사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테마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진 관광특구를 선정하여 순위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8개소, 2,780백만원)
 -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심사('15.1월~2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전문가 현장컨설팅('15.2월, 8개소), 관광특구 활성화 방향 및 정책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15.12)
-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제외 특구 우선 지원('15년 예산 대비 87%), 지방의 외국인 대상 관광안내 시스템 및 관광편의시설 개선에 기여(6개소, 2,380백만원)
- 관광특구(전국 13개 시·도 30개소) 통합 홍보 웹사이트 구축 및 언론 노출을 통한 **홍보 극대화**
 - * 관광특구 통합 홍보 웹사이트 제작('15.4월~12월, 4개 국어), 관광특구 정책토론회 언론보도('15.12)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해 관광특구 내 **가격 표시제 확대** 노력(산자부 협의)
 - * (현행) 특별·광역시 17㎡이상 매장 → (개선) 주요 관광특구 소매장으로 순차적 확대
 - * 서울 추가협의를 통해 의무화 확대 추진('16), **부산**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의무화 지정고시 추진('16.1.1), **제주** 의무화 지정 고시('15.10.30)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지원 】

○ 석탄산업 유산의 관광자원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18년 동계올림픽 배후 관광지로서 **관광인프라 개선**

* 1단계 사업완료('04~'13년) 및 2단계 사업 추진('15~'19년)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자원으로 재탄생 유도

○ 석탄산업유산 체험기반(광부 생활상), 슬로우 레스토랑(폐광) 등 폐광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인 **석탄산업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 경제적 파급 효과('14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KDI)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2,475.41억원	984.23억원	1,746.52명	1,964.76명

○ '15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완료(12개소)에 따라 '1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 후 '18년 준공될 예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양질의 관광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에 기여

※ 연도별 일자리 창출 : 2016년(5명), 2017년(21명), 2018년 이후(121명)

○ 주요 추진실적 [**붙임1,2 사업 및 보도내용 참조**]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현지조사(2회, '15.3월, 7월)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홍보 언론보도('15.11월)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1단계 사업 효과('04~'13)

- 삼탄아트마인 : 2013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 2015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최대 35명)
-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 연 5만여명 이상 관광객 유치(유료 4만여명)

【 전통문화체험 지원 】

○ 불교문화 등 전통문화체험시설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기반 조성

○ 「**종교시설의 관광자원화사업 기금 지원 지침**」 수립('15년 4월) 하여 지원근거 및 기준 마련

- 종교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 자연 속 힐링, 심신수행과 치유 등 전통문화체험 시설을 건립하여,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대체숙박시설 확충 및 외국인 관광객 장기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명상인구: 미국 약 6,000만명(추정), 인도 인구의 90%(11.5억명), 우리나라 500만명

* 구글, 애플, 야후, 맥킨지, IBM, 시스코 등 다수 기업 명상프로그램 도입

- 지원현황: 월정사(평창), 부석사(영주), 법주사(보은), 무각사(광주), 내원정사(부산)·범어사(부산), 봉은사(서울), 세종대왕 초정(청주) 등 8개소(불교문화7, 전통문화1)
- 사업기간/지원조건: '13년 ~ / 지자체 정율지원(50:50)
- 사업내용 : 8개 세부사업(관광진흥개발기금), '15년 115억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광특구**) 현행 관광특구 집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우호적인 평가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

-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12.9) 등을 통하여 **우리 부 주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 방안 검토**

▷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토론회 언론보도(10개 언론사)

연번	매체	보도제목
1	연합뉴스	<게시판>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토론회
2	이데일리	전국 관광특구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3	아주경제	관광특구 활성화 방향 모색 토론회, 장 열려
4	파이낸셜뉴스	문체부 주최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토론회' 9일 개최
5	뉴스1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토론회 9일
6	뉴스1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7	머니투데이	문체부 주최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토론회' 9일 개최
8	스포츠경향	문화부, 각계 전문가 참여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9	독서신문	문체부, 관광특구 활성화 방향과 정책지원 방안 모색
10	국제뉴스	문체부, 관광특구 활성화 위한 '정책지원 방안' 모색

◆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현황** : 관광진흥법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동법시행령 제60조(관광특구 평가 및 조치) 제1항 : 시도지사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 연1회 평가**
- **개선** : 진철도 향상을 위해 관광특구 평가지표에 **‘진철도’ 항목 추가**(‘16년 평가부터 적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지정요건 및 진흥계획 수립내용)
관광특구 지정요건	외국인관광객 수 현황	외국인관광객 수 적합 여부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시설 현황	관광시설 구비기준 적합 여부	관광시설 세부 기준
	토지이용 현황	비 관광활동 면적 비율 10% 초과 여부	관광용도 배제 비율
	지구분리 현황	동일 관광특구의 2개 이상 지구분리 여부	지구분리
진흥계획 추진실적	관광편의시설 개선 실적	공공편의시설,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편의 시설 개선 실적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축제·행사 개최계획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축제·행사 개최 횟수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마케팅 추진실적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 실적	
	제도개선 실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수행 실적	관광객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연계관광코스 개발 현황	연계관광코스 개발 등 연계활성화를 위한 노력	관광특구 중심의 주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환경 개선 실적	관광질서 및 관광서비스 개선 노력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불법행위 자발적 근절 노력	민간협의체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및 불편 행위에 대한 자발적 근절 노력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외국인관광객 불만 처리 실적	외국인관광객 불만사례 발생 빈도 및 처리 횟수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관광시설 종사원 교육 실적	관광특구 내 근무하는 종사원에 대한 교육 실적	관광특구 안의接客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관광상품개발 실적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 실적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육성계획
관광 진철도 제고 노력	자체 진철 캠페인 등 개선 실적		
파급효과	외국인관광객 수	연도별 외국인관광객 증감율	-
	관광수입	연도별 관광수입 증감율	-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부문별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조사 (숙박, 교통, 음식, 문화, 치안, 위생, 청결, 서비스, 요금, 관광시설, 관광활동 등)	-
	관광고용	해당 지역 내 관광인력 고용 증감율	-

- **(관광자원개발)** 관광객이 수도권·제주도에 집중(86%)되고 있으며, 관광시설 등 인프라 확충은 지역별 중복 등으로 한계
 - 한국전통문화의 명품화·세계화,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사업 위주로 전환 * 오대산 자연 명상체험마을, 세종대왕 행궁 조성 등
 - 중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서해안 해남이 관광인프라 구축 및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개발 * 실버샌드 드라이브 조성, 서해안 변산 해남이공원 조성 등
 - 지리산권, 남해안 연계협력사업은 브랜드 가치를 공동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위주 연계 협력방안 마련 * 지리산한바퀴 순환버스 구축, 지역관광 및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 지리산권 문화 및 통합축제 박람회 개최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였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당초 지표(관광특구 외국인 방문객 수)가 측정의 신뢰도 문제 있으므로, 질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15년 자체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지표를 ‘관광특구 외국인 방문합계’로 수정 · 또한, 정부승인 통계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지표로서 객관성, 공정성 확보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사업 현장 컨설팅(2.24~2.26)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자문 · 관광자원개발사업 현장 점검 및 설명회 개최하여, 지자체 및 지역주민 건의사항 수렴·반영 - 합동 현장 점검 및 컨설팅(상반기 26개소, 하반기 17개소) - 지역관광개발사업 설명회 개최(3.19) · 관광특구 현장컨설팅 실시(‘15.2월)하여 지자체 및 관광특구 민간협의체 건의사항 수렴·반영(8개소) ·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15.12.9)하여 지자체 및 정부의 관점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제시, 현장의견 수렴(73명 참가) ·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련 지자체 권고 및 제도적 보완 - 거북선 사업 관련 제도 보완(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복투자여부, 사업타당성 등 사전 검토) - 「중교시설의 관광자원화사업 기금 지원지침 수립·시행」

정책 성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총실)	· 15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 관광특구 외국인 방문합계(백만명) : 15백만명(목표) → 29백만명(193% 달성) * 관광지원개발 관련 현장 점검수(개소수) : 60개소(목표) → 74개소(123%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관광지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사업계획 보완(74개소 컨설팅) - 강원도 폐광지역(정선·영월·태백·삼척)의 관광자원·레저 스포츠·문화콘텐츠 등 활용 12개 관광상품 개발사업 시행 - 석탄산업 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폐광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지역별 파급 효과('14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 KDI)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2,475.41억원	984.23억원	1,746.52명	1,964.76명

46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다소미흡

□ 총평

- 템플스테이, 전통한옥 숙박체험, 고궁 및 전통문화 체험·홍보, 우수 지역 축제 등을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콘텐츠 육성의 기반 조성**
- 전통국악공연 해외홍보사업 확대 및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양적성장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인천공항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외국인 대상 체험행사 개최('15년 513,448명/'15.12.28기준)
 - 정동극장 미소 해외 공연 : 2,876명(2회 공연/대만(8.22), 말레이시아(3.8))
-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구축, 한옥스테이 인증제를 통해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우수 대체숙박시설 확충**에 기여
 - 템플스테이 전용·특화프로그램 시설 신축·개보수 지원
(신축 : '15년 15개소, 개보수 : '15년 13개소)
 -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210,678(내국인 179,399명, 외국인 31,279명)
 - 전국 339개 우수한옥숙박시설 인증제를 통해 2,115객실 확보
- 2015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 상품으로 특화**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문화관광축제 44개 지원(대표 2개, 최우수 9개, 우수 10개, 유망 23개)
- 메르스 관련 여파로 취소·연기되는 지역축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고예산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역축제 홍보를 통한 국내 관광시장 회복**에 기여

- 5월 메르스 발병 후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산모시 문화제 개최취소(6월) 등 부정적 여건 발생
- 한국관광공사 협력으로 하반기 개최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개(3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추가 발굴·지원(61개, 17억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정책 추진

□ 주요 성과

- 한국의 전통국악공연예술인 '미소(춘향전, 배비장전)'의 지속적인 해외홍보 및 해외공연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 유도**에 기여
 - * 해외공연 : 2,876명(2회/대만(8.22), 말레이시아(3.8))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제주 세계자연유산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세계문화유산 오프라인 프로모션 시행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 홍보**
 - ※ 19,137명 관광객 참가(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스탬프 투어 15,287명, 제주 세계자연유산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350명, 세계문화유산 오프라인 프로모션 3,500명)
- 우리 민족 고유 문화를 **외국인이 참여하는 관광콘텐츠화 기반 조성**
 - ※ 김장문화 체험 2,000명, 창덕궁 달빛기행 290명, 반짝 궁 콘서트 5,000명, 종묘대제 등 788명
-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전국 126개 사찰 운영)
 - 2015 봄·가을 관광주간 연계 '템플스테이 위크'('15.5.1.~5.14/'15.10.19~11.1) 추진(21,626명 참가)
 - * 관광주간 참여 사찰 75개소, 봄 관광주간 10,928명/ 가을관광주간 10,698명

- 템플스테이 홍보 강화를 통한 체험참가자 참여 확대 기반 조성
 - * 'SBS 오! 마이 베이비' 김태우와 두 딸 체험 방영('15.5.2, 서울 봉은사), 'SBS 아빠를 부탁해' 이경규 부녀 체험 방영('15.7.26, 남양주 묘적사),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송일국과 세쌍둥이 체험 참가('15.12.27, 공주 마곡사)
- 자유학기제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추진('15.8~11월, 총 5개 학교 406명 참가)

- 템플스테이 연계한 **관광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개
 - MICE 연계 '사찰음식 홍보' 행사*를 통해 한식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 * 사찰음식 전시관 운영('15.6.4-6.6/KINTEX/총1,299명 참가), 해외 바이어 및 외신기자 대상 사찰음식 팸투어('15.6.6/진관사 48명, 봉은사 15명)
 - * 언론보도 : '15.10.16 뉴욕 타임즈에서 사찰음식을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으로 소개
 - 사찰음식 특화사찰(14개소)*에 대하여 일반인 대상 강좌 및 체험 지원('15.5~11월), 외국인 대상 MICE 연계 사찰음식 체험형 상품 시범 운영(진관사·봉은사, '15.6월)
 - * 서울 2개소(법통사, 진관사), 대전 1개소(영선사), 대구 1개소(동화사), 경기 3개소(봉녕사, 수도사, 봉선사), 경북 3개소(고운사, 불영사, 용문사), 경남 3개소(금수암, 대원사, 통도사), 전남 1개소(백양사)
 - 내외국인 대상 사찰음식 문화체험(전시, 시식, 체험 등)이 가능한 '상설 사찰음식 문화체험관' 개관('15.12.15, 112평, 서울 안국동)
- 템플스테이 전용 및 특화프로그램 시설 신축·개보수를 통해 전통 문화체험이 가능한 대체숙박시설 확충에 기여('15년 28개소)
- 2015년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전년도 목표치 대비 9% 증가**한 210,678명으로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며, 한국전통불교문화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 '**한옥스테이 인증제**' 및 '**명품고택 브랜드화**'를 통해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우수 대체숙박시설 확충에 기여

- 전국 383개 우수한옥숙박시설 인증제를 통해 2,366객실 확보
- 전통한옥을 관광숙박 체험시설로 활용, 한국 고유의 대표적 생활문화체험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상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한옥을 대상으로 공모 추진
-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 개보수 : 34개소 한옥 11억원 지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 31개소 한옥 5억원 지원
- 축제는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이미지 개선, 국민의 여가기회 제공 등에 기여
- 또한, 축제는 복합서비스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벤트산업, 전시산업, 물품대여산업, 무대음향연출산업, 지역 특산물산업, 지역향토음식산업 등에서 전문적 일자리 창출 효과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 간 축제의 연계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낭비적 요소 제거 필요
- 다만,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편성 및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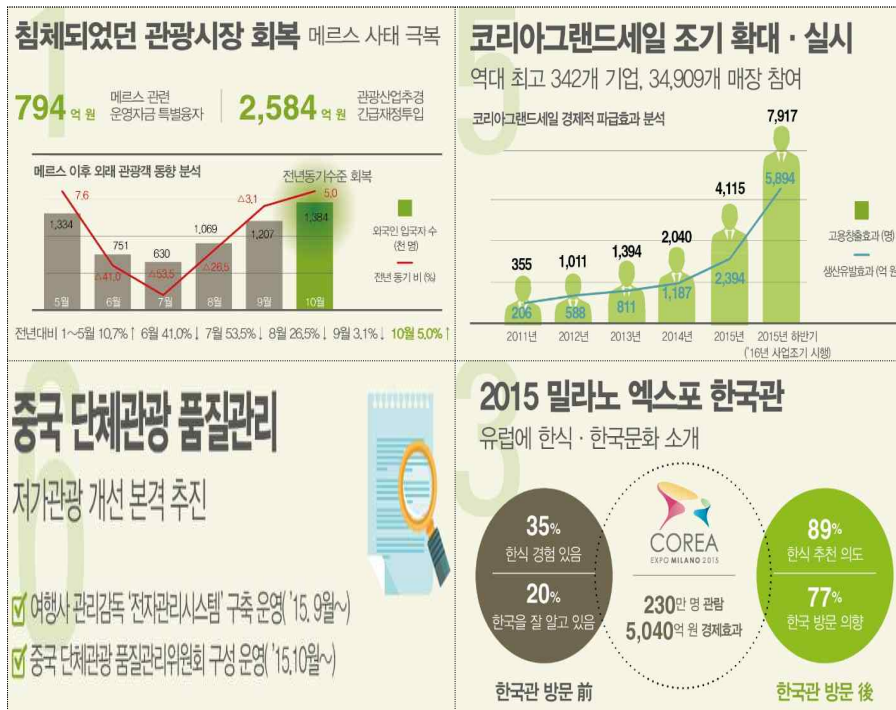
- 지역축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 간 축제의 연계 및 상호 협력 유도
- 지자체 축제 담당자 워크숍('16년 상반기) 등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 유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계획서상의 추진계획을 100% 충실히 이행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14년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14.5.22)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음 - 지적사항 : 당초 지표(문화관광축제당 평균 관람객 수)가 측정의 신뢰도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임으로, 이제 질적인 측면인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 - 개선사항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표를 '문화관광축제 만족도'로 변경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문화관광축제 담당자 워크숍('15.8월) 추진을 통해 지자체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보통)	· 메르스 사태 이후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단체 방문예약 취소, 문화관광 축제 개최일정 축소 등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93천명, 문화관광축제 만족도는 '15년 목표치인 4.90점 대비 5.15점으로 5% 초과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2015년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210,678명으로 목표치를 100% 달성 · 템플스테이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 사찰음식 전시관 운영, 해외 바이어 및 외신기자 대상 사찰음식 팸투어('15.10.16 뉴욕 타임즈 사찰음식을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으로 소개) * 2015 봄·가을 관광주간 연계 '템플스테이 워크' 추진,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5개교 406명 참가) * 템플스테이 홍보 강화를 통한 체험참가자 참여 확대 기반 조성('SBS 오! 마이 베이비' 김태우와 두 딸 체험 방영('15.5.2, 서울 봉은사), 'SBS 아빠를 부탁해' 이경규 부녀 체험 방영('15.7.26, 남양주 묘적사),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송일국과 세쌍둥이 체험 참가('15.12.27, 공주 마곡사) · 문화관광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72백억원으로 추정

□ 총평

-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개최 등 메르스 적기대응을 통한 조기 극복, 단체관광 품질관리 체고를 통한 저가관광 개선,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을 통한 한국 문화 및 관광 인식 개선을 통해, 성과목표인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



□ 주요 성과

○ 적기대응을 통한 메르스 '최단 기간 극복'

- 5월에 발병한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외래관광객 1,330만명 유치

전망(전년대비 6.3% 감소). 그러나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 방안'(6.5) 등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4분기에 364만명 유치 전망(전년대비 3.4% 증가)되어 4분기 역대 최대 외래객수 달성

- 관광 시장이 메르스 발생기간(5.20~12.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3개월만 위축 되고 메르스의 공식 종료 전에 작년 동기 수준 이상으로 빨리 회복한 것은, 2003년 홍콩 '사스', 2011년 일본 대지진 등 유사 사태 이후 해당국 관광산업이 회복되는 데 약 1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

○ 코리아그랜드세일 '메르스 극복 일등공신'

- 메르스로 인한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을 2015년 하반기로 앞당겨 실시
-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외래 관광객 감소 추세가 점차 완화되었던 8월을 기점으로 79일간 실시한 '2015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42개 기업, 34,909개 매장이 참여
- 총매출은 약 3,4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
- 5,894억여 원의 생산유발효과, 7,917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성과

○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저가관광 개선 체계 마련'

-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600만 명을 넘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전망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11월 1일(일)부터 가동

- 전담여행사의 유치 단체관광에 대해서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정, 여행사정보 등이 입력된 정보무늬(QR코드)를 다운받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 → 관광경찰의 단속 효율성 제고, 비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 유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효과

- 10월 8일(목)부터 학계·연구기관·여행업계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관광 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 방안 등을 비롯한 현안 논의

○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한식 세계화 발판' 마련

-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은 무려 230만여 명으로 국외 한식 관련 행사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5~10월)
- 이탈리아 현지에서 800건 이상 보도되는 등, 한식 등 품격 있는 한국문화의 유럽 내 확산 계기 마련
- 3개 주요상 수상
 -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인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 ▲국제박람회기구(BIE) 주관 '엑스포 밀라노 2015 어워즈' 전시 부문 은상
 - ▲'2015 클래스 엑스포 파빌리온 헤리티지 어워즈' 특별상
- 경제적 효과 5,040억(대이탈리아 수출 증가 4,068억, 관광 수입 증가 972억)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 조치계획

○ 해당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분기별 일정을 충실히 이행(1건 제외)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 자체평가 지적을 반영하여 지표를 추가하고, 방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방한관광 '민관 합동 점검반', '밀라노 엑스포 지원 협의회',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업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의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3개 성과지표의 종합 목표 달성도 : 106.3% = (83.7+100+135.3)/3 · '한국관광 인지도',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누적 관람객 수' 성과 지표는 목표 초과 달성되었으나, · '방한 일본, 중국 외래관광객 수'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미달성 전망
	2-2. 정책 효과성	(충실)	· 메르스 발병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기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메르스 적기 대응을 통해, 4분기 외래관광객 수 역대 최대치(364만 명) 달성 전망 ·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효과로, 10년간 이탈리아 관광객 14만 7천명 추가 방한 전망

□ 총평

○ (MICE)

- '15. 6월 국제협회연합(UIA) 발표 국제회의 개최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4위를 기록하면서 국제회의 개최실적 3개년 연속('12~'14년) 세계 5위권을 달성, 신홍 MICE목적지로서의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구축
- 서울의 경우, '15. 12월 美 LA에서 열린 Global Traveler Awards*에서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MICE 도시(Best MICE City)로 선정되어 'K-MICE'의 위상 강화

* 세계 최고의 여행 전문잡지인 Global Traveler가 매년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

- '15년 MICE 분야는 다른 관광분야와 마찬가지로 메르스(5.20 발생)의 영향을 받아 위축되었으나, MICE 방한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팸투어 실시, 관련 국제기구 및 전세계 MICE 매체 대상 이미지 홍보 실시 등으로 단기간 내 MICE 방한 외래객 전년 수준 회복('15.10월~)
- 한편, '15.9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가 신설되어, 국제회의 관련시설의 집적화·융복합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의료관광)

- 연평균 34.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의료관광객 시장이 15.5.20일 메르스 발생의 영향으로 급감하며, 2015년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의 경우 2014년 26만 6천명 보다 감소한 25만여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어려움 가중

메르스 여파 의료관광 타격 현실로..외국인 환자 '반토막'

※ 2014년 실적 상위 30개 의료기관 유치업체 중 20개 기관 기준

5~6월 외국인환자 증가율 17%, 전년 대비 절반 "폭" ↓

※ 2009~2014년 연평균 34.7%

메르스 발생 이후 (5월20일~6월20일) 17.7%

※ 2014년 실적 상위 30개 의료기관 유치업체 중 20개 기관 기준

2009~2014년 연평균 34.7%

메르스 발생 이후 (5월20일~6월20일) 17.7%

※ 2014년 실적 상위 30개 의료기관 유치업체 중 20개 기관 기준

외국인환자 증가율 (단위:%)

2009~2014년 연평균 34.7

메르스 발생 이후 (5월20일~6월20일) 17.7

관련기사 (이데일리, 2015.8.24)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공격적인 해외 홍보마케팅 전개, 온라인 통합 플랫폼 개선 강화 등을 통해* 메르스 피해 최소화

* 뒤의 「□ 주요성과」 부분에 홍보마케팅 및 플랫폼 개선실적 기재함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5년 상반기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현황('15.8월)*"에 따르면, '15년 1~7월 유치실적은 '14년 동기간 대비 5.4%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동기간 대비 전체 외래객 유치실적 감소율인 - 8.5%**보다 3.1%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5년 상반기 외국인환자유치 실적현황 조사결과('15.8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조사 참여기관) '14년 유치실적 상위 100개 의료기관 중 54개 기관 참여
- (유치실적) 54개 기관의 '15년 1~7월 유치실적은 '14년 동기간 대비 5.4% 감소

(단위 : 개소, 명, %)

구분	참여기관 수	(1~7월) 의료관광객 수		증가율
		2014년	2015년	
14년 실적 상위 20개 기관	12	34,213	31,598	△7.6
상위 50개 기관	28	53,425	38,824	△27.3
하위 50개 기관	26	14,099	25,035	77.6
상위 100개 기관	54	67,524	63,859	△5.4

** '14~'15년 동기(1~7월) 대비 전체 외래객 유치실적 : ('14년) 7,980,212명, ('15년) 7,305,320명 / 약 8.5% 감소

- 또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법안 통과 (15.12.3)를 계기로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금지(제8조, 제9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12조, 제13조)
- 공항, 무역항 등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능(제15조) 등

○ (한류·공연관광)

- k-pop, 영화·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관광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한류관심층 외래객 집중 모객 실시를 통해 개별관광객 (FIT) 유치 확대기반 마련
- 한류관광은 일반 외래객에 비해 1인당 소비지출액*이 크고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

* 일반 외래객 1인당 평균 지출액('14년) : 약 1,272달러(총 지출액 181억달러 /총방한 외래객 1,420만명)

** 한류관광객 1인당 지출액 : 약 2,127달러(출처 : 한류관광 시장 조사연구서 ('14.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특히, 2015년에는 5월 메르스 발생 이후 추경예산 긴급투입을 통해 조기에 한류관광 정상화를 이루었으며, 해외 홍보마케팅 및 모객 관측을 기반으로 한 대형 k-pop콘서트* 개최로 메르스 분위기 반전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음

* 메르스 발생(5.20) 이후 k-pop콘서트 개최(직접 개최 또는 지원) 현황(8회)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롯데패밀리콘서트	5.22	잠실 주경기장	
Summer K-POP Festival	8.4	서울광장	추경예산
Grand K-POP Festival	9.4	잠실 주경기장	추경예산
인천 The K-Festival	9.11~9.13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추경예산
강원 K-POP Festival	10.3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추경예산
서울 One K 콘서트	10.9	상암 올림픽경기장	추경예산
제주 K-POP Festival	10.25	제주종합운동장	추경예산
Super Seoul Concert	12.12	고척돔구장	

※ [참고] 한류관광시장 규모

(단위:만명)

연도	외래객 수	한류관광객*		비고 (전년대비 증가율)
		비중	인원 수	
2012년	1,114	7.0%	78	16억6천만불 (약 1조8천억원)
2013년	1,218	7.3%	89	18억9천만불 (약 2조1천억원)
2014년	1,420	6.5%	92	19억6천만불 (약 2조2천억원)
총계	3,752	(6.9%)	259	55억1천만불 (약 6조1천억원)

* '12~'14년 외래객 실태조사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류관광객이란 "K-POP, 한류스타 팬팅 경험을 주요 목적으로 한 외래객"을 말함

** 한류관광 시장 조사연구서('14.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인당 평균 지출액 : \$2,127.4

- 또한, '14년에 190만명의 외래객을 유치했던 공연관광이 메르스 발생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최대 64% 감소했으나, 추경예산 긴급 투입 후 급속히 회복*되고 있음

* '15. 5.20일 메르스 발병에 따라 전년 대비 공연관광객 급감 (2분기 - 12.3%, 3분기 - 64.0%)

※ [참고1] '14~'15년 공연관광객 유치 현황(비교표)

연도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계
2014년		366,468명	450,914명	604,417명	479,340명	1,901,139명
2015년		462,564명	395,206명	217,436명	450,000명 (예상)	1,525,206명 (예상)
증감율		26.2%	△12.3%	△64.0%	△6.1% (예상)	△19.7% (예상)

※ [참고2] 최근 5년간 공연관광 실적 현황(단위:천명)

연도	전체 외래객 수 (A)	외래객 증가율	공연관광객 수 (B)	공연관광 비중 (B/A*100)	공연관광 증가율
2010년	8,798	-	1,077	12.2%	-
2011년	9,795	11.3%	1,289	13.1%	19.6%
2012년	11,140	13.7%	1,621	14.5%	25.7%
2013년	12,176	9.3%	1,418	11.7%	△12.5%
2014년	14,202	16.6%	1,901	13.4%	34.1%
총계	56,111	12.7%	7,306	13.0%	16.7%

○ (크루즈관광)

- 메르스 발병(6~8월)에 의한 해외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 취소 (총 44건, 약 80천명)로 급감한 크루즈 관광객의 재유치를 위해 한국 크루즈관광 홍보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반기 방한 크루즈관광객 수 전년 동기 대비 54.6% 증가

<2015년 9~12월 기준 크루즈관광 입국객 수(추정치)>

연도	2015.9					2015.10					2015.11					2015.12					2015누계				
	(천명)					동기대비 증가율(%)																			
크루즈 관광객	140					137					96					64					1,018				
	123					146					251					245					6.6				

* 크루즈 관광객수 '14년 945,685명→'15년 1,017,947명(추정, '15년 9월기준 737,201명)

** 한국 크루즈산업 설명회(중국 상해, 7.30~31, 해수부 주최) 및 제3회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 (제주, 8.26~28, 해수부 주최), 한국 크루즈관광 설명회(중국 상해, 9.1, 문체부 주최) 등

- 쇼핑 위주의 저가 크루즈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선사-여행사-지자체 공동 우수 크루즈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질적 개선 기대

* 「기항지 대표 지역관광 프로그램 등의 질적 제고 방안」 연구용역 실시('15.5~10월, 경기대학교)

** 제주, 부산, 인천, 여수, 강원 등 5개 지자체 중심 기항지 대표 지역관광 프로그램 개발 협의('15.1.20, 5.22, 6.19)를 통한 총 18개 상품, 21개 코스 선정

□ 주요 성과

○ (MICE)

- 대한민국의 국제회의 개최순위('14년) 세계 4위, 아시아 2위 달성으로 3년 연속 세계 5위권 달성(UIA 기준, '14.6월 발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건수	293	347	464	469	563	635	636
	순위	12위	11위	8위	6위	5위	3위	4위

< 국제회의 개최 통계('15.6월 UIA(국제협회연합) 기준) >

- * 1위 미국(858건), 2위 벨기에(851건), 3위 싱가포르(850건)
- * 국제회의의 참가자 소비지출액은 \$2,743으로 일반 외래관광객(\$1,606)의 1.7배

- 메르스로 위축된 MICE 방한시장 신뢰 회복
 - 구미주 MICE 전문매체, 동남아 인센티브 단체, 글로벌 PCO 대상 방한 팸투어 실시(6~12월 / 6회 / 54명 초청)
 - 관련 국제기구 및 전세계 MICE 매체, 바이어 대상 이미지 홍보 실시
 - * 국제기구(UNWTO, PATA, UIA, ICCA) 회원사, 130여개 MICE 매체, 5천여명 MICE 바이어 대상 Press Release 및 뉴스레터·웹진 서비스(7~12월, 월2회)
 - 글로벌 MICE 매체 활용 K-MICE 특집광고 캠페인 전개
 - * CEI, TTG MICE 등 매체에 메르스 진정세, 한국의 안전성, 한국 MICE 우수시설 및 관광콘텐츠 홍보
- MICE산업 동반성장·균형발전 유도
 - Korea MICE Alliance 리더쉽 네트워크샵 실시(6월 창원, 11월 제주 등 2회) 및 중앙-지방 MICE Alliance 간 소통강화(간담회 9회)
 - 지자체 공무원 대상 MICE 교육 실시(7개 시도)
 - 지역별 특화산업·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한 '지역특화컨벤션' 육성 지원(15건)
- 국제회의 유치·개최·해외홍보 지원
 - 국제회의의 규모·과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제도 운영
 - * 연중 정기(2회) 및 수시접수 실시, 국제회의의 유치·개최·해외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보조(산식 적용)
 - * '15년 총 278건 3,250백만원 지원(유치 42건, 개최 197건, 해외홍보 39건)

- 국제회의 산학연계 프로그램 육성(Youth Convention 지원사업)
 - * 관련학과 재학생, 담당교수, 지역 CVB, 지방 PCO가 팀을 구성, 소규모 국제회의의 프로그램을 실제 기획 및 개최('15년 5건)
- 중대형 국제회의(외국인 500명 이상) 유치·개최 특별지원
 - (유치지원)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유치결정권자 방한실사, 유치결정 현장 유치활동 지원 등 실시('15년 10건)
 - * '2019 세계변호사협회 연차총회'(외국인 5천명 / 서울) 등 중대형 국제회의 총 9건 유치 성공
 - (개최지원) 중대형 국제회의의 특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초대형·대형·중형(각 외국인 2천명·1천명·5백명 이상) 차등지원 실시
 - * IDB 연차총회(3월, 부산), 세계물포럼(4월, 대구), 세계대학생모의유엔총회(4월, 고양) 등 44건 지원
 - * (지원내용) 한국문화관광홍보관 설치·운영, 유료 관광프로그램 지원, 스마트 ID카드 제작 지원, 인천공항 입국장 환대, 인천공항 전용 심사대 운영, 안전교육 등
- 국제회의의 신규 수요발굴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실시
 - (해외마케팅) 해외 MICE 전시박람회 참가(독일 IMEX 등 4건), Korea MICE Festival 개최(9월, 뉴욕 팰리스호텔), 美 ASAE(미국협회단체 경영자협회) 연례총회시 홍보(8월), Korea MICE Expo 참가 해외바이어 대상 설명회 개최(6월) 등
 - (국내마케팅) 국제회의 주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지원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인센티브 단체 유치 마케팅 실시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한 현지 유치마케팅(팸투어, 세일즈콜, 설명회, 전시박람회 참가 등) 실시
 - 주요 인센티브 방한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로드쇼 개최, 현지 바이어 및 한국 참가기관 비즈니스 상담 실시('15년 7건*)
 - *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 Korea MICE Festival 개최(5월, 싱가포르 래플스컨벤션센터)
 - * (주요실적) 비즈니스 상담 1,174건 / 허벌라이프('16.6월 5천명) 및 푸르덴셜('16.4월 1.5천명) 인센티브 단체 유치

- Korea MICE EXPO 개최(6월, 고양 컨텍스) 및 해외 MICE 전시 박람회 참가(중국 CIBTM 등 4건)

- * (주요실적) 비즈니스 상담 3,836건

- 인센티브 단체 지원

- 방한 인센티브 단체에 참가규모별 차등 지원(기념품, 환영행사, 상설공연 등) 실시

- * '15년 총 2,442단체 171천명 지원(12.7 현재)

- * 중국(83천명), 태국(21천명), 대만(14천명), 베트남(14천명), 인도네시아(13천명) 등

- 국제이벤트 유치 및 지원

- (유치마케팅) 국제이벤트 유치과정 전단계 지원(홍보 동영상 제작, 투표권자 대상 기념품 지원, 현장 유치지원 등)

- * 국제이벤트 2건(2017 Pan Asia Hash, 2017 세계태권도대회) 외래관광객 4천명 유치 성공

- (개최 및 홍보지원) 문화체험 및 기념품 지원 등 국제이벤트 개최 지원('15년 10건) 및 홍보지원('15년 30여건)

○ (의료관광)

- '15. 8월 실시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유치실적 중간점검 결과, 메르스 여파로 '15년도 목표치인 30만명을 달성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간점검 결과, '14년 대비 약 5.4% 감소 추정과 54개 조사 참여 기관의 '14년 실적치 비율(41.7% 차지)를 감안할 때, '15년 전체 의료관광 실적은 252,288명으로 추정(전년 대비 약 5.6% 감소 예상) (목표달성율 : 약 84.1%)

- 그러나,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마케팅 및 모객 판촉을 통해 일반 외래객 유치실적 대비 의료관광객 유치 감소폭 최소화

- 해외 의료관광설명회(B2B, B2C 등), 이벤트 개최 등 해외 현지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통한 판촉(총 판촉상담 실적 : 7,152건)

- * 2015 코리아위크 In 다카야마(일본, 다카야마, 1.16~18, 한방병원 5개 참가, 381건 상담)

- * 카자흐스탄 국제박람회(카자흐스탄, 알마티, 4.22~24, 8개 의료기관, 852건 상담)

- * K-Wonderous Beauty 쇼케이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5.30, 6개 의료기관 2개 유치업체 참가, 90건 상담)

- * 국제의료관광컨벤션(KIMTC 2015)(카자흐스탄, 알마티, 10.26~27, 47개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참가, 7,600명 관람, 2,975건 상담)

- * 투어리즘엑스포(일본, 도쿄, 9.25~27, 한방, 피부등 3개 의료기관 참가, 17만명 관람, 484건 상담) 등

- 의료관광 온라인 통합 플랫폼(www.visitmedicalkorea.com) 개선을 통한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 * 추가언어 서비스 개시('15.3월 러시아어, '15.11월 아랍어 서비스)

- * 월평균 페이지뷰('14.10~15.11) : 73,176건 / 정회원 가입자 수 : 6,435명

- 의료관광 온라인 통합 플랫폼 UNWTO Awards 최종라운드 진출('15.12월)

- * 출품과제 : 한국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URL : www.visitmedicalkorea.com)

- * 출품부문 : 연구&기술 부문(Innov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y)

- ☞ 연구&기술 부문 출품과제 35개 중 최종 3개에 선정

- * 평가기준 : △국가, 공동체 및 개인에게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사용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도운 사례, △높은 가치를 가진 연구 프로젝트 및 기술 혁신

- * 향후일정 : △UNWTO Awards Forum 참가 프레젠테이션 및 패널 토의('16.1.18.), △UNWTO Awards Ceremony('16.1.20, FITUR in Madrid)

- 전국 4개 지역(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 의료관광안내 홍보센터 운영을 통해 실시간 오프라인 의료관광 상담서비스 제공

- * 안내홍보센터 가입기관 : 전국 351개 병원(상급종합병원29, 종합병원33, 병원급36, 의원급189, 치과의원.병원32, 한방의원.병원30, 기타2)

- 한국의료관광 특집방송* 제작·방영 및 한국의료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마케팅 및 판촉 활용

- * △일본 텔레비전 아이치(2월, 인기 현지 여성 스타 활용 미용, 뷰티, 한방 관련 최신정보 소개, 30분), △사우디 로타나 TV (한국의료관광체험기 방영), △베트남 하노이 TV (현지모델 활용 의료, 힐링, 관광코스 소개)

- ** △5개 언어(영,중,일,러,아랍어), △의료관광체험기 및 실제치료 의료진 소개, △유치업체 등의 리얼스토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

-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여행업계 CEO 등 유관기관 관계자 팸투어 실시
 - * K-뷰티 상품 개발을 위한 여행업계 CEO 초청(필리핀, 12명)
 - * 고부가가치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여행업계 CEO 초청(중국 동북3성, 13명)
 - * 플랫폼 아랍어 오픈기념 중동 주요매체 관계자 초청(UAE신문, 라디오 5개 매체 10명)

- 지역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2~12월)

- 사업내용 : 의료관광 지역 브랜드 강화, 의료관광 추진 협의체 구축·운영, 의료관광 상품개발, 홍보 콘텐츠물 제작활용 및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사업 등
 - * 계획 수립(2월),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3.3), 사업 공모(2~3월), 사업심사 및 선정**(1차 심사 3.13, 2차 심사 3.17, 3차 심사 4.15, 4.22), 사업 보완(4~7월), 사업 추진(8월~12월)
 - ** 인천광역시 / 총 사업비 : 16억(기금 8억, 지방비 8억)

○ (한류·공연관광)

- K-POP을 적극 활용한 한류관광 확산 및 외래객 유치 확대
 - K-POP을 통한 해외관광객 모객(18만여명) : △'2015 롯데 패밀리 페스티벌' K-Star 팬미팅 관람객 모객(5.22, 20,000명 참가), △Summer K-Pop 페스티벌(8.4, 서울시청 앞 광장, 15,000명 관람), △Grand K-Pop 페스티벌(9.4, 잠실주경기장, 29,378명 관람), △2015 The K Festival(9.11~9.13,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49,000명 모객),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기원 K-POP 콘서트(10.3,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11,000명 모객), One K Concert(10.9,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 32,000명 모객), 제주 K-POP 페스티벌(10.25, 제주 종합운동장, 19,000명 모객)
 - KBS, SBS 등 주요방송사 K-POP 공개방송 방청상품 개발(총 17회, 외래객 1,524명 모객) : △SBS Mtv "THE SHOW" 공개방송 관광상품화(연중, 13회), KBS "뮤직뱅크" 공개방송 관광상품화(10~11월 시범운영 4회)

- 드라마·영화 등 영상관광 선제적 대응을 통한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 드라마 '사임당, The Her-story' 사전 촬영현장 공개 행사 연계, 해외 언론매체·여행업자 팸투어 및 '한국관광의밤' 행사 추진(11.30, 강릉)
- 해외 주요매체 영상물 국내 제작 지원을 통한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 * 베트남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 '언니야 한국가자' 제작 지원('15.12월~'16.4월)
 - * 한·일 합작 웹드라마 '시크릿메시지' 제작 지원('15.11월)
 - * 한중합작 드라마 '최고의 커플' 제작지원 MOU 체결('16.예정)
 - * 기타 해외 영상물 국내 로케이션 유치를 위한 팸투어 실시(4회)

- 전통시장 방한상품 개발 및 활성화 캠페인 전개를 통한 한류 문화 확산

- 전통시장 관광상품 개발 : △16개 지방 소재 전통시장 선정 및 홍보 지원, △관광공사 해외지사 연계 전통시장 관광 상품화 및 이벤트 개최(43,000명 모객), △전통시장(5개) 방문 FIT 관광객 대상 기념품 제공 이벤트 추진(11.2~12.30) 등

-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 현지 이벤트 및 홍보 추진(아래)

내용	시기/장소
필리핀 Tour Expo 연계 한류문화공연 및 한류스타 '산다라박' 팬미팅 개최	2.13~2.16/마닐라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 한류스타 '차승원' 활용 한류관광 홍보	5.22~5.25 /타이베이
2015 KBEE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 한류관광 홍보 부스 운영	8.27~8.29/상하이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 한류스타 '계리' 활용 한류관광 홍보	9.4~9.6/쿠알라룸푸르
태국 한국문화관광대전 한류관광 홍보	10.2~10.4/방콕
LA K-CON 한류관광 홍보	7.31~8.2/LA
시드니 한국문화관광 페스티벌(K-FEST 2015 SYDNEY)	9.12~9.13/시드니
2015 KIMIC(한국의료관광컨벤션) In 카자흐스탄 한류관광 홍보	10.22~10.2/알마티
필리핀 K-Festival 연계 한류스타 'NOM' 활용 한류관광 홍보	10.24~10.25/마닐라

- 공연관광 활성화 및 이벤트를 활용한 외래객 모객 확대('15.12월 현재 약 153만명의 외래객 모객 추정)

- 공연관광허브넷 운영 효율화 : △허브넷 운영 · 개선용역('15.3월~12월), △허브넷 운영 · 홍보마케팅 개선용역('15.5월~12월) 등
- * 참여공연 다양화(년버벌 + 비년버벌)를 통한 웹사이트 이용만족도 증대
- * 공연별 주요뉴스 등재, 홍보이벤트 등을 통한 공연문화 관심도 증대
- * 운영시스템/홍보마케팅 별도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홍보 강화

공연관광허브넷 판매 실적(2015.1 ~ 11월)

구분	누적판매수량(개)	월평균판매수(개)	누적판매(원)	월평균판매(원)
상설공연	2,015	183	98,383,050	8,943,914
비상설공연	296	27	18,859,800	1,714,527
합계	2,311	210	117,242,850	10,658,441

- 공연관광 해외 로드쇼(총 34회, '15. 12월 현재)
- * 시장별 현지 수요와 공연사별 마케팅 수요를 고려한 해외로드쇼 계획 (상호충족 매칭율 86%)

구분	핵심시장 강화	기존시장 유지	신규잠재시장 개척
대상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국가, 일본	동유럽, 무슬림 등
내용	공연관광 FIT 유치 및 재방문을 제고	공연관광 수요 유지	신규 공연관광 수요 창출

*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슬림시장 공연관광 집중 홍보

시기	5월	9월	10월	11월
형태	한국문화관광대전	MATTA	K-Festival	이슬라믹 엑스포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내용	▶ 공연관광 홍보(년타) ▶ 공연관광 사업설명 ▶ 동계관광 홍보	▶ 공연관광 홍보(연타) ▶ 6개 년버벌공연 마케터 참가 상품관측 실시	▶ 공연관광 집중홍보(8개 년버벌) ▶ 현지 생방송 출연홍보 ▶ 공연관광 사업설명	▶ 공연관광 홍보(2개) ▶ 박람회 참가 이슬람권 대상 공연상품관측

* 잠재시장 대상 공연관광 지속홍보를 통한 향후 공연관광 수요 창출 기대
→ 현지 대사관(불가리아) 및 공사 해외지사 협력을 통한 3개국(터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순회 공연로드쇼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공연관광 인지도 상승 노력

(1차)2015년 연초 기획 공연관광 해외로드쇼 20회

행사명	시기	장소
이르쿠츠크 의료관광설명회	3.24-3.28	이르쿠츠크
2015 VITM	4.2-4.6	하노이
인니 한국문화관광대전	4.29-5.3	자카르타
MICE Festival 2015	5.7-5.9	상카포르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	5.22-5.25	타이베이
가오슝 국제여전	5.15-5.18	가오슝
홍콩국제관광박람회	6.10-6.14	홍콩
트리팔가광장 한국의날	8.7-8.9	런던
한-홍 경제협력포럼	8.25	홍콩
MATTA 박람회	9.4-9.6	쿠알라룸푸르
K-FESTA 시드니	9.12-9.14	시드니
JATA 박람회	9.27-9.29	도쿄
한국문화관광대전	10.2-10.4	방콕
홍콩 10월 문화제	10.4-10.8	홍콩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운영	10.14-10.18	밀라노
카자흐스탄 의료관광컨벤션 박람회	10.20-10.24	알마티
K-Festival in 필리핀	10.22-10.25	마닐라
Korea Show(3개국)	10.25-10.30	이스탄불 등
타이베이 국제여전	11.5-11.10	타이베이
Korea Night	11.26-12.1	뉴델리

(2차)2015년 하반기 추경사업 공연관광 해외로드쇼 7회

행사명	시기	장소
방한관광 여행업자 설명회	9.22	칭다오
Korea Festival in Jakarta	10.1-10.4	자카르타
한국문화주간 행사	10.20-10.22	시안
방한관광 및 인센티브 여행업자 설명회	10.27	하노이
국제 이슬라믹엑스포 참가	11.13-11.15	자카르타
VIP 의료관광 설명회	12.11-12.15	하노이/다낭
명품한국관광의밤 in 후쿠오카/히로시마	12.14-12.17	후쿠오카/히로시마

(3차) 중국 주요도시 풀버전 공연관광 해외로드쇼 7회

	남경	북경	청두	상해
공연	사춤, 페인터즈	드럼갯, 비밥	판타스틱, 비밥	사춤
시기	11월	11월	12월	12월
관객	4,000명	3,362명	4,799명	2,630명
매출	120,000,000	101,000,000	144,000,000	79,000,000
내용	▶ 현지 파트너(SMG 등)사와 사업 공동진행을 통한 사업예산 효율적 집행(예산 분담) ▶ 각 도시 수요에 맞는 공연선정으로 방한관광 연계한 공연관광 홍보 시너지효과 증대 ▶ 현지 언론(방송, 신문 등) 연계 홍보를 통해 현지인 대상 방한 및 공연관광 이미지 제고 ▶ 공연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이벤트 등을 통한 공연관광 만족도 제고			

- R16 세계비보이대회 개최('15. 9월, 장충체육관)를 통한 외래객 유치 : 국내외 예선전 12만 8천여 명, 본선 2천여 명 등 약 13만 명
- TV 중계 · 광고(KBSN) : 중계 총 6시간 / 광고 9일, 총 60회
- 국내외 미디어 홍보 활동 : 총 514건
- 유튜브,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 조회 수 : 6.7백만회
- 구글 · 페이스북 등 온라인 광고 노출 수 : 16백만회
- 홈페이지 방문자수 · SNS 팔로워 증대 : 17만명
- 2015 공연관광축제(Korea In Motion 2015) 개최를 통한 외래객 유치 확대 및 한류 확산
 - 경주 갈라쇼 163회, 서울 쇼케이스 29회 등 총 200회 공연을 진행하여 총 33만 여명 관람객 유치

경주 갈라쇼

총 공연횟수 163회
총 관객수 300, 100명
회당 평균 관객수 1,841명



서울 쇼케이스

총 공연횟수 29회
총 관객수 27,760명
회당 평균 관객수 957명

- 방송보도 3건 포함, 총 174건의 언론 등 매체보도를 통해 한국 공연관광 저변 및 외래객 유치 확대에 기여함. 특히, 전년도 58건의 보도 대비 3배 이상 보도횟수 증가는 동 축제에 대한 언론매체의 관심 증가를 보여줌



※ 2015년 공연관광축제(Korea In Motion) 개요

- 행사기간 : 2015. 9. 11(금) ~ 10. 11(일) / 31일간
- 행사장소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백결공연장 일대 및 서울 일대
- 행사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사)한국공연관광협회
- 행사내용
 - 서울 쇼케이스 공연(7~10월, 4회) : 페인터즈히어로, 점프, 비밥 등 7개 공연
 - 개막특별공연(9.11, 백결공연장) : 빵쇼, 드럼캣 등 4개 공연
 - 메인 갈라쇼 공연(9.14~10.11) : 난타, 비밥, 점프 등 10개 공연
 - 풀버전 공연(8월~10월) : 안동, 울진, 문경, 영천 등 4개 지역, 5개 공연

- 문화관광대전 및 한류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외래객 유치 확대
- 2015 문화관광대전 및 관광박람회 연계 한류관광 홍보 강화
 - * 필리핀 Tour Expo 연계 한류문화공연 및 한류스타 '산다라박' 팬미팅 개최(2.13~2.16, 마닐라)
 - *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 한류스타 '차승원' 활용 한류관광 홍보(5.22~5.25, 타이베이)
 - * 2015 KBEE(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 한류관광 홍보 부스 운영(8.27~8.29, 중국 상하이)
 - *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 한류스타 '계리' 활용 K-POP, 뷰티 등 한류관광 홍보(9.4~9.6, 쿠알라룸푸르)
 - * 태국 한국문화관광대전 한류관광 홍보(10.2~10.4, 방콕)
- 해외개최 이벤트 연계 한류관광 홍보 강화
 - * LA K-CON 한류관광 홍보(7.31~8.2)
 - * 시드니 한국문화관광 페스티벌(K-FEST 2015 SYDNEY / 9.12~13)
 - * 2015 KIMTC(한국의료관광컨벤션) In 카자흐스탄 한류관광 홍보(10.22~10.23, 알마티)
 - * 필리핀 K-Festival 연계 한류스타 'NOM' 활용 한류관광 홍보(10.24~25, 마닐라)

○ (크루즈관광)

- 주요 국가 대상 국내외 설명회 참가 및 개최, 크루즈관광 관계기관 초청 팸투어 실시 및 업계 대상 BtoB 세일즈콜 실시 등을 통한 방한 크루즈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

- 주요 국가 대상 국내외 설명회 참가 및 개최 : △내나라 여행박람회 해양관광부스 참가('15.2.12~15, 서울), △Cruise Shipping Miami 참가('15.3.16~19, Miami, USA), △한국 크루즈관광 포럼 개최('15.4.28, 서울), △제주 국제 크루즈포럼 참가('15.8.26~28, 제주 서귀포), △상해 한국 크루즈관광 설명회 개최('15.9.1, 중국 상해), △'15년 제2회 Korea Cruise Travel Mart 개최('15.11.12, 서울)
- 크루즈관광 관계기관 초청 팸투어 실시 :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선사 및 여행사 대상 팸투어('15.8.21~24), △대표 지역관광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관계기관 대상 팸투어(8.26~28)
- 방한 크루즈 관광객 대상 입항환영행사 및 선상공연 지원 : △방한 크루즈 선상공연 지원(4.29~5.4, 프린세스 크루즈), △신규 취항 크루즈선 대상 입항 환영행사 지원(1회차 5.16 제주, 2회차 5.27 제주)
- 관계기관(문체부, 해수부, 법무부, 경찰청 등) 간 업무협의를 통한 크루즈관광객 출입국 심사 간소화
- △제주 크루즈 터미널 출국심사 관련 현장점검('15.10.28, 제주 국제 크루즈터미널), △제주 크루즈 터미널 출국 심사 관련 관계부처 회의('15.11.5, BH 관광진흥비서관실), △개편 출입국 심사 절차 시범운영 현장점검('15.11.11, 부산 영도 크루즈터미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MICE)

- MICE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차지함에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미포함된 국제회의 지원서비스 제공업체들을 관광사업에 포함시켜 국제회의업 규모 확대 및 업계 동반성장 기반 마련 필요
- 방한 인센티브 단체가 선택가능한 지원항목을 다양화하여 방한 만족도 제고 필요

○ (의료관광)

- 의료관광 플랫폼 내 콘텐츠 지속 보완 및 시스템 고도화 필요
- 한국의료관광 안전성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한 보험 및 상담 기능 개선 탑재 필요
-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기반 마련 필요

○ (한류·공연관광)

- 대형 k-pop콘서트 지속 개최를 통해 한류 분위기의 재점화가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콘서트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부담이 큼
- 한류관광 확산 및 지속화를 위해 외국인 대상 경쟁력 있는 한류 관광상품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개선 필요
- 메르스 등 외부변수에 따른 외래객 급감 등 한류·공연관광 피해 및 관련 산업 침체에 대비해 장기적으로는 한류·공연관광 업계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R-16 세계비보이대회 사업 개선 필요 : R-16 세계비보이대회를 단순 Competition방식을 넘어 다양한 한류문화 콘텐츠형 행사로의 개선과 함께 민간영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크루즈관광)

- 개발된 기항지 대표 관광프로그램의 홍보마케팅 부족으로 인한 실제 상품화 실적 저조
- 중국-일본간 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 크루즈관광객의 일본 방문율이 증가하는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내 크루즈관광객 감소 우려

□ 조치계획

○ (MICE)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회의서비스업'을 신설, 국제회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서비스 제공업종을 관광사업에 포함시켜 관광기금 용자 등 지원 강화
 - * 장비렌탈, 전시 부스장치, 홍보 및 이벤트 대행, 통·번역, 홍보물 제작, 경호·경비, 의전, 공연기획, 기념품 제작·판매 등
- 방한 인센티브 단체가 선택가능한 지원항목에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테마파크, 체험형 박물관 등)를 선정, '관광지 입장료' 추가

○ (의료관광)

- 한국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내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참여기관 지속 확대('15년 198개 → '16년 350개)
- 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지속 개선 관리 : 어권별(영, 중, 일, 러, 아랍) 시스템 운영, 사용자 지향적인 콘텐츠 생산과 공사 플랫폼 기반 지자체 의료관광 사이트 구축 유도 지속 개선 등
- 한국의료관광 안전성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한 플랫폼 내 의료기관 가입 기준 확대('15년 현재 : 성형외과 → '16년 :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및 1:1 온라인 상담 기능 개선
- 플랫폼 기반 의료관광 결제시스템 구축 관련예산 반영을 위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17년도 예산반영 노력)

○ (한류·공연관광)

- k-pop콘서트 개최 관련, 홍보매체 협의 및 프로모션 실시 등 사전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통한 한류관광 붐업 분위기 조성으로 사업 효과성 극대화('16.상반기~)
-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한류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가칭)영상관광을 통한 외국인관광객 확대방안 마련 관계기관 TF" 개최('16.연중, 4회)
- 한류·공연관광 업계 및 현장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제 실시 (외래객 유치현황, 업계 동향보고 등)('16.연중)

- 해외 공연로드쇼 연계 방한관광시장 규모 파악('15.12월)를 통한 공연 관광 활성화 전략 모색('16.상반기) 등

○ (크루즈관광)

- 중국 선사 및 여행사 대상 기항지 대표 관광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실시('16년 상반기)
- 중국 현지 대형여행사 협력체계 구축 및 단체 중국관광객 시장 집중 유치를 위한 한국 크루즈관광지 홍보 마케팅('16년 연중)
- 우수 크루즈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및 저품질 크루즈관광상품 품질 지속 관리('16년 연중)
- 지역기반 쇼핑관광지 개발 및 크루즈관광객 대상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16년 연중)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대부분의 사업을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하였으나, 메르스 영향으로 3분기 이후 국제박람회 등 일부 국제 이벤트 미개최 (메르스 여파로 행사 개최 시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미개최 결정)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14년도 자체평가 결과 등 과제는 '매우우수' 과제로 선정 · '15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은 개선조치 완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주요사업별 관계부처, 관련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부처 공동 TF 운영,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및 관련업계 워크숍 등 실시)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목표치에 대한 실적은 익년초 집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올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관광분야 침체로 인해 목표치 달성이 다소 불투명하나, 추세치 및 실적 모니터링 점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2-2. 정책 효과성	(보통)	·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통해 계획 대비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크게 기여 하는 등 상위목표 달성과 직결하여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가 매우 큼

49

관광레저 개발육성

미흡

□ 총평

- 성공적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진입도로 국비지원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적극 노력
- 지속적인 제도개선, 개발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한 진입도로 국비지원 등으로 기업도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매체(KTX, 아리랑TV)를 활용한 홍보,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을 통해 기업도시 인지도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자전거, 승마, 트레킹 등 복합 레저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일반시민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여 체험형 레저스포츠관광의 인식 제고 및 저변확대 등에 기여

□ 주요 성과

- 기업도시 활성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특례 신설 등 영암·해남 기업도시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기업도시법 개정, '15.6.22) 및 사업시행자 직접 사용비율 완화(시행령 개정 '15.12.22) 등 관련법령 개정 완료
-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 지원(국비 50%)
 -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 지원을 통해 접근여건 개선, 물류비용 절감, 투자활성화 촉진
 - 기업도시 진입도로 입찰('14.12월), 기본설계('15.6월) 및 실시설계('15.11월) 완료, 공사계약·착공('15.12월)

< 진입도로 사업개요 >

- 위 치: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 영암군 삼호읍 서호 IC
- 사업기간: 2013~2020년
- 총사업비: 3,036억원(공사비 2,697억원, 감리비 등 339억원)
- 사업규모: 10.83km(4차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기업도시 진입로 연결)
- 지원규모 : 1,518백만원 (15년 10,000백만원, 16년 15,000백만원)

- **관광레저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
 - 기업도시 관계자 정보공유 및 투자유치 전략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15.11월)
 - 국제 부동산 박람회(한국관광 투자홍보관 운영) 참가를 통해 기업도시 개발 프로젝트 투자 지원
 - 국내(씨티스케이프 '15.9~9.21), 국외(미핍아시아 2015 '15.12.1~12.2)
 - 기업도시 관심제고를 위한 연계 관광여행상품 운영(1,622명 참가),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아리랑 TV 3월/KTX내 모니터 2월)
-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레저 융합형·저탄소 관광문화 확산**
 - 여가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추구하는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과 스포츠 활동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저변 확대
 - * 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20개 상품 / 3,649명)
 - * 카누·카약 등 수상레저 체험(6개소 / 88,463명)
- **'아름다운 자전거여행길 30선' 선정 및 홍보를 통한 한국대표 레저스포츠여행으로 기반 마련**
 - 전문가와 지자체 추천을 통해 30선을 선정하여 별도의 웹사이트 구축,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체험행사 실시, 기업(CU) 협업 홍보 등 집중 홍보 전개
 - *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웹사이트: 2015년 웹어워드 여행·관광분야 최우수상 수상(12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최대한 활용한 수 있는 차별화된 복합개발 모델 마련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업도시 투자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기업도시 체도를 민간 투자유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민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위한 미래 관광 트렌드를 반영,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조치계획**

- 사업 시행사 적극 독려를 통해 개발기간 내 차질 없이 사업완료, 관광레저 기업도시에 대한 신뢰도 조속 회복
 - 막대한 투자 규모를 감안, 관광거점 목적의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 계절별 레저스포츠관광 체험 상품 다양화
 - 계절별 활동을 주제로 한 여행상품 개발(예-봄: 트레킹, 여름: 수상레저, 가을: 자전거, 겨울: 동계레저)
-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아자길) 30선'을 한국대표 레저스포츠여행으로 정착 및 외래관광객 유치
 - 30개 코스 소개 소책자 및 대표 코스 가상뷰 영상제작, 해외 소개
 - 아자길과 지방관광을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운영(국내용, 인바운드용)
 - 국내 MICE행사 외국인 참가자 대상 자전거여행 프로그램 운영
 - 자전거 컨셉과 어울리는 전국 편의점 대상 협업 홍보 전개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자체평가계획상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을 준수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14년 자체평가에 대한 '15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점검 등을 통해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관광레저도시 방문 만족도 목표치 대비 108% 달성 (목표치 76점 → 82.5점) · 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수(20개), 참여인원(30천명) 등 성과지표를 각각 100% 달성
	2-2. 정책 효과성	(미흡)	·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총평

- 특구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특구사업 추진력 확보 및 특구 관광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15년 자체평가 지적사항)

* (15년 지적사항) 특구 지정(14.1월) 이후 지역의 현안사업 반영, 사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특구종합계획 보완·변경 필요

- 5개 특구, 13개 지구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29개 특구사업 확정
- 추가 지정된 정동진 관광휴양지구(중국자본 유치를 통한 고급 호텔, 콘도 조성)와 전통역사문화지구(오죽헌과 연계한 전통 한옥촌 건립)는 올림픽 핵심 관광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임

<특구종합계획 변경안 조정 현황>

구 분	특구 지구		특구 사업(백만원)				
	지구	면적	사업 수	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자
기존 특구계획	11개 지구	27.38km ²	40개 사업	3,306,273	364,036	282,814	2,659,423
당초 변경안	17개 지구	31.5km ²	41개 사업	3,815,296	328,915	283,952	3,202,429
최종 조정안	13개 지구	26.34km ²	29개 사업	2,671,600	150,496	133,456	2,387,648

- '15년에 첫 예산반영된 올림픽특구 8개 관광사업 본격착수를 통해 올림픽 관광콘텐츠 개발성과 조기 가시화 추진
 - 평창 10종('15.11월/에드워드 권), 강릉 12종('15.11월/관동대산학연)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올림픽 대표메뉴 개발 및 지역 요식업체 대상 보급 교육 실시
 - * (평창) 메밀파스타, 송어덮밥, 한우불고기 등 10종 개발완료 / (강릉) 삼계웅심이, 두부삼합, 바다해물밥상 등 12종 개발완료
 - 강릉겨울문화축제, 대관령눈꽃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지역 전통문화와 겨울축제가 접목된 올림픽 개최지 대표축제 발굴
 - * 지역축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축제기획자, 민속학자 등 참여한 추진체계 마련
 - * (강릉) 정태환(전 강릉예총 회장), (평창) 신현식(효석문화제 총감독) (정선) 김우영(지역축제전문가)
 - * 축제 콘텐츠 강화를 위해 겨울연희대축전(총감독 김덕수/공연내용 농악, 판소리 등)을 지역축제와 연계 개최

- 창작음악극 초회('15.12월)의 성공적 시범 공연, 테스트 이벤트 연계 평창겨울음악제('16.2월) 준비 등 올림픽 봄 조성
 - * '16.2.25~28 / 알펜시아 / 클래식(강주미 등) + 재즈(나윤선 등) 프로그램
- 올림픽조직위, 강원도와 함께 테스트이벤트 기간 문화프로그램(지역 축제, 평창겨울음악제 등) 개최를 알리는 사전 기자브리핑 개최(12.17)
- 국토부·평창군과 협력,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 공공 디자인 정비체계 구축지원('15.12월)
 - * 기본계획용역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문화기획-공진원장, 설치미술-신수진 공진원 예술감독, 도시설계, 건축, 조경, 환경 등 6개 분야, 21명), 시가지 정비 기본계획용역(~16.4월)

< 올림픽 상징가로 및 시가지 정비 사업(국토교통부) 개요 >

- 사업규모 : '15~17년/231억(횡계C 진입도로 41억, 시가지정비 110억, 전선지중화 80억)
- 기본설계 및 도로정비 용역 추진 중('14.12.4~'16.5.18/기본계획 수립시까지 중시상태)

□ 주요 성과

- 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특구면적 변경 등 대내외 여건변화 및 올림픽 개최에 따른 숙박, 관광휴양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특구종합계획 변경, 올림픽 개최지역 관광매력도 제고를 위한 추진동력 마련
- '15년 첫 예산반영된 올림픽특구 8개 관광사업 본격착수
 - ① 올림픽 특구지역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 강릉겨울문화축제, 대관령눈꽃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지역 전통문화와 겨울축제가 접목된 **올림픽 개최지 대표축제 발굴**
 - * 지역축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축제기획자, 민속학자 등 참여한 추진체계 마련
 - * (강릉) 정태환(전 강릉예총 회장), (평창) 신현식(효석문화제 총감독) (정선) 김우영(지역축제전문가)
 - **테스트 이벤트 연계 평창겨울음악제 개최 등 올림픽 봄 조성**을 위한 **올림픽 대표콘텐츠 발굴·육성**
 - * '16.2.25~28 / 알펜시아 / 클래식(강주미 등) + 재즈(나윤선 등) 프로그램

② 지역문화와 연계한 관광 올림픽 기반 구축

<관광매력물 창출>

- **(관광마을)** 이효석 소설 속 배경을 복원하고 집필촌, 근대장터거리, 현대문학체험물 등 **‘효석문화예술촌’ 조성**(‘15~’17년/100억)
 - * 효석문화예술촌 실시설계 확정(‘16.1월)
- **(숙박체험)** 오죽헌 등이 위치한 강릉에 영동지역 전통한옥 재현을 기초로 한 **전통한옥숙박 체험시설**(12동) **조성**(‘15~’17년/57억)
 - * 전통한옥 체험단지(12동) 실시설계 확정(‘16.1월)
 - * 동별 2실규모(전체 25실). 공간 구성(방 3개, 욕실·화장실, 대청, 누마루)
 - ☞ **국토부** 한옥마을(19동/’15~’16년)과 연계, 한옥마을 단지화
- **(트레킹)** 강릉시 대관령, 정선군 아우라지역 주변 등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9개코스/131km)를 발굴·정비하여 관광코스 제공(‘15~’17년/33억)
 - * (실적) 트레킹코스 선정(9월), 트레킹 코스 네이밍 확정(올림픽 아리바우길, 12월)

<서비스 인프라 구축>

- **(문화시설)** IOC 총회 개최, 올림픽 기념 국립단체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대공연장 등을 갖춘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추진**
 - * 공연장(1천석/426석/170석), 전시장(2개, 1,100㎡) / 착공(‘16.1월)→준공(‘17.11월)
- **(안내체계)**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 ICT 기반 모바일웹시스템 구축
 - * 종합관광안내센터 부지 협의 완료(1개소), 리모델링 설계완료(1개소), 강원관광 모바일웹시스템 기본계획 완료(9월)
- **(가로정비)** 국토부·평창군과 협력,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 공공 디자인 정비체계 구축(‘15.12월)
 - * 기본계획용역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문화기획-공진원장, 설치미술-공진원 예술감독, 도시설계, 건축, 조경, 환경 등 6개 분야, 21명), 시가지 정비 기본계획용역(‘16.4월)

③ 강원 음식관광 상품의 세계화

- 강원 전통음식 메뉴개발, 지역요식업체와 연계한 현장교육(레시피 전수, 컨설팅/분기 1회) 등을 통한 강원 **특화음식 상품화** 추진
 - * (’15년) (평창) 메밀파스타, 송어덮밥, 한우불고기 등 10종 개발완료(에드워드 권) / (강릉) 삼계옹심이, 두부삼합, 바다해물밥상 등 12종 개발완료

- 식재료 및 마을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올림픽 개최지역에 **‘음식 테마거리’ 조성** 및 **‘음식마을’로 관광명소화**
 - * (’15년) (강릉) 음식거리(초당두부마을, 병산옹심이마을, 사천물회마을) 기반조성 기본·실시설계 완료 / (평창·정선) 기본계획 수립 중(평창-봉평메밀마을, 대관령향태마을, 진부송어마을, 정선-아리랑시장 테마거리조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구개발사업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등 대부분 관광인프라 기반 구축사업이고 ‘18년 평창올림픽 대비 연차별 사업성격으로 인해 단년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은 사업임

□ 조치계획

- 사업을 단년도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 연차별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올림픽 개최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없는 사업추진 계획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미흡)	· 분기별 일정을 대부분 충실히 이행하였음 · 다만, 특구종합계획 변경이 3개월 지연되었고 이는 현장실사 및 5회에 걸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순차 지연에 기인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현실성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특구종합계획 보완·변경 필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였음.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현실성 있는 사업이 반영된 특구종합계획수립 위해 주민 공청회,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 5회에 걸친 현장의견 수렴의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총실)	· 민자사업 유치 비율 33%가 목표였으나 총 12개 민자사업 중 9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75%)되어 실시계획 준비 등으로 사업추진 가시화단계에 있음
	2-2. 정책 효과성	(미흡)	· 특구종합계획 변경, 관광콘텐츠 발굴, 인프라 구축 등 추진방향을 확정하였고 강원지역 대표메뉴 개발 등 일부 사업 조기 가시화하였으나 겨울축제 등 계절적 요인 및 '18년 올림픽 대비 연차별 사업성격으로 본격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계가 있음

51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매우우수

□ 총평

-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스포츠 참여율 제고
 - 다양한 생활체육시설·프로그램·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효과적인 체육활동 방법 등 홍보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 「국민체력 100사업」을 통한 체력수준별 체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 및 스포츠 복지서비스 확대
 - 과학적인 체력관리 필요성 인식 증가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체계 구축으로 자발적 수요 확대
- 저소득층 성인·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사회 나눔 실현

□ 주요 성과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1.2% 증가함('14년 54.8%→' 15년 56.0%)**
 -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60대 이상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3.1%p 상승('14년 51.7%→54.8%)
 - **(국민체력인증제 성공적 운영)** 정보와 지식부족 등으로 과학적 체력관리를 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보편적 체육 복지서비스 제공
 - (거점센터)26개소 120,937명 참여(목표대비 115.2%달성) *12.14일 기준
 - (체력증진교실) 8,107명 참여(목표대비 103.9%달성)
 - (만족도) 93.9점(전년대비 1.8점 상승)
 - (내실화) 국민체력인증제도 법제화로 공신력 제고
- *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에 필요한 제도 마련 등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4.5.28 공포, '15.5.29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지도자 양성 및 파견 확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및 고령화시대에 따른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080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만 5~18세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최대 월 7만원, 3만명 지원)
 - '15년 시범사업으로 4대악 폭력(학교·가정·성폭력) 및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가정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850명)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조치계획

- 해당없음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종합형스포츠클럽 및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국민체력인증,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충실히 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청소년 선호종목 발굴조사 및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여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체육활동을 확대 · 국민체력인증사업의 전략적 홍보로 대국민 인지도 전년대비 5.7%p 상승 - '14년 49.6% → '15년 55.3%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국민체력인증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 '15년 참여자 목표(10만5천명) 대비 115.2% 초과달성 - 만족도 '14년 대비 1.8점 상승 · 청소년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확대 - 왕따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국토순례 등 팀빌딩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보행자세 개선을 위한 걷기교실 등 운영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 축구 등 6개 종목 스포츠클럽리그대회 지원사업의 대상을 유·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실시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102.4% 초과달성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101.2%초과 달성
	2-2. 정책 효과성	(충실)	· 40대와 70대 이상 노인인구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로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효과 입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 형평성을 높여 체육복지 체감도 향상
정부 3.0	3-1 정부 3.0 일하는방식 혁신 실적	(충실)	

* (정부3.0) ▲경찰청 협업, 폭력피해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우선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프로그램 보급

□ 총평

-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 도모
- 10년 이상 경과된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생활체육 참여환경 개선
 - 유해 성분으로 문제가 된 161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체육교육환경 및 주민 생활체육 참여 환경 개선

□ 주요 성과

- 지자체의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263개소, 1,306억원)
 - * 생활체육공원 조성 17개소, 지방체육시설 조성 161개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74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5개소,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6개소
-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325개소, 1,314억원)
 - 국민체육센터 35개소(계속 24개소 포함), 개방형체육관 31개소, 기초 생활체육시설 11개소
 -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5년 4개소 신규선정('12~'14년도 7개소 선정)
 -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환경 개선
 - 유해 운동장 161개소, 공공체육시설 87개소 지원
 - * 장애인 시설 개·보수 '15년 18개소 4,064백만원('14년 40개소 지원)
- 전국체전시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지원(26개소, 194억원)
 - * 강원('15년 개최) 22개소, 충남('16년 개최) 3개소, 충북('17년 개최) 1개소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 공공체육시설을 선정, 포상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함(권역별 4, 부분별 5)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례적으로 외부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개방형체육관 이용실적 저조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유해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보수 조치는 완료하였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도 유해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필요

□ 조치계획

- 국민생활체육회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개방형체육관의 활용도 제고 추진

*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학교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생활체육 종목강습 및 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16년도 180개교 51억원 지원 예정, 개방형학교체육관 대상 포함)

-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1,167개소 대상 전수조사 추진(공익사업적립금 사용)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및 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 사업 등을 연초 계획대비 충실히 수행 하였음 · 다만, 체육진흥시설은 국고보조금 세수 부족으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 20년 이상 전문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던 것을 ①10년 이상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②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③이용자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체육시설의 긴급 개보수로 확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완료/'14.5.14.) · 공공체육시설이용률 지표 자료 수집 방법 세부보완 및 성과 측정을 다음해 3월로 평가하였으나 금년부터 평가 시점인 12월로 개선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개방형체육관 이용실태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등의 현장을 점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은 성과지표의 목표치 18.7%에 대해 달성 가능(추정) · 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면적은 연도말 기준으로 체육시설 면적을 산출함으로 내년 3월경 목표치가 나올 예정(달성 가능 추정)
	2-2. 정책 효과성	(보통)	·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설을 선정함으로써 시설활용도 제고 및 경영개선 등 운영활성화 도모

53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부진
----	--------------	----

□ 총평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및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사회성과 협동심 함양 등에 기여

□ 주요 성과

-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2,408명)를 배치하여 초등학교 체육 수업 활성화에 기여
- 전국 초·중·고등학교(4,919개교) 및 지역사회 스포츠시설과 연계한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448개 프로그램/시군구별 2개)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도교육청의 지방비 확보가 미흡하여 당초 계획(3,000명)보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실적(2,408명) 저조

□ 조치계획

- 계획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독려 추진('16.2월)

※ '16년에도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추진 애로 예상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총 5개 추진계획 모두 당초 일정대로 정상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성과지표 부적절한 의견에 대하여 스포츠강사 배치 비율은 방과후프로그램 참여율로 대체하였으며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미흡)	· 스포츠강사와 관련하여 수요자별 현장의견 수렴은 하고 있으나 정규수업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고유 영역으로 문체부가 정책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①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 : 90.3점(목표) → 90.0점(실적) : 99.7% 달성 ②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참여율 : 64%(목표) → 66%(실적) : 103.1%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정책효과 발생) 체육수업의 내실화 및 학생들의 체력 증진,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등에 기여하였으나 정책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지 못해 효과가 다소 떨어짐 · (상위목표 달성 기여) 학생들의 체육 참여 환경 여건 조성으로 “국민생활체육참여율 제고”에 기여

54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보통

□ 총평

- 우수 선수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 도모 및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수 성적 거양 기반 마련
- 전 세계 최초로 프로스포츠선수에 대한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선도적인 도핑검사 관리로 도핑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 초중고·대학 운동부·실업팀 지원 및 스포츠 폭력·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

□ 주요 성과

-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 및 선수·지도자 처우개선
 - 종목별 국가대표 훈련 실시(45개 종목 1,496명) 및 국외 전지 훈련(32개 종목 1,212명) 지원
 - 외국인코치 초청 지원(12종목 23명) 및 트레이너 지원(26종목 37명)
 - 실내빙상장 조명보수 등 선수촌 시설 개·보수 지원
 - 국가대표 수당 현실화('15년 5만원→'16년 6만원/일) 및 상해보험 지원 확대(사망 보상금 증액 등), 선수 건강검진 지원(1,114명) 등
- 국가대표 선수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 2015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4개 종합대회 및 각종 선수권대회, 친선경기 참가 지원을 통해 대표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 축적
- 도핑방지활동 지원
 - 세계반도핑기구(WADA) 이사국으로서의 역할 수행,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 부의장국 진출 등 국제반도핑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제경기대회에서 도핑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국내 스포츠 공정성 확보에 기여
 - 전 세계 최초 프로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등 선도적인 도핑방

지 활동을 통해 공정한 스포츠경쟁 기반 구축 및 약물로부터의 선수 보호 강화

- 도핑컨트롤센터(DCC)의 도핑분석기기 보강 등을 통해 세계반도핑기구 공인실험실 유지 및 2015광주하계U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의 원활한 도핑검사 지원
-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신고 접수·처리 체계 구축
 - ▲횡령, 승부조작 등 비리 관계자의 임원, 지도자, 심판 등 활동 제한 강화, ▲비리 적발 단체의 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정산의 외부회계법인 위탁, ▲결산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훈령제정('15.6월) 통한 운영근거 마련, 경찰청 내 스포츠비리수사반 운영('15.2월~) 등 체육계 부조리에 대한 상시적 신고·수사체계 구축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종목별 특성에 따라 국가대표 훈련 인원 및 훈련 일수의 자율적 조정 필요
- 프로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필요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선수, 지도자 등 체육 관계자들의 도핑인지도 제고 필요
-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근절되지 않아 강화대책 필요

□ 조치계획

- 훈련인원(정원 20% 내)의 자율적 조정, 총액 내 훈련일수 조정 등 종목별 특성에 따른 자율성 부여를 통해 훈련효과 극대화('16.1.~)
-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마련, 프로도핑 관리부서 신설, 전담 인력 보강(3~4명), 프로선수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계획(~'16.3.)
- 기존 대면교육 및 현장홍보 이외에 SNS, 온라인 교육 이수 시스템

등 온라인을 활용한 도핑방지교육·홍보를 통해 도핑방지 인지도 제고 추진('16.2.~)

- 스포츠 인권 교육 실적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평가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의무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수·지도자 등록시스템과 연계(연 1회 이상 의무교육 실시)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2015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등 분기별로 수립한 43개 추진계획을 모두 적기에 추진 완료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미흡)	· '14년 자체평가시 중학교 학생선수들까지는 학습권과 신체보호권을 확보하기 위해 훈련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운동부 운영 개선 제시를 위한 '학생선수 적정 훈련시간 및 회복시간·방법'을 연구하였으나, 중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및 신체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한 편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심판판정 관련 간담화평가회(3회) 및 프로선수 도핑 의무화에 대비한 관계기관회의(4회) 개최, 종목별 선수권대회 경기장 방문 스포츠 (성)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녹화장비 지원 사업 추진, 프로도핑규정 제정 등의 조치 완료 · 다만, 스포츠 인권향상과 관련해 캠페인 및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은 미 실시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개최 국제대회 우수선수 참여율(%)'의 경우, 목표(28.01%) 대비 109.4%를 달성(30.66%)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대회의 수준이 높았음이 인정됨 · '도핑방지 인지도(점)'의 경우, '인지도조사'의 특성상 급격한 상승이 어려움에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73.5점이라는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100.4%인 73.8점을 달성 ·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인원(명)'의 경우에도 전년 목표(26,800명) 대비 5% 증가한 32,856명으로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교육방법 다각화 등의 노력을 통해 목표 대비 117.5%인 38,602명을 달성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2-2. 정책 효과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선수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2015광주 U대회에서 국제종합경기대회 사상 최초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수 성적 거양이라는 과제 목표 달성 · 전 세계 최초 프로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 부의장국 진출 등 다양한 도핑방지활동을 통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 심판아카데미,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을 통해 스포츠계 비리 근절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보조금 불법 지급사례 적발 등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남

55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보통

□ 총평

-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통해 스포츠강국 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국내외 다양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태권도 진흥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국제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태권도의 저변 확대
-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지원, 타 국가와의 체육 MOU 체결, 개도국과의 다양한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우리나라 스포츠 지평 확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건립 및 문화올림픽 추진 등을 통한 대회 성공개최 추진

□ 주요 성과

- 2015광주하계U대회 성공 개최를 통한 스포츠강국 위상 유지
 - 저비용·고효율의 대회 개최로, 국제경기대회 운영 모델 제시
 - * 신축경기장 최소화(4개소), 인천AG 물자 재활용 등을 통해 최초 총 사업비 대비 1,999억원 절감
 - 메르스 발병에도 불구하고 무사고·안전대회 개최로, 국가분위기 전환 및 우리나라의 위기대처 능력을 전 세계에 전파
 - 하계 국제종합경기대회 사상 최초 우승(금메달 47개)
- 태권도 사범, 시범단, 봉사단 등의 전략적 국가 선정 및 파견을 통한 태권도 세계화 및 태권도 공연·연구사업 확대 등 한류문화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한국이미지 제고에 기여
- UNESCO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 부의장(‘15.10.) 등 국제스포츠기구 한국인 임원 진출 확대*
 - * (‘13년) 126명 → (‘14년) 134명 → (‘15년 7월) 147명
- 국가/NOC 간 체육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4건)
 - 타지키스탄 청소년체육관광위원회(4.12.),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체육위원회(4.13.), 불가리아 청소년체육부(5.14.), 미국(NOC, 2.3.재체결)

- 개도국과의 다양한 스포츠 교류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우리나라의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진천선수촌 합동훈련과정(13종목 13개국 185명),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지도자 파견 4종목 5개국, 합동훈련 2종목 7개국, 용품 지원 9종목 23개국), 태권도 시범단 파견(11개국) 등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본격 준비 및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 본 대회 개최에 차질 없는 경기장 등 대회기반시설 조성
 - * 신설경기장 6개소 '15년 평균공정률 50%, '17.하반기까지 순차 완공 예정
 - 외국인 코치, 전담팀 등 대표선수 지원 및 경기력 향상 TF(2차관, 6월~)를 통한 동계종목 여건 개선(시설 최적화, 경기운영인력 양성, 유망주 육성 등)
 - 문화·관광·콘텐츠-ICT 올림픽 구현을 위한 추진 TF 구성·운영(4월~)

-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 졸업생들과의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조성 및 졸업생 초청 교류사업 신설('16.2.)
-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력 강화 및 올림픽 계기 홍보 실시
 - 리우올림픽 출전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력 강화를 위한 현지훈련 2단계 전략(1단계 : 사전적응, 2단계 : 컨디션관리) 추진 및 반도핑, 테러 등 사전교육 실시('16.3.~7.)
 -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및 합동홍보계획 수립을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16.1~8.)
- 테스트이벤트('16.2) 연계 문화 프로그램 추진, 올림픽 캠페인송 공모('16.2.), 리우올림픽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올림픽 붐업 및 참여분위기 조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략이 부재한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 체계적 전략 없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따라 유치 단계에서의 경제성 분석 미흡과 이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관행화
-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의 경우, 1기 졸업자가 배출된 만큼 졸업 후 본국의 스포츠기구로 복귀한 행정가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2016리우하계올림픽에서의 우수성적 거양 및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동계종목에 대한 낮은 관심*과 대회재정, 환경 등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 미흡
 - * 평창올림픽 인지도 89%, 관람의향 70%, 올림픽 종목 인지도 35%(리얼미터 '15.10.)

□ 조치계획

- 내실 있는 국제대회 유치·개최를 위해 국제대회 유치 승인절차 개선 및 부정유치 시 벌칙 도입 등으로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추진('16.6.~)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2015광주하계U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 등 22개 추진계획 모두 적기 정상 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14년 자체평가시 “풀뿌리 국제스포츠외교를 확대하고 있는 현장인들에 대한 발굴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제회의총회 파견 지원,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등 기존 사업을 보다 확대 지원하고자 노력했으나, 신규사업 발굴 등에 있어 미흡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 광주U대회의 경우, ‘정부-지자체-대회조직위’로 구성된 「지원특별전담팀」 운영을 통해 대회의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현안사항을 청취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신속한 대책 마련 · 평창올림픽대회의 경우에도 정선알파인 경기장 건설 부지 이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이주 전 불편 해소책을 마련하였으나, 평창 올림픽 사후활용의 경우 현재 연구용역 중이며, 아직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전략적 교류 비율(%)’은 국제체육 교류 시 스포츠 ODA 참여,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개도국이나 IOC 회원국과의 교류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교류국의 선택 및 집중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102.3%)하였으므로, ‘예’로 판단 · ‘태권도평화봉사단 파견국 현지 참여자 수(명)’의 경우, 목표(3,024명)를 넘어선 성과(3,270명)를 달성 (108.1%)하기는 했으나, 목표를 전년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하는 등 목표치의 적절성이 미흡하므로 ‘어느 정도’로 판단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공정률(%)’ 지표의 경우, 연차별 달성계획에 따라 '15년도 목표 공정률로 설정한 48% 대비 51.64%를 달성
	2-2. 정책 효과성	(충실)	· 2015광주하계U대회를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개최 역량을 제고하고 이후 개최할 국제경기대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등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했다고 판단 · 태권도 세계화 사업을 통해 봉사단 및 사범 파견국을 확대하였으나, 결과와 정책목표와의 구체적 연계성 부족 · 다양한 국제체육 교류 사업을 통해 매년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56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우수

□ 총평

- 스포츠산업 육성 중점추진과제 발표(5대과제 '15.1월)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14년 195억원→'15년 633억원→ '16년 1,026억원),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의결('15.12.31.)등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완성
- 스포츠용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으로 스포츠산업의 상품성 및 시장성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 국내 스포츠기업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함
- 스포츠산업 인력양성 지원 및 일자리센터, 창업보육 등 다양한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연관 일자리 연계 및 창출에 기여
- 스포츠산업 펀드 신규 조성 및 융자증액으로 스포츠산업 투융자 활성화
- 국내 스포츠용품 품질인증과 해외인증 획득 지원으로 스포츠용품 대표 브랜드 육성과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제공함

□ 주요 성과

-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완성
 -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15.1.30, 강은희 의원), 상임위 상정('15.4.17, 교문위), 국회 의결('15.12.31.)
- 스포츠강소형기업 글로벌화 지원으로 스포츠산업의 외연확대



○ 스포츠산업의 활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
 - 스포츠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 지원(5개대학 72명 교육 중)
 -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4개기관 338명 교육 완료)
 - 스포츠산업융복합분야 CEO아카데미 지원(30명 교육 완료)
 - 스포츠산업분야 인턴지원(35개 기업 43명 지원 / 채용실적 19명(44%))
 - 체육분야 인턴 지원(국내 51개단체 52명, 해외 11개 단체 35명 지원중)
-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 일자리지원센터 및 잡 스포이즈를 통한 일자리 지원(매칭 6,776건, 채용성사 443건)
 - 스포츠 잡페어를 통한 일자리 지원(127개 기업, 15,300명 참가, 채용상담 9,667건)
 - 기타 창업지원 등(창업보육 10팀지원 9팀 성공, 창업교육 120명 수료)

○ 스포츠산업 펀드조성, 용자확대로 스포츠산업체의 투융자 수혜 증가

-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투자로 스포츠 초기 기업(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인 발생
 - ※ 펀드 조성 현황 : 2개 펀드 총 385억원 결성, 73억원 투자

자조합 명	운용사	정부출자	민간출자	결성액	투자액
유틀씨 스포츠1호 펀드 ('15.7.14 결성)	유틀씨인베스트먼트(주)	100억원	115억원	215억원	43억원
보광22호 스포츠-IT융복합 투자조합('15.6.10. 결성)	보광창업투자(주)	100억원	70억원	170억원	30억원
계				385억원	73억원

- 기술력 있는 영세기업에 대한 용자확대, 특히 용품업계 기업의 건실화 유도
 - (주)파이빅스(활 제조업체)의 경우 '14년에 이어 '15년 용자지원으로 해외거래처 확대 및 매출증대로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
 - ※ 용자지원 현황 : 고정금리 4%→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 1~2%대로 인하, 총 41개 업체 137억원 용자 지원('15.12월 말 기준)

○ 스포츠용품 국내인증 및 해외인증 지속 확대

- 스포츠산업 지원 수혜 중소기업체의 시험 및 인증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지원
- 인증 건수는 ' 13년 74건(국내 50, 해외 24) → '14년 50건(국내 33, 해외 17) → '15년 121건(국내 91, 해외 30), 해마다 증가(전년 대비 142%증가)

* '15년 해외인증은 현재 선정된 인증건수로 사업완료 시점인 '16년 5월말에 변경가능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스포츠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사업 중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의 활성화 부족
 - 참가 전시회 수요측면을 고려한 해외바이어 유치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필요

□ 조치계획

- SPOEX 전시회 개선조치('16.1월~16.12월)
 - 기존에 희망 해외바이어를 일괄초청한 것을 참가기업 사전인터뷰 실시 후 맞춤형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 개최로 개선시행
 - 프리뷰(책자)를 통한 홍보를 온라인(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으로 전환하여 연중 홍보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사업별 수립한 추진계획 일정대로 정상 추진
	1-2. 자체평가 결과반영	(충실)	· '14년도 자체평가시 스포츠 강소기업 선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소형기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에 '15년 20억('14년 12억), 중소 스포츠업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15년 신규로 10억 확보하여 컨설팅 지원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업계, 학계 등에서 참여하는 스포츠산업진흥포럼 10회('15.2~10월) 및 컨퍼런스 2회 개최 · 포럼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수립 시 수시반영 · 업계의 해외전시 참가방식 다양화 의견(개별 참가방식도 추가 요청)에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반영 등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용자 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 목표치 대비 156% 달성 · 해외전시회 평균상당액 목표치 대비 103% 달성 · 스포츠용품 인증건수 목표치 대비 170% 달성
	2-2. 정책 효과성	(충실)	· 스포츠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기반조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국내스포츠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시간 단축 및 비용 감소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57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미흡

□ 총평

- 기술적 성과(특허, 논문 등) 중심에서 산업적 성과위주의 사업운영 및 단발성 소액위주의 R&D 과제 추진보다는 중장기 차원의 국가정책과 산업수요 기반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혁신안 추진
- 반면 '15년부터 중장기적 기반에 기초한 혁신안이 추진 시행초기인 점에서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는 미흡
 - 업체들의 연구비 부정에 대한 감사 및 검찰수사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 평가의 엄격화에 따라 일부 관련지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 주요 성과

- 스포츠산업기술 R&D 사업목표 명확화
 - (사업목표) 스포츠 특허 및 기술개발 위주에서, 스포츠산업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과제를 선택, 집중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 10억 이상 R&D 과제는 과제기획 시 반드시 비즈니스모델(BM) 제시
 - (중기계획)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여 R&D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방향 수립 및 과제 추진
 - * 외부 전문가 중심 스포츠산업기술 R&D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과제기획에 활용
- 스포츠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선진화
 - (과제기획) 상시 기술수요조사, 상향식(Top-Down)-하향식(Bottom-Up) 과제기획 병행, 사전 기획연구 강화로 시장수요 기반의 국제성 과제 적극 발굴
 - * 전문적 과제기획을 위해 외부전문가(강원대 교수)를 과제기획 책임자(PD)로 채용('15.9월)
 - * 융합시대에 맞는 협업과제 추진 : 부처간 협업(문체부+미래부), 부처내 협업(스포츠+문화)
 - (선정평가) R&D전문가 인력풀을 전면 재검토 및 보강, 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도입, 평가위원 후보선정 과정 전산화로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

- * 기존 R&D 전문가 인력풀 NTIS 기준으로 구성
- * 평가위원 선정의 투명성 재고를 위하여 위원선정 시에 행정지원실 입회
- (수행관리) 체계적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노트관리,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과제관리지침 개정, PD의 과제 중간점검 역할 강화
- * 중간점검을 통한 과제 위험제거 및 성과제고를 위해, PD진도점검 중간평가 반영
- (성과목표) 사업화·매출·기술이전 등 시장 지향적 성과목표 설정, 대형과제(10억 이상)은 비즈니스 모델(BM) 검증·평가 실시 후 R&D 지원
- (사업평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상호경쟁 및 연구 분위기 쇄신을 위해 상대평가 및 강제탈락제 시행(15%)
- * 중간평가에서 하위 15% 탈락(7개 과제 중 최하위 1개 과제 중단)
- (사후관리) 우수한 종료과제를 선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과제종료 후 5년간 추적평가(성과관리, 사업화 동향 등) 등 성과확산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강화

○ 스포츠산업기술 R&D 추진체계 강화

- (전담기관) R&D 예산확대('15년 130억/'16년 140.7억), 다양한 스포츠 융·복합 기술 발굴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 기능 보강 추진
 - * R&D 전담조직 보강 : 전담부서 기능강화(R&D기능만 수행), 인력 재정비
- (연구기관) 스포츠산업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학제간 융합연구, 대형 국제성 R&D 수행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R&D 전문 연구기관 육성
 - * 국내 국제연구기관(예: ETRI)과 협력하여 스포츠 R&D 전문 연구부서 육성
 - * 지역 특화 스포츠 R&D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시범사업 추진 (대구테크노파크)
- (정보체계) R&D 전주기적(과제기획-선정-수행-관리-평가-성과 활용-사후추적) 관리를 위하여 R&D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 R&D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술화 수준과 관련하여, 스포츠산업 R&D 혁신안이 시행초기 상황에서, 엄격한 사업관리상 사업 일정지연 등의 상황 발생

□ 조치계획

- 혁신안에서 제시한 엄격한 사업관리를 지속하되,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일정 명확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연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규과제 선정시 각 기관별 제출서류 추가 검토로 인한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연기 등 일부 지연 · 선정평가 지연으로 협약체결도 추진 일정상 지연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15년 상반기 자체평가시 세부 추진 업무 신속 추진 및 추진계획일정 준수로 지원업체에 사업의 신뢰성 제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일정 준수노력을 기울였음 · 그러나 지원업체 등의 연구비 부정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검정(과제선정 및 평가) 절차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 어려움 발생 → 신속한 자유과제 선정 및 계속과제 평가를 통해 조속한 집행 완료 예정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SPOEX 전시 참가('15. 2.26 ~ 3. 1), 기술수요조사(1차 : '15.6.15~7.24, 2차 : '15.10.23~10.27) 등 현장의견 수렴으로 스포츠산업 R&D 혁신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사업에 반영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결과물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수는 54.7점(목표 70점), 기술이전 건수는 0.95건(목표1.06건) 미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 혁신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화 단계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인 점에서 스포츠산업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함

□ 총평

- 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13~'17)을 근거로, 단위사업별로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시도지부, 가맹경기단체 등)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 재정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세부 단위사업별로 지원하던 예산을 일괄 교부하고 시도별 거점체육시설 건립 지원 등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환경 개선 노력
-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영향으로 교실 수업 등 현장지도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함

<p>-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 : '08년(140천명) → '09년(201천명) → '10년(230천명) → '11년(521천명) → '12년(711천명) → '13년(876천명) → '14년(1,037천명) → '15년(1,130천명, 목표1,249천명)</p> <p>* '15년 목표 대비 90.5% 달성</p> <p>-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 : '08년(6.3%) → '09년(7.0%) → '10년(8.3%) → '11년(9.6%) → '12년(10.6%) → '13년(12.3%) → '14년(14.1%) → '15년(15.8%, 목표 15.5%)</p> <p>* '15년 목표 대비 101.9% 달성</p> <p>- 생활체육지원사업 만족도 : '10년(80.6점) → '11년(86.4점) → '12년(86.5점) → '13년(84.7점) → '14년(86.1점) → '15년(85.2점, 목표 86.3점)</p> <p>* '15년 목표 대비 98.7% 달성</p>

□ 주요 성과

- (생활체육지원 다양화) 참여자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지원 프로그램 지원
-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지원(장애유형별 교실, 수준별 교실, 장애청소년체육교실, 계절스포츠교실, 생활체육클럽, 여성장애인체육교실 등 756개소)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및 생활체육참여 환경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종합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건립 완공(1개소, 광주) 및 지원(4개소)
- * '15년 지원(전남 여수, 전북 전주, 충북 충주, 경남 사천 등 4개소 선정)
- * 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반영 사업임
- (지역·종목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지역별 어울림·동호인 생활체육대회(111개), 시·군·구 장애인 체육이동서비스(승합차5대) 지원, 지역별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솔루션위원회' 운영(16개 시도 314명 구성)
- *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솔루션위원회 : 장애인 접점기관(복지관, 병원 등) 기반으로 생활체육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을 보다 활발하게 운영
- 유형별 생활체육대회(5개),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대회(6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대회(1개) 등
- (신규 참여인구 발굴 및 유인 제공)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16개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전국 57개 시군구, 310명), 장애인 생활체육 UCC 공모전 운영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13~'17)을 기반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비전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필요
- 기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가능 체육시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조치계획

- 생활체육교실, 동호회 및 어울림대회의 점진적 지원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유도 및 통합체육 보급 사업 추진

- 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의 사업을 성과계획에 표기
 -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지원, 지원체계 개선 등 전략에 따른 사업 추진
- 시·도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추진
 - 지자체 담당자 대상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정책 안내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40)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스키학교지원, 계절스포츠학교(조정 및 수상 레포츠),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및 각 지원사업 현장 평가 등 장애인스포츠 환경기반 조성사업은 일정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함 · 5월부터 발생한 메르스 여파로 교실 수업 등 현장 지도가 불가능하여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및 체육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체계 개선, 참여자 특성 반영 지원 등 -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개소 및 건립 지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 : 1개소(광주광역시) * 지원 : 4개소(충북 충주/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남 사천)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시도 실무자 워크숍 등 2회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 하였음.
정책 성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 목표치 86.3점 대비 85.2점 달성(98.7% 달성)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 목표치 1,249천명 대비, 1,130천명 달성(목표 대비 90.5%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지원사업의 양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이 '14년대비 1.7% 증가 (14.1%→15.8%)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상위 성과지표 달성에 기여 -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만족도가 '14년대비 0.9점 감소(86.1점→85.2점) 되어 “장애인스포츠참여환경조성” 관리과제 목표 달성에 다소 미흡

59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다소우수

□ 총평

- 장애인체육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국가대표 상시훈련 실시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력 향상 목표 달성
 - '15년 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 24.6%로 목표치 대비 123.6% 초과 달성
- 유형별 종합국제대회 국내개최를 통한 장애인스포츠 국제 위상 제고
 - ※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15. 5. 8. ~ 5. 18. / 11일간 58개국 9개 종목 6,000여 명 규모)
- 국제회의참가, 국내인사의 국제기구 진출, NPC 교류 등의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해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 및 대한민국 위상 제고
 - ※ (신규인력 진출(7명) : IPC 상임위원 1명, APC 상임위원 6명)

□ 주요 성과

-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지원 강화
 - 국가대표 상시훈련 지원(28개 종목 427명)
 - 국제종합대회 참가선수 특별훈련 지원(타오위안아태농아인경기대회 8개종목 96명, 한티만시스크동계농아인올림픽대회 3개종목 30명, '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9개종목 99명, IBSA 장애인청소년세계대회 1개종목 20명)
- 전국체전(비장애인)·전국장애인체전 첫 동년동소 개최로 경기장, 용기구, 인력 등을 연계 운영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화 도모(하계, 10.28.~11.1, 강릉시)
 - 개최지 대회운영지원 및 27개 종목 경기운영 지원
- 장애인경기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 행정운영비 지원, 국내대회(29개종목 60개소)·전문인력 양성(27개종목 46개소)·유형별 전국종합대회(2개소농아사자) 지원 국제체육교류 국제대회 개최 지원
- 국가대표 선수 풀 확대를 위한 꿈나무·신인선수 발굴 및 경기력향상 지원
 - 꿈나무선수 훈련지원(29명선발, 40일훈련),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20개종목 92명지원), 전임지도자 배치(총24명), 장애인실업팀 지원(18개팀 - 기존4, 창단7, 입단7)

- '18평창동계PG 우수 성적 확보를 위한 장애인동계스포츠 육성
 - 동계종목지원위원회 운영(4개종목 20명), 동계종목 특별지원(전용숙소 추가 확보, 훈련지원 확대), 해외우수지도자 및 전문인력 배치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애인체육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개선책 필요
- 장애인 체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 전문 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 시설 건립 및 보강 필요

□ 조치계획

-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및 의견수렴 기회 확대, 예산집행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투명한 정산 시스템 구축
- 신인·꿈나무 → 후보(상비군) →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 이천 훈련원 내 사격장 및 컬링장 건립 및 기존의 훈련 시설을 보강하여 최적의 훈련 장소 제공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국가대표 선수 상시훈련, 국제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장애인가맹단체 지원, 전임지도자 배치, 장애인실업팀 지원 등을 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진행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 장애인체육 사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개선책 필요 -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및 의견수렴 실시, 예산 집행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투명한 정산 교육 실시 · 장애인 체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 예산확보를 통해, 신인·꿈나무 → 후보(상비군) →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충실)	· 가맹단체 워크숍 등 7회 현장의견 수렴의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초과 달성(목표치 123.6% 달성)
	2-2. 정책 효과성	(충실)	·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종합5위 달성(58개국 6,000여 명 규모), 국제스포츠기구 회의 13회 참가 및 기구 내 주요인사 진출(한국인 임원 12인 중 7명 신규)로 경기력 및 외교력 강화 등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 도출

□ 총평

- 국내외 민간 홍보 우수사례 중심으로 정책홍보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정책홍보 역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정부에서 실시하는 브리핑을 각 부처와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정부 발표에 대한 언론의 취재지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사회의 환경변화(모바일환경, 디지털방송,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취재지원 서비스의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주요 성과

-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민간전문 컨설팅업체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추진력 확보에 기여

<2015년도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지원 현황 : 55개 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홍보전략(기재부) △문화융성 2년차 홍보전략 △규제 개혁 성과 홍보전략 △비정상의 정상화 홍보전략 등

- 국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책소비자 트렌드, 뉴미디어 환경 및 콘텐츠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
 - 최신 홍보 트렌드를 정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기본 과정 및 전문과정을 통해 정책 홍보 능력 배양

<2015 홍보전문교육 현황 : 26회 359명>

△기본과정(2회) △전문과정(뉴미디어 4회, 미디어트레이닝 18회, 언론·미디어의 이해 2회)

- 주요 국정과제 및 국민생활 밀접정책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정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제공
 - '일·학습병행제도 인식 조사' 등 여론조사 15건 실시
- '정책보도 분석자료'(연간 1,500여건 이상)를 정기적으로 부처에 제공, 정책홍보 핵심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토대로 △정책보도종합(분기 250건 이상) △시사프로그램 분석(분기 100여건) △주간 정책보도 분석 △현안분석(월 10건 이상) 제공

<2015 주요 현안분석 현황>

△대통령 방중·방미·유엔총회 참석 등 순방외교 성과 △공무원연금 개혁 △연말정산 보완대책 △메르스 사태 △규제개혁 장관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파리 도심 테러 △한국사 교과서 논란 등

- 주요 정책과제 관련 보도흐름과 주요쟁점, 여론추이 등을 종합한 분석 자료를 '정책홍보사전협의'(국민소통실-관련부처) 등에 제공, 현안 대응력 제고에 기여

<2015 주요 정책과제 분석 현황>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서비스 확충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제조업혁신 3.0전략 △자유학기제 △문화창조융합벨트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 정부발표 취재지원 서비스 다변화
 - 정부발표에 대한 언론 취재지원시스템인 e-브리핑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보 접근성 및 웹접근성·웹호환성 강화, 반응형 모바일 서비스 개선
 - e-브리핑 영상 서비스 품질 강화(SD급 → HD급) 추진
 - * (HD급 장비 보유 : 18개소 → 22개소 확대)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e-브리핑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하는 등 e-브리핑 방문자수와 방문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e-브리핑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등의 기능 개선 및 홍보 추진

☞ e-브리핑 서비스의 정기적인 홍보(연 2회)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 방안 컨설팅 등을 통해 방문자수 확대 방안 모색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43개 세부 추진계획 모두 일정 대비 정상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e-브리핑 시스템과 각 부처 영상 인코딩 시스템연계 운영(각 정부부처 27개소에 연계되어 운영 중) ▪ 언론의 정책보도 일일 분석자료를 각 부처와 국회의원실에 제공, 정책 여론 피드백 및 정책홍보자료로 활용 ▪ 각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주요 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홍보 컨설팅 추진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e-브리핑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이용 접근성 확대 ▪ 중앙공무원교육원과 협업,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까지 활용 가능한 사이버교육용 콘텐츠(위기관리, 홍보업무) 개발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공무원홍보교육 만족도(점) - (목표) 86 -> (실적) 85.86 ▪ e-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명) - (목표) 545 -> (실적) 546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주요 국정과제,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 및 민간전문기관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 정책 기초자료 활용 및 홍보 효과 극대화 ▪ 정책 담당자 대상 홍보전문 교육을 통한 홍보 역량 강화 ▪ e-브리핑 영상 서비스 제공건수 1,775건, 회원 일평균 방문자수 546명(전체 회원의 12%) 등 정부브리핑 취재지원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61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보통

□ 총평

- 부처대변인협의회 활성화 등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소통기조 공유 및 주요정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홍보계획 종합·조율
 - 부처대변인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4대 국정과제 및 주요현안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홍보기조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홍보를 위한 부처간 소통함으로써 부처 간 이견과 혼선을 최소화
- 관계부처 간 한목소리(One-voice) 유지 → 일관성 있는 홍보추진에 도움
 - 홍보 메시지를 사전에 수립, 관계기관이 통일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 및 확산토록 하여 일관된 홍보기조 유지
- 부처·공공기관 보유매체 홍보협업 체계 구축
 - 부처 및 공공기관 매체활용 협력홍보를 시스템화하여 정책 관련 광고·영상물 등의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 협업홍보 활성화

□ 주요 성과

- 공공매체 협업 홍보 활용, 공공·교육·노동·금융 4대개혁 및 24개 핵심 개혁과제(관련부처), 정부 3.0(행자부), 공무원연금개혁(인사처), 메르스 예방(복지부) 등 주요 국정과제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97개 정책과제 집중 홍보
- 42개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민간 보유 641종 매체 대상 동시 홍보
 - ※ '13.5월 시행 후 참여매체 지속 확대(초기 91종 매체 → 현재 641종 매체)
- 영상매체 : 케이블·인터넷 방송, 전광판 ⇒ 40개 부처 512개
- 간행물(민간매체 포함) : 은행권 사보, 경제단체 소식지 등 ⇒ 36개 부처 129개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홍보 매체를 홍보에 공동으로 이용, 별도 비용 없이 홍보콘텐츠 파급 효과 제고
 - 4대개혁 및 24개 핵심개혁과제(관련부처), 정부 3.0(행자부), 공무원연금 개혁(인사처) 등 주요 국정과제 대상 홍보지원

▲4대개혁 및 24개 핵심개혁과제(관련부처) → 전국 공항, 철도, 금융기관 전광판 및 모니터 활용 ▲정부 3.0 홍보영상(행자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전광판·모니터 등 활용, 대국민 홍보 ▲공무원연금개혁(인사처) → 케이블방송, 청사 전광판 모니터 활용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 참여가 중요한 정책 중심으로 집중 홍보

☞ (사례)

- 메르스예방(복지부) → 전국고속도로휴게소, 전국공항, 전국여객선터미널, 아파트엘리베이터 모니터, KTX객실 모니터 등 전방위 대국민 홍보
- 가을 관광주간(문체부)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국토부) 및 세종시 BRT 버스안내광고(행복청) 등 대중교통 접점 활용 홍보

⇒ 부처 협업홍보에 대해, 다수 부처가 ①국민중심 정책 홍보방안 수립 ②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 ③부처 간 one-voice 유지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 평가

○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현안 등 캠페인 광고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지도 제고

- 문화가 있는 날(2월, 4월/신문·극장·케이블)
- 공무원연금 개혁(2~3월/중편TV·보도채널·라디오·지하철·KTX·극장)
- 정부 3.0 (2월, 9월, 11~12월/지상파·인터넷·극장)
- 노동개혁(8~10월/극장, 버스, KTX)
- 문화융성(12월/케이블·극장)
- 국가브랜드 공모작품 선호도 조사 안내(12월/인터넷)

○ 사회이슈 및 국민 생활 밀착형 광고를 통해 민생 관련 정책 안내

- 메르스 극복 캠페인(6월/신문·지상파)
-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8~9월/버스)
- 국민건강실천 캠페인(10월/지역신문·지하철·KTX·택시·전광판)
- 편안함 정책(10~11월/인터넷)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12월/인터넷)
- 전국 전광판(210여개) 활용, 국정과제 매일 18건 표출(동영상10, 문자 그래픽8건)

- 기타 농협모니터(2,740개소) 서울버스모니터(1,570여대) 활용 홍보

○ 국제행사 홍보 지원을 통한 국민 통합 및 국격 제고 기여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5~7월/잡지·극장·버스모니터·전광판)

○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협업 홍보를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 (역사교육정상화) 교육부와 예산을 분담하여 중앙지·경제지 등 20개지 신문광고 실시(10월)
- (불법집회 관련 대국민 호소문)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문체부 7개 부처가 예산을 분담하여 중앙지·경제지 등 총 28개지 신문광고 시행(12월)
-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체부 3개 부처 협업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중앙지 등 총 33개지 신문광고 및 온라인, 지하철, KTX 등 옥외매체 광고시행(12월)
- (문화융성) 문화융성 인지도 제고를 위해 BI를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고 '문화가 있는 삶' 슬로건과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국민 체감도 제고
 - 스티커 제작 배포(2,000부) 및 현장 점검 및 교육
 - 주요 거리 및 문화시설에 가로등 배너와 현수막 게시

○ 사전 협의제를 통한 부처 홍보효과 극대화

-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금융개혁 등 국정 아젠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전략 수립 지원
- (쟁점사안 사전 대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한중 FTA 가서명 양허안 공개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갈등현안에 대한 언론 비판쟁점을 사전에 대비하여 홍보 방향 및 메시지 강구, 부정적 노이즈 최소화
- (국민 생활정책 확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등 국민 생활밀착형 정책 발표 효과성 제고
- (주요 정책 조정·결정기구 안건 핵심메시지 지원) 규제개혁장관회의·무역투자진흥회의·국가재정전략회의·국무회의 상정 안건 보도자료 검수 등

※ 【참고】 핵심개혁과제별 주요 사전협의 실적

구분	사전협의 내역
공공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3.31, 행자부) ■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3.31, 행자부) ■ 공무원연금 개혁(~5월, 행자부)
노동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개소식(4.23, 여가부) ■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6.16, 고용부)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6.3, 교육부)
금융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1.27, 금융위) ■ 비대면 실명확인(5.18,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금융 개선방안(6.8,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6.18, 금융위)
경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FTA 가서명 양허안 공개(1.29, 산업부·외교부 등) 서민 주거비 완화방안(4.6, 국토부)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4.7, 미래부)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4.15, 산업부) 농업의 6차산업화 성과 및 추진방향(7.15, 농진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정부 업무보고(1.13~22) 메르스 관련 부처 협업(5월말~, 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2-2. 정책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춘 국정철학 및 주요 정책 광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원활한 여건 조성 및 국민 공감대를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3.0', '공무원연금개혁', '문화가 있는 날', '메르스 극복 캠페인', '광복70년', '노동개혁', '국민건강실천 캠페인' 광고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행사 홍보 지원을 통해 성공적 대회 개최 및 국민 화합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광고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메르스 등 위기발생시 대응 컨설팅 등 효과적인 지원시스템 운영 및 부처의 위기 대응 역량강화 지원 필요
 - ☞ 매주 부처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회의 등을 개최하여 위기·갈등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계기관 홍보 공조·대응을 통해 위기관리 대응력 제고
 - ☞ 공무원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개설('16년~) 및 교육시간 확대(12시간→16시간)를 통한 공무원 위기관리 역량 향상 노력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개 세부 추진계획 모두 일정 대비 정상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캠페인 및 부처 공동 광고 추진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 이슈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 대변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성·운영(주 1회, 43개 전 부처가 참석하는 영상회의 정례화)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임 3주년, 연말 등 주요 계기 활용 주요 국정 성과 범부처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대변인협의회·온라인대변인회의시 주요 추진현황 점검 등 협력 홍보 강화 정부 내 사전협의제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139건 → '15년 239건 실시(171.9% 증대)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99 → (실적) 101 : 초과 달성 정부광고 만족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68.7 → (실적) 68.7 : 달성

□ 총평

- 정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홍보 간행물 발행을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 및 정책 이해도 제고
 - 위클리 공감, 카툰 공감, 손끝으로 읽는 국정, 고향가는 길, 국민생활 공감정책, 국정과제 정책모음집 등 정기·수시 간행물 발간
-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정책홍보 간행물 적시발간과 대국민 배포를 통해 충실한 정책 홍보
 -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논리 개발 및 간행물 기획·발간
-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한 주요 정책정보 종합서비스 및 정책정보 확산
 - '정책 하이라이트' 공식메일 연계, 국정과제 및 당일 발표 정책이슈 부가
- 찾아가는 홍보,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정책 기자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제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전달하고, 일자리 정보 등 국민이 관심있는 실용정보 확산으로 정책 이해도 증진 및 국민 소통 강화

□ 주요 성과

-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생활밀착형 정보와 정부가 알리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부족한 예산과 한정된 지면을 효율적으로 운용·활용하여 부수와 지면 활용도를 최대한 늘리고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을 통해 대국민 소통 역할 충실히 수행
 - 안정된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지속추진 : 1,845,600부
 - 정부대표 종이매체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 제작
 - 1,470,000부 발행 : 주간, 3만부 대국민 배포
 - 정부 유일 카툰(만화) 정책 정보지 '카툰 공감' 제작
 - 360,000부 발행 : 월간, 3만부 학생 등 젊은 층 공략 배포
 -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대표 정책 정보 접자간행물 '손 끝으로 읽는 국정' 제작

- 15,600부 발행 : 월간, 1천3백부 시각장애인 대상 배포
- 주요 정책 및 현안 홍보 비정기 간행물 발간 : 1,635,100부
 - 고향가는 길(설, 추석), 국민생활 공감정책, 국정과제 정책모음집, 대통령 국정메시지, 메르스 홍보 리플릿 등 9종
- 정책정보 사각지대 및 무관심 계층을 위한 홍보 콘텐츠 개선과 정책홍보 소외 대상자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
 - 만화정책지 : 친근한 콘텐츠 젊은 주제 지향 젊은 층 타깃 홍보
 - 접자간행물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보이스 아이스 활용 오디오 북 기능 수행
- 디지털 매거진(탭진), <위클리공감>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 One Source Multi Use 확산
 - * [운영실적] 탭진(누적다운로드 432,013건), 블로그(총 방문자 1,811,630명), 페이스북(총 방문자 5,338,635명), 유튜브(총 방문자 26,068명) 등
- 네이버 모바일 앱 '경제M'을 통한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12.1~)
- 지속적인 정책간행물 품질 제고 및 배포처 개선 지속 노력
 - 매호 지속적 정책홍보 콘텐츠 보강 및 표지 등 디자인 개선
 - 정책 수요층, 오피니언 리더, 다중이용 장소 등 맞춤형 배포
- 정책브리핑 전문가 기고에 오피니언 리더 참여 확대 및 관계 강화
 - 현안 이슈 외에 각 분야의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고 확대
- 「특집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 ※ 국민공감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각 부처 업무보고 등 기(既) 운영
- 정책 관련 [키드뉴스] 제작 등 인포그래픽 다양화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 정책기자단 활용, 생활정책에 대한 쌍방향 소통 강화
 - 생활밀착형 정책의 기획·심층취재 강화로 국민과의 공감대 확대
- 홍보협업을 통한 콘텐츠 확산 강화
 - 온라인소통과와 협업을 통해 SNS를 통한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 및 방문자 유입 제고
 - 각 SNS채널에 특화된 콘텐츠 공급을 통한 파급효과 확대

- 블로그(정책정보), 페이스북(생활공감 콘텐츠), 트위터(이슈대응 콘텐츠), 카카오톡(비주얼 콘텐츠)
- 광복70년 기념 공감포토 사진공모 및 전시행사 개최를 통해 ‘광복70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사진을 매개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희망적인 미래를 연결하여 광복의 의미에 대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소셜메타블로그’ 메뉴 운영(<http://social.korea.kr>)으로 부처별 운영 중인 블로그, SNS 콘텐츠를 연계·종합서비스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이용 편리성 제고
 - 국정과제사진 등 국가 주요현안을 활용한 전 부처 기록사진 수집 및 공유로 온라인 사진 전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정책 포털 콘텐츠 만족도가 목표치를 초과한 71.3을 달성하였지만 당초의 목표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 ☞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의 성과지표를 68점에서 5점 상승한 73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 관련한 설문문항을 늘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디지털 매체환경으로의 변화 트렌드를 맞아 인쇄매체(예: 위클리공감), 정책기자단 활용 등이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정책포털의 경우 모바일 환경에 좀 더 능동적인 대응과 콘텐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 모바일 중심으로 매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웹진,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정책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음
 - * 디지털매거진 ‘탭진’(누적 다운로드 43만2천건, 월평균 1만4천건), 위클리공감 블로그(총 방문자 181만명, 일평균 2,027명), 페이스북(총 방문자 534만명, 일평균 4,714명), 유튜브(총 방문자 26만명)
 - 특히 ‘15.12월부터 네이버 경제M 코너에 위클리공감 콘텐츠를 제공하여 모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독자층을 확대하고 있음
 - * 네이버 경제M(총 방문자 9만2천명), 위클리공감 포스트(총 방문자 9만6천명)

- ☞ 정책브리핑 유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개편 완료(‘15.12월) 및 관련 이벤트 실시(‘16.2월) 예정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작 확대, 디자인 개선, SNS 운영·연계, 모바일 주소 자동변환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22개 세부 추진계획 모두 일정 대비 정상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각 부처-정책포털간 정책정보 연계와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과 콘텐츠 제휴 및 동시 검색 체제 구축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민간포털 사이트와 콘텐츠 연계로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 및 인지도 강화 ▪ 교수·연구원·언론인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 기고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공정한 의견 제시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 정책 포털 콘텐츠 만족도(점) - (목표)68 -> (실적)71.3 : 초과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정책현안 관련 각 부처 정책방향, 주요쟁점 등을 종합한 정책정보지를 매주 제공하여 정부 부처 정책홍보에 활용하고 정책 환류 개선에 기여 ▪ 범정부 정책기자단 운영으로 각 부처에 산재된 콘텐츠의 통합 허브 구축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범부처 협동 취재 등 유기적 대응으로 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는 등 매체 파급력 강화

□ 총평

- 국민의 직접 주도·참여를 통해 '수용자 중심'의 정책 소통 실현
 - 청년창업 대학생 '포럼 메이커스'(공모), 일·가정 양립 확산 참여형 캠페인 '가족단위' 참여, 전국 소외지역 중학교 교사·학생, 대학생PR동아리연합 등 정책 수용자 참여, 과정보형 홍보 추진
 - ✓ 대학생등 일반 국민이 직접 소통(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
 - 민간단체 협업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책 의지와 결합한 창의성 제고
 - 문화예술 작가(문화융성 관련), 3D프린팅 업체(제조업 3.0관련), 어린이집연합회(일가정 양립 관련),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청년 창업 관련), 서울행정학회(전문가 세미나 관련)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망 형성
 - ✓ 정책 이해관계자(public)와 협력적 관계(relation) 형성 등 선순환적 소통 생태계 구축
 - '정부중심 홍보' → '국민중심 소통' 변화를 위한 체계적·실천적 방법론 모색 및 세련된 정책 '소통 방식' 공유와 확산 병행 추진
 - '문화콘텐츠 활용 민관협력 소통방안' 연구(10~12월) 및 '공공PR 발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방영('15.10~'16.2월/EBS 다크프라임)
- <조선일보> '국민행복 캠페인' 관련 : 정부의 소통은 동기를 유발하고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 ... 변화된 소통 패러다임에 맞춰 계몽적 캠페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11.24)
 - <중앙일보, EBS뉴스> '청춘 사이드 포럼' 관련 : 청년층이 스스로 포럼 전반을 기획하며 함께 나누고 싶은 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강점 ... (10.23, 11.18)
- 온라인 환경변화에 발맞춰 정부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의 안정적 운영 및 모바일 채널 신설로 대국민 접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이슈에 대한 부처 협력 강화로 정책 소통 활성화
 - 정부대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통 채널의 안정적 운영·영상 서비스 중심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네이버 밴드

등 신규 채널 개설로 정책 콘텐츠 확산은 물론, 국민의 정책 이해도 및 친근감 제고

-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모바일 활용 강화 연구 진행 및 연구결과 부처간 공유로 모바일 이용자 급증 추세에 적극 대응
 - * 정부 부처의 모바일 페이지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모바일 소통 활성화 방안, 모바일 페이지 내 홍보콘텐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
- 국정과제 및 주요 홍보현안에 대하여 부처 협력을 통한 연계 홍보 추진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 및 홍보 효율성 제고

□ 주요 성과

국민중심 현장소통 확대

【'15년도 추진 개요】

- (목 적) '공급자 관점' 일방향 홍보(Push) 지양, '국민의 제안과 참여'를 적극 반영.
- (방 향) ①'민간 주도·참여'(bottom-up) ②정책, 문화 등 분야간 협업('소통 collaboration')
- (의 제) 청년 창업·일자리, 일·가정양립, 자유학기제, 문화융성 등 국민관심 핵심 정책
 - 국민 희망 '소통 주제' 조사 선행(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 온라인 / '14.12월)
- (방 식) '민간단체' 공모 선정(국민 참여, 소통 네트워킹 역량 등 고려), 사업 제안 수렴
- (내 용) '국민행복 캠페인' 등 민간과 국민 주도, 참여형 소통 활성화 4개 사업 추진

- '청년 창업(창직)' 관련 체험 공유 등 '소통의 장' 마련으로 미래지향적 공론 활성화 : '청년 창업' 관련 당사자인 '청년이 기획하는' 소통포럼 지원(10~11월, 서울, 대구, 전주)
 - 광복 70년을 맞아 청년고용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층 2030의 의견 수렴 및 불확실한 미래로 답답한 청년의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줄 소통의 장 마련, 미래지향적 공론 활성화 「광복 70년 청년소통포럼 '청춘사이다」 운영(전국, 5회/ 대학생 등 500여명 참여)
 - * <'2030 청년위원장' 구성·운영> 창업 준비생 등 20명(9.7~9.16 공모·선정)
 - ** △동교동 흥합벨리(10.15, 흥대합정) △성수동 카우앤독(10.22, 성수동) △대구 콘텐츠코리아 랩(10.29, 대구 동구) △전주 청년몰(11.5, 전주 남부시장) △구글캠퍼스(11.13, 강남)
 - ** 포럼 현장 오픈카톡(실시간 참여) 및 라이브폴(현장투표) 활용 참여자와의 소통 확대

○ 정책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 해서 수용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소통 활동 전개 : 청년 주도 '청년 일자리 정책' 소통 프로젝트 기획~실행 전 과정 지원(9~11월, 전국 10개 팀)

-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획안 공모 후 청년 주도의 정책소통프로젝트 직접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한 「청년의 눈으로 본 정책 '청년 매일 WINWIN 하라」 진행으로 청년층의 정책 수용도 확대 및 해당부처와 새로운 방식의 정책소통방안 공유

* 공모정책 ①고용디딤돌 프로젝트 ②스펙초월멘토스쿨 ③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④해외 취업지원사업 ⑤사회적 기업가 육성

* 오리엔테이션 ⇨ 정책이해도 및 주제 심화, 핵심 타겟 등 확정 ⇨ 프로젝트 보완멘토참여 ⇨ 실행

○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 협력을 통한 정책 홍보('국민행복 캠페인') : 핵심과제를 '행복' 키워드로 연계한 민간 캠페인 지원 (10~12월, 전국)

<국민행복 캠페인> 지원사업 추진>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사)문화예술사회공헌 네트워크, 네이버 해피빈, 문화기획 스타트업 위누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협업을 통한 <국민행복 캠페인> 진행

△ 국민행복캠페인 국민참여 공모 및 네티즌 투표 진행(10.14~12.2)

- 총 노출수(15만 PV), 총댓글 수(4,582개), 투표참여 수(27,148건)

- ① 「문화, 나를 춤추게 하라」 문화융성을 중심으로 '행복' 키워드를 연계한 민간협업 캠페인 진행

* △(목적) 문화 참여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생활 속 문화체험 기회' 확산 △(내용) 네이버 해피빈 협업, 공모와 대국민 투표를 통한 참여 활성화 및 주요 포털을 활용한 홍보확산△(공모진행)10.14~11.13(네이버 해피빈) △(1차선정) 20개팀 (전국 47개팀 지원) △(2차 국민투표) 10개팀 선정(지역별 문화사업 수행) △(최종 갈라쇼) 200여명 참석(일지아트홀)

- ② 「우리가족 행복시간표」 진행, 가정 친화 기업문화 공감대 확산 및 가족단위 실천 동기 부여

* △(배경) '일 중심' 사회 분위기가 '일·가정 양립' 현장 착근 저해 △(내용) '저녁이 있는 삶' 실현을 위한 개성 있는 '가족 라이프 스케줄' 공모·전시 △(진행) [가족 시간표 샘플 제작·배포(9월)] 웹툰작가 등 참여 ⇨ [대국민 공모전(10.14~23)] 매주 하루, 퇴근 후 시간표 짜기/시민투표(11.19~12.2) ⇨ [홍보] 시상식·전시회 개최(12월)

* 가족 스토리 공유 확산(12.23. 일지아트홀, 시상식 및 영상전시 진행)

- ③ (자유학기제+제조업3.0) 「꿈에 날개를 달다」 진행, 자유학기제를 통한 미래유망기술(진로) 체험기회 제공 및 제조업3.0에 대한 인지도 제고

* △(배경) '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대비 모델사례와 공감대 확산 필요 △(내용) 제조업 혁신 아이콘인 '3D프린팅' 활용, 소외지역 체험 교육 실시 △(진행) 전국 소외지역 중학교 14곳(10.21~11.24) ⇨ [작품화] 3D 프린팅 출력물 작품화

* 예술가 참여, 미디어아트 콜라보 교육(~12.14) ⇨ [홍보] 학생 작품 전시회 개최 (12.23.-28. 인사아트센터 B1 전시진행)

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경기(5)	창덕중학교(용인시)	강원(1)	철원중학교(철원군)
	창명여자중학교(여주시)	경상(3)	문명중학교(경북 경산시)
	병점중학교(화성시)		광평중학교(경북 구미시)
	덕소중학교(남양주시)		내덕중학교(경남 김해시)
전라(2)	고산중학교(인천시)	충청(3)	청란여자중학교(대전시)
	회현중학교(전북 군산시)		송강중학교(대전시)
	자은중학교(전남 신안군)		광혜원중학교(충북 진천)

○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 등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적 소통 활성화' : 「소셜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지원

세미나 명	주관단체	일시	장소
◇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 개혁	서울행정학회	10.23	전남대
◇ 우리 경제 진단과 구조 개혁	국가경영전략연구원	11.10	은행회관 컨벤션 홀
◇ 공공부문 경영혁신을 통한 정상화	서울행정학회	11.17	
◇ 미래 성장동력으로 융복합 문화산업 육성	문화관광연구원	11.24	
◇ 경제 혁신과 민간 주체의 역할	우리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연구학회	12. 8	

온라인 홍보 강화

○ 모바일 이용자 급증 추세에 적극 대응, 온라인 소통 강화

- 밴드 사용자 급증 추세에 맞춰 모바일 전용 SNS 밴드 채널(생활의 발견*) 개설 및 운영

* 2015년 3월 개설, 친구수 1만4104명('15.12.23 현재), 주 3-4회 살림에 보탬이 되는 카드뉴스 게재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운영 지속, 푸시메시지로 정책 전달

* 2013년 6월 개설, 친구수 29만6787명('15.12.23 현재), 푸시메시지 17건 발송

- 모바일 플랫폼 활용 방안을 담은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모바일 활용 강화 연구용역을 실시, 연구결과를 부처와 공유('15.9월)

- 시각 콘텐츠를 활용한 정책홍보를 위해 SNS 유튜브 채널 활용을 강화하고 부처와 함께 시각 콘텐츠를 제작 및 활용
 - 영상 소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영상 중심의 SNS 유튜브를 활성화 하여 정부대표 페이스북 등 다른 SNS와 연계 운영
 - * 친구수 12만3596명(부처 1위), 조회수 5797만5546회('15.12.23. 현재)
 - 멀티미디어 콘텐츠(영상/인포그래픽/웹툰) 제작 지원 및 유튜브 광고 지원을 통한 부처 홍보 지원
 - * 영상 20편, 카드뉴스 등 그래픽 7편, 웹툰 6편 등 33건 제작 지원 및 페이스북 광고 지원(영상 4편, 1,332만여회 노출, 78만여회 시청)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광고 활성화
 - 페이스북·유튜브 등 국민들이 활용하는 콘텐츠 중심, 네이티브 광고

- 정책수혜자의 정책홍보 직접 참여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광복70년·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등 주요 국정현안 및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 정책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 온-오프라인 연계한 프로모션 기획으로 파급력 및 참여도 상승
- 온라인 홍보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
 - 온라인홍보전문가 및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온라인 자문회의 진행, 최신 트렌드 및 정책홍보 환경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정책 홍보에 반영
 -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워크숍 계기 민간포털 관계자 및 온라인 홍보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강연자로 초빙, 부처 온라인 대변인 및 온라인담당자 대상 교육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지원

시기	광고내용	대상매체	노출 건수	시청 건수
2월	공무원연금개혁 영상(인사처)	페이스북	2,613,280회	44,378회
2월	문화가 있는 날(문체부)	다음	해당없음(배너광고)	
3월	3월 문화가 있는 날(문체부)	페이스북	2,237,719회	27,590회
5월	5월 문화가 있는 날(문체부)	페이스북	2,104,329회	22,728회
4~5월	경제정책 온라인 광고	언론사 웹페이지 배너광고		
6월	자유학기제 영상(교육부)	페이스북	5,832,750회	243,696회
6월	메르스 예방수칙 콘텐츠(복지부)	페이스북	3,799,277회	167,253회
6월	메르스 예방 광고	언론사 웹페이지 배너광고		
7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문체부)	페이스북	2,129,358회	33,430회
7~8월	맞춤형 복지 홍보영상(복지부)	페이스북	10,151,832회	2,201,789회
		유튜브	1,935,151회	274,958회
	핀테크 설명영상(금융위)	페이스북	1,705,826회	58,048회
	여름휴가 시 안전수칙(안전처)	페이스북	2,638,645회	87,383회
7~8월	지방재정개혁 영상(행자부)	페이스북	1,675,445회	47,764회
		페이스북	5,061,551회	969,974회
		유튜브	1,501,261회	221,240회
7~8월	감염병 예방수칙 영상(복지부)	기타 모바일광고	725,228회	127,925회
		페이스북	1,470,165회	325,521회
8월	광복70년 프로모션 홍보용 광고	페이스북	1,470,165회	325,521회
8월	창조경제 홍보 영상(미래·금융)	페이스북	3,149,727회	394,585회
8월	노동개혁 및 일자리(고용부)	페이스북	4,341,321회	1,379,878회
		유튜브	1,133,786회	175,462회
9~10월	세대별 일자리 정책(고용부)	네이버	브랜드검색광고	
9~11월	국민건강 실천 온라인 캠페인 (문체·복지·식약처)	네이버	623,799회	노출, 61,078참여
		페이스북	15,606,696회	
11~12월	정책현안 온라인 광고	페이스북	9,490,943회	1,553,775회
		유튜브	1,091,297회	216,714회
11~12월	국민행복 국정성과 광고	진행 중(페이스북, 유튜브, 판도라TV)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최근 수용자 중심의 온라인 소통 방식은 제안과 참여의 단계 (community 시대)를 넘어 공유와 개방(contents 시대), 개인화, 지능화, 맞춤화(context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디지털 시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빠른 변화를 반영한 온라인 소통 전략 고려 필요
 - ☞ 미디어 소비 패턴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개인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정부 부처의 모바일 매체 대응 최적화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통 노력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 소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32개 세부 추진계획 모두 일정 대비 정상추진
	1-2.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대변인 협의체 운영(44개 중앙행정기관, 월 2회 회의 개최) ▪ 네이버 해피빈, 사회공헌 마케팅 전문기업 코즈웍스 협업 캠페인 전개 ▪ 민간기업 컨소시엄의 사회공헌·문화예술단체의 네트워크 활용 국민홍보캠페인 추진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1-3.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복 70년 계기 온-오프라인 연계한 통합이벤트, 메르스 계기 국민건강실천캠페인 진행 내 마음의 심포 정책 등 정책으로 도움 받은 사례 중심의 감성적 영상을 활용한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 광고 진행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책이슈에 대한 실시간 여론흐름을 파악 및 대응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대표 SNS 친구수(만명) - (목표)57 -> (실적)65.6 : 초과 달성
	2-2. 정책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방향적 정보·메시지 전달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청년층 등) 및 전문가(학회, 연구소 등) 주도·참여 공론의 장 제공으로 '양방향적' 소통 실현 정책홍보 의제 관련 민간단체, 문화예술 단체, 학교, 기업, 언론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통한 홍보 콘텐츠 생산, 공유로 '수용자 중심' 소통 실현 다양한 방식의 SNS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모션을 통해 주요 정책정보의 효과적 전달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

64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미흡
-----------	-------------------	-----------

□ 총평

- 케이블·위성·IPTV·인터넷·모바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부정책 등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국민들의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임
- 국정비전 홍보강화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
 -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국정과제 등 집중 조명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 시청자가 찾아보는 국민희망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친화형 프로그램 확대
 - 국민 편익을 위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확대
 - 문화융성 체감도 제고 및 인문 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시청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NS, 인터넷라디오 등 플랫폼 다변화 및 저채널화를 위한 채널 마케팅 적극 노력
 - 정책영상콘텐츠 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스마트 미디어 응용 콘텐츠 개발·유통 강화
 - 채널인지도 제고 및 시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채널 마케팅 추진
- 정부 3.0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정부 부처 간 정책홍보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에 정부 영상자료 등 공공저작물 자율이용 확대 조치
- 세종청사 방송시설에 적합한 최신 방송제작시스템 마련
 - 통합 방송정보시스템(NPS) 장비 구매, 차세대 UHD 방송 편집 시스템 구축 및 이중화, UHDTV에 적용가능한 4K 촬영장비 구매 등을 통해 차세대 방송제작이 가능한 환경 마련

□ 주요 성과

○ 「KTV 국민방송」 출범 후 지속적인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강화

- 국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송 이미지 구축
 - * “대한민국 정책퀴즈왕”, “살맛나는 이야기 미담”, “KTV 어울림 콘서트” 등
- 정부정책 국민 공감 유도를 위한 국민기자단 운영
 - * 캠퍼스기자 147명, 시니어기자 70명, 주부기자 39명, 글로벌기자 39명 등 총 295명
 - * 국민리포터 1,377건 제작 방송(‘14년도 1,094건)
- 국민 의견수렴 및 반응을 위한 환류 기능 강화
 - * 방송자문위원회(10인) 및 KTV 방송 모니터 운영(시청자 모니터 5명, 전문 모니터 5명)
 - * 프로그램 합동평가회, 시청자 소감문·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내부직원 및 외주제작사 대상) 신설

○ 핵심개혁과제·4대 국정기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4대 국정기조 홍보 강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부흥 프로그램 확대
 - * “정책오늘”, “혁신을 혁신하라”, “철밥통은 가라”, 청년희망펀드, 금융·노동개혁, 임금피크제, 중소기업 육성 대책, 청년 채용 종합 대책, 한중 FTA 등 집중 소개
 - 국민안전·생활편의 등 국민행복 정책정보 제공
 - *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대담 및 실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통(通)”·“행복한 오후”
 - * 대한민국 행복 정책 현장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대한민국 긍정에너지와 시대정신 확산 프로젝트 “살맛나는 이야기 미담” 등
 - 모두가 누리는 문화융성 프로그램 제작
 - * “국악콘서트 울림”, “대한민국 기적의 DNA”(세계에 자랑할 만한 유무형 자산 소개), “카메듀서의 영상미학”, “다시보는 문화영화”, “KTV 특집-밀라노 엑스포” 등
 - 평화통일로 가는 민족화합 추진
 - * “파워특강” : 통일 어떻게 달성하나, 남북통일 전망과 탈북 청년들의 역할 등
 - * “KTV 중계식” : 북한에 부는 한류, 통일을 부른다, 백건우 통일음악회 등 다수 프로그램
 - * “통일NOW” : 통일부와 협업하여 현재의 통일정책을 생생하게 전달
- 광복 70주년 등 국가 주요행사 국민 참여와 동참 분위기 확산
 - * “일본 패전, 그후”, “만남”, “적도로 간 조선청년들” 등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생중계 및 국민리포터 기획 시리즈로 실시간 정보 제공
- 핵심개혁과제, 국정성과 등 정부 정책 홍보 강화
 - *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 ‘새로운 혁신, 새로운 미래’(KTV 특별기획 생방송),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등 정부 주요정책 발표 현장 (생)중계 등(82회)
 - * 규제개혁현장(국조실 협업), 맞춤형정서서비스 정부 3.0(행자부 협업), 도전 꿈과 끼를 키워라(자유학기제 관련)

- 대통령 해외순방 3단계 홍보(사전, 순방 중, 사후) 추진
 - * 사전(순방의 의미), 순방 중(진행 일정 및 성과), 사후(성과를 다큐로 제작)
▲중동4개국(3.1-9) ▲중남미 4개국(4.16-27) ▲중국(9.2-4) ▲미국(9.25-30,10.13-18)
▲중국, 터키 등(11.14-23) ▲프랑스, 체코 등(11.29-12.5)
- 정책 뉴스 쇼 형식을 가미한 “시청자가 보는” 정책 프로그램 신설
 - * 정책 오늘 : 일일정책 이슈·현안 중심, 명쾌한 분석·해설 통한 긍정적 정책여론 형성
 - * 베테랑 :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에게 직접 듣는 정책 대담 프로그램
 - * 유쾌한 방송사고 : KTV 정책전문기자가 유쾌, 재미있게 풀어가는 현안 정책정보
- 정책 홍보 영상물 제작·배포
 - * 병영문화혁신(국방부), 학교폭력예방(교육부), 건강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건강지킴이(질병관리본부), 일·학습병행제(고용노동부), 성폭력 인식개선(여가부), 메르스 극복 등
- 청와대·총리·부처 장관 대상 정책 점검현장 소통 프로그램 제작
 - * 주간 청와대 소식(주 1회), SNS 주간 정책현장(주 1회), 활짝 청와대 이야기(수시)

○ 플랫폼 다변화 및 채널마케팅 강화를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 주요 정부정책 생중계 및 기관협업 녹화영상 대국민 홍보 활성화
 - * 생중계 협업 531건, 영상전달 655기관, 시청건수 134,136건
- 정부 보유 매체 간(15개 기관), MSO, 지역민방, 민간 포털 등 콘텐츠 교류
 - * 43개 매체 16개 정규 프로그램, 수시 특집 등 제공 / 네이버 등 민간포털(27,610건) 제공
 - * 네이버 TV 캐스트 제휴서비스 운영(441건 등록, 152,926건 조회)
 - * 관련 정부부처 정책콘텐츠 공유(50개 부처 / 7,904건 발송)
- SNS 등을 통한 정책 콘텐츠 확산
 - * SNS 전담부서 운영 / 1,714건 콘텐츠 업로드 및 2,025,206건 조회수 기록(유튜브)
 - * SNS 매체별 이용현황 : 페이스북 12,054명/ 트위터 70,946명/ 블로그 2,175,556명
 - *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방송 연간 조회수 : 16,945,980건
- 정부 3.0 협업 우수 사례 제작 및 유관기관 프로그램 공동기획
 - * 협업 우수 사례 : 살맛나는 이야기 미담 『2015 국민제안 UCC 공모전』 국민들의 정책 제안 UCC 제작 방송 및 시상식 개최(110편 응모, 5편 포상)
- 미래부·MSO 등 관계기관 방문 등 저채널화 마케팅 지속 추진
 - * MSO, 개별 SO 방문, 프로그램 지원 협력 강화
- 정부기록영상 HD 디지털 변환추진, 민간 활용도 제고
 - * 대한뉴스 필름 100% 완료, 대한뉴스 예비촬영필름(60시간), 문화영화(100시간) 변환
- 국민적 관심사안 및 주요정책 일일 SMS 뉴스속보 서비스 제공
- ‘케이블TV VOD’에 ‘철밥통은 가라’ 등 VOD 150여편 제공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KTV 시청률 제고를 위한 대표 '킬러 콘텐츠' 프로그램 마련
 - ☞ 시청자가 찾아보는 '킬러 콘텐츠' 를 제작, 수요자 중심의 타겟별 선호 매체(지하철, 버스, 온라인 광고 등) 활용 광고 추진

- 대중 캐릭터 '코코몽' 활용, 국민편의·생활공감정책 중심 홍보
- '대한민국 정책퀴즈왕' 시즌II 제작·방영(6월초)
-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
- * 시청자 정책 제안 '시민 발언대, 마이크 ON'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개 세부 추진계획 모두 일정 대비 정상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매체, 유관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3개 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등) 내 KTV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50개 부처 대상 뉴스레터 7,295건/ 민간포털 25,662건 제공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시청자들의 매체소비태도 변화에 따라, 인터넷 방송 조회수 및 모바일 방송 조회수를 '15년 성과지표에 온라인 방송 조회수로 반영하였음 ▪ 세종시 BRT 자막방송 운영, KTX 객실 내 KTV 콘텐츠 송출 등 공공시설을 통한 KTV 채널 및 프로그램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제, 이슈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 관심도가 떨어지는 젊은 층을 겨냥하여 최신 정책 정보와 정책상식을 제공하는 '정책퀴즈왕' 제작 방송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방송 조회수(천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16,667 -> (실적)16,945 : 초과 달성 ▪ SNS 사용자 조회수(천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1,600 -> (실적)2,025 : 초과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국정기조 관련 프로그램 제작, 정부 부처 정책발표 생중계 등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제작·방송으로 국민들의 정부 정책 공감대 확산에 기여 ▪ 방송시청이 SNS, 모바일로 옮겨가는 미디어 환경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변화에 따라 SNS, 모바일 등 플랫폼을 다양화하였고, 실제로 SNS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14년 1,523천건→'15년 2,025천건)

* (정부3.0) ▲KTV영상자료 적극공개, 영화 방송 전시 활용 ▲국민제작한 UCC, 방송프로그램 방영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1-③)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작은도서관 1관당 연간 대출책수’ 평가지표 개선 필요	○‘작은도서관 1관당 연간 대출책수’ 평가지표 개선 - ‘관외대출 가능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1관당 연간 대출책수’로 평가지표 개선 예정
(I-2-②) ○우리말 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국어문화원 신규 지정 신청 등 (‘15.5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 *우리말겨루기 지역별 예선 및 전국대회 개최 추진 계획 확정	○국어문화원연합회 전국 규모 신규 사업 추진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KBS와 연계하여 KBS 도전 골든벨 ‘한글날 특집’으로 추진 확정(8월) -지역별 예선대회(8.30.) 및 본선대회(9.13.) 개최(지역 예선참가 접수 2,435명, 본선대회 참가자 100명) -KBS 도전 골든벨 ‘한글날 특집’ 방송(10.4./10.9.)
(I-3-①)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	○(뉴욕관광문화센터)유찰에 따른 사업자 미선정으로 당초 일정에 차질 발생	○조달청을 통한 국내시공업체 입찰방식에서 현지 발주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15.12월 PM 업체 선정 및 공사업체 압찰 공고 완료)
(II-1-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체계 마련	○예술인 복지 확대(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부와 협의 중이나 부처간 이견으로 제도개선에 애로 *가입방식(임의↔강제), 보험료 지원 방식에 대해 문체부/고용부 간 이견	○ 국정과제 추진회의(‘15.9.16, 국조실주재)를 통한 합의안 도출(임의가입 방식 도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세부조건(보험료율, 실업조건 등) 협의 중(‘15.10월~12월)
(II-1-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 문화 진흥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 착공 지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소유 부지(코바코연수원, 경기 양평 소재) 내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나 토지사용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 코바코와 토지사용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하여 협의·노력하되(‘16.5월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전반에 대한 재검토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I-1-④) ○국립전통예술 중고 운영	○ 학교 건축물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인문관(예술관)과 기숙사 일부 보 및 기둥의 내력이 부족하여 구조보강과 적극적인 정책효과성을 위한 대안 필요	○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별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내진보강, 지진위험도가 있는 타 시설물에 대하여도 단계적인 내진성능평가 추진 - 시행 및 소요예산 : ‘16년 하반기 (50백만원) - 대상 : 인문관 및 기숙사 건물동
(II-2-③) 국악중고 운영	○ 1991년 신축이후, 25년 이상 경과된 고등학교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필요	○ 연차적인 예산확보 및 장기적인 시설물 정비 계획을 통해 점진적인 개보수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 - (‘15년도 실적)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2대(예술관동, 학과동), 개인연습실 흡음시설(92실) 완비 등 - (‘16년도 계획) 고등학교 노후배관 교체 및 화장실(29개소) 개선, 무용실 바닥공사, 시청각실 및 음악실 흡음설비 등
(III-1-④)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 문화창조융합벨트 연말대비 추진 일정 점검 필요	○ 문화창조아카데미 기본계획 연구용역(6~9월, 국토연, 콘진원 공동연구) *2년 6학기제 등 기본운영방향 확정, 커리큘럼 등 수립(9월) 실시 ○ 문화창조벤처단지 개관이 내진공사 추가 등의 사유로 일정(‘15.11월→12월)조정,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업 입주(‘15.12.18~30)를 연내 완료
(III-4-④)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도서 정가제 이후 출판산업 점검 필요	○ 출판유통시장 동향 모니터링 -도서정가제 시행 D+1년 모니터링 주요결과 ①시간 가격 : 평균 6.2% 하락(단행본) ②신간 발행 총수 : 7.4% 감소 ③신간의 베스트셀러(20위권) 점유율 : 90%, ④구간 재정가: 7.625중, 당초 정가 대비 44.6% 하락 ⑤학습참고서(2학기) 가격 : 1학기 대비 1.6% 하락 ⑥지역서점 이용 도서구입 지자체(도서관) : 45개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p>○ 도서정가제 보완을 위한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p> <p>*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도정제 예외) 중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도정제 적용, 도정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함(100만원→300만원)</p>
<p>(III-4-④) ○ 출판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p>	<p>○ 메르스 확산으로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일정 연기</p>	<p>○ 메르스 확산으로 개최시기 조정 (당초) 6.17~21 ⇒ (변경) 10.7~11 - 18개국의 303개사가 참가하여 540부스 설치운영</p>
<p>(IV-3-①) ○ 전략적 해외 홍보 관광 마케팅 실현</p>	<p>○ 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래관광객 감소 및 관광산업 위축</p>	<p><조치실적> ○ 관광업계 경영난 지원과 한국관광 불안감 해소 및 사태 종식 이후 관광수요 재창출을 위한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 지속 시행 및 보완 - 관광사업자 대상 특별용자(794억원 선정, 482억원 집행(7월~12월)) - 주요 방한국 대상 집중 홍보마케팅 실시(하반기) - 한국관광 안전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7~12월) * 한중 장관회담(7.14,8.24), 한홍콩 장관회담(7.16), 한일 정부간협의회(12.3), 한중 우호교류단 파견(8.24~25), 한일 우호교류단 파견(9.1~2) 등 - 지역 축제 및 행사 집중 지원(7, 8월) -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실시(8~10월)</p>
<p>(V-3-②) ○ 스포츠 산업 기술기반조성</p>	<p>○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등 세부추진업무 신속 추진 ○ 연간 추진계획일정 준수로 지원 업체에 사업의 신뢰성 제고 필요</p>	<p>○ 2016년에는 사업승인 및 사업자 선정을 최대한 사업조기 실시 예정 - 사업승인 및 공고(~2월까지) - 사업선정평가(3월~4월) - 협약체결(~5월까지) *15년에 사전검토체계 개선, 2016년 과제기획 조기 추진</p>